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5호

5월 1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60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잡 지

·제 5 호 (174)

1960년 5월 15일

차 례

당 사업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

3 모든 부문에서 당적 령도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김 일성 동지는 모든 부문에서 당적 령도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오늘 누가 우리 나라의 혁명과 모든 정책에 대한 방침을 내세우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 당이다. 우리 당이 우리 혁명을 령도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정치를 지도하고 있다.…우리 당은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최고의 조직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직이 다 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다≫(1958, 4, 29. ≪전국 사법, 검찰 부문 일'군 회의에서 진술한 연설≫).

≪…당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조직적이며 향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권 기관과 경제, 문화 기관, 사회 단체 등은 당의 령도 밑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군중 속에서 집행한다. 만일 정권 기관과 경제, 문화 기관들의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데 큰 장애로 될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

정권 기관과 모든 경제, 문화 기관들의 사업 성과 여부는 매개 부문에서 일하는 당원들의 열성과 책임성에 달려 있으며 당 단체의 역할에 달려 있다≫ (1956, 4, 7. ≪평안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388～390페지).

≪…우리가 많은 사업 분야를 검열해 보고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인민 경제 각 부문들에서와 기타 모든 부면에서 당의 령도를 강화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

* 전 호에서 계속.

…

…인민 위원회들은 해당한 도, 시, 군 당 집행 위원회의 통제하에 자기 사업을 해야 하며 공장에서는 공장 당 위원회의 지도 밑에 모든 일이 수행되여야 한다》 (1959, 12, 4.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우리 당은 로동 계급과 기타 근로 인민들을 령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유일한 전투적 조직이다. 또한 우리 당은 조선에서 계급 투쟁과 혁명을 령도하는 유일한 당이다.

우리 당의 령도를 거부하는 것은 곧 혁명을 거부하는 것이며 자본주의에 대한 투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령도를 거부하는 수정주의자들과 투쟁할 것은 물론이고 수정주의가 싹 틀 수 있는 일체 불건전한 요소들과도 무자비하게 투쟁해야 한다》 (1958, 3, 6. 《제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당의 령도라는 것은 어느 군 당 위원장 개인의 령도가 아니다. 그것은 당이라는 조직의 집체적 령도를 말한다. 즉 모든 당원들이 당 조직에 복종한다는 말이다》(1959, 12, 4.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어떤 동무들은 통제라는 말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 령도나 통제나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다. 어떤 개인의 통제를 받는다면 어떨는지 모르겠으나 당의 통제를 받는 데 무엇이 나쁘겠는가. 당의 통제란 곧 당원 대중들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혁명적 군중 관점이 서 있다면 당의 통제라는 말을 싫어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우와 같은 문헌).

《…물론 당이 쓸 데 없이 행정을 대행하는 것은 방지해야 하겠지만 당은 정권 기관의 모든 사업을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의 기술이 천하에 제일이라는 기술 지상주의를 내걸고 당의 령도를 허심하게 받아 들이지 않는 옳지 않은 경향이 있다.…

당의 의지와 령도를 떠난 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당은 사회주의 건설에 복무하는 그런 기술, 당의 혁명 과업을 실행하는 그런 기술만을 요구하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1958, 3, 6. 《제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매개 일'군들은 누구를 물론하고 당적 통제를 시끄러운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것을 자기 사업에 대한 간섭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

조선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 가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총명하다 할지라도 호상 물어 보고 토론하는데 무엇이 시끄러운 것이 있으며 위신이 떨어질 것이 있겠는가?

앞으로 당 부서들은 행정 사업을 대행하거나 그의 뒤끄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완전한 당 사업 즉 당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 주위에 대중을 광범히 묶어 세우며 당 정책 집행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 경제 기관들에서 일하는 동무들은 누구를 물론하고 당 부서들과의 련계를 잘 가지며 당적 지도와 통제를 허심하게 받아야 한다》(1959, 10, 21~22.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와 문화 혁명 수행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당의 령도 체계를 확립하며 집체적 지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당 기관이 정권 기관 사업을 책임적으로 지도하라는 것은 정권 기관 사업을 가로타고 앉아서 독판을 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당이 정권 기관 사업을 지도한다는 것은 그 기관의 당 조직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옳게 침투시키며 그 기관 내 당원들을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956, 4, 7. 《평안 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 선집, 제 4권, 1960년판, 390페지).

《당 위원장과 행정 일'군과의 관계는 비유해 말하면 배에서 키잡는 사람과 노 젓는 사람과의 관계와 같다. 행정 일'군은 앞에서 노를 젓고 당 위원장은 뒤에 앉아서 키를 잡고 좌로 우로 하고 지시하면서 방향을 옳게 잡아 주어야 배를 곧바로 몰고 갈 수 있다》(1959, 2, 21, 2, 26. 《당 사업 방법에 대하여》).

《군 인민 위원회는 군 당 위원회 앞에서 책임지는 행정 부서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 인민 위원회는 모든 사업을 반드시 군 당과 협의해야 한다.

군 인민 위원회가 도 인민 위원회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다면 군 인민 위원장은 그 지시를 집행할 데 대하여 반드시 군 당 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군 당 위원장은 혼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면 군 당 집행 위원회 토의에 부쳐야 한다.

군 당 집행 위원회는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가를 토의하며, 사업 분공을 할 것이다.

군 인민 위원장은 군 당 집행 위원회의 결정 대로 사업을 집행해야 하며 군 당 위원장은 초급 당 단체들과 당원들이 동원되도록 하며 당 결정이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감독해야 한다》(1958, 3, 7. 《도, 시, 군 당 위원회 위원장 및 인민 위원회 위원장들 앞에서 한 연설》).

《공장 내에서 최고 기관은 지배인이 아니라 공장 당 위원회이다. 공장 당 위원회의 령도 밑에 지배인과 당 위원장이 일하게 된다. 공장 당 위원회에서

경제 사업도 토론하고 그 결정에 의하여 지배인은 행정 사업을 집행하고 공장 당 위원장은 당 사업을 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유일 관리제가 취소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 위원회의 령도 밑에 지배인이 자기 사업을 집행하면 된다》(1959, 12, 4.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속담에 〈구두쟁이 셋이 모이면 제갈량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또한 〈소경이 셋이 모이면 못 보는 편지를 뜯어 본다〉는 말도 있다. 이것은 집체적 지혜가 사업에서 얼마나 큰 힘을 가져다 주는가를 말하는 것이다》(1956, 4, 7. 《평안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391페지).

《집체적 지도란 모여 앉아 회의나 하고 공인된 〈권위자〉들이 토론이나 하고 미리 준비된 결정서나 통과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집체적 지도라는 것은 광범한 군중의 창발성에 의거하여 그 지도 기관 전체 성원들의 적극적 참가 밑에 모든 문제를 심의, 처리하며 모든 사람들의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느 한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에 의하여 사업이 독단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956, 4, 7. 《평안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392페지).

《집체적 지도는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실행하는 데서 어떤 개인의 주관적 독단을 방지하고 광범한 협의를 통하여 집체적 지혜로써 문제의 옳은 해결을 보장하여 준다.

…우리는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에서 집체적 지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우리 일'군들이 항상 대중과 다수의 의견에 관심을 돌리며 그에 의거하여 사업하는 작풍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1955, 4, 1.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251~252페지).

《…협의제를 통하여 사업 경험을 총화하며 사업의 전진을 위하여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면서 집체적 총명과 지혜를 모아 더욱 빨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1953, 8, 5. 《모든 것을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50페지).

《집체적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각급 지도 기관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일부 일'군들은 위원회의 사업을 결정서나 작성하여 통과시키는 것으로써 대행하고 있으며 위원들의 창발성을 발양시키지 않고 있다.…

…각급 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이는 대책의 하나는 그 구성을 개선하는 것

이다.…

…각급 당 지도 기관과 국가 기관들을 로숙한 혁명 간부들과 정치적으로 잘 준비되고 실무적으로 능숙한 일'군들로 꾸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955, 4, 1.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252페지).

《…당, 정권 기관의 각급 위원회들은 당과 국가에 충직하고 유능한 일'군들로 구성되여야 하며 거기에는 로동자도, 농민도, 경제 일'군도, 기술자, 문화인도 참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여야 위원회에서 좋은 창발적 의견들이 제기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1956, 4, 7. 《평안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392페지).

김 일성 동지는 당 정책 집행에 대한 검열과 그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 당 사업의 목적은 결정서의 채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채택한 결정서의 실현에 있다. 그런데 결정 실현은 결정 실행에 대한 해당한 검열로써만 보장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 집행에 대한 검열은 우리 당 조직 사업의 기본 형태 중의 하나이다》(1952, 12, 15. 《로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선집, 제 4권, 1953년도 판, 364∼365페지).

《정확한 검열 사업의 조직은 당 기관들의 사업 형편을 밝혀 주는 탐조등으로 되며 관료주의자들과 형식주의자들을 폭로하는 강력한 방법으로 되는 것이다.

…

사업 실행을 정확히 검열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두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그것은 첫째로 사업 검열을 기회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둘째로 사업을 검열할 때에 사업 검열을 하급 일'군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책임 지도 일'군들이 검열할 것을 요구한다.

…

…당의 지시와 결정이 하급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일상적으로 검열하며 검열에 대한 온갖 형식적 작풍들을 시급히 시정하고 당 검열을 당 로선의 수준에까지 제고시켜야 한다. 그리하기 위하여서는 당 지도 일'군들은 우선 검열에 파견되는 당원들에게 검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며 검열의 목적과 과업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주어야 한다》(1948, 3, 28. 《북 조선 로동당 제 2차 전당 대회에서 진술한 당 중앙 위원회 사업 결산 보고》, 선집, 제 2권, 1954년도 판, 79페지).

《…검열은 결정 실행의 조직과 긴밀히 련결되여야 한다. 검열하는 사람은 사

업에 있어서 람용이나 결점들을 적발하는 것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제때에 퇴치하도록 당 단체들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1952, 12, 15. 《로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선집, 제 4권, 1953년도 판, 366페지).

《지도 검열 사업에 파견된 동무들은 당원 대중들에 의하여 발견된 결함을 고치도록 방조해 주며 고칠 데 대한 방법도 당원 대중들과 함께 그 현지에서 얻어내는 것이다…

우리 당 일'군들은 가방을 들고 행세나 하기 위하여 돌아 다닐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강연도 해 주며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집 마당도 쓸어 주고, 그들과 밥도 같이 먹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알아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일깨워 주어야 한다》(1958. 3. 7. 《도, 시, 군 당 위원회 위원장 및 인민 위원회 위원장들 앞에서 한 연설》).

《…어떤 당 일'군들은…검열 사업을 조직함에 있어서 당원들을 교양하며 그들의 잘못을 비판 시정하여 주며 그들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 정탐식, 경찰식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당원들을 위협 공갈하며 처벌을 되는 대로 한다. 그리하여 검열 받는 당원들로 하여금 공포를 가지게 하며 당 검열을 두려워하고 귀치 않게 생각하게 하는 일도 적지 않다. 그 결과 많은 당원들이 거짓말로 검열에 응하게 되며 당 기관들은 하부의 실정을 알 수 없게 된다》(1955, 4, 1.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244페지).

《…검열 지도 사업에서 검토는 날카롭게 하고 처리는 관대하게 하는 것이 좋다. 날카롭게 하라는 것은 결코 위협을 하고 심문식, 정탐식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교양과 설복의 방법으로 날카롭게 검토하여 진상을 똑똑히 밝혀야 한다. 함부로 모자를 씌우지 말고 할 말을 다 시켜야 한다》(1958, 4, 26. 《당 검열 사업과 관련하여》).

특히 당 기관 일'군들이 당 세도를 근절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어떤 어리석은 당 일'군들은 당이 맡겨 준 사업은 하지 않고 당 세도를 부리는 것으로써 당 사업을 대신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당 일'군들은 당 기관에 앉아서 당이 내세운 정책이 잘 집행되는가 안 되는가를 알아 보고 그것이 잘 집행되도록 사업을 조직하여 주며 잘못되는 것은 제때에 고쳐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앉아서 호령만 하고 있다》(1955, 4, 1.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243페지).

《물론 누구나 다 당성이 있고 당을 사랑하며 당을 받들어야 할 것만 사실이

다. 누구나 다 당의 로선에서 리탈되거나 당 생활에서 벗어 나서는 안 되며 반드시 당 생활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 생활 규범은 당원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각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 단체 위원장의 위신은 당 제도에 의해서 유지될 것이 아니라 그의 참된 령도력에 의하여 보장되여야 한다》(1959, 2, 21. 2, 26. 《당 사업 방법에 대하여》).

《당 위원장은 행정 기관에서 일하든, 사회 단체에서 일하든 기타 어디서 일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기수가 되여야 하지 구령을 부르는 사람이 되여서는 안 된다.…

당 위원장은 대렬의 선두에 서서 기'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하며 모든 일에서 남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당 일'군은 사업에 있어서는 대중의 선두에 서는 기수가 되여야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되여야 한다》(《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9년 2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결론》).

4 지도를 하부에 더욱 접근시키며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기 위하여

김 일성 동지는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며 일'군들을 실속 있게 도와 줄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 군들에 조성된… 새 환경과 조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협동 조합의 규모가 커졌고 할 일이 많아졌으며 조합원들의 의식도 발전하였으므로 농촌 지도에서 이에 상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리 당 위원회나 관리 위원회 일'군들에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집체적 력량인 군의 령도 집단이 하부에 내려 가 직접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그 지도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1960, 2, 18. 강서군 당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한 연설 요지).

《당 결정서나 각종 지시문을 내려 보내고 덮어 놓고 하라고 소리만 치고 돌아 다닌다면 사업에서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다.

…

…당 기관이나 국가 기관이나 경제 기관 할 것 없이 상부에서 하부에 방조를

주는 방향에서 사업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하부 일'군들이 사업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리하여 우리 당의 매개 세포가 건전하고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생활을 하며 대중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며 당의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서 대중의 창발성을 발전시키도록 생기발랄하게 활동하게 된다면 우리의 사업에서 더욱 거대한 전진이 있을 것이다》(1955, 4, 4. 《사회주의 혁명의 현 계단에 있어서 당 및 국가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278페지).

《지금 군 당 위원회나 군 인민 위원회 간부들은 리에 내려 가서 며칠씩 묵으면서 현지 지도를 하지 않고 군에 앉아서 불러 들여다가 전부 내려 먹이고 있다. 그러니까 주입식이 됐다. 받아 먹든 못 먹든 자꾸 내려 먹인다.

그래서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좀 소화시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소화불량증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앉아 있다. 이것이 우리 령도에서 결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지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1958, 8, 5. 《자강도 당 단체들 앞에 나서고 있는 몇 가지 과업》).

《시, 군 당 위원장 동무들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중 속에 들어 가는 문제이다. 사무실에만 앉아 있지 말고 하부에 많이 내려 가야 한다.

시, 군 당 위원장 동무들은 한 달에 적어도 두 번 이상은 초급 당 단체 회의에 참가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농촌, 공장, 학교 등 각 부문의 당 회의, 분조 회의에 많이 참가할 것이며 군중 회의들에도 자주 참가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원들의 당성이 어느 정도인가, 당원들의 사상-정치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당원들의 군중 령도 능력이 어떤가, 시, 군 당 위원회가 당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1957, 7, 5. 《도, 시, 군 당 일'군들과 당 조직원들 앞에서 진술한 연설》).

《일이 잘 못된 다음에 리 당 위원장을 처벌하느라고 하지 말고 지도하는 방법, 사고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결심을 채택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줌으로써 일을 잘 하도록 하여야 한다》 (1958, 8, 5. 《자강도 당 단체들 앞에 나서고 있는 몇 가지 과업》).

《일반적 정형을 알아 보기 위하여 공장에 나가는 것과 실정을 료해하며 연구하기 위하여 나가는 것은 같지 않다.

실정을 료해하고 연구하자면 적어도 한 공장에 가서 1주일 이상 묵어 있으

면서 지배인과 담화할 뿐만 아니라 로동자들과도 담화해야 할 것이다.

당 회의에 참가하여 당원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며 생산 협의회에 참가하여 혁신자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그 공장 사업에서 무엇이 결함이고 무엇을 해결해야 전반적 고리가 풀릴 수 있는가를 명확히 알 수 있다》(1959. 10. 21~22.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와 문화 혁명 수행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령도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업에서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일반적 지도라는 것은 해당 사업에서 당의 정치적 목적을 대중에게 침투시키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당의 일반적 호소와 지도를 말하는 것이다.…

…개별적 지도라는 것은 해당 사업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구체적 조건과 대중의 의식 수준과 동향을 깊이 연구하여 그 특수한 조건에 가장 적합한 구체적 실천 대책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 지도에 개별적 지도를 결합시킴으로써만 당의 결정과 지시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 조건과 대중에게 적합한 투쟁 형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사업의 중심 방향을 명확히 알고 경중을 갈라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
…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옳게 결합시켜 당의 정책을 인민 대중의 실지 생활과 투쟁에 결부시키며 인민 대중이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조건을 지어 주며 대중의 투쟁 경험을 다시 일반화하는 것이 당의 진정한 령도 방법이다》(1955, 4, 1.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248~250페지).

김 일성 동지는 당 사업에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며 객관적인 현실에 기초한 과학적인 지도 방법과 주동적이며 창발적인 사업 태도를 견지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오늘의 당 사업을 과거와 대비해 볼 때 많은 진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당 사업에는 행정적이며 관료주의적인 폐단이 적지 않다》(1959. 2. 21.2. 26. 《당 사업 방법에 대하여》).

《…군중을 조직하며 인도할 대신에 명령하며 군중을 가르치며 군중 속에서 같이 호흡할 대신에 군중을 모른다고 뒤떨어졌다고 욕하며 군중과 한덩어리가 되지 못하고 군중과 리탈하는…이런 것이 즉 관료주의이다》(1947. 8. 28.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북조선 로동당》, 선집, 제 1권, 1955년도 판, 466페지).

《…혁명 사업이 군중을 배반하고 군중과 리탈하여 소수 지배 계급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인민적 통치 방법인 관료주의와 어떻게 상용될 수 있겠는가? 혁명 사업은 인민을 위한 것이며 관료주의는 인민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 사업에서 관료주의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1955. 4. 1.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240페지).

《관료주의병도…하루 아침에 퇴치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오래 전부터 관료주의를 반대하여 싸워 왔지만 아직까지도 그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똑똑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옳지 못한 사업 방법의 잔재를 완전히 뽑아 버리기 위하여 계속 꾸준히 투쟁하여야 한다》 (1959, 2, 21. 2, 26. 《당 사업 방법에 대하여》).

《…형식주의적 일'군들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결정서나 지도서를 무수히 채택하여 하급 당 단체에 발송하면 되는가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승리가 가혹한 투쟁 속에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잘 꾸며낸 장식한 형식적 결정서에 의하여 자연 생장적으로 오는가고 생각한다》 (1948, 3, 28. 《북조선 로동당 제 2차 전당 대회에서 진술한 당 중앙 위원회 사업 결산 보고》, 선집, 제 2권, 1954년도 판, 81페지).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에 진리를 탐구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분석하여 보지 않고 모든 사업을 주밀하게 조직하지 않고 문제에 봉착할 때에는 기계적으로 또한 조잡하게 하며 걸치레만 하고 내용이 없는 사업 작풍들을 가리켜 형식주의라고 한다》(1947, 8, 28.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북조선 로동당》, 선집, 제 1권, 1955년도 판, 466페지).

《문제를 처리할 때에 그 문제를 세밀히 연구하며 내용을 분석하며 문제 처리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지은 후에 그 문제 해결에 착수하며 문제 해결에 착수한 후에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집행하는 사업 작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에 표면과 형식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진리와 실지를 추궁하는 사업 작풍을 수립하여야 한다》 (1948, 3, 28. 《북조선 로동당 제 2차 전당 대회에서 진술한 당 중앙 위원회 사업 결산 보고》, 선집, 제 2권, 1954년도 판, 82페지).

《결정을 하나 채택하는 것도 하부 일'군들의 간단한 보고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상당한 기간 하부에 침투하여 현실을 똑똑히 파악한 기초 우에서 신중히 하여야 한다.

…

우리의 매개 지도 일'군들이 자기 사업을 신중하게 집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당 중앙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까지 지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당 중앙은 하급 당 단체들과 각 부문에서 활동하는 지도 일'군들의 보고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이다》(1959, 10, 21～22.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와 문화 혁명 수행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문제는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방해하며 대중의 창발력을 억제하는 보수주

의, 관료주의 및 사무실적 작풍과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배격하며 당 지도 일'군들로부터 전체 당원들에게 이르기까지 군중 속에 깊이 들어 가 그들에게서 배우며 그들과의 산 련계를 맺으며 그들의 애국적인 발기를 지지하며 그들의 무궁 무진한 력량을 집결 동원할 수 있는 당적 작풍을 체득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는 데 있다》(1957, 12, 5.《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한 보고》).

《…우리 당은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과 하부 실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그에 기초하여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

…

그러나 어떤 일'군들과 당 단체들은 객관적 현실을 조사, 연구, 료해, 분석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적게 하며 리론적 기초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부 당 단체를 지도하거나 어떤 문제를 관찰 분석하며 결론을 지을 때에 그 내부적 본질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처리하여 엄중한 오유를 종종 범하고 있다.

또한 일부 도, 시, 군 당 위원회의 책임 일'군들은 자기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 사업에 대한 과거와 현재를 련결시켜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며, 그것을 옳게 총화 분석하고 옳은 결론을 지어 사업의 지침으로 삼지 않으며, 자기의 주관적인 추측과 판단에 의하여 모든 사업을 처리하며, 목전에 제기되는 단편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전망성 없이 사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제기된 문제들을 고립된 상태에서 보고 그것을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며 심한 경우에는 당의 정책을 외곡 집행하고 있다.

이것은 당 사업에서 일'군들의 창조적 적극성을 저하시키며, 그들을 기계적이고 고식적인 사업 방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며, 당 일'군들의 중요한 품성의 하나인 새 것을 감촉하고 그것을 지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 관점을 흐리게 하는 등 엄중한 결함들을 발생시키고 있다》(1956, 4, 23.《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546~547페지).

《우리 당원들, 특히 도, 시, 군 간부들이 당 정책을 실정에 맞게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를 악물고 애를 쓰면서 일해야 한다.

하면 하고 말면 마는 태도로 혁명에 참가하는 뚝거리 공산주의자가 돼서는 싸움을 못 한다》(1959, 11, 30.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에서 한 결론 속기록 요지).

《사업에서 주동적 립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남이 나가는 바람에 들떠서 당 정책을 심각히 연구하지 않으며 문제를 침착하게 분석하지 않으며 현실에 깊이 침투하지 않고 주관주의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등 심중치 못한 것이 우리

지도 일'군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결함으로 되고 있다.

남의 바람에 들떠서 돌아 다닐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려서 자기 자리에 튼튼히 앉는 것이 중요하다》(1959, 10, 21~22.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와 문화 혁명 수행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군 당 위원장, 군 인민 위원장, 리 당 위원장, 리 인민 위원장들의 창발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가능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서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결정서에도 글자를 딱 박아 넣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당 중앙에서 로선이 쭉 서면 거기에 근거하여 자기 군내 인민들이 더 잘 살도록 창조적으로 일해야 되겠는데 맥상모를 내라 하면 예 하고 영양단지를 하라 하면 영양단지만 하고 그 이상 더 나가지 않는다》(1958, 8, 5. 《자강도 당 단체들 앞에 나서고 있는 몇 가지 과업》).

《군 당 위원장들은 강습을 받고 와서는 한 1년 써 먹을 밑천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강습만 주면 다 되는 줄 안다.

또 강습 받은 리 당 위원장들은 군 당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만 하고 다른 것을 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결경은 아래 사람들은 우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창발적으로 사업을 조직하는 것은 아주 미약하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결정적으로 고쳐야 한다. 도에서는 군 당과 군 인민 위원회가 창발성을 많이 낼 수 있는 조건을 지어 주고 군에서는 리 당과 리 인민 위원회들이 창발성을 내도록 조건을 지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우와 같은 문헌).

5 모든 당원들을 다 움직이도록 하기 위하여

김 일성 동지는 모든 당원들이 당 정책의 본질과 당 중앙 위원회의 의도를 명백히 알고 군중 속에서 조직 동원자적 역할을 제고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당이란 곧 당원 대중이 뭉친 조직체이다.

당 사업이란 바로 이 조직체를 어떻게 강화하고 움직여 나가는가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 당이, 전체 당원들이 다 일상적으로 당의 규약상 요구

대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다》(1960, 2, 18. 강서군 당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한 연설 요지).

《…100만 당원을 다 당의 충직한 전사로 만들며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군중 사업을 할 줄 알고 당원의 선봉적 역할을 옳게 수행하게 한다면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는 더욱 튼튼하여질 것이며 당의 전투력은 더욱 제고될 것이다》(《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9년 2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결론》).

《…당 중앙 위원회 사람들만 같은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도 당, 군 당, 초급 당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 같은 소리를 해야 한다.

각급 당 일'군들은 당 중앙 상무 위원회의 의도와 당의 정책을 우선 옳게 리해하여야 그것을 옳게 집행할 수 있다》(1958, 3, 7.《도, 시, 군 당 위원회 위원장 및 인민 위원회 위원장들 앞에서 한 연설》).

《…중요한 것은 당 정책의 철저한 관철이다. 당 정책을 어김 없이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당 정책의 본질을 인식해야 한다. 당 정책을 심오히 연구하며 그를 대중에게 해설하고 침투시킴으로써 당 정책이 대중을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김 일성 동지는 당원들의 조직 동원자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초급 당 단체를 튼튼히 꾸리며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초급 당 단체는 우리 당의 세포이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인체 내의 매개 세포들이 건전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을 공고화하려면 그의 세포 조직인 초급 당 단체를 강화해야 한다. 초급 당 단체들이 모두 건전하게 강화된다면 필연코 전 당이 강화될 것이다》(1957, 7, 5.《도, 시, 군 당 일'군들과 당 조직원들 앞에서 진술한 연설》).

《…당 세포를 강화하려면 매개 세포 내에 세포의 핵심 분자들을 양성하며 세포의 사업 분공을 옳게 조직하며 당원들에게 맡긴 과업들을 잘 실행하는가 못하는가를 검열하며 또한 제때에 시정해 주며 세포 회의를 계획성 있게 하며 그 세포가 처하고 있는 환경과 조건에 적응하도록 사업 방침들을 수립하여 토론하여야 하며 세포 내에서 당적 비판과 옳은 분석을 전개함으로써 세포 사업을 사기 침침한 세포로부터 활발하고 긴장한 산 세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48, 3, 28.《북조선 로동당 제 2차 전당 대회에서 진술한 당 중앙 위원회 사업 결산 보고》, 선집, 제 2권, 1954년도 판, 78폐지).

《초급 당 단체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시키는 것이다.

당성 단련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당에 대한 당원들의 충실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1957, 7, 5. 《도, 시, 군 당 일'군들과 당 조직원들 앞에서 진술한 연설》).

당원들의 《…당성 단련, 당성 제고도 오직 당 생활에서만 가능하며 당 생활을 잘 하는 데서만 될 수 있다》(1958, 3, 1. 《내무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 당원들에게 있어서 당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임무는 없다. 당원들은 다 당 생활에 참가하는 것을 제일 가는 임무로 알아야 한다. 이것을 떠나서는 당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우와 같은 문헌).

《…당내에는 당성이 강하고 사업 수준이 높은 당원이 많은 반면에 아직 정치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지 못한 당원들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며 그들의 당성 단련과 계급적 각오 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당원들이 규약상 의무를 옳게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당 규약은 당원들의 일체 활동과 생활의 기본 표준이며 기초이다.…

… 적지 않은 당원들은 당에 충실하려고 하지만 당 규약상 의무와 당 생활의 원칙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당 규률의 본질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적지 않은 당 단체들은 경제, 문화 건설에서 당원들이 하여야 할 역할과 당 규률에 대한 자각적 태도, 당 사업 토의, 당내 사상 투쟁에서의 그들의 적극성을 높이며 대중과 단결할 줄 아는 인민적 사업 작풍을 수립하는 등 당원들의 당 생활에서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측면에는 주의를 돌리지 않고 당 회의와 당 학습에의 참가, 당비 납부 등 초보적인 요구에 머무르고 있다.

이리하여 적지 않은 당원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당 사업 분공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자기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당 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

당 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내 민주주의를 발양시키며 비판과 자기 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강화하며 각급 당 단체들의 일체 활동에서 집체적 지도 원칙을 확고히 지킴으로써 당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여야

하다》 (1956, 4, 23.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541~543페지).

《이와 함께 당원들의 당 생활을 조직 지도하는 간부들로부터 당 생활에 충실하여야 한다.

…

… 당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당 결정에 충실히 복종하는 것은 그 공로와 직위에 관계 없이 전체 당원들에게 의무적이여야 한다는 레닌적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 (우와 같은 문헌).

《…누구를 물론하고 당 생활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그는 언제든지 이러저러한 오유와 과오를 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 생활을 기피하는 경향과 강한 투쟁을 전개하며 이와 동시에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1958, 3, 6. 《제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당원들의 당 생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모든 당원들이 혁명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교양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조직된 선봉대이다. 혁명을 령도하며 인민 대중을 령도하는 당 조직에 어떻게 당원들을 되는 대로 받아 들였다가는 맞갖지 않다고 간단히 내쫓을 수 있겠는가? 당에 받아 들인 이상에는 그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참을성 있게 교양하여야 하며 비록 과오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정하고 더욱 충실한 당원이 되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1956, 4, 7. 《평안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386페지).

《…당 지도 기관은 당원이나 당 간부들이 사업을 잘 하고 있는가, 잘못 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사업에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 당 학습을 잘 하는가, 못 하는가 등 당원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항상 세심한 관심을 돌리면서 그에게 적당한 지도와 방조를 주어야 한다》 (우와 같은 문헌).

《…당은 언제든지 어머니와 같은 태도로서 당원들에게 대하여야 한다. 그들에 대한 사상 문화 교양과 그들의 생활 문제에 대하여 일상적인 관심을 돌려야 하며 당 기관, 당 조직, 당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은 항상 당원들을 교양하고 설복하여야 한다》 (1959, 3, 23. 《조선 로동당 함북도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한 연설》).

《당은 당원들에게 항상 아이를 기르는 어비이와 같이 대하여야 한다. 아이를 기르는 어버이 치고 자기 아이가 잘못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돌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 자기 아이가 강'가에 나가 물에 빠질 위험이 없는가, 길'가

에서 차에 치울 위험이 없는가, 거짓말을 하지나 않는가에 대하여 늘 보살피게 마련이다.

당 조직 사업도 바로 이렇게 해야 하며 당원들의 성격과 사상 동태, 그의 우점과 결점을 잘 알아 가지고 그가 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세심하게 보살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당은 당원들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알려 주며 그들의 사업상 결함들을 제때에 고쳐 주어야 한다. 그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술을 많이 마시지 않도록 충고하고 도덕적으로 부화하지 않도록 타일러 주며 부르죠아 사상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미리 손을 써서 그러한 영향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당 단체는 어느 한 당원도 나쁜 길에 들어 서지 않도록 주의를 돌리며 매개 당원을 항상 따뜻하게 보살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충고를 주어도 듣지 않고 계속 나쁜 길로 나아가려는 당원이 있다면 그를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빠져 나오도록 더욱 적극적인 방조를 주어야 한다. 례를 들어 집안 식구가 병에 걸렸다면 그 병이 감기인가, 속병인가를 진단하여 적당한 약을 쓰듯이 당원이 과오를 범하였을 때에는 과오를 범하게 된 원인을 구명하고 그 과오를 시정하도록 그에게 효과적인 동지적 방조를 주어야 한다.…

당원들의 사상상 또는 행동상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동지적 교양을 주는 것, 이것이 당원들에 대한 우리 당의 기본 태도이다》(1956, 4, 7. 《평안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386~387페지).

《…초급 당 단체들은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당에 무한히 충실하며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도록 교양하며 당을 위해서는 어떠한 간난 신고라도 무릅쓰고 투쟁해 나갈 각오를 가지며 당을 해치고 당을 반대하려는 그 어떤 자들과도 결정적으로 투쟁하며 당의 리익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싸울 수 있는 투사가 되도록 교양 훈련해야 한다》(1957, 7, 5. 《도, 시, 군 당 위원장들과 당 조직원들 앞에서 진술한 연설》).

《…당 조직은 당원들을 항상 교양하는 동시에 사업을 분공하여 실천적인 투쟁에로 인입하며 당원들은 또한 항상 로동자, 농민, 사무원 등 광범한 비당원 군중 속에 들어 가 군중을 교양하고 군중 생활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모든 일에서 군중의 선봉에 서고 군중이 곤난해 하는 일에는 먼저 뛰여 들어 가 실천하며 일에서나 학습에서나 모범이 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군중 속에서 혁명 투쟁의 기수가 되여 군중을 교양하고 이끌어야 한다》(1959, 3, 23. 《조선 로동당 함북도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한 연설》).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군중 사업을 잘 조직할 줄 알도록 지도해야 한다.

군중 사업을 잘 하려면 매개 당원들이 령도 예술을 소유해야 한다. 령도 예술을 소유함이 없이 다만 당에 대한 충실성 하나만으로써는 당원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

당원들이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군중을 당 주위에 튼튼히 집결시키며 그들에게 당 정책을 옳게 해설하여 주며 그의 실행에로 대중을 조직 동원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다 당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하려면 군중과 사업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초급 당 단체들은 민청, 직맹, 녀맹 등 사회 단체 사업과 통일 전선 사업을 잘할줄 알며 로동자, 농민, 녀성, 청년, 학생, 문화-예술인… 등 각계 각층 사람들 속에서 능숙하게 사업할 수 있게끔 당원들을 교양 훈련해야 한다. 만약 매개 당원들이 모든 사람들과 능숙하게 사업할 수 있는 령도 예술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이다.

또한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반당 분자,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철저히 전개하도록 그들을 교양해야 한다.

…

또한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경제를 운영하며 생산을 발전시킬 줄 아는 당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각 부문의 초급 당 단체들이 당원들을 이렇게 교양한다면 그 당 단체들은 물론이요 전 당이 더욱 강화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1957. 7. 5. 《도, 시, 군 당 위'원들과 당 조직원들 앞에서 진술한 연설》).

《…당 단체들은 당원들의 군중 공작을 일상적으로 주의 깊게 지도 방조하여야 하며 군중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함들을 엄격히 비판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나 인민 대중에게 명령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하여야 하며, 대중의 무진장한 창조적 력량에 의거할 줄 알게 하며, 일상 생활에서 소박하고 겸손하며 우리의 인민적 례절과 풍습들을 존중하며 그것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양 훈련하여야 한다》(1956. 4. 23.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515페지). — 끝 —

박 종순 편집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심화될 것이다

남조선에서의 대중적 인민 항쟁은 거대한 첫 승리를 거두고 계속 심화되여 가고 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는 이 사변에 대하여 똑똑한 견해를 가져야 한다. 똑똑한 견해를 가진다는 것은 곧 우리 혁명의 기본 문제인 조국의 통일 위업에 대한 명확한 행동 방침을 오늘 변천된 조건에 적합하게 가질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된다.

모든 현상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현재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외면상 현상과 그 근저에 흐르고 있는 본질적 과정을 명료하게 구분하는 문제다.

이 본질적 과정, 경향을 포착할 때에만 우리는 그릇된 평가와 불필요한 환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이미 남조선 사태 발전에 대한 심오하고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남조선에서의 정확한 투쟁 로선을 제기하였으며 우리 당이 취하여야 할 실천적 대책들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호소문과 재 정당 사회 단체 지도자들의 련석 회의 성명은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을 표명하였으며 남조선에 조성된 사태로부터의 유일하게 확실한 출로를 명시하였다.

인민 항쟁과 《자유 세계》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남조선 주구들은 리 승만의 파쑈 독재 정권이 무너지리라고는 리 승만이 쫓겨날 직전까지도 생각지 못하였다. 또 생각할 수도 없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총검과 딸라만 있으면 남조선 사람들을 마음 대로 예속시킬 수 있다고 믿었으며 리 승만 역도는 미국 상전에게만 잘 보이면 만사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승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한다》는 강도적 수법을 《3.15 정 부통령 선거》의 날조와 남조선 각 도시에서 일어난 인민들의 평화적 시위에도 꺼리낌 없이 적용하였다.

그러나 4월 26일 서울시 시위 군중들이 경무대를 포위하였을 때에 리 승만은 혼겁한 나머지 공포의 경련을 일으켰고 리 기붕은 자살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제일 혼쌀난 것은 미국 상전이였다. 리 승만이나 리 기붕이나 기타 졸개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어서 자기들의 개인적 세도와 출세와 생명이 문제로 되였다. 이들이 놀마든지 죽는다

든지 그리 큰 문제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의 경우에는 남조선에 대한 그들의 정책, 나아가서는 그들이 온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문제로 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이 지배하며 세력을 부식시키고 있는 세계의 모든 곳에서 본질상 남조선에서와 꼭 마찬가지의 침략적 예속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그들이 그렇게 미화하여 오던 《자유》, 《민주주의》, 《자유세계》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그들의 정치, 정책 일반에 대한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상치 못한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헛된 수작을 하기 시작했다.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15년 간 자기들이 길러냈고 꾸며 준 리 승만 정권을 다른 것으로써 교체한다는 것은 그리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였으며 또 절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였다. 그러나 리 승만 도당을 회생시키는 것은 미국 정치의 손상에 비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리 승만을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써 남조선 사태의 원인이 자기들과는 관계 없이 오직 리 승만의 잘못에만 있는듯이 인민을 기만하기로 작정했다. 아이젠하워와 허터의 지시를 받아 《수한》 미국 대사 맥코노이는 이 방향에서 맹《활약》을 개시했다. 4월 26일만 하여도 맥코노이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경무대에 날려 갔으며 끝내 리 승만의 사퇴를 승낙시켰다.

그날 벌써 미국 통치 집단과 더불어 맥코노이는 미국 정치의 손상을 《모면》하기 위한 자기들의 《고안의 순조로운 진척》에 대단히 만족했다. 맥코노이는 리 승만이 자기 비운을 원망하여 통곡하고 있는 바로 26일 밤 자기 활동의 《성과》를 축하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과 전 세계 인민이 그들의 서투른 술책에 절대로 넘어 가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들이 《성공》을 운운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미국 통치 집단의 이 어리석은 술책은 바로 미국 내의 부르죠아 신문들까지도 옳게 폭로하였다.

미국의 이름난 시사 평론가 월타 립프만은 금번 남조선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 국가는 미국 무기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미국의 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으며 미국의 보조금에 의하여 유지된다. 전 세계가 이에 대하여 알고 있으며 따라서 남조선 정부의 행동에 대하여 합중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전 세계는 간주하고 있다》.

리 승만 도당이 우리 인민 앞에 지은 죄행은 열 번 목을 베여도 다 결산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

리 승만 도당의 이 모든 범죄는 미국 상전의 지시와 조종하에 수행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에서와 같은 수작을 하고 있을 때에 미제의 다른 괴뢰들은 리 승만 도당에게 책망과 욕설을 퍼부었다. 어제까지 리 승만을 훌륭한 통치자라고 찬양해 오던 대만의 장 개석 도당, 남부 월남의 느고 딘 디엠, 토이기의 멘데레스, 서반아의 프랑코 도당들이 앞을 다투어 리 승만 도당을 비난하였다.

이것은 우연하지 않다. 이 괴뢰들과 과쑈 도당들은 남조선 사변에서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의 자기들의 운명을 보았으며 거기에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 자들은 자기들이 리 승만 도당과는 전혀 다른 통치자라는 것을 인민 대중에 보이기 위한 서투른 연극을 꾸미기 시작하였다. 장 개석 도당의 대변인은 리 승만이 15년 간에 한 일은 《자유 세계》를 훼손시키는 것 밖에 없다고 비난하였다.

이와 같이 미제와 그의 졸개들은 남조선 사변을 오직 리 승만의 특수한 개별적인 실책에서 나온 국부적인 사변으로 묘사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남조선 사변은 결코 리 승만 도당의 일시적 실책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미제가 남조선에 강요한 《자유 세계》의 모순의 폭발인 것이다.

리 승만 도당의 일시적 실책이나 《정부통령 선거》나 김 주렬 소년의 총살 사건이나 기타 개별적 사건들은 모두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15년 간에 걸친 학정 속에서 시리고 서린 남조선 인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항쟁으로 발전하는 계기로 되였을 따름이다. 우리는 사건의 원인과 계기를 똑똑히 구별해야 할 것이다.

남조선 사회의 모순이 금번 사변의 원인으로 되였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또한 이 모순을 격화시킨 강력한 요인에 대하여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공화국 북반부에 확립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사회주의 건설의 거대한 성과인 것이다.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인 성과 특히 최근 수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는 남조선 사회의 내부 모순을 결정적으로 격화시켰으며 남조선 통치 집단의 정치적 위기를 헤아릴 수 없이 촉진시켰다.

로동자, 농민의 국가이며 모든 근로자들의 자유와 행복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국가—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남조선의 광범한 대중에게 커다란 혁명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건설의 거대한 성과는 남반부 인민들의 의식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우리는 어째서 북반부 인민들과 같이 실업이 없고 굶는 일이 없고 누구나 무료로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처지에서 살 수 없는가》고 남조선 인민들이 생각하게 되였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실지로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문제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며 사람들을 그의 해결을 위한 투쟁에로 일떠 서게 한다.

사회주의 건설의 거대한 성과는 남조선 인민 대중의 반미 반리 승만 감정을 더욱 첨예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 통치 집단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는 커다란 요인으로도 되였다.

통치 집단 내부에서는 리 승만 도당이 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성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격증하였으며 자기 자신의 신분상 안전을 위하여 동요하는 자가 붙어 갔으며 이 모든 것들은 통치 집단 내의 갈등과 알륵을 격증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조선 인민의 역적 리 승만을 물러나게 한 남조선 인민 항쟁의 승리는 또한 우리 당 정책의 승리, 공화국 인민의 승리로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커다란 긍지감과 응당한 권리로써 말할 수 있다.

인민 항쟁의 의식성과 조직성

남조선 인민 항쟁이 우에서 언급된 그러한 원인에 기초한 것만큼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지주, 예속 자본가의 리익을 대표하는 통치 집단—의 세력을 반대하는 데 돌려진 투쟁이였다. 항쟁의 결과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이 투쟁은 우선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통치, 나아가서는 미제의 식민주의 전반에 타격을 주었으며 남조선 통치 계급인 예속 자본가와 지주에게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 투쟁은 충분히 의식화되지 못하고 통일적으로 지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 항쟁 주력의 계급적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이번 항쟁에서 주력이 로동자, 농민으로 될 수 없었는가, 이 계급들은 가장 혹심한 착취와 억압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중적 정치 투쟁에서의 의식성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남조선에는 공업이 전면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조건에서 우선 로동자들의 수가 극히 적다. 더우기 대규모 기업이 거의 없는만큼 집중화되고 계급적으로 각성된 로동자들은 더욱 소수에 불과하다.

물론 로동 계급의 선봉적 역할은 그 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근대적 프로레타리아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은 대중의 정치 투쟁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변 행정에서(부분적 공장의 로동자들을 제외하고) 남조선 로동자들은 이 항쟁이 자기들의 정치적, 경제적 리해 관계와 어떻게 결부되는가를 충분히 인식 못하였으며 따라서 선두에 나서지 못하였다.

로동 계급은 비록 근대 사회의 가장 선진적 계급이지만 그들 속에 당에 의하여 사회주의적 계급 의식이 고취되지 못하고 반대로 반동 계급의 어용 단체들에 의하여 계급 의식이 마비되는 조건하에서는 자기의 응당한 력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맑스주의 진리를 금번 사건이 또다시 실증하여 준다.

농민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는 남조선 주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분산된 농민들이 로동 계급 또는 그의 전위대의 지도가 없는 조건에서는 조직화될 수 없으며 성과적인 투쟁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에 지방적으로 봉기가 일어난 경우는 있었으나 항쟁이 고조될 때에 이에 합류하지는 못하였다.

금번 항쟁에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정치 정세에 대하여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으며 그들의 생활 환경이 집단적 행동에로 넘어 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이다.

로동자, 농민들이 조직화되고 각성되지 못한 조건에서 학생들은 어느 계층보다 정치의 부패성에 대하여 민감한 계층이다.

그들은 외국인들이 남조선에서 민주주의를 찾는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자는 것과 같다고 평가하는 것도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었으며 학생 총살 사건에 대하여서는 그 누구보다도 격분을 참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이 제일 처음으로 선거의 협잡성과 학생 학살 사건을 반대하여 집단적 시위에로 나섰다. 시위 과정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들은 더욱 각성되였으며 단순한 《선거》 날조나 경찰관의 잘못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 정치 일반에 문제가 걸리고 있다는 것까지도 의식하게 되였으며 의식 정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그만큼 더 명백히 표시된 정치적 구호를 들고 나섰으며 더욱 대담하게 나섰다.

여기에 대하여서는 남조선 인민 항쟁 과정이 똑똑히 우리에게 말해 준다.

3월 15일 마산시에서 약 1만 명 시위가 단행되였을 때에 그들은 전날 감금된 《학생들을 석방하라》는 구호와 《선거 무효다》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다.

약 10일이 지나 간 후에 학생들은 문제는 리 승만 도당의 지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여 처음으로 《리 승만 정부는 물러 가라》라는 구호를 들기 시작하였다.

그 후 투쟁이 격화되자 시위 군중은 더욱 격분된 구호 《리 기붕 죽어라》, 《살인 경찰 잡아내라》 등을 들고 나왔으며 행동도 더 조직화되고 대담하게 되여 갔다.

항쟁은 4월 25~26일에 절정에 달하였다.

시위 군중들은 《자유당 본부》, 《특무대》, 《반공 회관》, 리 승만의 대변 신문이며 괴뢰 정부의 기관지인 《서울 신문사》들에 불을 지르고 리 승만의 거처인 《경무대》와 괴뢰 《중앙청》, 《한미 경제 협조처》를 습격하였으며 수 많은 경찰서, 파출소를 파괴, 소각, 점령하였으며 리 승만의 즉시 사퇴를 요구하여 나섰다.

그리하여 항쟁은 결국 15년 간이나 세력을 자기에게 집중시켜 온 리 승만이와 그의 일부 졸개들을 통치 지위에서 쫓아내고 말았다.

항쟁은 미제와 남조선의 예속 자본가, 지주의 통치 체계를 심히 약화시켰으며 그들의 정치적 지배에 불안정 상태를 조성케 하였으며 남조선에서 지금까지 야만적으로 탄압 당하고 있던 혁신 세력이 정치적 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조건들을 조성하였다.

이것이 인민 항쟁이 거둔 성과이며 승리이다.

그러나 남조선에는 계엄령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인민들의 자유로운 사회 생활을 구속하고 있으며 정부에는 리 승만과 같은 미제의 충실한 주구 허 정 도당이 리 승만을 대신하여 들어 앉았다. 남조선 근로자들의 생활 처지에는 아무러한 변동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남조선은 그대로 미제의 식민지로 남아 있다.

즉 항쟁의 근본 원인으로 된 남조선 사회의 모순은 해결되지 못하였다.

남조선 인민의 항쟁이 다만 선거를 다시 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데만 돌려지지 않고 점차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남조선 정치 전반을 반대하는 데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남조선 지배 계층들은 커다란 위협을 느

끼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제의 조종하에 항쟁을 저지시키기에 힘을 합치였다.

그들은 《혁명은 이미 수행되였다. 자숙과 질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대중을 기만하면서 항쟁을 저지시키기에 발광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항쟁자들을 대량적으로 체포 구금하며 다른 편으로는 《쇄신》, 《민주주의》 등의 빈말로써 대중을 회유하는 간교한 술책을 쓰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대중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능숙하게 령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도적 력량을 가지지 못하였고 리 승만 도당이 물러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환상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대중들의 투쟁은 더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 더욱 높은 단계에로의 투쟁은 로동자, 농민의 기본 군중의 각성과 투쟁에서의 대중의 조직성, 의식성을 요구한다.

4월 26일 리 승만 도당이 쫓겨났을 때에 항쟁자들은 남조선 정치에서 커다란 변동을 기대하였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대중의 정치 사회 생활에는 아무러한 변파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항쟁자들이 흘린 피의 응당한 대'가는 지불되지 않았다.

이러한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대중들은 미제와 그의 주구들이 인민의 도살자이며 극악한 원쑤라는 것을 더욱 자각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비록 더 소규모적이나마 4월 26일 사변 후 시위는 계속되였으며 대중들은 더 급진적인 구호들을 들고 나섰고 로동자, 농민, 걸인(乞人)들이 더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부산 부두 로동자들의 시위 투쟁과 거창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났다.

부산시와 기타 도시들에서의 시위자들은 《기성 정치인은 물러가라!》 《국회는 즉시 해산하라!》는 요구를 제기하였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이 남조선 정치 전반을 반대하는 더욱 심각한 투쟁에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에서는 점차적이나마 대중의 더욱 위대한 혁명적 진출이 배태되여 가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치 투쟁에 일떠 선 대중들은 실지 체험을 통하여 한걸음 한걸음 더욱 의식화되고 조직화되여 왔으며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대중의 정치 투쟁 발전의 합법칙성이다.

남조선 항쟁자들의 조직성과 의식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 것은 항쟁 발전의 매 시기에 우리 당이 남조선 인민들에게 정확한 투쟁 대책과 구호를 제때에 제시해 준 사실이다. 우리 당은 마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벌써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며 더욱 커다란 사변으로 발전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으며 투쟁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적절한 방침과 구호를 제시하였다. 우리의 방송이 전하는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의 지지 성원의 목소리는 시위자들과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 추동하였다.

지도자의 결여와 조직성, 의식성의 미약으로 인하여 인민 항쟁이 아직 혁명적 진출에로까지 발전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로동당원들과 모든 의식적인 사람들은 해방 직후 남조선에서 조직된 우리 당의 당 조직들을 적에게 넘겨 완전히 파괴시킨 박 헌영, 리 승엽 간첩 종파 도당의 죄악을 다시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항쟁의 교훈을 통하여 당원들은 종파는 혁명을 말아먹는다는 이미 체험한 진리를 또다시 새삼스럽게 간직하게 되였다.

이번 인민 항쟁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맑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는 겉으로는 강한듯이 보이나 내막은 허약하다는 것을 항상 지적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레닌은 제국주의는 《진흙으로 만든 다리》라고 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일제나 미제나 할 것 없이 그의 연약성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완강하고 비타협적인 반제 투쟁 방침을 고수하여 왔다.

인민 항쟁의 상술한 제 특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 통치 기구에 그와 같은 타격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은 제국주의의 허약성에 대한 맑스주의자들의 평가의 새로운 확증으로 된다.

금번 남조선 인민 항쟁은 우리 인민이 굳게 단결한다면 그 어떠한 적도 물리칠 수 있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으로부터 반드시 몰려 가게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하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항쟁은 미제의 예속하에 놓여 있거나 또는 그의 영향하에서 압박 받고 착취 당하고 있는 모든 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였다.

남조선 인민 항쟁과 관련하여 일본 인민들의 《일미 안전 보장 조약》 반대 투쟁이 더욱 앙양되였으며 토이기에서 독재 정부를 반대하는 광범한 시위 운동이 전개된 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투쟁은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남조선 사태는 김 일성 동지가 이미 규정한 그대로 발전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리 승만 대신에 허 정 도당을 내세워 《과도 정부》를 꾸리고 있으나 남조선에서 그들의 통치 기반은 계속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 인민 항쟁의 결과에 조성된 남조선 《정부》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통치 세력은 현재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그것은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을 자체로서 해결할 길은 도저히 없으며 따라서 인민 대중의 사회 경제적 요구를 초보적이라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며 통치 집단 내에서의 정치 투기업자들의 갈등과 내홍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은 이러한 사태로부터의 《출로》를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경제적 원조》의 증대와 《강력한 정치》의 확립에서 찾아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이와 같이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정치적 안정》의 명목하에 그 피묻은 침략적 마수를 우리 땅에 더 뻗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남조선 인민도 이제는 미제의 통치, 미제의 《원조》가 결국 무엇을 가져 오는가를 더욱 명백히 인식하게 되

였다.

가령 남조선에 딸라가 더 들어 온다고 치자. 그러나 남조선에 미제와 부패한 정치가 남아 있고 협잡'군들이 통치적 지위에 그대로 남아 있는 조건에서 민족 경제 발전에나 인민들의 생활 문제 해결에 한푼도 돌아 가지 않으리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경제 원조》가 지금까지 잘못 《리용》되였으니 대중의 의사에 맞게 《원조》를 제공하자 라는 허울 좋은 명목을 달고 《원조》 리용 방도를 《공청회》(公聽會)에 부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원조》가 남조선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몰랐단 말인가.

미 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 파렴치성이란 우리에게 비밀이 아니다. 우리는 체험할 대로 다 했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이러한 파렴치성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공금을 사취하고 횡령한 협잡'군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재산을 몰수하라고 요구하는 광범한 대중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이러한 협잡'군들을 길러낸 장본인도 역시 미 제국주의자들인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소위 《원조》로써 자기들의 졸개를 육성하는 정책을 계통적으로 감행하여 온 것은 누구에게도 비밀이 아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공청회》란 미 제국주의자들이 자기 책임을 졸개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기만 술책에 불과하다.

어떠한 가면을 쓰고 남조선에 딸라가 들어 온 대도 이것이 남조선 경제를 파국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으며 인민 생활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들은 《강력한 정치》에 대하여 떠든다. 《강력한 정치》란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부르죠아 반동 정치가들은 이 말을 바로 파쑈적 독재 정치의 의미로 사용한다. 그들은 히틀러나 프랑코나 멘데레스의 집정을 가리켜 《강력한 정치》라고 말한다. 즉 남조선에 리 승만 독재 정치와 비슷한 파쑈 테로 통치를 또다시 수립하자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흉악한 음모를 꾸미면서도 겉으로는 《쇄신》이니 무엇이니 떠들고 있다. 우리는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그들의 도발 음모를 매 걸음마다 폭로 분쇄하여야 할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남조선의 불안정 상태에 대한 미제의 《수습책》이란 극히 위험한 것이다. 이 《수습책》은 실현되여서는 안 되며 될 수도 없다. 이것이 실현된다는 것은 남조선 인민들이 리 승만 도당의 학정하에서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인민은 이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남조선에서의 현 사태로부터의 유일하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출로는 우리 당이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북 조선의 협상이며 나아가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실현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남조선 사태라고 할 때에 그것은 남조선 통치 기반의 불안정성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선 남조선 인민 대중의 빈궁과 무권리한 처지를 념두에 두는 것이다.

남조선의 경제적 파탄을 수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공화국 북반부의 강력

한 공업, 농업에 의거하는 것이다. 남조선의 수십만의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며 병자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으며 공부 못 하는 청소년들이 무료로 학교에 다니며 수백만의 고아들이 행복스럽게 양육을 받는 것은 오직 그들이 공화국의 품안에 들어 올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조국의 통일 위업은 우선 우리의 주체적인 투쟁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 혁명의 이 기본 과업을 달성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이미 김 일성 동지가 천명한 바와 같이 북반부 민주 기지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 력량의 단결을 가일층 강화하는 것이며 남반부에서의 반제 반봉건적 혁명 투쟁이 고조되는 것이다.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고조되며 심화되며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되기 위하여서는 우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들의 정치적 각성과 조직화가 요구된다.

우리 당은 남조선의 정치적, 경제적 형편과 주민 구성의 특성으로 보아 농민 대중의 혁명적 진출에 커다란 주목을 돌린다. 이것은 식민지·반봉건 사회의 조건하에서 혁명의 승패는 농민 대중을 어떻게 묶어 세우는가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 방침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이미 수행된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정에서 실천적으로 검증된 정확한 방침인 것이다.

남반부에서 광범한 인민 대중의 투쟁이 전개되기 위하여서는 당면하여 정치 사회 생활에서 민주주의적 자유가 보장되고 혁신 세력이 강화되여야 하며 또 실지에 있어서 이러한 조건들이 현재 조성되여 가고 있다.

오늘 남조선 사태는 김 일성 동지가 예견한 그대로 발전되고 있다.

남반부 인민들은 우리 당을 자기들의 희망으로서 우러러 보며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에 고무되면서 생활과 투쟁의 체험을 통하여 점차 자기들의 불행의 근원을 깊이 자각하게 될 것이며 더욱 조직화되여 강력한 반제 반봉건 투쟁에로 진출하게 될 것이다.

오늘 남조선 정세는 바로 이 방향으로 변화되여 나가고 있다.

조선 민족 해방 투쟁에서 조국 광복회의 혁명적 업적

김 경 인

레닌은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와 피압박 민족들은 단결하라!》(전집, 제 31권, 556페지)라는 구호의 필요성을 론증하면서 구라파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식민지 피압박 민족 해방 운동의 통일 전선에 대한 정연한 리론을 창시하였다. 특히 동방에서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광범한 계급, 계층들의 단결의 필요성을 론증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이에 최대의 주목을 돌릴 것을 강조하였다.

레닌은 《당신들은 이 임무를 반드시 제기하고 자기의 독자적 경험을 통하여 그것을 해결》하며 《…이러한 동맹을 위한 특수한 형식을 반드시 찾아》(전집, 제 30권, 184, 183페지)내라고 하였다.

우리 나라 반일 민족 해방 투쟁 행정에서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발기되였고 직접 조직 전개된 조국 광복회 운동은 레닌의 이 교시의 조선에서의 창조적 구현이며 그의 거대한 승리이다. 조선 인민의 광범한 반일 민주 통일 전선체로서 출현한 조국 광복회는 우리 민족의 해방 운동사 상에서 불멸의 위훈과 빛나는 혁명적 업적을 남겨 놓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조선의 애국적 력량의 진출과 투쟁은 일제의 조선 강점을 전후한 시기부터 끊임 없이 계속되였다. 반일 의병 운동과 애국 문화 계몽 운동에 뒤이어 로동 계급이 발생하면서 미약하나마 그들의 투쟁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영향하에 1919년에는 일제를 반대하는 전민족적 3.1 인민 봉기가 일어났으며 1920년대 초에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가 급속히 보급됨에 따라 로동 운동이 정치 무대의 중심에 대두하였다. 이와 함께 농민, 학생 운동도 힘차게 전개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 후 20 여년 간의 조선 인민의 반일 투쟁은 그것이 애국적인 정의의 투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근본적인 약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1910년대를 전후하여 전개된 반일 의병 운동에서는 운동 전체에 대한 유일적 지도가 없이 지방과 고을마다에서 제각기 의거한 의병들이 분산적이며 고립적인 활동으로서 강적 일제 침략군과 싸웠다.

이러한 의병 운동과 때를 같이 한 애국 문화 계몽 운동도 역시 그러하였다. 서로 《기호》요 《서북》이요 《호남》이요 하고 지방별 장벽을 쌓고 통일을 이루

지 못한 데서 운동은 일제의 강압적인 해산에 그만 고개를 수그리고 말았다.

1920년대에 들어 서면서 전개된 공산주의 운동도 그 대렬 내에 들어 앉은 악랄한 종파 도당들에 의하여 사분 오렬이 되고 말았다. 종파 분자들의 가증스러운 파쟁은 일제를 상대로 로동 계급의 단결과 그 주위에 일체 반일 력량을 단합하여 조선 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투쟁을 유일적으로 령도하여야 할 공산당마저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처럼 혁명 력량이 단합되지 못하고 통일되지 못한 것, 이것은 실로 이 시기 조선 혁명의 장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량심적인 진정한 혁명가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이였다.

그러기에 1920년대 말～1930년대 초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새로운 앙양에 처하여 조선 인민은 지난 시기 투쟁에서의 쓰라린 실패의 교훈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며 모든 혁명적, 애국적 력량들이 하나로 통일될 것을 무엇보다 절실히 념원하였으며 이를 실현할 령도자의 출현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바로 조선 인민의 이 절실한 념원은 오직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탁월한 혁명적 실천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한 김 일성 동지와 그 전우들인 세련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 전개된 항일 무장 투쟁과 조국 광복회 운동에서 이룩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우리 혁명의 정확한 전략 전술이 수립되였으며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는 첫 시기부터 그 전략 전술을 직접 반영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이 강력히 전개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우선 조중 인민의 공동 전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각종 반일 부대들과의 긴밀한 련계를 강화하였으며 기존 대중 단체(농, 반, 호 3 단체를 비롯하여)들을 확대 발전시키면서 그를 반일 투쟁의 기치하에 결속시켜 무장 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투쟁은 결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장구한 세월을 두고 고질화된 종파 분자와 좌우경 기회주의자들의 각종 악해 책동과 파괴 행위에 부닥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공산주의자들의 견결한 투쟁에 의하여 그들의 시도는 분쇄되고 말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30년을 전후한 시기 중국 동북 지방에서 종파 분자들의 죄행은 이 시기 혁명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주었다. 그들은 《엠엘파》계의 《만주 총국》을 위시하여 《화요파》계의 《만주 총국》, 《서상파》계의 《재만 공산주의 동맹》 등 제각기 간판을 들고 나와서 동북 지방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을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뜨렸다. 그 후 종파 분자들은 항일 유격대와 근거지 내 당 조직들에 잠입하여 역시 간악한 방법으로 혁명 대오의 분렬, 파괴 책동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종파주의와 좌경 기회주의를 극복 청산하지 않고서는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일보도 전진시킬 수 없었으며 광범한 혁명 력량을 조직 동원할 수도 없었다.

항일 무장 투쟁은 1933년 말～1935년 초에 이르는 시기 간고한 시련에 부닥쳤다. 발악적으로 감행된 일제의 유격

근거지에 대한 공격과 야수적 《삼광 정책》의 결과에 당 조직과 혁명 단체들은 심대한 피해를 당하였다. 게다가 반《민생단》 투쟁에서의 좌경 기회주의자들과 악질적 종파 분자들의 극단한 좌경적 오유와 무분별한 망동은 우리 혁명 대렬의 단결에 일시 엄중한 사태를 조성케 하였다.

우리 혁명 운동이 부닥친 바로 이 준엄한 시기에 김 일성 동지는 몸소 이 난국을 타개하는 어려운 투쟁의 선두에 섰다. 1935년 초 다홍왜와 요영구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철저한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성과 혁명가적 대담성 그리고 완강성을 가지고 반《민생단》 투쟁의 좌경적 오유를 비판하였으며 근거지의 해산과 무장 부대의 광활한 지역에로의 진출을 제기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혁명 운동의 전진 도상에 가로막힌 어렵고 엄중한 장애를 타개함으로써 투쟁을 퇴조의 위험에서 고조에로 향도하였다.

이처럼 공산주의자들은 투쟁의 첫날부터 종파 분자들과 좌우경 기회주의자들과의 비타협적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여 그를 극복 청산함으로써 무장 투쟁과 통일 전선 운동의 새로운 앙양을 이룩할 수 있었다.

193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 운동은 일대 고조기에 들어섰다. 그것은 바로 항일 무장 투쟁과 반일 통일 전선체인 조국 광복회 운동이 유일한 맑스-레닌주의적 강령 밑에 전국적 범위에서 확대 발전된 데 있다.

특히 이 시기 운동의 앙양은 국제 혁명 운동과의 유기적 련계 속에서 이룩되였다. 당시 국제 공산당은 박두한 파씨즘과 자본의 공세 및 전쟁의 위협을 반대하여 국제적 범위에서 로동 계급의 행동 통일과 인민 전선 결성을 가장 절박한 과업으로 각국 공산주의자들 앞에 내세웠으며 더우기 《식민지 및 반 식민지 제국에서의 공산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반제 국민 전선의 수립에 있다》 (콤인테른 제 7차 대회의 반파쑈 인민 전선 결의 중 5절에서)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의 통일 전선 운동은 국제 혁명 로선인 반파쑈 인민 전선 운동의 일환으로서 조직 전개되였다.

통일 전선 운동은 조선 혁명 운동 발전에서 가장 긴절하고도 객관적인 요구로 제기되였다.

이에 있어서 1936년 2월과 5월의 남호두 소자지하와 무송 동강 회의는 우리 나라 혁명 운동 발전에 획기적 전환을 가져 왔다.

이 회의들에서 제시된 김 일성 동지의 방침에 의하여 항일 무장 투쟁과 당 창건을 위한 투쟁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 섰으며 동시에 통일 전선 운동의 근본적 앙양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1936년 5월 5일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발기에 의하여 조선 인민의 통일적 반일 민족 통일 전선체인 조국 광복회의 조직과 그의 10대 강령이 선포되였다.

이 력사적 조국 광복회는 자기의 선언에서 아직까지도 조국을 광복시키지 못하고 민족의 위기를 타개하지 못한

것은 조선 독립을 열망하는 모든 혁명 단체들과 동포들이 일치 단결하지 못한 데 있다고 천명하면서 《우리들은 국제 혁명 운동이 격렬한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조선 독립 운동의 통일 전선을 형성할 것을 철저히 주장하여 마지 않는다. 당파(조선 혁명 단체), 종교, 계급(무산, 자산 계급), 지방별, 성별, 년령을 불문하고 무조건 대대적으로 단결 련합해서 공동 일치하게 일어나 우리 민족의 원쑤인 일본 제국주의를 〈만주국〉에서 그리고 조선에서 구축하고 조선의 독립, 민족의 자유 획득에 노력할 것이다.

망국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동포와 적의 기관에서 복무하는 애국적 량심을 가진 형제들이여!…

일치하게 일어나 조국 광복회를 조직하여 조선 독립과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신성한 사업에 분투하라》고 전체 인민에게 호소하였다.

이 때로부터 조국 광복회 운동은 실로 자기의 강령과 선언에서 제시한 대로 우리 민족 해방 투쟁에서 거대한 력사적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당시 항일 무장 투쟁 앞에 가로막힌 갖은 중첩한 장애를 물리치고 그의 발전에 대로를 열어 놓았으며 전 민족의 절박한 력사적 숙망인 반일 력량의 단결과 통일 위업을 실현하는 거대한 사변이였다.

조국 광복회 운동은 1~2년의 짧은 기간에 광활한 동북 지방과 조선 북부 국경 지대 그리고 조선의 중요 산업 중심지들과 농촌들을 장악하고 수십만 혁명 군중을 전취하였다. 이렇듯 거대한 혁명적 전개력과 견인력을 가진 조국 광복회 운동은 항일 무장 투쟁과 더불어 조선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그 중심 부분을 이루었다.

항일 무장 투쟁과 조국 광복회 운동의 강화 발전에 따라 그 영향은 방방곡곡, 조선 남단에까지 침투되여 전국적 판도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 민족 해방 투쟁이 전개되였다.

암흑이 절정에 달한 절망 상태에서도 조선 인민은 《김 일성 장군》, 《김 일성 빨찌산 부대》에 대하여 크나큰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였으며 그에서 힘을 얻은 그들은 래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방법과 수단을 다하여 투쟁을 계속하였다. 조선 인민의 민족적 지향과 의지 및 신념은 이렇듯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가 제시한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의 산 정신을 지침으로 하여 하나로 통일되였다.

통일 단결된 이 힘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 인민 혁명군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끊임 없이 넘나들면서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일제 군경들을 상대로 하여 그처럼 장기간의 투쟁을 견지할 수 있었고 동만과 북만 그리고 장백과 조선에 걸친 광대한 지역에서의 대작전들과 국내 진공전에서 원쑤들에게 무리 죽음을 줄 수 있었다.

조국 광복회 운동은 혁명 군중을 집결함으로써 혁명 대렬의 확대 강화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공산주의자들의 육성과 결속, 나아가서 당 창건을 위한 조직 사상적 준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면 무엇이 조국 광복회 운동으로 하여금 이러한 력사적 승리를 이룩하게 하였는가.

우리 나라에서 통일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객관적 정세는 1920년대에도 이미 조성되여 있었다. 그러나 1920년대에는 통일 전선의 기본 원칙이며 그 전제인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서의 로농 동맹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혁명의 령도 핵심이 형성되지 못하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 로선이 서지 못하였었다. 결과에 통일적인 대중적 조직체로 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신간회까지도 개량주의자들의 수중에 넘겨 주고 말았다.

그러므로 1930년대의 조국 광복회 운동의 승리는 객관적 정세가 유리한 데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 조직자이며 령도자인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 령도를 통일된 의지로 높이 받든 공산주의자들의 불굴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달성된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가능한 일체 력량과의 동맹에 관한 레닌의 사상과 통일 전선 운동에 관한 국제 공산당의 결의들, 복잡한 계급, 계층들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 능숙하게 적용함으로써 조선의 구체적 조건에 맞는 통일 전선 로선을 제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직접 무장을 잡고 항일 무장 투쟁의 선두에 섰을 뿐만 아니라 통일 전선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체 불견실한 경향들과 가장 단호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항상 자신이 직접 그 시범과 전형을 창조하면서 이 사업을 지도하였다. 혁명의 동력과 그리고 통일 전선을 지을 수 있는 구체적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협애한 배타주의, 좌경 관문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일제와 그의 주구를 반대하는 일체 력량을 단합시켰다.

김 일성 동지는 항상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사회 계급적 위치와 처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주고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청년 학생, 인테리, 민족주의자들, 도시 소자산 계급, 반일적 기분을 가진 일부 지주, 종교인, 지어는 적 기관 및 어용 단체에 복무하는 민족적 량심을 가진 계층들과 어용 단체의 하층 군중, 강제로 끌려 간 일제 군대에 복무하는 조선 청년들, 항일 구국군, 《위만군》의 초급 지휘관 및 하층 병사 등 실로 가능한 모든 계층들과 통일 전선을 짓거나 그들을 전취할 데 대하여 명시하였다.

이는 2중 3중의 억압을 받고 있는 나라에서의 온갖 계급적, 민족적 모순의 성격과 그 모든 계급, 계층들의 일제와의 모순에 대한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 분석과 그를 리용할 수 있는 온갖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타산에 기초한 것이다.

이에 대한 당시 몇 개의 격문들은 매우 교훈적이다.

《과거 반일 민족 혁명 운동에 참가한 동만 조선인 혁명 대중과 전우에게 고함》,

《조선 인민에게 격함》,

《전 동만 조선 청년에게 고함》,

《일본 군대에 근무하는 조선 청년에게 고함》,

《투항자에게 고함》,

《재만 조선 동포들에게》,

《조선 인민에게 고하는 글》 등.

이 격문들에는 제한이나 차별을 둠이 없이 온갖 가능성을 다하여 통일 전선을 확대하고 한 사람의 군중이라도 더 쟁취하기 위한 진지하고 인내성 있는 노력이 깃들어 있다.

김 일성 동지는 항일 무장 투쟁 시기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산으로 다닐 때에는 어떻게 하면 왜놈 하나라도 더 잡겠는가, 어떻게 하면 군중을 더 많이 얻겠는가, 군중에게 영향을 어떻게 더 많이 주겠는가 하는 것을 매개인이 일상적으로 생각하였다》(1959년 11월 30일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에서)고 말씀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에서 집중적으로 발현되였다. 강령은 로동 계급의 당면 리익과 농민의 근본적 리익을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강령은 전 민족의 공통한 최대 과업을 견두철미하게 관철시키면서 각 계층의 리해 관계를 정확하게 일일이 반영하고 있다. 강령은 반일적 기분을 가진 자산계급 및 지주층을 적의 편으로부터 떼여내거나 이끌어 올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다만 일제와 일본인 및 매국적 친일 분자의 생산 수단 및 재산, 토지의 몰수만을 규정하였다. 강령은 다수 계급, 계층들이 다같이 증오하던 일제의 채권, 각종 세금, 전매 제도의 취소, 노예 로동, 노예 교육, 강제 군사 복무 및 군사 교육의 철폐를 규정하였다. 강령의 일관한 사상은 《반일 통일 전선을 실현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 통치를 전복》함에 조선 인민을 총 동원하는 데 돌려졌다.

조국 광복회 운동의 강한 견인력은 그의 강령의 이러한 우월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반일 민족 통일 전선에 《조국 광복회》라는 명칭이 부여된 것도 그것은 심오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 명칭 때문에 통일 전선 운동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든 사람의 관심을 집중하게끔 충분히 민족적 형식을 취한 것이다. 《조국 광복》이라는 말은 당시 량심적인 모든 조선 사람의 절절한 념원으로서 일제의 조선 강점 이래 수십년 동안 내려 오면서 불리워 온 것을 고려하여 통일 전선 운동에 《조국 광복회》라는 명칭이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다. 동시에 그 하부 조직들에 내려 오면서 다양한 명칭을 띤 것은 지방에 따라 특히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과 민족주의적 감정의 강약을 분별있게 타산한 것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통일 전선 운동의 령도에서 각개 부동한 대상과 조건에 적합한 모든 전술과 구체적인 공작 방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대상들에 대한 각개 부동한 전술이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당시 실정에서 우선 농촌의 혁명화와 농민들과의 단결은 절실한 문제였다. 그것은 농촌 주민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도시는 반동의 중심지로 되여 있었으며 무장 투쟁의 근거지가 농촌에 의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므로 간악한 일제는 농촌을 《집단 부락》화하고 거기에 《보갑제》를 적용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의 농민 군중 전취를 파탄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김 일성 동지는 유격대의 무장 습격을 농촌의 일제 군경에 집중함으로써 그들을

농촌에서 제압하고 집단 부락 내의 무장 《자위단》의 활동을 마비시키거나 그를 장악하는 방법으로 농촌에서의 통일 전선 운동을 추진시켰다.

장백 지구에서는 적 기관과 어용 단체 간부들을 조국 광복회 회원들로 포치하거나 적지 않은 촌장, 구장, 백가장까지 자기 편에 인입하여 장백 지구를 혁명화하고 조국 광복회 조직망으로 뒤덮게 함으로써 이 지방을 항일 유격 투쟁의 강유력한 근거지로 만들었다.

김 일성 동지의 풍부하고 심오한 통일 전선 사상과 그의 현명한 령도와 전술만이 조국 광복회 운동의 찬란한 승리를 보장하였다.

이 사상, 이 령도, 이 전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 민족 해방 투쟁의 과거 력사에서 그처럼 극심하던 사분 오렬 상태를 청산하고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일제 반제 애국적 력량을 혁명적 강령의 기치하에 단결시켰으며 공산주의 운동을 비롯한 조선 인민의 모든 애국적 운동을 하나의 고리에 결속시킬 수 있었다.

* *

통일 전선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사상과 전술, 조국 광복회 운동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은 해방 후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으로, 통일 전선 정책의 기초로 되였다.

우리 당은 항일 무장 투쟁에서 이룩된 이 혁명적 업적, 이 고귀한 경험을 계승하여 통일 전선에 대한 정확한 로선과 전술을 명시하고 투쟁함으로써 각계 각층 인민들을 자기 주위에 굳게 단결시켜 간고한 혁명 투쟁에서 오늘의 력사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해방 후 우리 나라에는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민족 분렬의 위기가 지속되고 우리 혁명의 간고성과 복잡성을 증대시켰다. 이에 또한 종파 분자들과 지방할거주의자들은 대중의 혁명적 진출에 송세하여 좌우경적인 구호와 언사로써 혼란을 더욱 야기시켰으며 본래의 추잡한 본성을 드러내 놓고 《헤게모니》 쟁탈에 광분하였다.

이러한 틈에 인민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반동들이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상륙과 함께 또다시 준동하기 시작함으로써 우리 혁명 도상에는 실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혼란이 조성되였다.

해방 후 조성된 이러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혁명 력량의 단결과 통일을 가장 절박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누가 이와 같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난국을 수습하고 혁명 력량의 단결과 통일을 이룩하였는가? 누가 조선 혁명 앞에 나선 이 엄숙한 시련을 이겨냈으며 조선 인민의 나아갈 길을 천명하였는가? 이 력사적 위업은 오직 장구한 시일에 걸쳐 과감한 혁명 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김 일성 동지를 위수로 한 공산주의적 령도 핵심에 의하여서만 성취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조국에 개선하여 이러한 정세를 통찰하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 민족이 완전히 통일 단결하여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로동 계급과 농민 뿐만 아니라 민족 자본가 등 모든 애국적 민주 력량이 일치 단결하여 통일 전선을 형성할 데 대하여 명시하였다.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이 방책과 전술에 따라 우선 당을 강화하며 대중을 전취하며 광범한 혁명 력량

을 단합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당의 령도하에 각계 각층 인민 대중을 새 민주 조선 건설의 한길로 인도하였으며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투쟁과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의 수립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에 기초한 각 계층과의 통일 전선을 튼튼히 형성하였다.

우리 당의 령도하에 통일 전선의 형성, 모든 애국적 민주 력량의 결속—바로 이 단결된 힘만이 북반부에서 그처럼 단시일 내에 력사적인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을 빛나게 수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미제와 리 승만 도배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는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고수 할 수 있었다.

전후 복구 건설의 어려운 고비들도, 인민의 원쑤들과 최 창익, 박 창옥을 괴수로 한 반혁명 종파 도당들의 그 어떠한 모략과 시도들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된 인민 대중—그의 붉은 전사들의 단합된 불패의 위력과 투쟁에 의하여 극복되였으며 분쇄되였다.

우리 당의 주위에 하나로 뭉친 이 단결된 힘만이 전후 짧은 수년 간에 우리 나라를 선진적인 사회주의 공업 농업 국가로 전변시켰으며 천리마를 탄 기세로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급속히 내닫게 하고 있다.

질풍같이 내닫는 천리마—이것은 당 주위에 굳게 단결된 조선 인민의 창조적 위력의 시위이며 고도의 정치 도덕적 통일의 구현이다. 이 통일과 단결의 힘이 세월을 앞당기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거대한 성과, 그 위력의 부단한 장성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강력한 수단으로, 튼튼한 담보로 되고 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전개되고 있는 인민 항쟁은 인민의 단결된 힘이 현대 제국주의의 그 어떠한 책동도 분쇄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 주고 있다.

조국 통일의 대사변이 다가 오는 오늘 우리 앞에는 더욱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그것은 조국 통일의 튼튼한 물질적 담보로 되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고 그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이며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군중을 쟁취하여 우리 당의 주위에 단결시키는 것이다. 하나로 뭉친 북반부의 강력한 사회주의 력량과 그리고 남반부의 애국적 민주 력량은 우리 당, 우리 혁명의 승리의 원천이며 그의 담보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에서 주민 구성의 력사적 복잡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각계 각층 군중을 포섭하여 북반부 인민은 물론 전체 조선 인민을 확고부동한 하나의 힘으로 당 주위에 단결시키는 사업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화할 것을 우리에게 교시하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아끼여 전취하는 것은 김 일성 동지가 가르친 바와 같이 《공산주의 운동의 본질》인 동시에 도래하는 대사변을 주동성 있게 맞이하기 위한 중요 조건이다.

조국 광복회 운동과 해방 후 우리의 투쟁 경험이 실증하여 주는 바와 같이 혁명 투쟁의 승리는 인민 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서만 달성된다.

당의 령도하에 하나로 뭉친 힘은 필승 불패이며 그것은 반드시 머지 않은 앞날에 우리 혁명의 위업을 성취하고야 말 것이다.

교양에서 긍정적 모범이 가지는 의의

황　　영　　식

공산주의 교양에서 결함에 대한 폭로와 비판은 매우 중요하며 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이 사상 교양 사업의 전부로는 될 수 없다. 그리고 오직 여기에만 의거한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없다. 결함과 부족점, 부정적인 것은 우리 현실의 전형이 아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새 것이 지배적이고 그것이 부단히 확대 발전되고 있으며 모범적인 것, 긍정적인 것이 우리 사회의 전형이다.

부정적인 것에 대한 비판에만 의거하는 사상 교양에서는 적지 않은 경우에 교양적 영향이 주로 부정적인 락후한 층에 제한될 수 있으며 다른 동무들에게는 소극적 영향밖에 주지 못하고 다만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데 국한될 수도 있다.

당 사상 교양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결함을 나타내지 않게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적인 사상 의식과 사업 작풍을 계속 확대 발전시키는 데 있으며 전체 당원 대중의 사상 의식을 선진 대렬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리는 데 있다.

김 일성 동지는 현 시기 공산주의 교양에서 중요한 것은 긍정적 모범을 통한 감화라고 교시하였다.

일찌기 웨. 이. 레닌도 《…생활의 모든 령역에 있어서의 산 구체적인 실례와 표본에 의한 대중의 교양이》(전집, 제 28권, 107페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긍정적 모범에 의한 교양은 우리 사회 제도의 본질에서 흘러 나오는 합법칙적 현상이다. 오늘 약동하는 우리 나라 현실은 부단히 새 것을 창조하고 있으며 모범을 낳고 그것을 대중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결함과 부족점, 부정적인 것은 새 생활 건설을 위한 우리의 전진 도상에서의 일시적이며 부분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의 조건하에서 모범의 힘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의의를 가지는 것과는 달리 사회주의하에서는 그것이 가장 넓은 범위에서 작용하며 그 힘을 발휘한다.

웨. 이.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없었던 실례(모범—인용자)의 힘은 토지와 공장들에 대한 사'적 소유를 철폐한 사회에서는 거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그것은 단지 여기에서는 아마도 훌륭한 실례를 본받을 것이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한 생산 조직의 훌륭한 실례는 이 훌륭한 조직을 실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로동의 경감과 소비액의 증대를 수반할 것이기 때문이다》(전집, 제 27권, 253 페지).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행정이 명백히 실증하여 주고 있다.

당과 혁명을 위하여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평양 제사 공장 천리마 작업반장 길 확실 동무의 모범은 그가 자진하

여 옮긴 락후한 작업반을 천리마 작업반으로 발전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범은 지금 전국적 범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바 이 사실은 개인적 모범이 어떠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하나의 실례로 된다.

하나의 집단의 모범이 다른 집단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는 현상도 오늘 우리 나라에서 수다히 찾아 볼 수 있다. 례하면 험준한 산중에서 모두가 앓아 눕게 되였을 때 자기의 아픔보다도 동지의 아픔을 더 괴로와 하며 서로 동지들을 도운 중공업 위원회 지질 탐사 관리국 제 9 지질 탐사단원들의 혁명적 동지애의 모범은 남포 유리 공장 주사기 작업반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앓는 동무의 기대를 서로 앞을 다투어 담당하는 미풍을 낳게 하였다.

전국적 범위에서 전개되는 혁신 운동의 모범은 강한 힘을 가지고 대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선 제강소 진 응원 작업반의 발기에 의하여 발단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전국적 범위에서 이 모범을 따르려는 광범한 대중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혁명 전통 교양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과거의 력사적 모범이 역시 거대한 힘을 가지고 전체 인민 대중을 교양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 생활과 사업에서 혁명 투사들의 투쟁 모범을 회상하며 그들의 고매한 투쟁 정신에서 힘을 얻으며 그들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혁명 선렬들이 과거에 남겨 놓은 긍정적 모범을 보여 주는 혁명 전통 교양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 대중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이 1930년대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발휘한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 인민적인 사업 작풍, 원칙적인 단결과 동지 호상 간의 두터운 우애심, 사회주의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등의 고상한 혁명 정신을 본받으며 거기서 거대한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 사회 제도에서 긍정적 모범이 어떠한 큰 힘을 가지고 대중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때문에 우리 당은 항상 우리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의 구체적인 산 모범들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여 왔으며 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긍정적 모범이 교양에서 거대한 효과를 낳는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긍정적 모범은 우선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상 관점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행동하여야 되는가 하는 방향을 직접적으로 명백히 보여 준다. 부정적인 것에 대한 비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있으나 옳은 사상 관점과 태도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만 간접적으로 암시해 줄 뿐이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명시해 주지는 못한다. 공산주의 교양은 사상 분야에서 낡은 것을 버리도록 하고 새 것을 얻게 하는 과정으로 된다. 결함에 대한 지적은 낡은 것을 버리라고 강조하는 것이라면 긍정적인 모범은 어떠한 것이 새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백한 대답을 준다.

긍정적 모범은 우리에게 리상과 목표를 준다. 나어린 순진한 아동들이 가지는 모방의 심리적 특성과도 같이 사람들이 리상적인 현상을 보면 그것을 따르려는 욕망을 가지게 되는 법이다. 인류의 위대한 천재들의 형상이 그들을 존경하는 후대의 인간들로 하여금 그것을 본받고

그들이 걸어 온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긍정적 영향을 얼마나 많이 주었던 것인가! 옳은 리상과 목표—이것은 근로자들의 긍정적 행동과 활동을 적극 추진시킨다. 긍정적 모범은 이러한 리상과 목표로 된다. 선진 로동자들의 모범, 집단의 모범, 혁명 선렬들의 탁월한 모범은 생활의 리상으로 되면서 사람들에게 정력을 북돋아 주며 그러한 것을 자기도 해낼 수 있다는 신심과 용기를 주며 매개 근로자들의 사상 발전의 전망을 열어 준다.

긍정적 모범이 교양에서 거대한 힘을 낳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격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행동은 사람들 속에서 만족감과 그것을 따르려는 강한 지향과 충동을 일으킨다.

이러한 감동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고 반복되는 과정에서 또 그리고 그 모범을 본받아 옳은 행동을 여러 번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항시적으로 작용하는 욕망으로 된다. 이럴 때 비로소 품성이 형성되였다고 말한다. 물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이 강한 감정과 결합될 때 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동한다. 긍정적 모범은 바로 이러한 감동을 일으킨다. 따라서 긍정적 모범을 통한 교양은 리성과 감정을 결합시키는 교양 방법 즉 감화 교양으로 된다.

전쟁 시기의 실례들이 많이 보여 준 바와 같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백 번 강조하는 것보다도 리 수복 영웅의 고결한 희생성이 전투원들에게 주는 감명이 얼마나 거대했는가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긍정적 모범에 대한 교양 방법은 비록 결함에 대한 공개적 폭로와 지적의 방법과 대조적이라 하더라도 심각한 내면적인 자기 비판을 불러 일으킨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거기에 보다 많이 감동되면 될수록 자신의 결함을 더욱 심각히 알게 되며 그것을 더욱 뼈저리게 뉘우치게 된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욱 잘 자각할 때 자신을 옳게 개조할 수 있는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은 타인의 모범을 통하여 보다 급속히 형성되고 공고화된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그는(인간은—인용자) 거울을 가지지 않고 탄생하므로…처음에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본다. 오직 자기와 비슷한 인간 빠웰에게 관계함으로써 인간 표트르는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관계하기 시작한다》(맑스, 엥겔스 전집, 로문판, 제 17권, 60페지). 긍정적 모범은 이러한 거울로 되는바 이 거울로 자기 행동을 비치고 결함을 뉘우치게 하며 량심을 계발시킬 수 있다. 때문에 결함을 발로시킨 사람에 대해서 그의 부족점을 지적해 주는 동시에 그와 대조적인 우수한 전형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기의 결함을 더욱더 잘 알게 하고 그것을 일소하게 된 그러한 실례들이 허다한 것은 리유 없는 일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긍정적 모범에 의한 교양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폭로와 지적, 결함에 대한 추궁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심각한 사상 개조를 수행하는 매우 효과적인 교양 방도로 될 수 있다.

그러면 긍정적 모범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우선 매개 일'군들이 긍정적 모범이 가지는 위대한 힘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한다. 아직 적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당이 긍정적 모범을 통한 교양을 공산주의 교양의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내놓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으며 그것이 가지는 교양적 효과성을 심각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긍정적 모범에 의한 교양을 결함에 대한 폭로 비판과 유기적으로 옳게 결합할 줄 알아야 한다. 결함은 제때에 시정하는 동시에 모범을 통하여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를 친절히 알려 주어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긍정적 모범이 도처에서 부단히 산생되고 있다. 여기에서 당 단체들과 사회 단체들 그리고 매개 지도 일'군들 앞에 중요하게 나서는 것은 긍정적 모범에 의한 교양을 산만 무질서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산주의 교양의 기본 원칙들에 복종시키면서 계통적으로 조직하는 문제이다.

긍정적 모범은 이에 대한 전달과 선전에서가 아니라 이를 본받아 구체적 사업을 조직하는 데서 현실적 힘을 가진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공산주의적 품성은 선진 모범을 따르는 실천 과정을 통하여, 건설과 로동을 통하여 형성된다. 실천을 통해서만 사람들의 의식은 형성 발전된다. 훌륭한 환경과 모범도 실천 활동이 없다면 새 인간을 창조할 수 없다.

긍정적 모범을 통한 교양 사업에서 지도 일'군들 자신의 솔선적인 모범은 큰 의의를 가진다. 우선 지도 일'군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적인 행동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 부분적인 지도 일'군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들의 교양자적 역할은 사상 교양 사업을 조직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사상 관점, 사업 태도, 작풍, 지어는 개체 생활, 일거일동까지가 하부 일'군들에게 교양적 영향을 주는 데 있다. 만일 지도 일'군이 당 정책 집행에서 철저하다면 하부 일'군들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이며 만일 그가 관료주의적으로 사업한다면 하부 일'군들도 그를 닮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새싹을 제때에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대중적인 물질적 힘으로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싹은 그것이 시초에는 평범하고 무력하게 보인다. 그러나 실제상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모범과 전형이 창조된다. 따라서 새싹을 지지해 주며 그것을 광범하게 보급하며 정치-리론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사상 사업의 중요한 과업이다.

긍정적 모범을 통한 감화 교양은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조건하에서 모범은 집단적 성격을 띤다. 개인의 모범도 집단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당은 맑스-레닌주의 기본 원칙에 의거하여, 대중 운동을 통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지도하고 있는바 대중 운동에서 긍정적 모범은 그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된다. 우리 제도하에서 대중을 고도로 발동시키는 것—이것은 동시에 공산주의적 품성을 광범하게 발현시키는 과정으로 된다. 때문에 오늘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모든 요구는 긍정적 모범을 통한 감화 교양이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될 것을 필연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호상 관계에 관하여

김 상 학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조선 인민이 거둔 거대한 성과와 그의 력사적 경험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호상 관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증하였으며 새로운 실천적 경험을 통하여 그를 일층 풍부히 하였다.

우리 당은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생산력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적응에 관한 일반적 합법칙성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그를 우리 나라 사회-경제 발전의 구체적 조건과 현실적 요구에 적응하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

일제하 조선 사회의 식민지, 반봉건적 성격과 그에 따르는 생산력 발전의 락후성, 계급적 력량 관계에서의 혁명 세력의 압도적 우세와 근로 인민의 높은 혁명적 의식, 국토가 량단된 조건에서 혁명적 민주 기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전 세계적 범위에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현 정세하에서 강대한 사회주의 진영 내 국가들간에서의 경제적 원조와 협조—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승리와 생산력 발전과의 호상 관계에서 일련의 특성을 발현시켰다.

그의 중요한 특성은 우선 과도기의 첫 시기로부터 인민 경제의 지도적 부문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지배적 지위가 확립되였으며 전후 복구 시기에 이미 인민 경제 전체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결정적 승리가 달성된 데서 표현된다. 또한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서 발현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아직 충분치 못한 조건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완전한 승리가 달성되였으며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기초하여 나라의 생산력 발전의 거대한 앙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 표현된다.

1

우리 당은 생산력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적응의 법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생산 관계를 창설하였으며 그를 강화 발전시켰다.

일제하 조선 사회는 락후한 식민지 반봉건 사회였다. 도시에서의 일제의 식민지 착취 관계의 가의 전적인 지배와 농촌에서의 봉건적 착취 관계는 우

리 나라 생산력 발전의 질곡으로 되여 있었으며 민족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략탈 행정에서 기형적인 것이나마 일정한 정도의 현대적인 산업과 운수 시설을 창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불가피적으로 혁명적 로동 계급이 산생되였다.

이것은 일제하 조선 경제에서 낡은 생산 관계와 생산력 간의 타협할 수 없는 모순이 조성되여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동시에 조선 인민이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을 수행한 후 앞으로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을 창설할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이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해방 이후 우리 당은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적응의 법칙에 확고히 의거하면서 앞으로 나라를 사회주의에로 인도하는 방향으로 북반부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제 개혁을 철저하게 수행하였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당은 나라에 조성된 물질 생산적 전제와 계급적 력량 관계를 정확히 타산하였으며 쏘련을 선두로 한 국제 사회주의 진영의 강대한 혁명 력량을 타산하였다.

토지 개혁의 실시는 오랜 력사에 걸쳐 농업 생산력 발전의 질곡으로 되여 온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토지의 근로 농민적 소유를 확립함으로써 농업 생산의 급속한 앙양을 가져 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업 생산력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보다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중요 산업의 국유화는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적 혁명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혁명적인 조치였다. 이 국유화는 비록 자본 일반을 반대하지 않는 민주주의적 제 개혁의 일환으로서 실시되였으나 그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유화였으며 중요 산업이 일제 및 예속 자본가들의 소유였던 것만큼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지도적 부문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압도적 지배를 가져 왔다.

공업의 압도적 부문과 운수, 체신, 금융 등 인민 경제의 중요 부문들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거의 전적인 지배는 나라의 생산력 발전을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 놓았다.

국내의 혁명적 계급의 강대한 력량과 쏘련 군대가 진주한 유리한 조건은 민주주의적 제 개혁을 가장 철저히 수행할 수 있게 하였는바 이것은 앞으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승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레닌이 교시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적 변혁은 완전하게 되면 될수록 이 새 투쟁은 더 속하게 더 광범하게 더 순수하게 더 결정적으로 전개》(전집, 조선문 판, 제 9권 1분책, 200페지)되는 것이다.

우리 당은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을 완수한 후 우리 혁명이 전체성으로는 아직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단계에 있었으나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점차적으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확대 강화하며 나라의 생산력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과업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 섰다.

그것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이 북반부 인민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인 요구인 동시에 앞으로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결정적 담보로 되기 때문이였다.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첫 시기에 있어서 락후하고 파괴된 나라의 생산력을 복구하며 새로운 자립적 토대 우에서 인민 경제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길에는 막대한 곤난이 있었다. 그러나 과도기 첫 시기에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과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인민은 인민 경제의 복구 사업을 짧은 기간 내에 완수하였다. 전쟁 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 나라의 생산력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추동하에 급속하게 복구 발전되였으며 식민지적 편파성도 적지 않게 퇴치되였다.

과도기 첫 시기로부터 인민 경제의 지도적 부문에서 압도적으로 지배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의 광범한 작용, 인민 경제의 계획적 운영, 로동력과 생산 수단의 합리적 리용, 근로 대중의 로력적 열의의 앙양을 조건 지었으며 나라의 생산력의 매우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한 결정적인 추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동시에 사회주의 공업에서의 생산력의 급속한 장성은 그의 존재 형식인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공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업 생산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비중 그 자체를 현저히 제고케 함으로써도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확대 강화하였다.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상품 류통 분야에서도 발생 발전하였다.

사회주의적 상업은 공업과 농업 간의 경제적 련계,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동맹을 공고히 하여야 할 과도기의 중요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회주의적 공업의 적극적 지원하에 개인농 경리에 기초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자극하였다. 그것은 또한 도시와 농촌에서 자본주의적 요소와의 투쟁을 전개하면서 소상품 생산자들을 점차 사회주의 경제권 내에 인입시켜 왔다.

도시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결정적인 지위를 차지한 조건하에서 소농경리는 자본의 착취하에 방임되지 않았으며 그의 생산력 발전은 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장 받았다. 그러나 소상품경리는 생산력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확대 재생산을 위하여 명확히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다.

과도기 경제 발전에서 대규모적 사회주의적 공업과 손로동에 기초한 분산된 개인농 경리 간에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사회주의적 경리 형태와 소상품 경리 형태 간의 모순에서 표현되였으며 또한 현대적 대규모 공업과 손로동에 기초한 개인농 경리 간의 모순에서 표현되였다. 대규모적인 사회주의 공업의 급속한 발전 템포는 령세적인 개인농 경리에 기초한 농업의 완만한 발전 템포를 월씬 릉가하게 됨으로써 이 량자 간에는 조만간 심각한 모순이 조성될 것은 필연적인 것이였다. 인민 경제의 물질적 생산의 량대 부문에서의 이 모순은 이미 전쟁 전 평화적 건설의 말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전후 시기에 사회주의적 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이 모순은 더는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되였다. 령세한 개인농 경리는 전쟁 기간에 심대한 파괴를 입은 그의 물질-기술적

토대와 부족한 로동력 및 축력을 가지고서 도저히 대규모의 사회주의 공업을 따를 수 없었다. 또한 전후 시기에 긴급하게 제기된 식량 문제와 빈농민 문제는 개인농 경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출로는 레닌적 농업 협동화의 길이였다.

우리 당은 바로 이 성숙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쟁 전 시기와 전쟁 기간을 통하여 일정한 준비적 조치를 취하여 오던 농촌 경리 협동화의 혁명적 과업을 전후 시기에 들어 서면서 현실적으로 제기하였으며 전면적으로 해결하였다.

이 때에 우리 농촌 경리에는 아직 손로동에 기초한 낮은 기계 기술이 지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농촌 경리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광범한 창설은 인민 경제 전체에서 조성된 생산력의 성격에 적응하는 것이였으며 생산력 발전의 요구에 적응하는 것이였다. 우리 나라에서 농촌 경리의 협동화는 손로동에 기초하는 낮은 기술적 토대에도 불구하고 개인농에 비하여 생산의 장성을 가져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업 생산력의 비약적인 앙양을 위한 기술적 개건의 결정적 전제로 되였으며 생산력 발전의 광활한 길을 열어 주었다.

우리 당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 발전의 합법칙성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농업 협동화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들어 선 후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개인 상공업의 비중은 결코 큰 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우리 당은 과도기 경제 발전의 합법칙성과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현실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개인 상공업을 제한 리용하고 조건이 성숙됨에 따라서 그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신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사회주의적 력량의 지도적 역할이 이루어진 조건하에서 개인 상공업에 대한 리용 제한 정책은 락후하고 파괴된 나라의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 일정한 도움으로 되였으며 로동 계급이 민족 부르죠아지와의 투쟁과 동맹을 통하여 그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확대 강화 하는 중요 방도로 되였다.

사회주의 공업의 압도적 우세는 개인 기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의 이와 같은 방도의 수행을 위한 결정적 조건으로 되였다면 농업 협동화의 완전한 승리는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을 조건 지었다.

2

우리 나라에서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생산력의 거대한 앙양을 위한 결정적 조건의 하나로 된다.

전후 인민 경제의 복구 시기에 도시와 농촌에서는 사회주의 경제 형태의 결정적 승리가 달성되였으며 그 후 얼마 안 되여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기초로 되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화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였으며 이에 따라 착취로부터 해방된 근로자들의 동지적 협조와 사회주의적 호상 방조의 관계, 로동에 의한 분배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였

다. 이것은 이미 우리 나라에서 본질상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사회에 충분히 상응하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결정적으로 승리한 그 때에 나라에 조성된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기본적으로 확립되였으나 사회주의의 물질적, 생산적 기초는 아직 미약하다》(《모든 것을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였으나 사회주의의 물질-생산적 토대는 아직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이것은 현 시기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생산력의 호상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서 리론적 및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한 그때에 공업 부문에서는 기술적 개건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을 뿐이였으며 농촌 경리에서 현대적 기계 기술의 도입은 아직 미약한 것이였다. 또한 나라의 생산력의 중요한 요소로 되는 기술 인재의 해결도 그의 기초를 닦은 데 불과하였다. 력사적으로 물려 받은 나라의 생산력의 락후성은 아직 충분히 퇴치되지 못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보아 나라의 생산력 발전 수준은 사회주의 생산 방식의 확립에 충분히 상응하는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력 발전 수준 간에 모순이 조성되였다. 물론 이 모순은 생산 관계의 모든 측면들과 생산력의 모든 요소들 간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모순은 아니다. 이 모순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측면들(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 착취로부터 해방된 근로자들의 동지적 협조와 호상 방조, 로동에 의한 분배 등)과 사회주의적 생산력의 기본적 요소들(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와 그리고 또한 일'군들의 문화-기술적 수준)과의 사이에 조성된 모순이였다.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력 발전 수준 간의 모순이 조성되였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경제 발전 행정에서 생산력 발전에 따라서 생산 관계의 이러저러한 낡은 측면들이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생산 관계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본질적 의의를 가지지 않는 생산 관계의 그 어떤 측면들(례컨대 경리의 규모, 관리의 형태, 로동에 의한 분배의 실현 형식, 로동 조직의 제 형태 등)은 생산력의 새로운 발전에 따라서 부단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생산력 발전에 장애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하여 현 시기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변증법은 복잡한 모순의 통일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승리한 선진적인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력 간의 모순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단히 발전하는 생산력의 수준과 이미 그에 부합되지 않게 된 생산 관계의 이러저러한 개별적 측면들 간의 모순이 동시에 병존하여 있을 수

있다는 데서 표현된다.

생산력의 보다 급속한 발전은 전자의 모순을 해결하는 기본적 방도로 된다면 후자의 모순은 바로 생산력의 가일층의 발전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이며 생산 관계의 개선에 의하여 해결된다.

그러면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 간에 조성되는 모순들 중 그 어느 것이 기본적 의의를 가지는가?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력 발전 수준 간의 모순이 기본적인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이 모순이 주로 생산 수단의 사회화를 비롯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본질적 측면들과 사회주의적 생산력의 기본적 요소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모순이며 현 시기 우리 앞에 제기된 당면한 과업—사회주의 생산 방식의 확립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기본 고리로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앞에 제기된 가장 기본적인 과업은 이미 확립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의거하여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을 진행함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적 생산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며 문화 혁명을 실현하는 데 있다》(《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고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현 시기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주요한 과업은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낮은 생산력 발전 수준 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있다.

이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종국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승리한 사회주의 경제 토대도 한층 더 공고히 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현 시기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조성된 생산력과 생산 관계 간의 이 모순은 결코 우리 나라에서 생산력의 성격과 생산력의 발전 수준에 적응하지 않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조성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우리의 생산력 발전의 절실한 현실적 요구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며 승리한 선진적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생산력 발전을 위하여 광활한 길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바로 사회주의하에서 생산 관계의 능동적 역할과 그의 상대적 자립성에 관한 레닌의 교시에 립각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구체적 현실에 적응하게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호상 관계에 관한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였다.

레닌은 1923년 1월, 《우리 혁명에 관하여》라는 론문에서 《로씨야는 사회주의가 가능할 그와 같은 생산력 발전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한 제 2 국제당의 《리론가》들을 론박하면서 그것이 요구된다면 《…어째서 우리는 먼저 혁명적 방법에 의하여 그러한 일정한 수준을 위한 전제 조건을 쟁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연후에 로농 정권과 쏘베트 체제에 의거하여 다른 제 국민을 따라 가도록 전진할 수 없는가》(레닌, 《철학 연구자들을 위한 론문집》, 조선문 판, 332~335페지 참조)라고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 계급의 력량이 강대하고 근로자들의 혁명적 의식이 앙양된 조건에서 그리고 특히 강대한 세계 사회주의 체계가 존재하는 현 조건하에서 레닌의 이 교시는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레닌의 이 교시는 우리 당의 혁명적 실천에 의하여 빛나게 확증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유일적 지배가 달성된 조건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기초를 급속히 강화하며 일'군들의 문화-기술적 수준을 현저히 제고시키는 것이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며 공업과 농업을 포함한 인민 경제 전체 분야에서 기술적 개건, 기술 혁명을 수행하며 도시와 농촌에서 문화 혁명을 완수하여야 할 력사적 과업을 제기하였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완전한 승리는 나라의 생산력 발전을 위한 이 거대한 력사적 과업을 성과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결정적인 조건으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적 토대의 공고화는 직접 생산력 발전에 강력한 반작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상부 구조의 강화 발전을 통하여 생산력 발전을 촉진시켰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완전히 승리한 결과 로동 계급 독재의 계급적 지반은 더욱더 강화되였으며 로농 동맹은 새로운 사회 경제적 기초 우에서 강화되였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전체 근로 대중의 생활 속에 더욱 깊이 침투되고 있으며 근로 인민들은 낡은 사상 의식에서 해방되고 그들의 사회주의적 의식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의식 개변은 그들의 문화-기술적 수준의 제고와 함께 기술 혁명을 급속히 추진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외래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과 침략자들과의 가렬한 투쟁 행정에서 단련되였으며 고귀한 혁명 전통을 계승한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된 조선 인민은 당의 정확한 지도하에 그 주위에 굳게 단결되여 새 사회 건설의 장엄한 투쟁에서 무비의 혁명적 적극성을 발휘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이 높은 혁명적 의식과 적극성은 나라의 생산력 발전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근로 대중의 혁명적 적극성에 기초하여 나라의 생산력이 아름다운 청춘의 생활력을 발휘하면서 비상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공업화의 과업과 기술 혁명 및 문화 혁명이 전례 없는 앙양 속에 진행되고 있다.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생산의 년 평균 증가 템포는 42%에 달하였으며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완전히 승리하게 된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그의 년 평균 증가 템포가 실로 44.6%에 달하였다. 이것은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기초한 높은 생산력 발전의 합법칙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전후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상당한 정도에서 선진 기술로 장비된 중공업 기지가 개건 강화되였으며 경공업 기지도 창설되였다. 과거에는 극히 보잘 것 없는 상태에 있었던 기계 제작 공업도 나라의 전면적인 기술적 개건을 기본적으로 담당할 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

여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술적 락후성이 청산되고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가 확립되였다.

1959년에 공업 총 생산액은 1946년에 비하여 약 19배에 달하였고 해방 전 최고 수준을 약 6.5배나 능가하였으며 오늘 우리 나라에서 전력, 석탄, 세멘트, 화학 비료 등 중요 공업 제품의 인구 1인당 생산은 이미 일본의 그 수준을 따라 잡게 되였다.

농업 생산력도 급속한 발전을 보았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 경리의 수리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고 전기화에서 결정적 성과가 이루어졌으며 농촌 경리의 기계화도 앞으로 3~4년 내에 기본적으로 완성될 것이 예견된다. 농촌 경리에서 알곡의 단위당 수확고는 급속히 제고되고 축산 기지가 현저히 강화되였으며 농촌 경리의 다각적 발전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 생산 분야에서의 이와 같은 성과는 농업 협동화의 승리에 기초함과 함께 농촌 경리에 대한 사회주의 공업의 적극적 지지와 방조에 의하여 보장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적으로 물려 받은 인민 경제의 세기적 락후성이 청산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이미 자립적인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하는 력사적 과업은 빛나게 해결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생산 방식의 확립을 머지 않은 장래에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생산력을 가일층 발전시키는 것—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확고히 축성하며 일'군들의 문화-기술적 수준을 현저히 제고하는 과업이 계속 우리 앞에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없이는 승리한 선진적인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낮은 생산력 발전 수준 간의 모순은 해결될 수 없다.

3

사회 생산력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단한 발전 속에 있는 것처럼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도 부단한 발전과 완성화의 길을 밟고 있다.

현 시기 우리 나라 경제에서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낮은 생산력 발전 수준 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생산력의 발전에 적응하게 생산 관계의 개별적 측면들을 변화 발전시키는 사업을 소홀히 하여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새로운 생산력 발전의 요구에 의하여 생산 관계의 이러저러한 측면들(경리의 규모, 관리 형태, 사회주의적 분배의 실현 형식, 전문화와 협동화, 사회주의 경쟁 운동의 제 형태 등)은 생산력 발전의 매 걸음마다에서 제때에 신속히 변화 발전되여야 한다. 이것이 제때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생산력 발전과 생산 관계의 일부 낡은 측면들과의 모순이 일어날 수 있으며 생산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통합 이전의 우리의 농업 협동 조합들은 비록 그 규모가 작았다하더라도 그의 생산 수단이 사회화되여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선진적인 생산 관계로 되였으나 그와 동시에 이 협동 경리는 그 규모가 작은 점에서 농촌 경리의 기술 혁명 즉 현대적 기계화와 전기화 및 대규모의 수

리화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농업 생산력의 가일층의 발전, 농업 기술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필수적 전제로서 농업 협동 조합의 통합 문제를 경제 발전의 절실하고도 성숙된 과업으로 간주하였으며 그를 단시일 내에 완성시켰다.

사회주의적 생산력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당이 취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완성화를 위한 조치들은 비단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지방 공업 체계의 확립과 공업 및 상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 전체 분야에서 관리 형태의 개편은 지방 정권 기관과 기업소의 역할을 현저히 제고시켰으며 경제 관리 사업에서 대중의 참가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생산 내부의 예비들과 지방적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였다. 소비 협동 조합 상업의 농업 협동 조합에로의 이관은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간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면서 나라의 생산력 특히는 농업 생산력의 더욱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을 조성 하였다.

또한 공업에서 집단적 혁신 운동 특히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가 강화 발전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경쟁 운동의 형태들은 생산력 성격과 그의 발전 수준에의 생산 관계의 적응의 법칙의 작용에 의하여 더욱더 개선 발전되고 있다. 그것은 기술의 발전, 일'군들의 문화-기술적 수준의 제고 즉 생산력의 두 요소의 변화가 새로운 사회주의적 경쟁 형태의 부단한 발전을 가져 오기 때문이다.

농촌 경리를 비롯한 인민 경제 제 부문에서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의 구체적 실현 형식의 부단한 개선은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더욱 제고케 함으로써 생산력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력의 새로운 급속한 발전을 위한 요구에 의하여 생산 관계의 이러저러한 측면들에서 새로운 변혁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생산력의 더욱 새로운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 *

오늘 우리 나라는 이미 사회주의 건설의 첫 단계의 과업—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과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현실적인 걸음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당면한 이 과업의 완수를 위하여 아주 짧다고 말할 수 없는 일정한 기간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나라의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위한 이 력사적 과업을 기본적으로 결속 짓는 것을 그렇게 먼 장래의 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는 형제적 나라 인민들과 어깨를 같이 하여 공산주의 사회에 들어 설 수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사회 발전의 두 단계인 동시에 그 발전의 부단성에서 서로 련관되여 있는 두 개의 계단이다. 이 두 개 계단의 진행 과정은 매개 나라의 력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의하여 이러저러한 특성이 있을 수 있으나 요컨대 이 두 개 계단을 그렇게 획일적으로, 기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생산 방식의 확립을 위한 투쟁 행정에서는 이미 앞으로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과 관련된 준비적 조치들, 공산주의의 맹아적 요소들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 로동, 생활

신 덕

인민들의 생활에는 그 어떤 경계표와도 같이 새로운 력사적 시대를 열어 주는 그런 날들이 있다.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8. 15는 바로 이러한 날이다.

그 후 15년이란 짧은 동안에 우리 나라에서는 그 얼마나 놀라운 변혁들이 일어났는가. 뒤떨어지고 가난하던 우리 나라는 새 힘이 약동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되였다. 국가 관리로부터 완전히 배제되고 아무런 권리도 자유도 못가졌던 인민, 오직 가혹한 착취의 대상으로 되여 짚신밖에는 신발을 모르고 그스름 냄새 풍기는 오막살이 집에서 굶주려 살던 인민들의 생활이 오늘은 어떻게 되였는가.

오늘의 우리 인민은 자신이 국가를 관리하고 경제를 조직하는 그런 인민이다. 우리의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이 국가의 높은 연단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나라의 모든 일에 대하여 얼마나 훌륭하게 토의들 하고 있으며 얼마나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자본주의 세계인 일본에서 살던 수십만 동포들은 미제와 리 승만 역적들의 비인간적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찾아 공화국 북반부로 돌아 오고 있다. 남반부에 고향을 둔 동포들까지도 한사코 북반부로 돌아 오고 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본주의 세계를 버리고 공화국 북반부로 오게 하는가?

한날 한시에 해방된 남조선 인민들은 헐벗고 굶주린 생활을 더는 참지 못하여 지금 생존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항쟁에 일떠 섰다.

무엇이 남반부는 헐벗고 굶주리며 피흘리고 있을 때 북반부는 인민의 락원으로 될 수 있게 하였는가?

세계에는 지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제도가 대립되여 있다. 우리 조국의 남북에도 이렇게 되여 있다. 오늘의 남북의 판이한 정세는 바로 이 두 제도의 차이를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제도가 인민을 도탄에 빠뜨린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하지만 우리 제도, 사회주의 제도가 얼마나 어떻게 좋은가를 더욱 똑똑히 인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조국을 더 한층 사랑하고 일을 더욱 잘하게 될 것이며 우리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될 것이다.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 일이 사람을 찾는 나라

자본주의 제도하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오늘 우리 제도하에서는 극히 평범한 일로 되고 있는 것이 허다하다.

우선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 헤매는 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재능에 맞는 일'자리를 가지고 보람차게 로동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일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실업자도 걸인도 류랑 고아도 없어진지 오래다. 수십만, 수백만의 실업자들이 굶주린 창자를 안고 거리를 헤매고 있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실업을 없앤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조차 해 본 일이 없으며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거대한 문제가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 후 불과 몇 해 동안에 해결되였다. 이 얼마나 위대한 전변인가.

그러나 이미 행복에 젖어 있는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일터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 국가를 위하여 힘껏 마음껏 일할 수 있다

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을 가끔 잊어 버릴 정도이다.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적막하고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방 전 우리 인민들이 정든 고향과 조국을 등지고 남부녀대하여 만주로 일본으로 흩어져 갔던 것도, 오늘 수백만 남조선 인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며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것도 바로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일터가 없기 때문이다.

남조선에서 전체 주민의 거의 3분의 1이 실업자들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거니와 자본주의 옹호자들이 《자본주의의 왕국》이라고 떠벌리고 있는 미국에는 지금 400만 이상의 완전 실업자와 약 1천만 명의 반 실업자들이 있다.

부르죠아지의 대변자들은 실업이 마치도 인구의 증대에 의한 자연 법칙인듯이 떠벌리고 있으며, 남조선의 괴뢰 도당은 이러한 잡꾀대로써 천인공노할 자기들의 매국적 《이민》 책동을 변명하려 하고 있다.

실업은 바로 자본주의 제도의 산물이며 고질이다. 자본주의는 나날이 농민, 수공업자 기타 소시민들을 몰락시켜 무산자로 만든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다만 잉여 가치의 원천인 로동력의 소유자로만 보며, 생산의 목적이 인민의 수요 충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 개인의 리윤 추구에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수단을 상실하고 무산자로 전락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자본가들이 다 채용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채산이 맞는 한에서만 로동자를 채용하고 생산을 낸다.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를 위하여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로동자 즉 자본의 가치의 자기 증식에 복무하는 로동자만이 생산적이다》(자본론, 제 1권 2분책, 조선로동당 출판사 판, 184페지)라고 말했다. 이것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중 《선발된 부분》만이 일터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초과 리윤을 얻는 데 최대의 관심을 돌리는 자본가들의 활동 과정은 또한 로동자를 기계와 바꾸는 과정이다. 자본주의 생산의 발전과 함께 점점 더 많은 로동자들이 가두로 쫓겨나 실업자의 대렬을 확대한다.

사람들이 굶주리건 헐벗건 그것은 자본가, 지주들이 알 바가 아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실업으로 허덕이는 것은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조건으로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로동 시장을 압박하여 자본가들로 하여금 취업 로동자들의 임금을 로동력의 가치보다도 훨씬 낮게 정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제도만이 모든 사람에게 로동의 권리, 생존의 권리를 확보하여 준다. 사회주의 제도만이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일터를 주며 매 가정과 매 개인에게 행복과 희망을 안겨 준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일을 찾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이 사람을 찾고 있다. 실업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로력의 절약, 로동력의 합리적인 리용이 문제로 되며 로력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로동에 참가시키는 것이 문제로 된다. 우리 인민들은 벌써 실업이란 말조차 잊어 버릴 형편이다. 전문, 대학을 졸업하는 일'군들과 기능공들을 아무리 양성해 내여도 모든 생산 직장, 건설장, 문화 기관들의 점점 더 늘어 가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인민 경제와 민족 문화의 발전은 더욱 높은 기술과 기능, 더 높은 전문 지식과 일반 지식을 소유한 근로자들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하염없이 거리를 헤매던 실업의 쓰라림도, 남부녀대하고 류랑 방황하던 슬픔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옛'일로 되였다. 사람마다 힘과 재간에 맞는 일터가 있고 래일에 대한 근심이 없는 이것이 어찌 행복이 아니겠는가. 쓰레기통 뒤지기와 누더기 장사, 이것이 이국살이하던 수십만 재일 동포들의 연명의 길이였다. 조국은 오늘 그들에게 첫째로 안정된 일터와 생활을 보장해 준다. 남조선의 수백만 실업자들에게도 일'자리를 줄 것이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는가? 우리 나라에는 지

주도 자본가도 없다. 전체 인민이 모든 생산 수단과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다. 토지도, 지하 자원도, 공장, 광산, 철도, 항만 기타 모든 생산 수단도 은행, 통신, 상업, 수매 기관들도 모두가 국가의 소유 즉 인민의 소유이다. 우리 인민은 그 누구의 리윤을 위하여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모두가 스스로 로동하며 자체로 생산을 조직하며 경제를 운영한다.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로동에 참가하고 더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모두가 더 잘 살게 되는데 《실업》이란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민이 생산 수단의 주인으로 된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과 건설, 교육과 문화, 보건 시설들이 자본가, 지주들의 재산에 맞는가 안 맞는가에 따라 확장되거나 축소되지 않는다. 부단히 장성하는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가장 원만히 충족시켜야 할 생산의 목적 자체가 경제와 문화 사업의 부단한 발전을 요구한다.

레닌은 《오로지 사회주의만이 어떻게 하면 전체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다 편하게 하고 그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과학적 고려에 기초하여 생산품의 사회적 생산 및 분배를 광범히 확대하며 진정으로 그것을 통제할 가능성을 줄 것이다》(전집, 제 27권, 375페지)라고 강조하였다.

더우기 과거의 락후성을 하루 속히 털어 버리기 위하여 맹렬한 기세로 달려 나가고 있는 우리 나라에는 무진장한 일들이 헌신적 로력을 기다리고 있다.

최단 기간에 전체 인민들이 이밥에다 고기를 먹고 문화 주택에서 살 수 있게 하자는 당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일터로 가득찬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을 보라! 얼마나 많은 과업들이 근로자들을 부르고 있는가. 이 과업을 달성하면 우리는 부단히 더욱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 인민들도 우리처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한없이 많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터를 보장함으로써 먹고 입고 사는 데 걱정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었다.

로동의 열매는 모두다 인민을 위해 돌려지는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비록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잘 사는 것은 결코 아니다. 거기에서는 인간의 모든 정력과 재능이 착취의 대상으로 되여 놀고 먹는 자들에게 모든 복리를 주는 반면에 수백만 대중은 죽도록 일하면서도 헐벗고 굶주려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불합리, 이러한 비극을 영원히 청산하였다.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그들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돌려지는 우리 나라에서 로동의 결과가 고스란이 인민에게로 돌려지는 것은 물론이다. 로동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을 받으며 더 많이 일하고 더 잘 일한 사람에게는 더욱 훌륭한 생활 조건이 보장된다.

근로자들이 자기가 일한만큼 그의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평범한 일이지만 극히 위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과거 오래 동안 동경해 왔으며 혁명 선렬들이 그것을 위하여 싸운, 바로 착취 없는 사회가 우리 세대에 와서 현실로 되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우리 인민의 머리 우에는 지주나 자본가가 없으며 우리 인민이 바로 생산 수단의 주인이자 동시에 로력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기 로동의 결과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자본주의하에서 로동자들은 로동 시간의 대부분을 자본가를 위하여 무상으로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데 소비하고 로동 시간의 극소부분에 대해서만 대'가를 받으며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

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착취로부터 해방되여 자유롭게 일하며 일한만큼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행복으로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우리는 해방 전 우리 로동자들이 30전 내지 50전의 값싼 임금으로 감옥같은 로동 직장에서 12시간 내지 16시간 이상의 강제 로동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였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농민들은 적은 땅조각에 매달려 수확고의 50% 이상, 때로는 80~90%까지 소작료로 지주에게 물지 않으면 안 되였다.

오늘도 남조선 로동자들은 최저 생계비의 3분의 1도 못 되는 기아 임금을 받으면서 12시간 이상 20시간의 로동을 강요 당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얼마 안 되는 자본가들이 국민 소득에서 약 60%나 되는 몫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후 기간에 생산 사고로 인하여 년 평균 1만 5,000명이 사망하였고 200만 명 이상이 부상 당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우리의 행복, 사회주의 제도가 가져다 주는 로동과 생활의 행복을 온 몸에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인민의 복리에 대한 배려, 이것은 당과 정부 활동의 최고 원칙이다. 로동자들의 화폐 임금은 전후 기간에만 하여도 4차나 대폭 인상되여 1959년에는 전쟁 전 1949년에 비하여 3.7배로 장성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실질 임금은 약 1.9배로 장성하였다.

물론 우리는 인민의 생활에 대한 당과 정부의 배려를 이에만 국한시켜 볼 수 없으며 또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 나라의 로동자, 사무원들이 거의 무료나 다름 없는 헐값으로 받고 있는 식량, 세대당 월 평균 생계비의 3.4%밖에 안 되는 주택 사용료와 2.3%에 불과한 연료 및 전기료 이런 것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자면 먹고 입고 사는 데 걱정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후대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병나면 제때에 치료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 근로자들과 그의 자녀들은 국가의 부담으로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병원에서 무상 치료를 받으며 사회 보장으로 휴양을 한다. 해방 전 절대 다수가 문맹이였고 병나도 약 한 첩 써 보지 못하고 죽어 가던 우리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 제도는 이런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근로자들은 자기들이 받는 로임 이외에 국가로부터 허다한 혜택을 받고 있다. 국가가 지출하는 사회 문화 시책비만 보아도 매 세대당 로동자, 사무원들의 월 평균 로임의 70% 이상에 해당한다. 이것은 비단 우리 근로자들이 자기 로동의 결과로서 국가로부터 얼마나 많은 물질적 보수를 받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실로 근로자들로부터 인간으로서의 모든 근심 걱정을 덜어 주었으며 인간으로서의 모든 소원을 풀어 주고 있다. 사회주의— 이것은 가장 높은 진정한 인도주의인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의 결과는 약간의 민족 보위비와 행정 관리비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그들의 수입과 사회 문화 시책비 지출을 증대시키며 생산을 확장하는 데로 돌려진다.

금년도 공화국 정부 예산 지출에서 인민경제 및 사회 문화 시책비와 민족 보위 및 행정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3.5%, 6.5%이다. 이에 비하여 남조선 괴뢰 정부 금년도 예산에서 소위 《산업비》와 《군사 경찰 및 행정 관리비》의 비중은 각각 6% 및 94%를 차지한다. 금년도 괴뢰 정부 예산 수입에서 직접 간접으로 되는 조세 수입이 93%를 차지한다면 공화국 정부 예산 수입에서는 주민 세금이 2.1%에 불과하고 사회주의 경리로부터의 수입이 95.3%에 달하고 있다. 농업 협동 조합들은 각종 농산물 수확고의 평균 10%의 현물세를 바치는데 이것이 국가 예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에 지나지 않는다.

철두철미 인민을 수탈하여 한 줌도 못 되는 착취자들만이 썩어지게 잘 사는 제도, 그것이

자본주의라면 수백 수천만의 인민이 다같이 일하여 골고루 잘 살게 하는 제도는 바로 사회주의이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자기 로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며 어떤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 이 자각으로 하여 우리의 로동은 유쾌하고 희망에 찬 로동이며 영예롭고 신성한 것으로 된다. 10년을 하루와 같이 무사고 무결근으로 일하는 사람들, 로력의 위훈으로 하여 영웅의 칭호를 받는 사람들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찾아 볼 수는 없다.

사회주의하에서 생산력 발전의 비상한 속도를 부인할 수 없게 된 반동들은 우리의 로동을 《강제 로동》이라고 비방하는 것으로써 정말로 강제 로동에 허덕이는 자기 나라 근로자들을 기만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잠꼬대가 오늘날 그 누구도 기만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 인민의 로동은 그 의의와 결과에 있어서 보람차고 영예로운 로동일 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과학과 기술의 진보, 작업의 기계화, 자동화가 부단히 일을 헐하게 해 주기 때문에도 유쾌하고 성수 나는 로동이다.

실로 사회주의 제도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서도 새 시대를 열어 놓았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병집인 기술 진보를 장애하는 모든 조건들을 제거하였으며 부단히 새 기술을 완성시키고 그 성과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리용할 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 주었다.

과학과 기술이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발전되고 리용되는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가 로동자들의 대량 해고를 동반하는 자본주의 사회와는 달리 오직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고 로력을 절약하면서 근로자들의 일을 더욱더 헐하게 할 따름이다.

쏘련에서는 생산이 기계화, 자동화의 부단한 발전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로동을 현저히 헐하게 하면서 금년 내에 모든 분야에서 7시간, 6시간 로동일로 넘어 가게 되며 1964년부터는 6시간, 5시간 로동일로 넘어 가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에 가서는 부의 척도로 되는 것은 벌써 로동 시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맑스는 말했다. 로동이 헐해지고 로동일이 단축되는 것 즉 생활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는 것, 이것은 수입이 높아지고 물가가 낮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의 지표로 된다.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오래 살게 되는 법이다. 해방 후 15년 간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주민들의 사망률은 58%로 줄었으며 평균 수명은 15년이나 길어졌다.

이처럼 사회주의 제도는 이 땅 우에 생활의 락원을 마련해 주었으며 자유롭고 창조적인 로동이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있다.

인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 나라

해방 전 우리 인민은 조국이 없는 백성의 설음과 무권리를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였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과 재일 동포들의 무권리와 비참한 처지도 그들이 아직 진정한 우리 조국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손으로 사회주의적 조국을 건설한 우리 인민은 다만 로동의 권리와 그에 따르는 물질적 복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적, 사회적 권리와 자유도 다 가지고 있다. 인민이 자기들의 진정한 조국을 가지고 주권의 주인으로서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향유한다는 이것이 어떤 행복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인민이 스스로 주권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모든 국가 자원과 로동의 열매를 자기들의 복리를 위하여 점유하고 리용할 수 없으며 또 모든 부원과 자기들의 로동의 열매를 스스로 점유하고 리용하지 않고는 자기들의 주권을 유지 공고화할 수 없다.

오직 이러한 조건이 있는 데서만 인민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으며 모든 권리와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다. 우리 인민은 언론, 출

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도, 선거와 피선거의 권리도 이것을 그 누구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장악하고 있으며 행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우수한 인민의 아들딸들을 선출하여 주권 기관을 구성하며 모든 사람이 국가 관리와 경제, 문화 건설에 주인으로서 참가한다.

모든 생산 수단과 국가 주권이 인민 자신의 손에 장악되여 있으며 경제 및 정치 생활에서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여 있다는 이 사실은 개성의 진정한 자유를 위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담보로 된다.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는 실로 우리 인민에게 개성의 자유로운 개화 발전을 위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생산과 건설, 과학과 기술의 모든 분야에서는 근로자들이 보다 높은 기술 기능과 보다 많은 창의 고안들과 합리화 제안들, 보다 훌륭한 발명과 연구 성과들을 고대하고 있다. 문학과 예술의 모든 령역은 보다 많은 인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전국 방방곡곡의 직장과 가두의 써클들은 전체 근로자들에게 예술 창조에 참가하며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국가와 경제의 모든 일은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에 의하여 운영되며 관리되고 있다. 녀성들도 자기의 재능 대로 경제를 관리하며 국사에 참여한다. 청년들도 처녀들도 정치를 론하며 국가 계획을 토의한다.

우리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 인간으로서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하여 또 무엇이 부족하랴! 우리들이 당과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재능과 지혜,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휘하는데 또 무엇이 모자라겠는가! 사회주의 제도는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매 개인이 자기의 정력을 있는 대로 기울이며 재능과 소질을 마음껏 발전시킬 모든 조건을 지어 주고 있으며 또 이에 대하여 최대의 배려를 돌리고 있다. 사회주의 제도,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삶의 보람, 인간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우리 인민은 원래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나 해방 전에 우리들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으며 민족 예술은 멸망 상태에 처해 있었다. 남조선에서는 오늘도 그러하다. 그런데 해방된 북반부에서 우리 인민의 예술은 《황금의 예술》로서 세계적 평가를 받게 되지 않았는가.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주의의 조건하에서만 비로소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승냥이》라는 부르조아 사회의 법칙은 소멸되고 만인은 만인에 대하여 벗으로, 형제로 된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로부터 해방되고 자기의 생활과 운명에 대하여 자신만이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어찌 곤난할 때 서로 돕지 않을 수 있으며 서로 협조하여 다같이 잘 살기를 원치 않으랴!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단결하고 협조할 수 있는 새 형의 인간으로 된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단결과 협조의 힘을 이겨낼 자는 없다. 당과 정부의 주위에 뭉친 우리 인민의 의지와 힘을 그 누구도 꺾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

자본주의 사회에는 래일이 없다. 거기서는 생산력은 답보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나날이 더 심각한 빈궁과 실업에 허덕이고 있으며 공황과 혁명의 그림자는 부단히 자본가들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주의만이 양양한 미래를 가진 생기발랄한 사회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언제나 보다 광명한 래일을 약속한다. 오늘의 전망은 래일의 현실로 되고 래일은 또 새로운 전망을 안겨 준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오늘의 행복을 즐길 뿐만 아니라 보다 훌륭한 래일에 대한 희망으로 차 있다. 모든 사람들의 보람찬 로동에 의하여 생산력은 부단히 장성하고 생활은 날로 향상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의 한 고지를 점령하

고 보다 높은 새로운 고지를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의 행복을 창조하는 전투에서 창모부—당은 언제나 보람 있고 뚜렷한 목표로시 우리들을 지휘하며 고무한다. 우리들 앞에는 6～7년 내에 사회주의 건설에서 결정적 승리를 달성할 방대한 강령이 서 있다. 이 강령이 실현되면 우리 나라는 발전된 공업국으로 전변될 것이며 인민들의 생활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를 향하여 새로운 진군을 개시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무한한 우월성과 무궁한 장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우월성과 광명한 미래도 그 자체로서는 아직 가능성에 불과하다. 당과 인민의 노력이 이것을 현실성으로 전변시켜야 한다. 어떠한 전투도 능숙한 지휘가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당은 철두철미 우리 인민의 리익과 행복에 대한 고려로부터 출발하여 백전 백승의 무기—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데서 언제나 우리 인민을 승리와 행복에로 인도한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한사람같이 결속하여 그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 건설에 헌신하는 것—이는 우리의 모든 승리와 행복의 담보이다.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변시키는 것은 긴장된 로력과 투쟁의 과정이다.

우리의 사회주의 사회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의 전진 도상에는 허다한 애로와 난관이 있다. 간악한 원쑤들은 남녘 땅에서 좀처럼 물러 가려고 하지 않으며 형제들은 삶의 권리를 위해 피흘리며 싸우고 있다.

우리의 제도는 우월하고 우리의 승리는 크지마는 우리는 아직 태평가를 부르며 호화롭게 살 때는 아니다. 광명한 래일을 앞당기며, 남반부 형제들을 하루 속히 구원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곤난을 극복해 나가야 하며 서로 돕고 잘 협력할 줄 알아야 하며 검박하게 생활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을 절약하며 검박하게 생활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자들에게 고유한 품성이며 더우기 오늘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긴요한 것이다. 남의 로동으로 치부하는 부르조아들에게는 검박한 생활이란 있을 수 없다. 자신의 로동으로 행복을 창조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검박한 생활은 보다 훌륭한 래일을 위한 밑천으로 된다.

대중의 높은 열의는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을 창조한다

김 왈 수

의식이 제고되니 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났다

우리 공장에서는 금년 초부터 자동차 생산이 계속 비약적으로 장성하는 새 국면이 나타났다. 다음의 수'자가 이를 잘 말하여 준다.

	1월	2월	3월	4월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의 장성 (%)	100	162.6	307.8	316.8
자동차 생산 대수의 장성 (%)	100	118.3	300	350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히 지난 3월은 우리 공장에서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에 있어서나 자동차 생산 대수의 장성에 있어서 획기적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

3월에 자동차 매당 생산 시간은 년초에 비하여 1,500 여시간이나 단축되였으며 자동차 생산 대수는 2월에 비하여 불과 1개월 기간에 2.5배 이상으로 장성되였다.

3월을 계기로 하여 일어난 자동차 생산의 급속한 장성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것이 어떤 새로운 기계 설비의 도입이나 추가적인 로력 투하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있는 설비와 있는 로력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백방으로 제고한 결과 이룩되였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근로자들의 의식을 높여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함으로써 더 많이 생산하라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우리 공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첫 성과이다.

사실 금년에 3,0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자는 목표를 내세웠을 때 일'군들 속에서는 각이한 견해와 태도들이 나타났다. 절대 다수 근로자들은 현존 난관을 능히 극복하고 당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적극 동원되였으나 일부 지도 일'군들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는 있으나 그를 위해서는 새 설비와 더 많은 기능공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서로 다른 관점과 태도는 바로 일'군들의 각이한 사상적 준비 정도의 반영이였으며 새 것과 낡은 것, 선진적인 것과 보수적인 것 간의 투쟁의 반영이였다.

이런 정세하에서 공장 당 위원회는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를 더욱 높이고 일부 일'군들 속에서 표현된 소극적인 사상 관점을 극복하는 것을 제 일차적 임무로 간주하고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 실천을 위한 로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직하였다.

이에 있어서 우리는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서 근로자들의 의식이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실지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일'군들 속에 침투하는 한편 대중의 창발성을 억제하는 관료주의적 사업 방법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고 직장 당 단체들의 령도적 기능을 높이면서 공장 당 위원회가 직접 생산에서 관건적인 문제를 틀어 잡고 그를 대중 운동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조직 정치 사업을 심입시켰다.

근 1개월 반에 걸쳐 진행된 로의 사업이 심화되면 될수록 근로자들의 의식은 더욱더 제고되였다. 그들은 사업을 혁신시킬 데 대한 수 많은 창발적 의견들을 제기하고 그를 해결하는 투쟁에 앞을 다투어 나섰다.

로동자들의 창조적 적극성은 모든 일'군들을 비상히 흥분시켰으며 그들의 의식을 전폐

없이 앙양시켰다. 소극적 관점을 가지고 있던 일부 사람들도 만일 대중의 열의를 믿고 일을 잘 조직하기만 한다면 능히 3,0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생산해 낼 수도 있으며 따라서 지도 일'군들의 임무는 번질나게 회의나 열고 《하자》고 호소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 의거하여 그들의 사상을 계발하고 그를 물질적 성과로 전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조직 집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게 되였다.

혁명적 의식이 고도로 높아진 로동자 대중은 기술적 혁신과 기능 수준의 제고에서, 생산 조직과 로력 조직의 합리화 그리고 예비의 동원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보다 높은 창발성을 발휘하였으며 관리 일'군들은 기업 관리 수준을 부단히 높여 로동자들이 달성하는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열성을 내게 되였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공장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급격히 제고시켰다.

의식은 어떻게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는 데 작용하였는가

금년 초까지만 하여도 우리 공장의 자동차 생산에서 결정적으로 걸리고 있던 것은 바로 시린다 브록크, 크랑크축을 비롯한 중요 부속품들의 생산이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것이였다.

특히 자동차의 심장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시린다 브록크와 크랑크축은 가공하기가 극히 복잡하고 누구 하나 생산해 보지 못한 생소한 부속품이였다. 깎아 놓으면 열에 아홉 개는 오작품이 되여 못 쓰게되자 일'군들 속에서는 일종의 《신비주의》까지 발생하였다. 이 부속품들의 생산을 증대시키자면 우선 기술 문제를 풀어야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에서 이 문제는 외부로부터 설비와 기술을 받아 들여 해결할 수는 없었다. 당 위원회는 오직 대중의 집체적 지혜를 발동함으로써 자체의 힘으로 이를 해결해야 된다고 인정하였으며 그의 해결에로 대중을 동원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신비주의》를 배격하고 실지 기계를 깎는 로동자들에게 자동차 생산에서 시린다 브록크와 크랑크축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였으며 《크랑크축과 시린다 브록크가 한 개씩 있으면 자동차 한 대가 더 나온다》는 것을 해설하여 주었다.

김 순형 천리마 작업반원들이 수다한 기술적 혁신을 일으키면서 크랑크축 가공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였다. 당 단체는 그들의 창발성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지도 일'군들과 기술 일'군들을 모두 현장에 접근시켜 로동자들의 앙양된 열의를 옳게 조직하면서 로동자들이 제기하는 기술 문제 해결에 력량을 집중시키도록 하였다.

지도와 기술이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결합되자 사람마다 자기 맡은 공정들에서 혁신을 일으키게 되였으며 해결 방도를 찾아내기 시작하였다.

결국 2월 말을 계기로 시린다 브록크와 크랑크축 가공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였으며 그의 가공 시간도 현저히 단축되여 현재에 이르러 시린다 브록크의 가공 시간은 년초의 62시간으로부터 40시간 30분으로, 크랑크축의 가공 시간은 년초의 55시간으로부터 28시간으로 각각 축감되였다.

이렇듯 기술적 혁신은 가장 곤난한 고리로 간주되였던 부문들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일어났다. 결과 자동차 생산에서 걸리고 있던 일련의 부속품 문제가 점차 해결을 보게 되였다.

다른 부문들에서도 역시 대중적인 기술적 혁신 운동이 일어났다. 2월 말경에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협력하에 제작 도입되여 50배 이상의 기록적 능률을 낸 다제타 수판 만곡기를 비롯하여 허다한 크고 작은 기술적 혁신들이 일어났으며 모든 사람들이 련속적인 기술 혁신 운동에 참가하였다.

3월 1개월 간에 로동자들의 창의 고안에 기초하여 진행된 기술적 개조만 하여도 150 여 건에 달하는데 이것은 작년 년중을 통한 창의 고안 도입 건수와 같다.

로동자들의 창의 고안에 의한 새 기술은 모두다 간단하고 도입하기 쉬우며 리용하기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도입되면 즉시로 그의 효과가 발휘되였다. 우리가 기술 문제의 해결을 몇몇 기술 일'군에게만 맡기고 있었다면 이러한 혁신적 성과를 그처럼 짧은 기간 내에 이룩할 수는 도저히 없었을 것이다.

우리 공장에서 지난 기간에 일어난 기술적 혁신이 외부로부터의 새 설비의 인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수십 개의 부문에서 직접 그를 담당하고 있는 수천 명의 로동자 대중 자신의 창의에 의하여 창조되고 도입되였다는 사실은 기술적 혁신에서 대중의 높은 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논다는 것을 명백히 증시하여 주었다.

대중의 높은 창조적 적극성은 자체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생산 조직과 로력 조직을 합리화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발휘되였다.

로동자들의 열의가 앙양됨에 따라 대중 속에서는 자기 맡은 부문에서 주인답게 일하는 태도가 배양되고 모든 일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문에 앞을 다투어 참가하려는 공산주의적 기풍이 날로 높아 갔다. 이에 따라 로동 조직을 개선할 데 대한 새로운 제의가 로동자들 속에서 쏟아져 나왔다.

례하면 청년 직장에서는 볼반으로 구멍 뚫기 작업에 미숙련공이 배치되여 하루에 두 개밖에 뚫지 못하고 전반 공정에 지장을 주던 것을 기능공들이 자진 담당하고 40개씩 뚫어 약한 고리를 퇴치하였다.

또한 로동자들은 《기능 급수 한급 더 올리기 운동》, 《1일 1건 배우기 운동》 등 광범한 대중 운동을 통하여 기술 기능 수준 제고에서도 높은 열의를 발휘함으로써 금년 1.4 분기 기간에 공장적으로 평균 기능 급수가 0.4급 더 높아졌다. 우리 공장에서 한 분기 동안에 로동자들의 기능 급수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높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산 예비의 탐구 동원에서도 큰 성과가 달성되고 있다. 청년 직장 로동자들은 시린다 브록크 수압 시험 공정을 선행시키고 그 가공에서 기포 오작으로 내버리던 것을 재생 리용하였다. 그리하여 종전에는 월 100 여개 가공하던 데로부터 4월에는 240개나 가공하였다.

우리가 체험한 이 모든 사실은 《로동자들의 정치적 각성이 높아지면 그들은 자기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더 노력할 것이며 생산 장성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 내기 위하여 더 많은 창발성과 열성과 재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의 정당성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경험을 얻게 되였다.

정치 사업을 현장에서

지난 시기 우리 공장에서의 지도 사업을 《사상 동원 단계》와 《집행 단계》가 인위적으로 구분되여 있었다. 소위 《사상 동원 단계》는 당 정책을 해설 선전하는 군중 강연회나 《협기 대회》를 하는 단계였고 《집행 단계》는 주로 행정 사업을 통하여 《당 정책을 실천》하는 단계로 되여 있었다.

결과 정치 사업은 몇몇 지도 일'군들이 집회에서만 하는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사업으로 되여 있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당 정책의 실지 집행을 위하여 깊이 파고 들지 못하였다.

지도 사업에서의 이러한 낡은 《틀》은 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 이후 특히 김 일성 동지의 강서군 당 단체에 대한 현지 지도 이후 결정적으로 마사지기 시작하였다. 오늘에 와서는 모든 지도 일'군들이 누구나 다 작업복을 입고 생산 현장에서, 기대 옆에서 정치 사업을 한다.

지도 사업에서 일어난 변혁의 내용은 정치 사업을 하는 무대와 방법이 달라졌다는 데 있으며 그에 참가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는 데 있다. 이것은 결국에 있어서 지도 일'군들이 대중의 우에 서서 일반적 호소나 하던 데로부터 현장에 나가 로동자들의 앞장에 서서 솔선 수범하면서 대중을 이끌고 나가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생산에서 제기되는 각종 조직-기술적 문제들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고 기업 관리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유리한 가능성을 얻었다.

례하면 작년 말까지 각 직장들을 부속품 단위로 조직한 결과 모든 부속품들이 조립 직

장에 균형적으로 넘어 오지 못하여 생산에 지장을 주던 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도로서 우젤별로 생산 조직을 개편하는 길을 찾아냈다.

현장에서 정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또한 지도 일'군들의 사상 관점과 사업 작풍을 개선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모든 지도 일'군들은 생산에서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동자들이 그 얼마나 안타까와 하는가를 눈앞에 보았으며 로동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마비시키는 관료주의적 사업 방법의 유해성을 심각하게 느꼈다. 그리하여 관리 일'군들은 사소한 작업 도구에 이르기까지 상비 공구를 마련하여 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로동자들의 작업 조건을 조금이라도 더 잘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게 되였으며 그들의 생활 문제에 대하여서도 더욱 큰 관심을 돌리게 되였다. 지배인을 비롯한 관리 일'군들이 로동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상 애로를 해결해 주며 교대로 로동자 합숙에 들어 가 그들과 침식을 같이 하고 로동자들의 생활을 체험하면서 후방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장 전체 지도 일'군들이 순수 기술자, 순수 관리 일'군으로서가 아니라 우선 혁명가로서, 당원으로서 정치 사업을 전개하면서 그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자 대중의 적극성은 더욱 높아졌다. 로동자들은 《전 공장이 기대 옆에서 흥성거리니 새 힘이 솟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만이 우리의 관심사이다》라고 기뻐하고 있다.

생산 체육 경기 대회

대중의 앙양되는 열의를 실지 생산 성과로,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의 창조에로 조직 동원하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인 조직 사업이 요구되였다. 대중의 기세가 아무리 높다고 하여도 그를 방임해 둔다면 혁명 열의는 성과적으로 생산에 구현될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그 열의 자체가 오래 견지될 수 없다.

우리는 로동자들의 혁명적 기세를 한 계단 더 제고하며 그를 생산에서 발현시켜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을 창조하기 위하여 생산 체육 경기 대회를 조직 진행하였다.

생산 체육 경기 대회는 로동자들의 발기에 의하여 조직된, 생산과 일체 생활에서 모범을 창조하려는 그들 자신의 광범한 경쟁 운동이다. 그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체육 경기의 형식을 띠며 전체 로동자들을 망라하고 경쟁의 범위가 생산 뿐만 아니라 일체 생활까지를 포괄하는 가장 광범하며 대중적인 집단적 혁신 운동이라는 데 있으며 그것은 대중의 지혜와 재능을 가장 충분히 발휘시키며 선진 경험을 신속히 보급시킬 수 있게 한다.

지난 2월 22일에 있은 첫 경기 대회는 10여일 전부터 면밀한 사전 준비 사업을 거쳐 대중의 앙양된 정치적 열의 속에서 진행되였다. 경기 대회가 열린 단 하루 동안에 92건의 로동자들의 창의 고안이 도입되여 허다한 약한 고리들이 퇴치되고 새 기준들이 창조되였으며 그 하루의 기준 수행 정도는 전 공장적으로 2.4배에 달하였다.

그러나 정치 사업과 분리되여 단순한 《우승》만을 위하여 일한 몇몇 곳에서는 그 하루의 성과가 계속 공고화되지 못하는 편향이 나타났다. 이 경험에 토대하여 제 2차 생산 체육 경기 대회로부터는 경기 기간을 5~10일로 연장하여 비교적 긴 기간을 설정하고 경기 대회의 사전 준비 사업을 정치 사업을 통하여 더욱 면밀히 하도록 대책을 취하였다. 결과에 경기 기간 중에 창조된 새로운 기준량과 모범들이 공고화되고 있다.

생산 체육 경기 대회는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더욱 높이였으며 일부 일'군들의 소극적 관점을 타파하는 뚜렷한 계기로 되였다.

이 대중 운동을 통하여 로동자들은 자신들이 기업 관리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더욱 인식하게 되고 공장의 전체 사정에 관심을 돌리게 되였다. 이것은 이 운동이 대중을 기업 관리에 적극 인입하는 좋은 형식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은 로동자들과 관리 일'군들로 하여금 대중의 집단적 력량의 위대성을 굳게 믿게 하였으며 그에 튼튼히 의거하기만 한다면 모든 곤난을 능히 타승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갖게 하였다.

우리 공장에서 생산 체육 경기 대회는 대중의 실천을 통하여 계속 발전되고 있다.

지도 사업의 개선, 광범한 대중 운동의 조직 전개, 그 결과 이루어지는 지도와 대중의 밀집한 결합—이것이 바로 대중의 열의를 계발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고 3~4월에 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킨 우리의 중요한 한개 체험이다.

근로자들의 높은 의식은 기술과 배합되여야 한다

로동자 대중의 높은 열의에는 지도가 결합될 뿐만 아니라 기술이 배합되여야만 그것이 성과적으로 생산에서 발현될 수 있다. 우리의 경험은 대중의 높은 열의에 기술이 결합될 때 우리 앞에는 그 어떤 정복하지 못할 기술적 요새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매개 작업이 높은 정밀성을 가진 기술을 전제로 하는 우리 공장의 실정에서는 높은 열의도 선진적 사상도 기술 없이는 아무런 결과를 가져 올 수 없다.

대중의 높은 열의는 필연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높은 기술 기능을 소유하도록 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때를 앉아서 기다릴 수 없었다. 우리는 기술자들 속에서 당 사업을 강화하고 매개 직장에 기술자 그루빠를 배치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생산에 직접 참가하면서 로동자들과 함께 설계도 개조하고 기술 공정도 개선하도록 지도하였다. 이와 함께 신천 브리가다들을 조직 운영하여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이 제의하는 기술 문제들을 실지 생산에 도입하면서 한 단위에서 경험을 창조하고 그를 일반화하게 하였다. 이 외에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고리들에는 특별히 기술 력량을 집중적으로 포치하여 그것들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였다.

이와 같은 대책들은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을 한덩어리로 단합되게 하였으며 일할 때에는 《누가 기술자이고 누가 로동자인지 분간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이것은 로동자들이 자체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기술과 열의의 결합—이는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결합으로, 매개 로동자들의 높은 의식과 높은 기술 기능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기술과 대중의 열의와의 결합은 로동 생산 능률 제고를 위한 극히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그것은 대중의 높은 열의가 빨리 그리고 성과적으로 생산에 구현될 수 있게 하였으며 기술자들이나 로동자들 혼자서는 해결될 수 없었던 기술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게 하였다. 대중의 높은 의식과 기술의 결합은 또한 로동자들의 열의를 계속 견지하며 그를 한층 높이는 데 있어서도 큰 작용을 놀고 있다.

대중의 혁명적 열의에 의거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함으로써 생산을 증대시킨 우리의 경험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공장의 모든 지도 력량을 동원하여 생산 현장에서의 정치 사업을 강화하고 전체 로동자들을 적극 기업 관리에 인입함으로써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며 또한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 열의에 기술을 옳게 배합하는 것—이것이 바로 대중의 의식을 계발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열'쇠로 된다.

우리의 경험은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따라서 생산력 발전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 자체가 또한 생산 실천을 통하여, 들끓는 대중 운동을 통하여 더욱 더 제고된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의식과 생산 실천—이것은 호상 작용하며 호상 추동하는 것이다.

우리의 성과는 아직 시작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더욱 많고 어렵다. 자동차 생산량과 함께 그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생산에서의 기술-경제적 지표를 선진 국가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리는 문제, 아직 남아 있는 기술 문제의 해결, 이 모든 것도 역시 대중의 높은 열의에 의거하여 대중을 옳게 조직 동원함으로써만 능히 해결될 수 있다.

우리는 대중의 자각성과 창발성,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열의에 확고히 의거하며 기업 관리 수준을 부단히 제고함으로써 우리 앞에 제기된 모든 과업들을 반드시 수행하고야 말 것이다.

(필자는 덕천 자동차 공장 당 위원장)

정치 경제학 연구자들을 위한 좋은 참고 자료

홍 만 기

최근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는 《정치 경제학》(참고 자료)을 출판하였다.

필자 집단은 이 책이 정치 경제학을 처음으로 연구하는 당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방조를 줄 수 있도록 전 서술 행정에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정치 경제학》(참고 자료)은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집필 출판된 정치 경제학 서적들보다 그 내용에 있어서나 체계 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전진을 이룩하였는데 이 책은 정치 경제학을 학습하는 당원들에게 방조를 주기 위한 자기 사명을 기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인정된다.

전후 우리 나라에서 경제를 건설하고 운영하며 관리하는 행정에서 제기되는 리론적 실천적 문제들을 해명하기 위한 리론 및 통속 서적들이 수 많이 집필 출판되었다.

지금까지 집필된 서적들의 공통적 결함은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과 당의 경제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리론적인 해명이 부족하였으며 적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 리론을 해명하는 데 치중한 데 있었다.

필자 집단은 맑스-레닌주의 정치 경제학 리론이 우리 나라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결과에 이룩된 성과들을 옳게 분석 리론화하였다. 이 서술 행정을 통하여 그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정치 경제학 리론이 어떻게 창조적으로 적용되였고 그의 내용이 풍부화되였고 발전되였는가 등의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과 우리 당의 경제 건설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과학성, 그의 생활력을 경제학 리론에 근거하여 론증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전진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그러한 실례들은 해방 후 경제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자랑찬 성과들과 그 근원을 리론적으로 총화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편(6～10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필자 집단은 1946년에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제반 민주 개혁으로부터 사회주의 인민 경제 체계가 확립될 때까지의 우리 인민의 투쟁 행정을 과도기 경제 발전의 합법칙성에 립각하여 서술하였으며 조선 인민을 이러한 투쟁에로 인도한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의 경제 리론적 기초를 기본적으로 옳게 천명하였다.

이 책은 우리 나라에서 과도기에로의 이행이, 1936년에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작성된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에서 명확히 제시되였으며……천명된 혁명 과업》(171페지)인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이 수행된 기초 우에서 진행된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사정과 《우리 나라에서의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인민 정권 형태로 실현》(179페지)되였다는 것을 론증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공업화나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이에 관한 일반적 리론이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였으며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가 이 리론을 어떻게 솜씨 있게 우리 실정에 적용하였고 발전시켰는가를 론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주의편(11～21장)의 서술에서도 일관하게 반영되어 있다.

사회주의편에서는 매개 제목마다에서 정치 경제학의 일반 리론을 우리의 현실과 결부시키면서 서술하였고 해당 제목과 관련된 우리 당의 정책과 방침들을 가능한 정도로 상세히 서술하고 있으며 부분적 제목들에서는 정치 경제학의 범위를 벗어나 부문 경제학에서 취급하여야 할 령역까지 포괄하여 서

술하고 있다. 이것은 현 시기 우리 일'군들의 현실적인 요구인바 이는 이 참고 자료의 약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점으로 평가되여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와 그 과정에서 발생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공산주의적 관계들의 의의와 본질을 대담하게 리론적으로 해명 분석한 것이다.

필자들은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와 생산 발전의 전례 없는 속도는 착취로부터 해방되고 나라의 주인이 된 조선 인민의 《…열렬한 애국심, 높은 혁명성, 불요불굴의 완강성 그리고 새 것에 대한 감수성과 진취성》(277페지)에 오랜 혁명 전통을 가진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가 결합됨으로써 이룩된 산물이라는 것을 옳게 밝혀 놓았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답게 일하며 생활하자》라는 구호 밑에 높은 로동 생산 능률과 작업 기준량을 창조하며 자기 자신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려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관계들에 대하여 이 책은 응당한 분석과 평가를 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 근로자들 속에서 발생 발전하고 있는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의 근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가 《전적으로 사회주의 생산 관계의 확립에만 그 근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인민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혁명성,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보여 준 고귀한 혁명 전통,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그 주요한 근원이 있다》(342페지)고 정당하게 지적하고 있다.

필자 집단은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함에 있어서 기술 발전, 생산 조직의 개선 등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 나라의 조건하에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혁명적 열성,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자각성이 기술 발전에는 물론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는 모든 다른 요인들에 대하여서도 결정적 영향을 주면서 생산 장성과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서 결정적 의의를 놓고 있다》(360페지)고 의식의 역할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필자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산주의에로 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과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이 공산주의에로 동시에 이행하는 합법칙성을 구명함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필자 집단은 정치 경제학으로서의 응당한 체계를 갖춘 그러한 《정치 경제학》(참고 자료)을 집필하기 위한 노력에서도 일정한 전진을 보여 주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집필 출판된 정치 경제학 서적들은 정치 경제학의 개별적 제목이나 몇 개 제목 또는 개별적 경제 법주들을 해설하는 데 기울어짐으로써 정치 경제학으로서의 응당 갖추어야 할 리론 체계를 이루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금번 출판된 책은 사회 과학으로서 또한 력사 과학으로서의 정치 경제학이 가져야 할 체계를 갖추었다. 이 책은 원시 공동체 생산 방식으로부터 시작하여 공산주의 사회에 이르기까지의 매개 사회 생산 관계의 발생 발전 그리고 다른 보다 높은 생산 관계에 의하여 그가 교체되는 합법칙성을 체계적으로 해명하였으며 매개 생산 방식의 특성을 분석하는 과학으로서의 정치 경제학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전일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이와 함께 필자 집단은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서 정치 경제학을 학습하는 일'군들, 사회주의 건설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일'군들에게 경제 건설과 운영 및 지도 사업상 실제적인 방조를 주기 위하여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편과 《사회주의》편에 중점적인 주의를 돌렸다. 그들은 자본주의 이전 생산 방식들은 그의 기본 특징을 알려 주는 정도로 극히 간단하게 서술하였고 자본주의편은 사회주의 생산 방식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대담하게 요약 축소하여 서술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이 참고 자료에서 자본가들에 의한 로동자들의 착취를 반영하는 자본주의 기본 경제 법칙과 자본주의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기본적이며 중요한 모순들이 해명되지 않았거나 소홀하게 취급된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제 2장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가 어떻게 진행되며 그 결과 로동 계급의 처지가 어떻게 악화되는가가 서술되여 있으며 제 3장 《착취자 집단들 간의 잉여 가치의 분배》에서는 로동자들을 착취한 잉여 가치를 산업 자본가, 상업 자본가, 대부 자본가와 지주가 어떻게 노나 먹는가가 설명되였고 제 4장에서는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모순이 해명되여 있다. 이러한 서술 체계는 정치 경제학을 처음으로 학습하는 일'군들에게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본질과 그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인식시키는 데 손색이 없을 뿐더러 나아가서 사회주의편의 학습에도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필자 집단은 지금 경제학계에서 론쟁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우리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합의를 본 견해와 도달된 결론들에 기초하여 해답을 주고 있다.

례하면 생산력의 구성 요소는 학자들 속에서 아직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로동 도구를 포함한 로동 수단과 이 수단을 움직여서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이 생산력의 요소라고 주

장하고 있으며 다른 학자들은 생산력의 구성 요소에 로동 수단 뿐만 아니라 생산의 물적 요인 전체 즉 로동 수단과 로동 대상과 이것을 움직여서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인간을 전부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은 학계에서 기본적으로 합의를 본 의견에 근거하여 인간의 로동, 로동 대상, 로동 수단들 그가 호상 결합됨으로써만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산의 세 요소를 전부 생산력의 구성 요소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하에서 상품 생산의 필연성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경제학자들 간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으나 이 책은 학계에서 기본적으로 합의된 의견에 기초하여 사회주의하에서 상품 생산의 필연성을 사회적 분업의 존재와 사회주의적 소유 형태의 존재로써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책은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에서 사회 경제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여 왔으며 우리는 현재 어떤 사회 제도에서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건설하려는 사회는 어떠한 사회인가를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책이 또한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 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과학성,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령도의 현명성을 체득케 하며 자기의 사상을 단련하며 과학적인 사상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당과 김 일성 동지의 믿음직한 혁명 전사로 되게 하는 데 큰 방조를 주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금번 이러한 서적이 집필 출판된 것은 우리 당이 과학 발전에 일상적인 배려를 돌린 결과에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 나라 정치 경제학 연구 분야에서의 진일보로 된다.

이 책을 더 충실하게 하며 처음으로 정치 경제학을 연구하는 일꾼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참고 자료로 만들려는 욕망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일부 부족점들을 지적하려고 한다.

우선 이 서적이 가지고 있는 결함의 하나는 우리 조국 남반부에 조성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제 관계들을 《정치 경제학》(참고 자료)의 서술에서 특히 자본주의편 서술에서 잘 결부시키지 못하고 개별적 사실들을 단편적으로 또는 추상적인 자료들만의 인용으로 대치한 데서 초래된 것이다.

례하면 제 2장 《자본주의의 착취의 본질, 자본의 축적과 로동 계급의 빈궁화》에서는 상대적 및 절대적 잉여 가치를 서술함에 있어서나 자본주의하에서 로임의 본질과 형태, 로동 계급의 상대적 및 절대적 빈궁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응당 남반부 로동 계급의 비참한 처지와 그들의 투쟁 정형,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반인민적 정책과 야만적인 략탈 정책, 자본주의 제도의 추악상을 구체적 자료와 결부시켜 설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남반부 로동 계급의 처지에 대하여 극히 간단히 그나마도 불충분하게 취급되고 있다. 《일제 통치하에서 우리 나라 로동자들은 12~16시간의 로동을 강요 당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로동일은 일제하에서보다 더 길며 12~16시간에 달하고 있다》(45페지)와 《로동자들은 보통 12~18시간의 고된 로동을 강요 당하고 있으며》(160페지) 등등 단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인용된 자료들은 론리상, 자료상 불합리하며 나아가서 부정확하다. 그리고 남조선의 투쟁을 서술함에 있어서 《오늘 남조선 로동 계급은 로동일 단축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완강하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45페지)고 일반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마치도 로동 계급의 투쟁의 목적이 《로동일 단축》에 국한된 것 같은 인상을 독자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물론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문 —166페지— 에서 약간한 보충적 설명이 주어져 있기는 하다).

사회주의편과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편의 서술에 있어서도 남북 조선의 서로 판이한 현편을 대비하지 않는 등 처음으로 정치 경제학을 연구하는 독자들의 인식을 더욱 깊게 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 편들의 서술 행정에서는 남조선에서의 상품 류통 정형, 군사 예산 등이 대조적으로 취급된 것을 찾아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서술에서 현실적으로 보다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이 약하게 취급되였거나 또는 간과된 사실이다.

제 12장 제 1절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에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정신은 반영되고 있으나 지방 정권 기관들의 계획화 수준 제고 문제와 농업에서 계획화 수준 제고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상품 생산의 특성을 서술함에 있어서도 상품의 사용 가치와 가치에 대한 일반적 해설에 그쳤고 그가 사회주의 기업소의 경영 활동과 계획화에서, 당 경제 정책을 관철시킴에 있어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끝으로 서술 체계 구성상 일부 불합리한 것들이 있다.

우선 자본의 순환과 회전을 통하여 산업 자본가,

상업 자본가, 대부 자본가 등 세 가지 자본가 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평균 리윤률의 형성, 산업 자본가와 산업 리윤》이란 제 3장 제 1절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응당 독립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 또한 제 5장 《독점 자본주의-제국주의》에서 제국주의의 력사적 지위를 그의 기본 표징과 함께 먼저 설명하고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는 뒤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제국주의의 력사적 지위란 제국주의의 마지막 단계를 증명하여 주는 것이며 이는 주로 그의 기생성과 모순의 격화에서 표시된다. 기생성의 중요 원천의 하나가 식민지에서 착취하는 식민지 고율 리윤이며, 모순의 격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제국주의와 식민지 간의 모순이다. 그러므로 식민지 체계를 설명하고 제국주의의 력사적 지위와 그의 최후 단계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론리적일 것이다. 또한 령토의 재분할과 식민지 체계는 련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응당 제국주의 기본 표식을 연구하고 식민지 체계를 연구한 다음 그의 력사적 지위를 연구하는 것이 독자들의 리해를 더 촉진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부족점으로 지적할 것은 이 책 제 5장 제 4절에서의 남조선 경제 체계를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 특히는 그의 제 2단계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인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붕괴, 령토의 재분할과 세력권 확장을 위한 경제의 군사화 등과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에서 지적한 일부 부족점들은 《정치 경제학》(참고 자료) 집필에서 달성된 성과들을 감소시키거나 참고 자료로서의 사명의 수행에서 지장을 초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정치 경제학》(참고 자료)의 집필 출판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반영한 정치 경제학을 가일층 발전시킴에 있어서 첫 초석을 놓은 것으로 응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정 정

호수	폐지	행수	틀 림	옳 음
4	9	29	1954, 4, 1.	1955, 4, 1.
4	11	29	(1954, 4, 1. 《당원들 속에서 계급 교양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1955, 4, 1. 《당원들의 계급적 교양 사업을 일층 강화할 데 대하여》).

근로자 제 5호 (루계 174호)

편 집 위 원 회

발 행 소 • 근 로 자 사 　 인 쇄 소 •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 행 • 1960년 5월 15일 　 인 쇄 • 1 9 6 0 년 5월 10일

ㄱ—31236 　 값 50전

김일성선집

(제 4 권)

국판, 양장, 571 페지, 값 2 원 50 전,
발행 부수 300,000부, 발행 5월

선집 제 4 권에는 1953년 8월부터 1956년 말까지의 기간에 저술한 주요 로작들이 수록된다.

선집 제 4 권에는《모든 것을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와《산업 운수 부문에서의 결함들과 그 시정 대책에 대하여》등 우리 당 전원 회의에서 한 보고들을 비롯하여 전후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을 천명한 강령적 문헌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선집 제 4 권에는《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와《평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그리고《당원들의 계급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를 비롯한 1955년 4월 전원 회의에서 한 보고 및 결론,《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등 중요 문헌이 새로 수록된다.

이 서적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

1960년 5월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6 호 6 월 15 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60

근로자

제 6 호 (175)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1960년 6월 15일

차 례

권두언

화근은 뿌리 뽑아야 한다

조선에서 미제가 범죄적인 침략 전쟁을 도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났다. 조선 인민과 전 세계 인민들은 아직도 이 전쟁의 참화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벌써 100년 전부터 조선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로 등장한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자기의 강도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곳을 군사 기지로 전변시키고 침략 전쟁 준비에 광분하였다.

조선의 자주적 발전에 관한 국제 공약을 유린하고 식민지 노예화 정책에 항거하는 남조선 인민들과 민주 력량을 가혹하게 탄압하며 민족 분렬과 식민지 예속화의 도구로서 단독 괴뢰 정부를 조작하고 반동 세력을 규합 조장하며 민족 경제의 토대를 소탕하기 위한 악랄한 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괴뢰군을 조직하여 남조선 각지에 륙해공군 기지 및 군사 시설들을 대대적으로 구축한 이 모든 것은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준비 조치였다.

이러한 기초 우에서 전쟁 도발을 1주일 앞둔 1950년 6월 19일 미국의 전쟁 상인 덜레스가 남조선으로 날아 왔다. 38선을 시찰한 덜레스는 리 승만 도당에게 《북한에서 침입하였다는 역선전과 동시에 북한에 대하여 공격을 개시하라… 만약 1주일만 견디여 낸다면 …유엔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륙해공군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지시하였다. 미제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유엔에 내놓을 《조선 전쟁》에 관한 《결의안》까지 미리 작성했던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동족 상잔의 내란을 도발하면서 조선의 범위를 멀리 벗어나는 과업을 내세웠다.

그들은 전 조선을 단숨에 강점하고 조선 전 지역에 미국의 지배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대륙에까지 침략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적 야망을 달성하려고 몽상하였다. 미제는 또한 조선 전쟁을, 자국을 가일층 파쑈화하며 자기에게 예속되여 있는 나라들을 일층 더 종속시키기 위한 구실로도 리용하려고 타산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 파렴치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15개 추종 국가 군대들을 《유엔군》이란 명목하에 조선 전쟁에 내모는 한편 일본 점령군 사단의 거의 전부와 본토 《정예 사단》의 3분의 1, 항공 부대의 5분의 1, 《태평양 함대》의 대부분을 투입하였다. 그들은 또한 8년 간의 일본 경상 예산 지출에 해당하는 200억 딸라

략 거액의 전쟁 비용을 탕진하고 태평양 전쟁 시기의 그것을 11배로 능가하는 7천 300만 톤의 방대한 군수 물자를 소모하였다. 실로 조선 전쟁은 1차 및 2차 대전을 제외하고 근대 전쟁 력사상 최대의 전쟁이였다.

침략적 야욕에 눈이 뒤집힌 미 제국주의자들은 무차별 폭격, 대량적 학살, 세균 및 화학 무기의 사용 등 천인공노할 만행으로써 조선 인민을 멸살하려고 날뛰였다. 원쑤들은 우리 인민에게 형언할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그대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조선인을 죽임으로써 미국 시민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라》고 한 펜타곤의 악당들의 명령을 집행하면서 미국 살인귀들은 문'자 그대로 우리 나라를 초토화하였다. 8,700개의 공장, 60만 동의 가옥, 5,000개의 학교가 파괴 소각되였으며 수십만의 무고한 인민들이 가장 야만적 방법으로 학살되였다.

실로 조선 전쟁 3년 간에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가 세계 력사에서 류례 없는 가장 광포한 제국주의이며 약소 민족들에 대한 가장 파렴치한 압박자이며 교살자라는 것을 세계의 면전에 폭로하였다. 조선 사람의 가슴마다에는 미제가 저지른 만행에 대한 원한이 깊이 사무쳐 있다.

그러나 미제의 《초토화 전술》도, 밴플리트의 《하기 공세》와 아이젠하워의 《총 공세》도 그리고 어떠한 잔악한 전쟁수'법과 야수적 만행도 결코 그들을 패배의 운명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과 조중 량국 군대의 영웅무쌍한 투쟁에 의하여 그리고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강력한 압력에 의하여 자기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우리 인민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조선 인민이 쟁취한 력사적 승리는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체험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 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인민은 그 어떠한 세력에 의하여서도 굴복될 수 없다는 것을 력력히 보여 주었다.

미 제국주의에 대한 조선 인민의 승리는 세계 평화 유지에 적지 않은 기여로 되였다.

조선 전쟁을 하나의 고립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전 세계를 전쟁에 휘몰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전쟁으로 정당하게 평가한 세계 인민들은 조선에서의 참화를 통하여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 그 얼마나 무서운 위험을 인류에게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각국 인민들로 하여금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로 일층 궐기시켰던 것이다.

동시에 조선 전쟁의 결과 허장성세하여 《위력》을 자랑하던 미 제국주의자들의 《만능》에 대한 신화가 분쇄된 사실은 제국주의자들의 억압하에 있는 인민들로 하여금 미국의 《강대성》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남에 도움을 주었으며 사회주의 진영의 원조에 의거하면서 원쑤를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한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심을 굳게 하여 주었다. 조선 전쟁 이후 시기에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피압박 인민들의 투쟁이 일층 앙양되고 그 투쟁에서 련대성이 강화된 사실은 우연하지 않다.

정전의 성립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망을 열어 주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전체 조선 인민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게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화시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 왔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며 정전 협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왔다. 우리는 쌍방의 군비를 최소 한도로 축소할 것을 거듭 제의하였으며 솔선하여 8만 명의 조선 인민군 병력을 축소하였다. 1958년 2월 공화국 정부는 중국 인민 지원군을 포함한 일체 외국 군대를 철거시킬 것을 제의하였는바 중국 인민 지원군은 이 제의를 접수하고 조선으로부터 완전히 철퇴하였다.

우리는 또한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래왕과 서신 련락, 경제적 및 문화적 련계, 정치적 협상의 길을 개척할 것을 루차 제기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사촉하에 괴뢰 도당은 이 모든 제의들을 거부하였으며 지어는 도탄에서 헤매는 남반부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화국 정부와 북반부 인민들의 동포애적 구원의 손'길마저 거부하였다.

조선에서의 평화의 공고화와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우리의 모든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쑤들은 정전이 성립된지 7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국 땅에서 물러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부단히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며 군비를 확장하고 전쟁 재도발을 준비하는 데 광분하고 있다.

원쑤들은 우선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예견한 《정치 회의》의 소집조차 파탄시켰다. 1953년 10월에는 침략적인 《한미 호상 방위 조약》을 조작하였으며 뒤이어 《군사 및 경제 원조에 관한 한미 량국 의정서》를 조인하였다. 이로써 원쑤들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강점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괴뢰군에 군사 장비를 마음 대로 공급하고 있다. 1957년 6월에는 조선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소위 《유엔군 사령부》를 서울로 이동시켰으며 뒤이어 중립국 시찰 소조들의 사업을 봉쇄하고 각종 원자 및 유도 무기들을 남조선에 반입하였다. 최근에는 《반공》의 구호 밑에 수차에 걸친 《원자 기동 연습》, 《상륙 작전 연습》, 로케트 및 원자포 《시험 사격》 등등으로 남조선 인민들을 위협하며 긴장 상태를 조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제는 괴뢰군을 정전 당시의 16개 사단으로부터 31개 사단으로 확장하고 군사 분계선에서 적대적 도발 행동을 계속 감행하고 있는바 정전 후 1959년 10월 14일까지 우리측이 정식 항의한 것만 하여도 무려 863건에 달한다.

전쟁 재도발 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경제를 자기들의 군사적 목적에 완전히 복종시키고 남조선 인민들의 고혈을 최후의 한 방울까지 짜내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 침략과 경제적 략탈을 《원조》라는 간판으로 분식하고 있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남조선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소위 원조는 그들의 군사 침략 정책과 무제한한 략탈의 수단에 불과하다》(김 일성,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1차 회의에서 한 연설).

미제 침략자들은 전후 시기에 《원조》의 명목하에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략탈을 더욱 철면피하게 강행하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 경제를 완전히 미국 독점 자본에 예속시켰으며 남조선 경제를 계통적으로 파괴하고 남조선을 자기의 전략 원료 조달지로, 독점적 상품 시장으로 전변시켰다. 미제는 1945~1958년 간에 24억 9천 300만 딸라의 잉여 상품을 《원조》 형식으로 남조선에 투입한 대신 42억 8천만 딸라의 중요 물자 등을 남조선으로부터 략탈해 갔다.

오늘 남조선의 공업 총 생산액이 해방 전의 절반으로 축감되고 공장, 제조소들의 80%가 휴업 또는 조업 단축 상태에 빠져 있으며 로동 능력 있는 인구의 절반이 실업자 또는 반 실업자라는 이 모든 것은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의 후과이다. 남조선에서 알곡 총 수확고가 해방 전의 60%로 감소되여 인민들이 만성적 기아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것도 미제 략탈 정책의 필연적 결과인 것이다.

미제 침략자들은 오늘 남조선에서 예속 자본가, 지주들을 발판으로 삼고 괴뢰 정부의 막 뒤에 앉아서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부면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전대미문의 중세기적 암흑 테로 통치를 수립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원쑤들은 남조선에서 전쟁 시기에 수 많은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으며 1955~1959년 간에만도 81만 1,700 여명의 인민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실로 남조선 인민들은 말 한마디 마음 대로 못 하는 무권리 속에서 살아 왔다. 원쑤들의 폭압이 얼마나 심했던가 하는 것은 전쟁 시기에 그들이 감행한 대량 학살 만행이 1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야 백일하에 폭로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 하나만 지적해도 충분할 것이다. 원쑤들의 대량적 학살 만행은 지금도 계속 폭로되면서 있다.

미제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은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모든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을 생지옥으로 몰아 넣었다. 그러나 그 략탈자, 압박자들 자신도 사회 발전의 법칙으로부터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남조선에는 그 누구의 의사와도 관계 없이, 인민들은 더는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며 원쑤들도 더는 종전의 방식 대로 통치할 수 없는 혁명적 정세가 조성되였다. 이것은 해방 후 15년 간에 미제 식민지 통치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이다. 남조선 인민들의 영웅적 봉기는 만고 역적 리 승만을 쫓아냈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이 떠벌리던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면을 벗겨 버렸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거대한 성과들은 남반부에서의 사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으며 또 주고 있다.

원쑤들은 우리 인민이 전쟁의 참화로부터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원쑤들은 또 한번 오산하였다. 전후 시기에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 제도가 전면적으로 승리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철통같이 단결된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사회주의 건

설에서 다시 한 번 자기들의 힘과 영웅성을 유감 없이 시위하였다.

우리 인민은 전후 몇해 동안에 전쟁의 피해와 력사적으로 물려 받은 경제의 락후성을 청산하고 민족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였으며 나라를 락후한 농업국으로부터 선진적 공업-농업국으로 전변시켰다. 오늘 우리 로동 계급은 해방 전 1944년 1년 동안에 생산하던 공업 생산품을 55일 간에 생산한다. 농촌 경리도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였다. 식량이 부족하던 북반부에서 식량 문제는 이미 해결된지 오래다. 전체 인민들은 무료로 치료를 받으며 교육을 받고 있다. 지금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이 각급 학교에서 무료로 공부하고 있다.

이러한 빛나는 성과들이 기아와 무권리의 생지옥에서 신음하는 남조선 인민들을 고무하여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우리 당의 민주 기지 로선과 평화적 조국 통일 로선의 승리이다.

미제 침략자들은 생존의 권리와 자유를 위하여 항쟁에 궐기한 인민들에게 총포의 세례로써 대답하게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땅크도 총포도 격노한 대중을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자 미제국주의자들은 간교하게도 리 승만 대신 다른 괴뢰를 내세우고 마치도 인민들의 요구를 들어 주는듯이 가장하면서 그들을 기만하며 하는 한편 인민들을 계속 잔혹하게 탄압하면서 뒤흔들리는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 기구를 정비 강화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미제 상전의 지시 밑에 허 정 도당과 반동 정상배들은 괴뢰 국회에서 리 승만 파쑈 《헌법》을 각색해 가지고 《개헌》이요, 새 《선거》요 하며 떠벌리고 있다. 이것은 새로 등장한 반동 통치배들이 인민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도적질 하는 것이며 대중을 우롱하는 것이다. 미제 침략자들은 일시 마비 상태에 빠졌던 괴뢰 통치 기구를 《국무원》과 《국회》로부터 하부 말단에 이르기까지 재정비하는 데 몰두하고 있으며 지어는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 군대를 증강하려고까지 시도하고 있다.

남조선에는 아직도 계엄령이 철회되지 않고 있으며 허 정 도당은 상전의 지시에 따라 《공산 5렬의 발호》를 방지한다는 낡아빠진 구실 밑에 생활상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어선 인민들과 지어는 학살된 부모 친척들의 원쑤를 처단할 것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까지도 가차 없이 탄압하고 있다. 새로 발족하는 혁신적 정당, 사회 단체도 탄압을 받고 있다.

봉기 이후 3개월 동안 인민들이 무수히 피를 흘렸고 리 승만이 타도된지도 두 달이 넘는 오늘 아직도 인민들의 정치 경제적 형편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바로 미제 침략 군대가 계속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으며 괴뢰 통치 기구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민의 불구 대천의 원쑤 미제 침략자들이 남조선 땅에 머물러 있고 그들과 그 주구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과연 인민의 요구가 충족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

는가. 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투쟁도 종식될 수 없다.

미제가 물러 가지 않는 한 우리 조국이 통일될 수 없으며 조국이 통일되지 않고서는 파국에 빠진 남조선의 경제와 인민 생활이 구원될 수 없다.

모든 문제의 화근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에 있으며 출로는 오직 화근을 뿌리 뽑는 데 있다. 미제 강점자들이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 가야만 한다.

우리 조국은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전체 조선 인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통일되여야 한다.

미제의 남조선 강점이 지속되고 남북 조선 인민들의 자유로운 접촉과 협상이 실현되지 못하는 조건하에서는 남조선에서 그 누가 정권에 들어 앉아도 조성된 심각한 정치적 위기와 경제적 파국을 수습할 수는 없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는 도탄에 빠진 남조선 인민들의 절박한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튼튼한 물질적 토대가 구축되여 있다. 북반부의 풍부한 부원과 강력한 경제 토대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여지없이 파탄된 남조선 경제를 복구할 수 없으며 극도에 달한 남조선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 처지를 개선할 수 없다.

미제 침략 군대는 물러 가야 하며 조선 문제는 남북 간의 접촉과 협상에 의하여, 전체 조선 인민의 민주주의적 의사에 기초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폭압과 기만의 방법으로 15년에 걸쳐 남조선을 강점하고 인민들을 노예화하여 온 미제 침략자들은 오늘에도 계속 남조선 인민들을 회유하며 탄압하는 방법으로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 지반을 유지 공고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남조선 사태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이 더는 남조선 인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할 수 없으며 그들의 어떠한 폭압 기구도 각성되고 단결하여 항쟁에 일떠 선 인민 대중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배들을 반대하여 절박한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요구하는 투쟁은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중소 상공업자, 청년 학생, 인테리 등 각계 각층 인민 대중 속에서 계속 타번지고 있으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앉아서 굶어 죽기보다는 일어서 싸우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의 투쟁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력사의 법칙이다.

미제 침략자들은 오늘 비단 남조선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는 일본과 대만, 남부 월남 등 세계의 도처에서 인민 대중의 치렬한 반대 투쟁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랭정하게 바로 볼 줄 모르며 또 보려고 하지 않는 미제국주의자들은 계속 전쟁의 방법으로 세계 제패의 야망을 달성해 보려는 모험적 흉책을 버리지 않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긴장 상태를 조성하며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우리는 100 여만의 미국 군대가 70 여개 국가와 지구들에 주둔하고 있으며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주위에는 250 여개의 미국 군사 기지

가 설치되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미제 침략 계층은 특히 서부 독일과 일본에서 군국주의를 재생시켜 이 나라들을 다시금 동서방에서의 전쟁의 책원지로, 원자 전쟁 기지로 만들기 위해 갖은 파렴치한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나토는 서부 독일이 원자 무기를 생산하는데 대한 금령을 취소하였다. 미제 침략자들은 일본에서의 미군의 장기 주둔과 원자 기지 설치를 예견하는 일 미 군사 동맹 조약을 일본 인민의 치렬한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기시 도당과의 사이에서 강도적이고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성립시켰다.

미제 침략 계층의 새 전쟁 준비 흉책은 쏘련에 대한 간첩 비행을 감행하고 이를 자국 대외 정책의 원칙으로 선포하며 4렬강 수뇌자 회의를 파탄시킨 가증할 행위에서 더 한층 로골적으로 표현되였다.

미 제국주의는 우리 인민의 원쑤일뿐만 아니라 평화와 사회주의와 민족적 독립을 지향하는 전 세계 진보적 인류의 불구 대천의 원쑤이다. 미 제국주의자와 전쟁은 떼여서 생각할 수 없으며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평화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일본에서, 대만에서, 세계의 도처에서 피묻은 손을 떼야 하며 살인 무기들을 걷어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인민 대중은 부단히 경각성을 높이고 력량을 단합 강화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만 미제 침략자들의 도발 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할 수 있으며 그들을 물러 가게 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족적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은 세계 평화와 사회주의의 위업에 기여하며 세계 평화와 사회주의 력량의 강화는 우리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우리 인민은 전면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에 관한 쏘련의 새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군비 철폐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것을 진보적 인민들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한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나라 인민들 및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의 통일 단결의 강화는 우리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믿음직한 담보이다. 우리는 쏘련 인민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형제적 인민들과의 친선 단결을 계속 강화할 것이며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의 단결을 공고화할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 가라!

당 정책과 지방적 창발성

서 을 현

당 정책과 지방적 창발성은 객관 세계에 존재하는 일반성과 특수성의 표현으로서 호상 유기적으로 통일되여 있다.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은 더욱 넓은 범위에서 보다 심오하고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부단히 변화 발전되고 있다.

사회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작용하는 일반적 합법칙성은 당 정책의 객관적 타당성을 증명하면서 보다 다양한 형태를 띠고 나타나고 있다.

생활의 변화와 발전을 주시하고 있는 우리 당은 사회주의 생산 관계의 전일적 지배, 사회적 생산력의 비약적 장성과 관련하여 조성된 새 환경의 요구에 적응하여 공업 관리 체계의 개편, 지방 당, 국가, 경제 기관들의 기능과 문제 처리에서의 자립적 권한 확대와 같은 새 조치를 취하였다.

지방 당 기관들이 당 정책의 일반적 요구와 당해 지방의 구체적 실정을 깊이 연구하며 실지 사업에서 당적 원칙성과 지방적 창발성을 능숙하게 결합시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현 시기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당 규약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매개 당 단체는 자기의 지역적인 문제를 자립적으로 토의 결정한다. 그러나 지역적 문제의 자립적 결정은 당 규약 및 당 상급 기관의 결정과 모순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당 건설의 초석인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의 필연적 요구이다.

당 정책의 철저한 관철을 떠난 진정한 창발성, 지방적 창발성을 떠난 당 정책의 정확한 집행이란 있을 수 없다.

⁂ ⁂

당 정책을 철저히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것은 지방적 창발성의 첫째가는 전제 조건이다.

우리 당 정책은 조선 현실에 적용한 맑스-레닌주의로서 우리 혁명 발전의 가장 올바른 길을 가리켜 주며 우리의 모든 사업 부문에서 제기되는 과업들과 그 해결 방도를 명시해 준다. 즉 당 정책은 조선 혁명 수행에서 그의 앞길을 밝혀 주는 등대이며 문제 해결에서 기준으로 되는 자와 같다.

우리 당은 혁명의 매 발전 단계에서 해결을 요하는 성숙된 문제들을 포착하여 그에 대한 해결 방도를 제시해 주며, 수백만 대중의 실천적 경험과 지혜를 부단히 흡수 일반화한 로선과 정책으로 나침판과도 같이 당과 대중을 유일한 사상, 행동에로 결속시키며 그들을 항

상 승리의 길로 인도한다.

당 정책을 철저히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이것은 매개 당원들의 첫째가는 의무이며 지방 당, 국가, 경제 기관들의 모든 활동의 기본으로 된다.

당 정책은 말단의 지역적 및 생산적 단위에 조직된 각급 당 단체들의 다양한 조직 정치 사업과 수백만 대중의 무한히 복잡하고 다양한 구체적 실천 활동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 정책의 창조적 적용, 지방적 창발성은 당 정책을 떠나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당 정책을 외곡 집행하는 것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그러나 지난 시기 우리 도에서 장 순명, 고 봉기 등 혁명의 배신자들은 당 정책을 외곡 비방하면서 당 우에 자기의 《개인적 총명》을 내세우려고 음흉하게 책동하였다. 그들은 종종 《지방적 특수성》, 《지방적 창발성》을 당 정책보다 높은 자리에 놓으려 하였으며 그것을 당 정책의 본질과 기본 정신을 거세하는 《구실》로 삼았다.

우리의 경험은 당 정책의 일반적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 지방주의와 자유주의를 산생시키며 반대로 실생활에 존재하는 일반성의 발현 형태인 구체성,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은 당 실시 사업에서 교조주의, 주관주의를 산생시킨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지방주의, 가족주의 여독을 철저히 청산하지 않고서는 당 정책을 옳게 관철할 수 없다고 하신 수상 동지의 교시의 생활력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있다.

수상 동지는 3월 교시(1959년 3월 23일 조선 로동당 함북도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한 연설 《함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당의 참모부인 당 중앙 위원회의 지시와 결정에 의하여 전 당이 한사람과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여야 한다.

지도부에서 〈앞으로〉 할 때 가지 않겠다고 뒤에서 우물거리거나 〈좌로〉 하면 우로 달아나는 현상이 당내에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고 있는 지방주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당 정책을 무조건 집행하며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투쟁할 때 그곳에서는 온갖 창발성이 용솟음친다. 당 정책의 원칙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것을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투쟁—바로 이 과정에서 창발성이 발현되는 것이다. 창발성은 평탄한 과정에서가 아니라 난관을 극복하는 투쟁 과정에서, 당 정책을 옹호 관철하려는 혁명적 열정에서 생긴다.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것은 당 결정 지시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 행동의 진실성 여부를 구분하는 분기점이며 당적 원칙성과 지방적 창발성을 결합시켜 주는 실제적 계기인 것이다. 난관이 없는 전진을 상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쟁이 없는 평온 상태에서 그 어떠한 창발성도 생길 수 없다.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고 있는 근로 대중과 로력 혁신자들이 발휘하는 무진장한 창발력이 자기의 당, 인민, 수령에 대한 그들의 지극한 사랑과 목적에 대한 자각, 당 정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백절불굴의 불타는 혁명 정열에서 흘러 나오며 난관과의 무수한 투쟁의 반복 과정에서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실생활은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당 정책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것을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며 창발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 정책의 본질을 깊이 파악해야 한다.

당 정책은 주관적 창조물이 아니라 발전하는 객관적 현실과 대중의 실천적 경험에 토대하여 이루어진 산물이다.

당은 수백만 대중의 혁명 투쟁의 실천적 경험을 맑스-레닌주의적 통찰력을 가지고 리론적으로 분석, 종합, 일반화함으로써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나라의 전반적 발전의 지향에 부합되는 공통적인 행동의 지침을 준다.

그렇다고 하여 당이 부단히 변화 발전하는 각이한 시간과 조건에서 진행되는 무한히 다양한 수백만 대중의 구체적 행동만큼 구체적인 결정이나 지시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구체적 지시를 준다면 그것은 객관 세계의 공통적 합법칙성과는 동떨어진 개개의 현상에 대한 단순한 설명에 지나지 않은 것이며 당 정책의 강령적 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매개 결정 지시는 일반적인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게 되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매개 지방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되는 구체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당 정책의 본질, 그의 일반적 요구, 당적 원칙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만 당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창발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당 정책을 파악한다는 것은 모든 정책을 관통하고 있는 객관 세계에 대한 변증법적 사고 방식, 당 군중 로선의 기본 요구, 개별적 결정 지시들이 추구하는 목적, 목적 달성의 공통한 방향, 력량 포치의 중심, 선후차, 실행 방법들을 정확히 리해하고 자립적으로 사고할 줄 알아야 하며 이에 토대하여 창발적으로 자기의 구체적 과업을 더 많이 찾아내며 당 정책의 적용 범위를 창조적으로 확대시키며 실지 정황에 따라 대담하고 신축성 있게 사업을 전개할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도 일'군들은 당 정책 연구에서 그의 본질, 기본 요구를 충분히 파악함으로써만 이것을 척도로 하여 실생활의 무한히 복잡하고 다양한 구체적 현상들의 내부적 련관성, 공통점과 구체적 차이점을 정확히 분간할 수 있으며 당 정책을 당 중앙의 의도에 부합되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당 정책을 형식적으로 《연구》한다면 기본 사상을 파악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당 정책을 교조적으로 해석하고 실지 사업에서 천편일률식—기계적 방법을 적용하게 되는바 이 방법은 발전의 객관적 행정에 모순되기 때문에 구정은 일면성을 면치 못하게 되며 주관주의적 오유와 결함을 산생시키는 것이다.

당 결정 지시를 통채로 삼키고 기계적으로 내려 먹이는 데는 일정한 기억력과 사무 능력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당 정책을 진실로 파악하고 창조적으로 적용하자면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변증법적 사고 방식, 군중에 대

한 혁명적 관점을 소유하여야 하며, 실천적 경험, 자주적 판단력, 혁명적 전개력과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혹자가 자기의 《총명》만 믿고 당 정책을 한 번 읽어 보고는 벌써 다 알았다고 속단한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기가 총명치 못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우리가 가장 주목을 돌리고 있는 문제는 당,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결함으로 되고 있는 당 정책에 대한 형식적 《연구》, 교조적 해석, 기계적 집행의 경향성들과 군중의 리익을 침범하는 행정식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다.

아직도 당 사업에서 지방적 창발성의 결여, 교조주의적 태도는 우리의 모든 전진 도상의 큰 장애물로 되고 있다.

수상 동지는 일찌기 청소한 당에의 교조주의 침습의 용이성과 해독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면서 따지'자 우에 쓴 하늘천'자만을 아는 독경주의자들,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교조주의자들, 오유를 겁나 소심하고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소부르죠아적 근성의 소유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며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의 두뇌를 못 가진 인형극의 인형과 비유하였다.

아직 일부 지도 일'군들은 당 정책의 본질과 창조적 성격을 깊이 리해하지 못하고 인형과 비슷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상 동지의 3월 교시에는 당, 국가, 경제 기관들의 지도 사업의 모든 령역 혹은 일정한 부문에 반드시 적용하여야 할 수 많은 일반적 진리들이 포함되여 있다.

생활은 이미 3월 교시의 기본 정신과 일반적 진리들이 간부들과 대중들에게 파악되고 그것이 지방적 창발성과 결합된 곳에서는 례외 없이 당, 국가, 경제 건설의 모든 령역에서 거대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실증하고 있다.

3월 교시에서 수상 동지는 바다를 끼고 산이 많고 자그마한 벌판밖에 없는 함북도의 자연 경제적 조건과 특성을 분석하시고 목축업과 어업에 중점을 두고 밭곡식도 목축업을 발전시키는 데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원칙을 더욱 전개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대체로 산지에서는 반농 반목축업을 하며 해안 지대에서는 반농 반어업도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농산만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은 반농 반어 반목축업을 위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산을 잘 리용하고 바다를 잘 리용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수상 동지는 어느 군 어느 협동 조합에서 무엇을 위주로 하여 농촌 경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개별적 지시는 주지 않고 있다. 다만 모든 협동 조합들에서 그것을 각각 정확히 규정할 수 있는 강령적 지침—일반적 척도만을 주고 있다.

이 일반적 척도를 가지고 자체의 구체적 실정을 어떻게 측정하며 실천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 정책에 대한 지방 당 기관들 특히는 시, 군 당 위원회들과 초급 당 단체들의 관점과 방법

에 의존되는 것이다.

3월 교시를 깊이 연구하고 그의 기본 정신과 창조적 성격을 옳게 리해한 시, 군 당 위원회들은 이 교시의 척도를 가지고 매개 농업 협동 조합들의 공통성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실정에 알맞게 지도한 결과 많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경리를 합리적으로 개편 운영하여 큰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

회령군에서는 수상 동지의 교시를 군의 자연 경제적 조건에 알맞게 창발적으로 실행하여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산간 지대인 풍산리만 보더라도 작년에 94정보의 경지에 사탕무우를 재배하였으며 한편 자연 사료를 최대한 리용하여 돼지와 특히 초식 가축인 토끼, 소, 면양 등 축산업을 발전시키며 산을 리용하여 다각 경리를 발전시킨 결과 례년보다 알곡 수확을 높이고도 호당 현금 수입이 1958년의 근 4배인 778원에 달하였다.

반면에 경성군 인민 위원회 지도 일'군들과 같이 당 정책에 대한 깊은 연구도 없이 《소채 일반》만 보고 적지가 아닌 논을 페답하여 소채 생산을 하도록 룡산리에 내려 먹인 결과 70정보의 논에서 소채의 완전 무수확을 내게 하였다.

바로 이러한 관점과 방법 때문에 3월 교시를 창조적으로 실천하여 많은 곳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을 때 일부 시, 군 당 위원회들은 3월 교시와 하부 실정을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연구하지 않고 주관적 해석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농사일을 홀시하고 목축 일면만 일반적으로 강조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내려 먹인 결과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무원칙한 페경, 알곡 면적의 대폭 축소, 농산 로력의 분산, 농작물 비배 관리의 차요시, 개인 가축의 조급하고 무원칙한 통합, 공동 가축의 조합별 단일적 전문화 등으로 큰 손실을 보게 하였다.

도내 공업 부문의 일부 지도 일'군들도 3월 교시를 협애한 관점을 가지고 독경식으로 연구함으로써 많은 부분을 암기는 하였으나 자기의 실지 사업에 구체화하지 못하고 교시의 적용 범위를 협소하게 만들었으며 응당 해야 할 자기의 일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3월 교시에서 수상 동지는 《…일부 지도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서 아직까지 중심을 모르며 중점을 잡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일하다나니 이것도 저것도 못 하고 있다》고 청진 제강소의 실례를 들어 지적하면서 이 결함을 시급히 시정할 데 대한 기본 원칙들과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원칙과 과업들은 그 후 6개월이 경과한 지난 해 9월 창철에서 하신 교시의 기본 정신과 합치되는 것이였다.

만일 우리가 이 교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 정신을 제때에 파악하여 농업도 포함한 모든 인민 경제 분야에 이 진리를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더라면 오늘과 같은 거대한 전변이 이미 오래 전에 일어났을 것이며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생산력과 인민 생활은 보다 높은 단계에 도달하였을 것이다.

지난 해 경험들은 정확한 당 정책도 그것이 지방 당 일'군들에 의하여 외곡 집행되는 때 얼마나 큰 오유와 결함을

산생시킬 수 있는가를 충분히 보여 주었다.

당 중앙과 수상 동지의 깨우침만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였으며 집행상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지도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당 정책에 대한 협애한 관점과 소극적 태도가 빚어낸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그의 해독성을 인식시키며 당 정책 연구에서 일반적 진리, 기본 정신을 파악하도록 도와 주는 것은 당 정책을 지방 실정에 알맞게 구체화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당 정책의 집행에서 지방적 창발성을 발휘하려면 하부 실정을 료해하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극히 필요하다.

각 도, 시, 군, 리들과 기관, 기업소들은 서로 각이한 장소에 놓여 있으며 그를 둘러 싸고 있는 주위 환경도 각이하며 사업 내용도 같지 않다.

만일 자연 경제적 조건들과 함께 사람들의 언어, 풍습, 례절, 계급 구성, 의식 상태, 문화 수준의 차이까지만이라도 고려하다면 그 차이가 어느만큼 무한정인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사실상 세상에는 꼭같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세상에는 또한 모든 것에 공통한 것을 이런 혹은 저러한 정도로 내포하고 있지 않는 그런 것이란 하나도 없다.

지방 당 기관들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당 정책의 파악과 파악된 당 정책의 척도를 가지고 집행의 조직에 하부 실정에 대한 료해 사업을 선행시킴으로써 당 정책과 구체적 현실의 련계를 맺어 주는 것이다.

당 정책과 실정에 대한 파악이 결합된 기초 우에서만이 자기의 주견을 세울 수 있으며 주견이 서야만 집행의 구체적 방향과 방법을 정확히 규정하고 책임 분공과 지도 검열의 조직을 정확히 할 수 있으며 신심을 가지고 하부 일'군들에게 강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대담하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하부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방해로 되는 것은 형이상학적 사고 방식과 그의 산물인 형식주의적 사업 방법이다. 이 사고 방식의 일반적 특징은 당 정책과 하부 실정의 내부 련계를 보지 못하며 대중의 실천 활동을 정지와 불변의 상태에서 피상적으로 관찰하며 생활 속에서 부단히 창조되는 새 것과 그의 혁명적 의의를 리해하지 못하고 내용보다 형식에 치중함으로써 주관과 낡은 방법의 틀 속에 약동하는 생활을 얽매여 두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데도 우선 맥부터 보고 무슨 병인지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민들의 실정을 모르고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신 수상 동지의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하부 실정에 대한 료해가 우선 인민 대중의 생활 속에서 진행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먼저 근로자들이 무엇을 먹고, 입고, 쓰고 어떻게 살며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며 그들이 무엇에 관심하고 있으며 희망하며 요구하는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단되지 않는 객관 세계 발전에 대한 주시, 예민성,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구체적 내면 생활에로의 적극적 침투, 창발적 발기—이것은 모든 지방 당 기관들의 사업을 관통하고 있어야 한다. 정확한 료해를 위하여서는 대중 속으로 특히 기본 군중, 적극 분자들 속으로,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능력 있는 간부가 들어 가야 하며 되도록 더 많은 사람과 다각도로 《연설》이 아니라 담화를 하며 의논을 하며 그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귀담아 들어야 한다.

특히 담화는 지도와 대중을 련결시키며 지혜의 호상 교환, 갱신, 풍부화를 가져다 주며 당 정책을 침투시키며 하부 실정을 료해하며 당 기관에 창발력을 흡수하여 들이는 중요 형식의 하나이다.

만일 우리가 구체적 현실 속에서 자고 깨고 일하며 사고하는 로동자들, 협동 조합원들과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의논하였더라면 지난 해의 오유와 결함은 충분히 면하였을 것이다.

현실과 군중을 무시하는 자들을 특징지으면서 수상 동지는 3월 교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이 관료주의자들은 군중 속에 들어 안 가고 군중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코'대를 잔뜩 쳐들고 다니고 두마디 안팎으로 욕설만 하고 군중의 생활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만 제일 잘났고 자기의 의견이 제일 옳고 남의 의견은 다 나쁘다고 하면서 들어도 안 보고 덮어 놓고 열닷량'금으로 내며 먹이기만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엇이 되겠는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료해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지도 일'군들 중 많은 사람들은 주관적으로는 자기가 마치도 당 정책에 충실하고 원칙을 《견결히 고수》하는듯한 환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 작풍의 소유자들은 공명심에 사로잡혀 당 정책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대로 일하고 있다.

우리는 간부들에게 주관주의와 관료주의의 해독성을 인식시키며 그것을 속한 시일 내에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온갖 지방적 특수성을 관통하고 있는 일반적 합법칙성을 보지 못하며 하부의 구체적 실정과 군중의 여론과 의견들을 당 정책이 준 과학적 척도를 가지고 잴 줄 모르고 개별적 현상이나 개별적 사람들의 락후한 의견, 림시적 리익의 뒤꼬리를 따라 주견 없이 방황하는 추미주의와 그의 해독성에 대하여서도 경계하고 있다.

당 및 국가적 시도에서 추미주의는 당의 향도력을 약화시키며 군중 운동을 자연 발생성에 방임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당의 군중 로선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으며 그의 해독성에 있어서 관료주의만 못지 않다는 것을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에게 계속 인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 기관들이 사업 과정에서 발휘하는 지방적 창발성이란 본질에 있어서 그 어떤 《총명》한 사람의 개인적 창발성이 아니라 집체적, 대중적 창발성이다.

당적 지도의 최고 원칙인 집체성을 고수하는 것은 대중의 지혜를 지도적 기관 내에 부단히 흡수하여 들이며 당 정책을 창조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조건이다.

도, 시, 군 당 전원 회의, 열성자

회의, 집행 위원회들, 각종 경험 교환회, 강습 등은 이미 발양된 대중의 창발성을 흡수 일반화하는 중요 형식들이며 새로운 창발에로 추동하는 계기로 된다.

그러나 지도의 본질이 사무실이나 회의실 안에서 창조된 경험의 일반화에만 국한될 수 없다.

지도의 진정한 본질은 온갖 창발성의 영원한 샘터인 산 생활, 새 력사의 창조자—당 정책의 실천자들인 근로자들이 있는 작업 현장에, 갱내에, 건설장에, 바다에, 포전에, 축사에로 더욱 접근하며 산 사람들과 창조적으로 사업하는 것이다.

지도 일'군들은 당 정책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모든 생활 속에, 그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당의 기층 조직—초급 당 단체들에 구체적으로 침투하여야 한다. 지도 일'군들은 현실의 단순한 설명, 일반적 호소에 그치지 말고 당 조직과 대중의 잠재력을 계발, 조직 동원하며 설복과 해석에 국부적 모범의 의식적 창조에 의한 실물 교육의 방법을 배합시켜 로동과 생활이 제기한 성숙된 문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여 주어야 한다.

대중의 집체적 지혜와 창조적 적극성은 전능하다. 문제의 초점은 대중을 더 자각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당원들에 대한 당적 위임의 명확한 분공, 검열, 총화—이것은 자기의 당적 임무에 대한 자각, 영예감, 자부심을 불러 일으키며; 책임감, 창발력과 선봉적 역할을 제고시키는 강력한 수단이며 비당원 대중을 움직이게 하는 기본 고리의 하나로 된다.

새 환경은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의 가일층의 제고를 요구하며 군중의 혁명적 열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의 향도적 역할의 의의는 더욱 제고된다.

당 정책의 정당성이 생활에서 충분히 검증되였고 군중의 각오 정도가 비상히 높아진 현 조건하에서 청산리 당 단체에 대한 수상 동지의 지도 방법의 모범을 따라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대담하게 분쇄하고 당 사업 체계와 방법을 변천된 새 환경의 요구에 적응시키며 당 정치 사업과 조직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구체적으로 전개하여 기층 조직인 초급 당 단체들의 전투적 기능과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가일층 제고하는 것은 현 시기 도, 시, 군 당 단체들의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임무로 된다.

모두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와 근로 대중의 영웅적 기개에 튼튼히 의거하여 모든 창발성을 다하며 당 정책의 기'발을 끝까지 고수하고 관철시켜 혁명의 종국적 승리와 우리 인민의 부유하고 행복한 미래를 더욱 앞당기자.

쌍마 전진은 농업에 대한 공업의 전면적인 방조를 요구하고 있다

김 승 준

우리 나라의 공업-농업국에로의 전환은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공업의 지도적 역할의 제고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았다.

이것은 공업 농업 총 생산액에서 공업과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현저한 변화에서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우리 나라가 락후한 농업 국가였던 그 때에는 농업이 나라의 살림살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공업은 자체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된 오늘의 조건하에서 사정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공업 농업 총 생산액에서 공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고 사회주의 공업화의 토대가 구축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국가 살림살이가 기본적으로 로동 계급의 창조적 로동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공업에서의 수입과 축적에 의하여 꾸려지게 되였다.

해방 후 공업 농업 총 생산액에서 그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이 변동되여 왔다:

	공업 농업 총생산액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1946	100	28.2	71.8
1949	〃	46.7	53.3
1956	〃	60.1	39.9
1957	〃	63.4	36.6
1958	〃	68.6	31.4
1959	〃	70	30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 경제에서 공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된 사정은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공업의 새로운 약진을 위하여 농업을 종전보다 더욱 급속한 템포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업화에서 지난 기간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공업-농업 국가로부터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 국가로 전환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하루 바삐 완성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공업 발전에 적응하여 농업을 발전시키며 공업과 농업을 유기적으로 옳게 련결하여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공업과 농업, 이 두 부문은 서로 련결되여 있기 때문에 분리되여서는 성과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강력한 사회주의적 현대 공업이 없이는 발전된 사회주의 농업이 존재할 수 없으며 발전된 사회주의 농업이 없이는 강력한 사회주의적 현대 공업도 존재할 수 없다. 공업 자체의 발전은 원료와 식량의 공급자, 공업 생산품의 수요자로서의 농업의 발전을 전제로 한다. 발전된 농업이 없이는 원료와 식량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공업 생산품에 대한 농업 자체의

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공업의 발전에 따르는 생산 수단(뜨락또르, 자동차, 농기구, 화학 비료 등등)과 생활 필수품의 대량적 공급은 농업을 전진시키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전제 조건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과 농업은 서로 지원하고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두 개의 물질 생산 부문의 발전이 서로 밀접히 결부됨으로써만 사회주의 경제의 전면적 앙양이 보장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조건이 조성될 수 있다.

우리 당은 자기 경제 정책 수립에서 시종일관 공업과 농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전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여 왔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기본 로선이 바로 그의 구체적 체현인 것이다.

이것이 근로자들 속에서 널리 불리우고 있는 쌍마 전진, 쌍두 천리마이다.

그러므로 쌍마 전진을 위한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의 강화는 오직 경제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기본 로선이 계속 철저하게 관철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지난 시기 우리 당이 중공업의 복구 발전에 그처럼 중요한 력량을 기울여 온 것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튼튼한 중공업 기지를 조성하여 농촌 경리를 포함한 전체 인민 경제를 기술적으로 재장비함으로써 경공업 및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며 전체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오늘 농업에 대한 공업의 전면적인 생산-기술적 방조의 강화는 변천된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당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을 견지하는 것으로 되며 그 관철의 주요 내용으로 된다.

현 시기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에서 주되는 측면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 농촌 경리에서 전면에 나섰던 것은 공업과 농업 간의 생산 관계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였다.

농업의 협동화가 완성된 결과 이 모순은 성과적으로 해결되였다.

오늘 우리 농촌 경리에서 전면에 나선 것은 공업과 농업 간의 기술 수준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공업은 현대적인 최신 기술에 토대하여 급격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는데 농업은 아직 락후한 수공업적 기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생산의 발전 템포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 동안 지속된다면 농업은 공업을 따라 가지 못하게 될 것이며 전체 인민 경제는 발전에서 장애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농촌에서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 자체도 새로운 기술에 확고히 발을 붙이기 전에는 완전히 공고화되였다고 말할 수 없다.

《기계화를 함으로써만 우리의 농업 협동 조합들이 진정으로 견고한 사회주의적 경리로 될 수 있으며 생산이 훨씬 올라 가고 농민들의 생활이 더욱 부유해질 수 있다》(김 일성,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현 시기 공업과 농업 간의

기술 수준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공업에 농업을 따라 세우며 인민 경제를 전반적으로 급속히 발전시키고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하기 위한 중심 문제로 나서고 있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가 농촌 경리의 기계화의 촉진을 완충기의 중심 과업 해결의 첫째 가는 고리로 규정하고 전 당, 전체 공업이 동원되여 농업을 지원하라고 호소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농업을 새로운 기술적 토대 우에 올려 세우기 위하여 공업으로부터의 전면적인 지원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호소의 실천은 《…우리 나라 기술 혁명을 전반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초》(우와 같은 문헌)에 튼튼히 의거하고 있다.

우리의 공업은 전후 6년 간에 8.6배라는 실로 놀라운 템포로 장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구조상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1953년에 비하여 1959년에 생산 수단 생산은 12.7배, 소비재 생산은 6배로 장성하였으며 공업 총생산액에서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의 비중은 지난 해에 20.6%에 달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이미 공업 뿐만 아니라 농업도 포함한 전체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을 훌륭히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립적인 구조를 가진 중공업이 창설되였다는 명백한 표시로 된다.

종래에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주로 부속품 생산과 소규모적 로동 도구들을 생산하였고 농업에 축력 제초기, 탈곡기 등 중 소 농기계, 농기구들을 생산 공급하는 수준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사정이 다르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뜨락또르, 화물 자동차와 같은 현대적 기계를 비롯한 각종 선진적인 농기계들을 대량 생산하여 농업의 전면적인 기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전후 시기 우리의 공업은 배치상에서도 크게 변화되였다.

농업 발전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있는 공업 기업소들이 농촌에 일층 접근되였으며 모든 공업 기업소들이 전체 인민 경제의 생산적 요구에 적응하게 개편되여 왔다. 특히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 지방 공업 체계의 확립과 대 공업과 중 소 공업의 병진 등 이 모든 우리 당의 현명한 정책에 의하여 중앙적인 대규모 공업과 함께 지방적인 중 소 공업이 급속히 확대 강화되였으며 어느 도, 어느 시, 군을 물론하고 도처에 중 소 기계 제작 공장들이 창설되였다. 이리하여 오늘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농기계 생산 및 수리 체계가 확립되였으며 지방의 실정에 맞는 각종의 농기계, 농기구들이 제때에 더 많이 생산 공급되게 되였다.

공업 부문에서 달성된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오늘 공업이 농업에 주는 방조의 내용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오늘 공업이 농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주요한 것은 지난 시기 주로 근로 농민들의 생활-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적 방조로부터 이미 그 중심이 옮겨진 생산-기술적 방조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금년에 우리 공업은 뜨락또르 4,000

대, 자동차 3,000대, 련결차 1만 5,000대를 비롯한 1만 대의 종합 탈곡기, 4,000대의 가마니 직조기 등 각종 동력 기계들과 11만 대의 우차와 14만 대의 중경 및 제초기 등의 축력 농기계들을 새로 공급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 농촌을 새로운 기술로 장비하기 위하여 일떠 선 우리의 로동자들은 직접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들과의 련계를 강화하여 그들의 요구를 생산에 적극 반영시킴으로써 농기계의 질을 일층 높이고 있다. 또한 그들은 지난 시기 일부 농기계 생산에서 존재하던 교조주의를 퇴치하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농기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로력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 농업의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추진시킴에 있어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게 된 것은 공업의 발전과 함께 농업 부문에 조성된 새로운 유리한 조건들과 직접 관련된다.

그것은 우선 우리의 농업이 대규모적 사회주의 협동 경리로 전환되고 통합 발전됨으로써 대규모 농기계를 받아 들여 능률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터전이 닦아졌다는 사실이다.

또한 우리의 농업 협동 경리가 처음부터 농기계 작업소, 관개 체계(대부분 국가 소유), 산림 등 국가적, 전 인민적 소유와 긴밀히 결합되여 있으며 그의 지도적 역할이 강한 조건하에서 생산 및 경영 활동이 전개되여 왔다는 사정은 사회주의적 대규모 공업의 방조를 성과적으로 받으면서 자기의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오늘 우리의 농촌에는 소유 관계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물질- 기술적 측면에서도 공업의 새로운 방조를 성과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다.

우리의 농촌에서는 수리화가 이미 기본적으로 완성되고 전기화에서 결정적인 성과가 달성되였으며 기계화에서도 일정한 토대를 조성하여 놓았다.

이미 90% 이상의 농촌에 전기가 들어 갔으며 8,000 여대의 뜨락또르(15마력 환산)와 수 많은 자동차가 농촌에서 작업하고 있다.

농촌 기술 혁명의 거점인 농기계 작업소는 기계 기술상 방조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의 조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협동적 생산을 하게 되였으며 생산 성과에 대하여 조합과 함께 책임을 지는 주인으로 되였다. 또한 종래 주로 기경에 종사하며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던 이 작업소가 오늘에 와서는 기경을 비롯하여 파종, 제초, 운반, 수확 등 그 작업 범위를 확대하여 협동 조합의 영농 작업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였다.

농촌 경리의 기술 혁명이 본격적인 수행 단계에 들어 서면서 우리 당은 농촌에 방대한 기술 력량을 파견하였다. 파견된 기술 력량은 공업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술 설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사하게 할 것이며 영농 사업을 과학 기술적 토대 우에 확고히 올려 세우게 할 것이다. 그들은 동시에 앞으로 수 많이 요구될 기계 기술 일'군과 농산, 축산 일'군들을 실지 작업 과정을 통하여 양성함으로써 우리 농촌에 튼튼한 기술 진지를 구축하게 할 것이다.

현 시기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에

서 생산-기술적 방조의 의의가 비상히 커졌다고 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소비적 련계, 농민들의 생활-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업의 방조의 의의가 감소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농촌에서 문화 혁명이 추진되고 농민들의 생활이 급격히 향상됨과 관련하여 로동 계급은 이 분야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방조를 농민들에게 주어야 한다. 우리 공업은 우선 날로 증대되는 농민들의 생활 필수품에 대한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경공업과 함께 이미 다수 신설 확장된 지방 공업을 급격히 발전시켜 소비품 생산의 종류와 규모를 확대하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문화 혁명의 광범한 전개와 관련하여 공업은 농촌 문화 건설 기자재를 대량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촌의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이 강력한 사상 투쟁을 동반하는만큼 농민들에 대한 선진적 로동 계급의 사상 정치적 지도의 가일층의 강화가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현 시기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경제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로, 농업에 대한 공업의 생산-기술적 방조의 강화는 지난 날 주로 힘들고 생산성이 낮은 손 로동에 기초하고 있던 우리의 농업을 기술과 문화가 지배하는 농업으로 전환시켜 농업 생산의 전면적인 앙양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의 농업은 공업의 적극적인 방조에 의거하여 알곡 생산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채소, 고기를 비롯한 축산물과 공예 작물, 과실, 잠견 등 농업 생산물을 더욱더 많이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농업은 식량, 부식물 및 원료에 대한 도시 공업과 주민들의 증대되는 수요를 더 원만히 충족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농업 생산력이 결정적으로 제고되고 농업이 급속히 발전하는 공업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게 되면 공업의 발전은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쌍두 천리마는 더욱 질풍처럼 내달리게 될 것이다.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는 농민들 자신의 생활을 유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시 근로자들의 생활을 가일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완충기의 중심 과업이 훌륭하게 해결되여 앞으로 6~7년 내에 사회주의 건설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진군의 준비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농업에 대한 사회주의 공업의 방조가 강화되고 농업이 현대적 기술로 장비되면 될수록 농업 로동 생산능률은 크게 제고될 것이며 농산물의 상품화률은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 행정에서 농업 로동은 공업 로동의 변종으로 점차 전변되며 농업 생산물 가치에서 공업 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고될 것이다.

현 시기 농업에 대한 사회주의 공업의 전면적인 방조의 강화는 로농 동맹을 가일층 공고화하는 데 있어서도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 승리의 근본적 담보인 로농 동맹은 첫째로 그의 경제적 기초로 되는 생산 관계를 공고 강화하며 물

재로 농민들의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그들을 로동 계급의 선진 사상으로 무장시킬 때 종국적으로 공고화된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협동화가 완성됨으로써 로농 동맹은 우의적이며 호상 친선적인 두 사회주의적 계급 간의 동맹으로 전화되였다.

그러나 그들이 기초하고 있는 소유 형태에는 차이가 있다.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를 강화하며 농업을 선진적 기술의 토대 우에 올려 세우는 것은 이 차이를 극복하며 협동적 소유를 더욱더 전 인민적 소유의 수준으로 접근시키며 로동자와 농민, 도시와 농촌의 본질적 차이를 점차 소멸하는 방향으로 전진을 촉진할 것이다.

다른 한편 이미 확립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기초하여 로동 계급과 농민의 두 계급 간의 호상 리해와 친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두터워졌다고 하지만 농민들의 머리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개인 리기주의적 낡은 사상 의식을 철저히 개조함이 없이는 그것은 더욱 강화될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상 의식은 그들의 사회적 처시의 변화 즉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하는가에 따라서 개변된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사상 의식을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에 대한 공산주의적 교양을 강화함과 함께 농촌 기술 혁명, 특히 농업의 기계화를 추진하여 농업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의 강화는 농민들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여 그들을 완전히 사회주의적 농민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로동 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을 새로운 토대 우에서 공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렇게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때 우리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새로운 앙양을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제도하에서의 인민 생활

김 기 남

인민 생활은 해당 사회 제도의 성격에 의존하고 있다.

과거의 모든 계급 사회에 있어서는 그 사회 제도의 착취적 본질로 인하여 인민 생활에 관한 문제가 제기조차 될 수 없었다. 로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데 혈안이 되고 있는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로동자들의 생활 문제가 아무러한 관심꺼리도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자본가들은 로동자들을 생활상 요구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가 아니라 오직 잉여 가치를 낳는 산 《기계》로 간주하고 있다. 자본주의하에서 로동자들의 개인적 소비는 《생산 과정의 순전히 우연적인 삽화》에 불과하며 《증기 기관이 석탄과 물을 소모하고, 차륜이 기계유를 소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칼 맑스 자본론, 1권 2분책, 271페지).

자본주의 제도는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 신음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항상 래일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 놓아 넣고 있으며 수천 수백만의 로동 능력 있는 사람들을 실업과 절망과 굶주림 속에 방입케 하고 있다.

지금에 와서 부르죠아 이데올로그들도 자본주의 제도의 불가피한 산물인 빈궁, 실업, 공황 등의 현상을 로골적으로 부인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이러한 고질을 분식하고 자본주의 제도의 착취적 반인민적 본질을 엄폐하며 정당화하기 위하여 각종 반동적 《리론》들을 꾸며내고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자본가 계급의 태도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리론》으로서 말사스주의를 들 수 있다. 말사스는 자본주의하에서의 가난한 사람들을 불필요하고 《과잉》한 존재라고 하였으며 그들은 자연이 차려 놓은 연회에 참가할 아무러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연은 그들에게 퇴장을 명령한다고 떠벌렸다. 말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하에서의 무서운 빈곤과 질병과 전쟁은 이 《과잉》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좋은 수단으로 되며 근로자들에게 대하여서도 도리여 《행복》으로 된다고까지 지껄이고 있다. 이러한 식인종적인 《리론》이 특히 자본가 계급의 지지와 총애를 받고 있으며 오늘 미국과 남조선을 비롯한 자본주의 세계에서 널리 류포되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근로자들은 빈궁과 실업과 무권리의 운명을 면할 수 없다. 그것은 이 모든 현상이 자본주의 제도의 본질로부터 불가피하게 산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사회주의 제도만이 착취 당하고 압박 받는 근로자들 앞에 부유하고 행복한 생활의 길을 열어 준다. 근로 인민의 주권이 확립되였으며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가 지배하는 조건하에서 근로자들은 비로소 자기 운명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생산의 결과는 오직 근로 인민 자신의 리익을 위하여서만 리용되며 달

리는 처리될 수 없다. 사회주의하에서 《실업》, 《파산》, 《빈곤》, 《빈민굴》, 《걸인》 등등의 말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근로하는 사람이다. 사람에 대한 배려는 사회주의 국가의 모든 활동에서 최고의 원칙으로, 가장 중요한 시도적 리념으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 제도만이 인민을 행복한 생활에로 인도할 수 있다는 진리는 우리 나라의 력사적 경험에 의하여서도 실증되였다.

무슨 힘이 전후 불과 6~7년 동안에 완전히 페허였던 이 땅 우에 오늘의 약동하는 생활을 창조하여 놓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령도하에 인민이 창건하였으며 전쟁의 불'길 속에서 피로써 고수되였으며 인민의 창조적 로력으로써 계속 강화되고 발전되여 가는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의 힘이다.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에서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한 원쑤들은 저들이 감행한 파괴로 인하여 조선 인민이 도저히 추서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오산이였다. 그들은 사회주의 제도 속에 잠재하고 있는 위력한 힘을 볼 수 없었으며 이 제도하에서 인민들이 어떠한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가를 타산할 수 없었다. 오늘 우리 인민이 달성하고 있는 놀라운 성과들을 적들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자본주의 국가 인사들도 우리의 성과가 자본주의 제도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며 인민들의 생활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

전쟁에서 심히 령락된 인민 생활은 전후 수년 간에 현저히 향상되였다. 인민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집을 보장받고 있으며 자기의 생활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앞날을 내다 보고 있다.

사회주의적 생산의 부단하고 급속한 장성은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생산력을 온갖 낡은 구속에서 해방하였으며 그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무한한 여지를 열어 놓았다. 생산의 장성 속도—이것은 그 사회 제도의 력사적 진보성을 규정하는 종합적 지표로 된다. 지난 10년 동안에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서 공업 생산은 3배 이상 장성하였으나 전체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공업 생산은 동기간에 1.5배도 장성하지 못하였다. 전후 년간의 우리 나라 공업의 년 평균 장성 속도는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최근 약 반세기 간의 그것을 무려 15배로 릉가하고 있다.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은 비단 생산의 장성 속도가 높은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소비의 장성을 가져 온다는 데 있다. 모든 사회에서 소비는 생산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나 생산과 소비 간에 적대적 모순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생산의 장성은 인민의 소비 수준의 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본주의하에서의 생산의 발전은 자본의 권력을 강화할 뿐이며 근로자들에게 생활의 개선을 가져 오지 않는다.

《자본주의에 고유한 생산과 소비 간의 모순은 오직 국민적 부가 인민의 빈궁의 증대와 함께 증대하며 또 사회의 생

산력이 인민적 소비의 상응하는 증대 없이, 근로 대중의 리익을 위한 이러한 생산력의 리용 없이 증대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레닌 전집, 제 4권 1분책, 246~247페지).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로동자들이 자기들의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자면 그것은 생산을 장성시키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자본가 계급과의 투쟁을 통하여 그들에게 착취 당한 잉여 가치의 일부를 빼앗아내는 방법으로서만 실현될 수 있다.

자본주의에 고유한 생산과 소비 간의 적대적 모순은 사회주의하에서 완전히 청산되였다. 여기서 생산의 목적은 리윤의 추구가 아니라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는만큼 생산의 장성은 직접적으로 소비의 장성을 가져 온다.

인민들의 개인 소비품은 경공업과 농업에 의하여 생산된다. 그렇다고 하여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경공업과 농업이 우선적으로 발전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경공업과 농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공업의 튼튼한 토대가 있어야 한다. 만약 우리 나라에 강력한 중공업 기지가 없다면 농업의 수리화도, 전기화도, 기계화도 생각할 수 없으며 반년 간에 1,000 여개의 지방 산업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

주민들의 옷감을 생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정은 동일하다.

일제 통치 시기에 공화국 북반부에는 섬유 공업의 토대가 없었다. 1944년에 인구 1인당 직물 생산량은 0.14 메터에 불과하였다. 전쟁 기간에 이 방직 공업마저 적들에 의하여 파괴되였다. 게다가 우리 나라에는 자연 섬유 원료가 부족하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직물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서는 인조 화학 섬유 생산을 대대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만약 전후의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우리 당이 중공업 발전에 일차적 관심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만약 우리가 발전된 기계 제작 공업, 화학 공업, 전기 공업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늘 비날론 공장과 신의주 방직 꼼비나트의 건설도 청진 방적 공장의 확대 공사도 론의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날이 갈수록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경제 로선의 현명성과 정당성은 더욱 뚜렷이 실증되고 있다.

근로자들은 생산의 장성이 그들 자신의 생활 향상을 가져 오고 있다는 것을 확고히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그들은 생산의 발전과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에 대하여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 운동으로 불리우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산적 앙양과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을 위한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은 그의 구체적 표현으로 된다.

로동에 의한 분배는 근로자들의 생활 향상을 보장하는 현실적 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사람들의 물질적 처지와 사회적 위치를 규정하는 것은 자본도 아니며, 출신도 아니며 오직 그 자신의 창조적 로동 뿐이다. 로동은 진정으로 매 개인의 행복의 원천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물의 분배는 로동

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 법칙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이 법칙은 매개 근로자들이 성별, 년령에는 관계 없이 그가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동일한 로동에 대하여 동일한 지불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아직 생산물의 풍족을 기할만큼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낡은 분업의 잔재가 남아 있으며 로동에 대한 낡은 관념이 청산되지 못한 조건하에서 로동에 의한 분배만이 유일하게 정당하며 합리적인 보수 제도로 되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된다. 우리 당은 이 사회주의적 분배 법칙의 제 요구에 엄밀히 립각하여 근로자들의 수입의 크기를 규정하며 그 등차를 조절하고 있다.

전후 년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4차에 걸쳐 로동자, 사무원의 로임이 대폭 인상 조절되였다. 이 과정에서 로임 조직이 일층 합리적으로 개선되였으며 특히 낮은 임금을 받은 로동자, 사무원의 임금이 보다 많은 비률로 인상되였다. 1959년에 로동자, 사무원의 화폐 임금은 1956년에 비하여 221%로 장성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는 로동 조건의 개선과 로동 보호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거대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특히 지하 로동, 유해 로동, 중로동 부문에 종사하는 로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현대적인 로동 보호 시설을 갖추어 놓았으며 막대한 금액에 달하는 로동 보호 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자본주의하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다. 로동 보호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시끄러운 부담이며 한개의 《사치》이다. 자본주의적 《문명》의 으뜸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매 3분마다 1명의 로동자가 자본의 희생물로 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을 잘 증명하여 주고 있다.

우리 제도하에서 녀성 로력과 아동 로력에 대한 혹사와 차별적 지불 제도는 청산되였다. 아동 로동은 금지되였으며 녀성들은 필요한 모든 로동 보호와 남성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다.

북반부의 모든 근로자들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 일하며 그가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보수를 받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남반부 로동자들은 이와 정 반대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들은 대량적인 실업과 가혹한 착취와 중세기적 로동 조건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 푼 안 되는 기아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청부업자, 십장, 반동적인 《로조》 간부들에 의하여 그들의 로임의 적지 않은 부분이 중간 착취 당하고 있으며 로임 체불은 만성적 현상으로 되고 있다. 수 많은 로동자들이 임금 대신에 임금 전표를 받고 있으며 생활난으로 하여 부득이 이 전표를 2~3할씩 깎아 팔고 있으며 지어는 절반 값으로 팔고 있다. 오늘 비교적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로동자들의 수입도 그들의 생계비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당은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며 그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정전 직후에 전쟁으로 인하여 그 수효가 현저히 증가된 빈농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농촌 경리 분야에서 가장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농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농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장성시키며 개인농 경리를

사회주의적 집단 경리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협동화 사업에서 력사적 승리가 달성되였으며 기술 혁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당은 전후 년간에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현물세 률을 현저히 인하하였으며 고정 현물세제를 실시하였으며 국가 미납곡 및 국가 대여금과 그 리자를 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농산물 수매 가격은 농민들의 수입에서 중요한 항목을 이루고 있다. 당과 정부에서는 농촌 경리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방대한 규모로 계속 장성시키고 있는 한편 전후 시기에 농산물 수매 가격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비료 교역 비률을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하였다.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우리 당의 거듭되는 조치로 말미암아 빈농민 문제는 해결되였으며 농민들의 수입은 현저히 증가되였다. 농업 협동 조합 1호당 분배량은 다음과 같이 장성하였다.

	단 위	1955년	1956년	1957년	1958년
알 곡	kg	1,250	1,616	1,742	1,826
저 류	〃	193	357	434	501
현 금	원(새화폐)	56.05	95.42	137.03	203.50

당면하여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근거하여 농촌 경리 발전에서 획기적 전환을 일으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가일층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작업반 독립 채산제 및 작업반 상금제의 도입, 농기계 작업소 일'군들의 보수 제도의 개편, 수매 체제의 개선과 일부 축산물에 대한 수매 가격의 인상, 산간 지대 농업 협동 조합 등에 대한 농업 현물세의 폐지 등은 농촌에서 거대한 로력적 앙양을 불러 일으켰으며 농업 생산 발전에 대한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수입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물가 수준이 고려되여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하에서 물가는 등귀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다. 때문에 설혹 근로자들이 부분적인 임금 인상을 달성한다 하여도 그것은 물가 등귀와 기타의 원인들로 인하여 사실상 그들의 생활 개선을 가져 오지 못하고 있다. 실질 임금의 저하의 경향성은 자본주의하에서 합법칙적 현상으로 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주의하에서는 화폐 임금이 부단히 장성하는 동시에 실질 임금이 이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장성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로동 생산능률의 부단한 장성에 기초하여 대중 소비품의 가격이 계속 인하되며 국가의 사회 문화 시책비가 계속 장성하는 데 기인된다.

전후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7차에 걸쳐 물가 인하가 실시되였다. 이 결과에 국정 소매 물가의 지수는(배급품 제외) 1953년에 비하여 1959년에 45%로 저하되였다.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 생활 안정 대책과 사회 문화 시책은 근로자들의 실질 수입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있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민들의 물질적 복리에 대한 끊임 없는 배려는 우리 당 활동의 최고 원칙이다. 이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관심의 중심으로 되여 왔으며 또 되고 있다》(김 일성 선집, 제 4권, 505페지).

3년 간의 가혹한 전쟁과 전후 폐허로부터 새 생활을 창조하는 어려운 투쟁 속에서도 국가는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에 대하여 계속 막대한 배려를 돌려 왔다. 당과 정부는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에 대한 수매 가격을 대폭 인상하여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도시 주민들에 대하여 무료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공급량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국가는 매해 수천만원(구화페로 수십억원)의 자금을 식량 격차금과 량곡 배급 보장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 도탄 속에서 신음하는 남조선 근로자들의 생활과 매우 대조적이다. 만약 식구 5명으로 되는 남조선 로동자 가정에서 북반부 로동자가 국가에서 공급 받고 있는 분량의 식량을 시장에서 구입하자면 개략적인 계산에 의하여도 비교적 안착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로동자들의 임금의 80% 이상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남조선 로동자들이 로동력을 유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양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과거에 식량이 부족하였던 북조선에서 근로자들이 식량에 대하여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때 과거에 곡창으로 알려진 남조선에서 그처럼 혹심한 만성적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이것이 사회 제도의 근본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공화국 북반부에서 주택 건설은 미증유의 속도와 규모로 전개되고 있다.

엥겔스가 《주택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은 로동자들의 기타의 수요가 어떻게 충족되고 있는가를 말해 주는 척도로 될 수 있다》(맑스, 엥겔스 전집, 제 2권, 로문 판, 302페지)라고 지적할 정도로 주택 문제는 근로자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쟁에 의한 파괴로 말미암아 첨예하게 제기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후 시기에 당은 주택 건설에 막대한 투자를 집중하여 왔다. 건재 공업이 대대적으로 발전되였으며 건설에서 공업화가 광범히 도입되였다. 오늘 주택과 공공 건물에 대한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였다.

도시와 농촌에서 우리의 근로자들은 토굴집의 신세를 면하게 되였으며 현대적으로 설비된 문화 주택에 살고 있다.

당은 주택 건설의 규모와 함께 그의 질과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우리의 주택은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건설자들이 사용한다. 때문에 그것은 《보기 좋고, 쓸모 있고, 아담하고, 튼튼한 사회주의 건축물》이여야 하며 《근로 인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조선 사람의 풍속과 감정에 알맞게》 건설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은 극히 렴가한 건물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주택 건설비와 유지비에 비하여 근로자들이 매월 지불하고 있는 사용료는 0.6%를 이루고 있다.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계비에서 거주비의 비중은 약 3%에 불과하며 그것은 계속 저하되고 있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주택 문제는 계속 첨예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많은 부분이 빈민굴의 신세

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집세는 자본주의 국가 근로자들의 가장 무거운 부담의 하나로 되고 있는바 그것은 그들의 입금의 약 4분의 1내지 3분의 1을 점하고 있다. 남조선에서의 주택 사정은 더욱 우심하다. 로동자들의 대부분은 도심지에서 떨어진 《빈촌》에서 오막살이를 차지하거나 로숙하고 있으며 특히 수백만의 실업 군중들은 류리 걸식하며 토굴, 지하 도로, 혹은 길'바닥에서 밤을 새우고 있다. 모든 사실은 자본주의가 근로자들에게 주택 문제를 결코 해결하여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교육, 보건, 사회 보험 및 사회 보장 등 사회 문화 시책에 대한 공화국 정부의 지출은 계속 거대한 규모로 장성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배움에 굶주리던 근로자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며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그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등 인민들의 절실한 념원의 실현이 전 국가적 사업으로 조직 전개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적 교육 제도가 확립되였다. 자본주의하에서 마치 길'가의 《잡초와 같이 아무러한 감시도 없이》 자라나고 있던 근로자들의 자제들은 사회주의하에서 국가의 전적인 부담과 배려 속에서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다.

전쟁의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우리 나라에서 후대들의 교육 교양 사업은 한시도 중단되지 않았다.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 있어서 가장 선차적으로 복구 건설되기 시작한 것은 학교 건물이였다. 그리하여 이미 1956년에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가, 그리고 1958년에는 전반적 중등 의무 교육제가 각각 실시되였다. 작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수업료가 폐지되였다.

공화국 북반부에는 일제 통치하에서 한 개도 없었던 대학이 오늘 37개나 창설되였으며 여기서 로동자, 농민들의 자녀들이 국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다.

공화국 제도하에서는 비단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생산 직장에서도 일하면서 자기의 열성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록 창성이라든지 백두산 포대리와 같은 두메 산'골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얼마든지 공부해서 대학 수준에 올라 갈 수 있다.

총 인구수에 대한 학생수의 비례에서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선진적 나라들의 대렬에 들고 있다.

인구의 4분의 1을 공부시킨다는 것은 커다란 국가적 부담을 전제로 한다. 만약 자기의 자녀 2명을 대학에 보내고 있다면 그 가정은 국가로부터 1년에 약 876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된다(여기에는 매년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양복, 외투의 국가 부담액은 포함되여 있지 않다). 당과 정부는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싸우다가 희생된 애국 렬사들의 유자녀들과 전재 고아들을 친부모의 정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다. 남조선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처지가 어떠한가는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과 정부는 미래의 공산주의 건설자들의 교육 교양 사업에 지출하는 자금을 결코 아끼지 않고 있으며 계속 그 액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것은 학원이 한 개 모리장으로 화한 남조선의 현실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

오늘 수십만의 학령 아동들이 배움의 길을 잃고 길'가에서 헤매고 있으며 비교적 교육 시설이 구비되였다고 하는 서울에서조차 《국민 학교》에서 4부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있다. 과중한 각종 납부금은 남반부 청소년들의 배움의 길을 더욱 가로 막고 있다.

인민 보건 사업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은 론의할 여지가 없다. 자본주의하에서 의료 사업은 가장 수익성이 많은 기업으로 되여 있다.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한 시각을 자본주의는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또 하나의 가장 좋은 기회로 리용하고 있다.

병마로부터 인명을 구원하며 근로 인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주의 보건 사업은 인도주의적인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에서 흘러 나온다. 사회주의하에서 인민 보건 사업은 국가적 사업으로 되였다. 근로자들은 국가 부담에 의하여 무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쟁 기간에 우리의 진료소, 병원 및 기타의 보건 시설들이 거의 다 파괴되였다. 그러나 전후 단시일 내에 그것은 완전히 복구되였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규모로 확장되였다. 1953년에 비하여 작년에 병원수는 125%로, 외래 치료 기관수는 372%로, 의사수는 360%로 증가하였다.

오늘 주민들의 리병률은 현저히 저하되였으며 과거부터 내려 온 악성 전염병들은 기본적으로 퇴치되였다. 인민 보건의 중요한 지표로 되는 인구의 자연 증가률과 인민의 평균 수명도 현저히 장성하였다. 인구 1,000명당 출생자 수는 1944년의 31.3명으로부터 1959년에 39.3명으로 장성하였으며, 사망자 수는 동기간에 20.8명으로부터 12명으로 축소되였다. 조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일제 시기에 비하여 15년 이상 연장되였다.

국가는 녀성들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며 아동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에 거액의 자금을 지불하고 있다. 1953년부터 1959년에 이르는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 탁아소 수는 53배, 유치원 수는 179배로 증가하였다.

사회 보험 및 사회 보장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출은 계속 증가되고 있다. 로동자, 사무원들은 임금을 계속 받으면서 휴양소와 료양소들에서 무료로 휴식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제도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1959년에 국가 혜택에 의하여 약 33만 명의 근로자들이 정, 휴양 생활을 하였다. 1명의 로동자가 12일 간의 1기 휴양소 생활에서 국가로부터 40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근로자들의 휴식을 위해 국가가 얼마나 많은 지출을 부담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사회 보장 대상자들에 대한 국가적 배려도 매우 크다. 국가는 양로원, 양생원, 보양소 등을 설치하고 년로자들의 생활을 돌보며 무의무탁한 영예 군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국가는 애국 투사들을 방조하며 전쟁에서 희생된 애국 렬사들의 가족과 자녀들에 대하여 커다란 배려를 돌리고 있다.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적 시책은 이 밖에도 허다하다. 그러나 이상의 기본적인 몇 가지 자료에 의하더라도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은 그들

이 받는 임금액만으로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인민 생활 안정 대책과 사회 문화 시책에 의하여 지출되는 방대한 자금을 가산하여야 한다. 초보적인 계산에 의하더라도 작년에 이러한 형태로 우리의 로동자, 사무원들이 추가적으로 얻은 수입은 자기의 기본 임금의 약 70%를 이루었다. 국가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며 물가를 인하하는 한편 사회 문화 시책에 더욱 많은 자금을 돌림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 수입을 계속 높이고 있다.

※ ※

우리 당은 인민 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할 것을 금년도 완충기의 중심적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당은 이것이 목전 우리 혁명 승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의 하나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그것을 첫째 가는 혁명 과업으로 간주하고 그 수행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를 왜 오늘에 와서 절박한 혁명적 과업으로 제기하게 되였는가? 우리 인민은 김 일성 동지와 우리 당의 영명한 지도하에 전후의 가장 어려운 고비를 빛나게 이겨냈다. 인민들은 전시의 그 영웅성을 그대로 견지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장래 경제 발전의 기초를 다져 놓았다. 인민들은 의식주 문제에서 가장 절실한 요구를 이미 해결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어제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으며 더욱 다양하고 더욱 문화적이고 더욱 유족한 생활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의 구매 능력은 급격히 제고되였다.

특히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더욱 박두한 현실적 전망으로 제기됨과 관련하여 이 문제는 첨예한 혁명적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한편 우리 나라에는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를 충족시켜 주며 그들의 생활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물질적, 생산적 토대가 조성되여 있다.

때문에 당은 인민 생활 향상에 대한 문제가 현 단계에서 지체없이 해결되여야 할 성숙된 문제인 동시에 또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인민 생활 향상이 합법칙적인 현상이라 하여 그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제도에 내재하는 모든 우월성과 가능성을 현실적인 것으로 전화시키기 위하여서는 거대한 경제 조직자적 사업이 요구된다. 국가의 강력한 경제적 토대도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도 그것을 집행하는 우리의 경제 지도 일'군들이 우리 당의 군중 관점으로 확고히 무장되여 있지 않으며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당의 지시에 충실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활력을 발휘할 수 없다. 당은 일부 일'군들이 생산 성과를 올린다는 구실 밑에 로동자들의 생활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는 현상들을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1.4분기 계획 수행 행정에서 뚜렷이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지도 일'군들이 후

바 사업에 일차적 관심을 돌리는 기업소들에서는 생산 실적과 로동 생산 능률이 현저히 오르고 있다. 당은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그가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건 간에 오직 한 가지 사상—어떻게 하면 인민들을 더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게 하겠는가 하는 일념으로 생각하며 맡은바 사업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항일 빨찌산들의 군중에 대한 사상 관점, 그들의 인민적 사업 작풍, 그 고귀한 성품을 더욱 깊이 연구하며 본받아야 한다. 모든 것을 오직 인민에게 바친 항일 빨찌산들의 빛나는 혁명 전통은 오늘 우리 당의 모든 실천에서 구현되고 있다. 우리 당 정책의 그 어느 하나도 인민을 위하지 않는 것은 없다. 최근 시기 우리 당 중앙이 인민 생활을 가일층 향상시킬 목적으로 특히 지방 공업과 농촌 경리 및 상품 유통 사업의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은 그의 또 하나의 구체적 표현이다.

전체 조선 인민들은 오직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와 우리 당 중앙 위원회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되여 새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협동화와 기술, 문화 혁명

홍 달 선

I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이미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였으며 기술적 개조와 문화 혁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고 있다.

현 시기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서고 있는 당면 과업은 선진적 생산 관계에 의거하여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키는 데 있다.

《농촌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생산 관계를 개조할 뿐만 아니라 또한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를 실현하여야 하며 농민들의 의식을 개조하여야 한다》 (김 일성,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농업 협동화의 승리와 농촌 경리의 금후 발전에 대하여》).

1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협동화 운동은 정전 직후에 시작되여 1958년 8월에 완성되였다.

농업 협동화의 완성은 우리 농촌을 착취와 빈궁의 근원이 영원히 청산된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시켰으며 농촌의 소소유자들을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변시켰다.

이에 따라 낡은 생산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농업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발전되였으며 농민들의 혁명적 기세는 더욱 앙양되였다.

협동화가 완성됨으로써 농업은 사회주의 공업과 함께 계획적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였으며 로농 동맹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토대 우에서 더욱 강화되였다.

농업 협동화의 완성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을 촉진시켰다.

이 모든 승리는 우리 당이 레닌의 협동화 리론을 우리 나라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농업 협동화에 관한 정확한 로선을 제시하고 모든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면서 그의 관철을 위하여 동요 없이 투쟁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또한 이 승리는 농민 대중 속에서 우리 당의 위신이 높고 그들이 실지 투쟁을 통하여 당 정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한결같이 궐기하여 투쟁하였기 때문에 달성되였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협동화 운동을 개시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규정하였다.

이미 전쟁전 시기에 사회주의 공업과 개인 농민 경리 간에는 일정한 정도의 모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은 농업 협동화 문제를 정전 직후의

가장 어려운 조건하에서 비로소 제기하였다.

정전 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가 바로 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일제로부터 극도로 기형적이고 파괴된 공업을 물려 받았다. 우리는 전전에 인재와 원료, 자재 및 자금이 심각하게 부족한 조건하에서 락후한 기술에 토대하여 공업을 복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후에는 이와 사정이 달랐다. 전쟁 기간에 공업은 피해가 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제작 공업이 부단히 장성하였고 공업에서 사회주의 성분의 비중은 계속 제고되였다. 그리하여 전후에는 현대적 최신 기술에 기초하여 전시에 단련 육성된 인재들과 형제 나라들로부터의 국제적 원조를 효과 있게 리용하면서 전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공업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킬 수 있었다.

농업에서도 일련의 변화가 일어났다. 전전에 농촌 경리 분야에서 소농 경리의 존재는 불가피하였다. 그것은 일정하게 농업 생산을 앙양시켰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농민 생활을 개선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전후에는 전쟁의 피해로 말미암아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혹심하게 파괴되여 소농경리는 단순 재생산도 보장하기 곤난한 처지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식량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으며 빈농민의 비률은 40%에 달하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사회주의적 공업과 개인 농민 경리 간의 모순은 전후 우리 나라 형편에서 급속히 복구 발전되며 질적으로 변화되는 공업과 극히 완만하게 복구되는 농촌 경리 간의 심한 불균형으로서 나타날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 (우와 같은 문헌).

한편 개인 농민 경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령락된 농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개선 안정시킬 수 없었을 것이였으며 나아가서 농민 생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었을 것이였다. 협동화의 길만이 있을 뿐이였다.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인민 민주주의 주권이 나라의 기본 생산 수단을 장악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공업의 지도적 역할이 보장되여 있으며; 민주 개혁이 철저히 수행되였고 특히 전쟁 기간에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성분이 부단히 강화되고 자본주의적 요소가 약화되였으며; 전쟁의 시련을 통하여 로농 동맹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사회주의 농업의 시범적 역할과 비중이 강화되였으며; 농민들 사이에서 협동적 로동 조직 형태가 보급되고 발전되였던 제반 사실은 농업의 협동화를 위한 전제 조건들이 성숙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징표들이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 중앙 위원회 6차 전원 회의는 정전 직후에 농업 협동화 문제를 일정에 제기하였던 것이다.

우리 당에 의한 레닌의 협동화 리론의 제 원칙의 창조적 적용은 협동화 운동을 조직 지도하는 전 행정을 관통하였다.

레닌의 협동화 리론 중에서 자원성은 가장 중요한 조직 원칙이다.

그것은 농민들로 하여금 집단 경리에로 자원적으로 이행하도록 준비시키며 또 그 이행을 보장하는 제 방책의 실시를 예견하는 것이다.

더우기 우리 농민들 속에 협동 경리를 조직 운영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고

우리 나라에서 토지가 사'적 소유로 되여 있는 실정에서 시범에 의한 설복은 자원성 원칙의 관철을 위하여 더욱 중요한 필수적 전제로 되였다.

당은 협동화 운동의 경험적 단계를 설정하여 새 제도의 우월성, 그의 경제적 유리성을 광범한 농민들 특히 중농민들에게 실물로 보여 주었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자원성의 원칙에 튼튼히 립각하였다. 각이한 계층과 준비 정도가 다른 농민들이 모두 접수할 수 있도록 생산 수단의 통합 정도와 분배 방식을 달리하는 세 가지 형태를 규정하였으며 산간, 해안 지대 농민들도 자원하여 나설 수 있도록 반 농 반 목축업 조합과 반 농 반 어업 조합도 조직케 하였다.

또한 어느 형태를 막론하고 생산 수단에 대한 통합 여부와 그 방법은 농민들의 개별적 실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였다. 역축 및 농기구 등 생산 수단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회를 선정하여 공정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도록 하였다.

협동화의 완성 단계에 들어 서면서 운동이 비교적 락후하였던 산간 지대, 도시 주변, 신 해방 지구들에서 자원성의 원칙은 개별적 실정에 적합하게 더욱 신축성 있게 적용되였으며 비교적 부유한 농민들도 자원하여 농업 협동 조합에 참가할 수 있게 하였다.

레닌의 협동화 리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의 다른 하나는 협동 조합의 량적 장성에 질적 공고화를 병행시키면서 운동을 점차적으로 견실하게 발전시키는 지도 원칙이다.

이 원칙을 구현함에 있어서 당은 우선 운동의 계급적 토대를 확고한 기초에 두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며 중농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부농을 제한 개조하는 계급 정책을 실시하였다.

빈농민들과 신중농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협동화를 지지하여 나섰다. 동요하는 중농에 대하여서는 꾸준한 해설 설복과 실물 교양을 통하여 조합에 인입하였다.

부농층에 대해서는 그들의 착취 경향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진실하게 일하려는 자들은 조합에 가입시켜 사회주의 근로자로 개조하였다. 그러나 협동화를 방해하는 극소수 분자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제재를 가하였다.

당은 협동화 운동의 대중적 발전 단계에서 행정적 방법으로 협동화 운동을 추진하려는 경향을 엄격히 경계하였으며 또한 협동 조합을 량적으로만 장성시키려 하며 무리하게 높은 형태와 큰 규모의 조합만을 조직하려는 조급성을 모두 제때에 시정하였다.

이와 반면에 협동화 운동의 《시기 상조론》이라든가 운동의 급속한 발전에 당황하여 뒤'걸음질하는 보수주의에 대하여서도 제때에 타격을 가하였다.

협동화 운동이 대중적 발전 단계에 들어 서면서부터 당은 매년 1~2회씩 실시한 중앙적인 집중 지도 사업을 통하여 협동화 운동에 대한 지도 중심을 명확히 규정하고 력량을 집중하는 방침을 관철시켰다.

농업 협동화 운동을 추진시킴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협동 조합에 국가적 지원을 줄 데 대한 레닌적 원칙이다.

협동화 운동의 초기에는 물론 대중적 발전 단계에 들어 선 1955~1956년에

결처 당은 농촌 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를 위하여 국가 투자를 증가시켰으며 화학 비료, 농기계, 건재 및 각종 소비품들을 대량으로 공급하였으며 농촌 기술 인재의 양성 사업을 확장하고 로력자를 파견 고착시키는 한편 중요 영농 시기마다 수백만 공수의 협조 로력을 보냈다.

이와 함께 식량, 종곡, 자금을 대여하였고 막대한 량의 현물세 납부와 대여곡 및 대부금 반환을 감면하였으며 현물세를 감하하고 수매 가격을 인상하였다.

국가는 있는 힘을 다하여 농업 협동조합에 방조를 주었으며 계속 주고 있다. 국가적 지원은 협동화 운동을 견실한 토대 우에서 급속히 발전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협동화 운동은 현대적 대농기계가 거의 없이 시작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경리 형태의 개조가 기술 개조에 선행하여 완성되였으며, 농민의 사,적 토지 소유에 기초한 조건하에서도 처음부터 제 3형태의 조합이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우리 농촌 내부의 생산력, 생산관계 및 계급 력량 관계 등에서 조성되고 있던 제 사실들과 관련되여 있다.

우리의 농업 생산력은 그의 사회화 정도가 매우 높았다.

그것은 우리 농업 생산에서 착취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로동이 거의 전일적으로 지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 로동이 광범히 존재하였으며; 해방 후 수리화가 계속 실시되여 관개망이 급격히 확장되였으며; 그 수는 적었으나 국가 소유의 현대적 대농기계를 통하여 국가 쎅또르 및 개인농들 사이의 련계와 의존성이 현저히 강화되고 있었다는 등으로 설명된다.

협동적 공동 경리는 극히 분산되였던 개인농 경리에서는 달성할 수 없는 경리의 개선을 달성함으로써 수공업적 기술 토대 우에서도 능히 자기의 우월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농업 협동화 운동을 급속하게 발전시킴에 있어서 생산 관계의 측면에서의 유리한 조건들은 토지 개혁의 철저한 실시에 의하여 근로 농민적 토지 소유 관계가 확립되였으며 농민들의 토지 소유가 령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균등하였다는 데 있었다.

근로 농민적 토지 소유는 토지가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하였으며 《경작권지》 제도의 존재는 농민들의 토지 리용의 균등성을 보장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토지의 사'적 소유는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사유 관념을 매우 희박하게 하였다.

토지 소유의 령세성은 농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없게 하였는바 이것은 바로 협동화 운동의 템포를 빠르게 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토지 소유의 균등성은 토지에 대한 분배를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하였으며 이것은 농민들로 하여금 처음부터 로력에 의해서만 분배를 실시하는 제 3형태의 조합을 자원하여 택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끝으로 농촌에서 계급적 력량 관계가 협동화에 결정적으로 유리하였다.

우리 농촌에서 농업 협동화를 반대할 수 있는 부농의 세력은 전쟁 기간에 더

욱 약화되여 싱전 직후에 전체 농호의 0.6%에 불과하였으며 실제로는 그들의 대다수도 협동화 운동에 인입되였다.

이와 반면에 우리 농민들은 30년대 항일 무장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진 혁명 전통에 의하여 교양되였으며 해방 후 민주 개혁의 실시를 통하여 단련되였으며 전쟁의 간고한 시련을 통하여 정치적 각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들은 당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깊은 인식과 혁명 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당의 농업 협동화 정책에 한결같이 호응하였다. 특히 전시의 어려운 조건하에서 그들은 공동 로력 조직 형태를 발전시켜 협동화의 예비적 조건을 성숙시켜 왔었다.

이 모든 조건들은 이미 본 바와 같이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농업 협동화 운동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농업의 협동화가 완성된 후 생산 관계 발전의 측면에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진 것은 1958년 10～11월에 진행된 농업 협동 조합들의 전반적 통합 사업이였다.

이 결과에 첫째로 리 행정 구역을 단위로 하여 리내에 있는 농업 협동 조합들이 한 개의 조합으로 통합됨으로써 그 규모가 현저히 확대되였다. 이는 종래의 조건하에서는 적합하였던 비교적 작은 경리 규모가 농업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에 적응할 수 없게 된 모순을 해결한 것이였다.

통합 사업은 매우 복잡한 사업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한결같은 찬동하에 1～2개월 내에 순조롭게 완수되였다.

둘째로 농업 협동 조합들의 통합은 종래 리 단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사업의 번잡성을 동반하던 농촌 소비 조합 상점과 신용 협동 조합 사업을 농업 협동 조합에 포괄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농업 협동 조합들이 리내에서 생산으로부터 분배, 교환 및 소비에 이르는 모든 경제 활동을 유일 계획에 의하여 조직 진행하게 되였으며 통합된 농업 협동 조합의 관리 위원회는 리적 범위에서 협동 경리에 대한 경제 조직자적 활동을 수행하게 되였다.

세째로 통합과 관련하여 농업 협동 조합들은 리내의 교육 문화 보건 및 후생 사업 등 부문들도 모두 포괄 운영하게 되였다.

이것은 락후하였던 우리 농민들의 문화 수준을 급속히 제고하며 각급 교육망을 시급히 확장하고 생산과 교육을 직접 결합시키며 주민들의 사회적 및 개인적 수요를 공동으로 충족시키는 국면을 확대하였다.

이리하여 통합된 농업 협동 조합은 리적 범위에서 협동 경리에 대한 문화 교양자적 활동도 수행하게 되였다.

네째로 통합된 농업 협동 조합들이 협동 경리에 대한 경제 조직자적 및 문화 교양자적 활동을 수행하게 됨과 관련하여 리적 범위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던 리 인민 위원회 위원장이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을 겸임하게 되였다.

통합 사업을 통하여 농업 협동 조합적 소유는 전 인민적 소유에 접근하는 방향에로 거보의 전진을 이룩하였다. 그것은 제 3형태의 조합의 성격을 훨씬 벗어난 것이다.

전국 농업 협동 조합 대회(1959년 1

월)는 협동화 운동 과정에서 얻은 고귀한 경험들과 성과들을 고착 발전시키고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과업을 적극 추진시키며 조합을 정치 경제적으로 더욱 공고 발전시킬 데 대한 과업들을 규정한 새 기준 규약(잠정)을 채택하였다.

새 기준 규약에서 농업 협동 조합들의 통합의 성과는 발전의 지향과 함께 법적으로 고착되였다.

새 기준 규약에 의하여 다른 일체 생산 수단은 물론 토지까지도 공동 소유로 된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것은 우리 나라 토지 제도 력사에서 실로 획기적 사변일 뿐만 아니라, 근로 농민적 토지 소유로부터 사회주의적 토지 소유에로 이행하는 방도에 대한 새로운 경험으로도 되는 것이였다.

농업 협동 조합적 소유는 량적 장성뿐만 아니라 린근 조합들과의 공동 소유를 형성함으로써 그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협동적 소유는 전 인민적 소유에로의 지향에 충만되여 있다.

2

우리 농촌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서는 농촌 경리를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여야 한다. 농촌 경리를 기술적으로 개조함으로써만 사회주의 사회의 높은 생산력을 달성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를 가일층 공고화할 수 있다.

우리 당은 농촌 기술 혁명 과업을 제기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경지 면적이 제한되여 있고 논'벼의 비중이 크며 해마다 가물과 장마가 빈번한 조건을 옳게 타산하여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는 결정적 고리인 수리화를 그의 기본으로 규정하였다.

해방 후 우리 당의 방침에 의하여 수리화가 계속 추진되여 왔으며 협동화 운동의 대중적 발전 단계에 들어 서면서 전면적으로 전개되였다. 그리하여 협동화의 완성과 거의 동시에 논 관개가 기본적으로 완성된 조건하에서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9월 전원 회의는 수리화의 중심을 밭 관개 체계 확립에 돌렸다.

당은 대규모 관개 공사는 종전과 같이 국가 투자에 의하여 적극 추진시키면서 중소 규모의 관개 공사는 농업 협동 조합 자체 력량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진행케 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9월 전원 회의 결정 실천을 위하여 전 당이, 전체 인민이 동원된 결과 불과 6개월 동안에 37만 7,000정보의 관개 면적이 새로 확장되였다. 이리하여 관개 총 면적이 80만 정보에 달하여 수리화의 력사적 위업이 기본적으로 완성되였다.

경사지가 많은 우리 나라에서의 수리화는 적지 않게 전기 동력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양수 시설에 의거하였다. 또한 수리화는 다른 한편 저수지의 물을 리용하는 중소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수리화는 농촌에 전기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또 그 곳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하였다.

국가 투자에 의하여 계속 추진되여 온 대규모 수력 발전소 및 도시 주변의 화력 발전소의 건설과 병행하여 각지에서 수력, 화력, 풍력 및 조수력 등 온갖 발전 원천을 리용하는 중소 발전소들의 건설이 주로 지방 자체의 력량으로 대대적으로 전개되였다. 그리하여 전기화에서 결정적 전진이 이룩되였는

바 1959년 말까지에 우리 나라 전체 리의 90%에 전기가 들어 가게 되였다.

우리의 수리화는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시키는 데 유리한 물질-기술적 조건들을 조성하였다.

수리화의 기본적인 완성으로 조성된 영농의 유리한 조건들 자체가 바로 기계화를 요구하였으며 또 기계화를 실현함에 유리한 경지 조건들을 지어 주었다.

또한 기계화는 전기화에 의하여 현저히 촉진되였으며 그것은 반대로 전기화의 실현을 촉진시켰다.

우리 농촌에서 수리화, 전기화 및 기계화는 기술 혁명의 기본 내용이며 또한 통일적 과업이다.

수리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고 전기화에서 결정적 성과가 달성된 조건에서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추진시킬 것이 요구되였다.

《제 1차 5개년 계획이 수행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이 퇴치되고 자립적인 민족 경제의 기초가 확립되였으며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튼튼한 토대가 축성되였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기술 혁명을 전반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놓았다》 (김 일성,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이에 기초하면서 12월 확대 전원 회의는 1960년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서의 완충기의 첫째가는 중심 문제를 농촌 경리의 기계화로 규정하고 이에 력량을 집중할 방침을 제시하였다.

12월 확대 전원 회의는 《평지대로부터 점차 산간 지대에로 기계화를 확대하며 가장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종합적 기계화에로 이행하며 대기계와 중소 기계, 현대적 기계화와 간단한 소기계화를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김 일성)을 계속 견지하면서 우선 평안남도, 황해남도와 평양시는 1~2년 내에 개성시, 황해북도,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를 거의 동시에 그 다음으로 자강도, 량강도, 함경북도의 순서로 3~4년 내에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것을 결정하였다.

농업 협동화가 완성된 유리한 조건하에서 적은 농기계 및 운수 수단으로써 기계화의 효과를 가장 빠르게, 크게 거두며 기계화의 완성을 최단 기간 내에 실현하기 위하여 당이 취한 이 방침은 또한 우리 나라의 자연 경제적 제 조건에 알맞는 유일하게 옳은 방침이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기술 혁명은 선진적 사회주의 생산 관계의 생산력 발전에 대한 능동적 반작용이 매우 강력한 유리한 조건하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또 진행되고 있다.

협동화 운동의 발전과 함께 관개 몽리 면적의 급속한 확장이 병행되였으며 협동화 운동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는 농업 협동 조합들 자체에 의한 관개 공사가 국가 투자에 의한 것보다도 더 광범히 전개되였다. 수리화에서 일대 전변으로 되는 발 관개 체계의 확립도 협동화가 완성된 조건하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하였으며 또한 전체 인민이 총 동원되여 일기에 실현할 수 있었다.

농촌의 전기화에서 협동화 이전에는 전적으로 국가 전력에 의거하였었다. 그러나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만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농업 협동 조합 자체 발전소 건설은 나라의 전력을 보강하였으며 농촌 전기화를

촉진시켰다.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유일적 지배는 농업 기계화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도 광활한 길을 열어 주었다.

사회주의 생산 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조건하에서만 농기계 임경소는 농업 생산에 깊이 침투하여 기계화 작업의 종류와 량을 확대함으로써 농업 생산의 앙양에 적극 참가할 수 있는 농기계 작업소로 개편될 수 있었다.

또한 협동화가 완성되고 규모가 확대되였음으로 하여 기계화에 유리한 경지 조건이 조성되였으며 중공업으로부터 지방 공업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농기계 생산 및 수리 체계로부터의 전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였다.

3

사회주의 건설에서 문화 혁명의 본질의 과업은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사상 의식을 개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문화를 창조하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낡은 사회에서 근로자들은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며 특히 농민은 무지와 몽매를 강요 당하고 있었으므로 이 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문화 혁명 수행 과정에서 또 하나의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우기 우리 나라가 일정 시기 오래 동안 군사 봉건적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고 해방 후 남반부에서 미제가 가장 반동적인 사상 독소를 발악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문화 혁명 과업 수행을 복잡하고도 간고하게 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는 고도로 발전된 과학과 기술에 기초하여 생산력의 부단한 발전을 보장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그것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자연 및 기술에 관한 인류의 지식을 계승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로부터 물려 받은 이 측면에서의 유산은 너무나 부족하였다.

해방 후 당은 곧 문화 혁명에 착수하여 문맹을 퇴치시켰고 인민 교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전시에도 전후에도 민족 간부 양성 사업에 계속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교육 문화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 당은 신세 농민들도 인민 학교, 중등 학교 졸업 이상의 일반 지식을 소유하도록 근로자 학교, 근로자 중학교와 통신 교육망을 창설 확장하였으며 매개 농촌 부락에서 기술 연구 크루쇼크를 광범히 조직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농촌에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건설자들을 대량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전체 농민들을 유식하고 기술이 있고 농사를 잘 짓는 사람으로 만들며 기술 혁명의 기본적 수행을 강력히 추동하는 것이 농촌 문화 혁명의 첫째가는 과업이다.

일제는 조선 인민을 일본화하기 위한 사상 독소를 주입시켰으며 민족적 자부심을 말살하려 하였고 공산주의를 중상 [illegible] 사상의 [illegible] 사상을 고취하였다. 미제는 해방 후 남반부에서 [illegible], 개인 주의, 숭미, 공미 사상 [illegible] 인민들에 주입시키기에 광분하고 있다.

그러나 [illegible] 인민은 유구한 애국 전통과 [illegible] 투사들의 지도하에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30년에 걸친 [illegible] 무장

투쟁을 통하여 이룩하여 놓은 슬기로운 혁명 전통에 의하여 교양되였으며 이 고귀한 유산을 계승 받았다.

이 혁명 전통은 해방 후 민주 개혁 당시의 건국 사상 총 동원 운동, 전전 및 전후 시기의 계급 교양 사업의 본질을 이루었으며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유일적 지배가 확립된 현 조건하에서 공산주의 교양의 기본 내용으로 되였다.

오늘 우리 농민들 속에서 공산주의 의식은 날로 높아 가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개인 리기주의와 소소유자적 근성을 현저히 청산하고 집단주의와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더욱더 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민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퇴치하고 그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것이 농촌 문화 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는 과거 못살았기 때문에 농촌은 비위생적이였으며 농민들 속에는 되는 대로 살아 가는 유습이 뿌리 박혀 있었다.

협동화가 완성되고 농업 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된 결과 농민들의 생활 형편은 중농 또는 그 이상의 수준에로 제고되였다. 농촌에서 생산 건설과 문화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여 수만 동의 문화 주택이 신축되였다. 협동 조합마다 학교, 유치원, 탁아소를 비롯하여 상점, 진료소, 재봉소, 세탁소, 목욕탕, 리발소 등 위생 문화 후생 시설을 갖추게 되였다. 민주 선전실은 농민들의 학습과 교양과 문화 오락의 장소로 되였으며 농민들 속에서 군중 체육 사업과 예술 써클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거의 모든 리에 전기가 들어 갔으며 조합들의 대다수가 전화를 가설하고 라지오를 리용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조합들이 자체의 유선 방송 시설을 갖추게 되였다.

농촌에서 문화 혁명의 세째 과업은 바로 농민들의 의식주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된 조건하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일반 지식 및 기술을 공산주의 교양과 결부시켜 그것을 개인 및 사회 생활에서 구현시킴으로써 전체 농민들을 사회주의 근로자답게 잘 살 줄 아는 문명한 사람으로 되게 하는 데 있다.

오늘 우리 농촌에서 문화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것은 기술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수리화, 전기화에 뒤이어 농촌에 현대적 농기계 설비들이 대량적으로 공급되며 농업 과학 기술의 높은 성과들이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환경은 농민들의 기술 기능 수준과 일반 지식 수준을 급속히 높일 것을 긴절하게 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상이 지배하는 유리한 조건에 의거하면서 우리 당이 인민 교육 체계를 개편하며 농촌 간부들의 양성 및 재교육 사업을 확대하며 농민들의 문화 과학 기술 지식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거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술 혁명의 전면적 전개는 또한 농민들의 생활 양식 및 사상 의식의 개변과 과학 기술 지식 수준의 제고를 위한 극히 유리한 조건으로 되고 있다.

문화 혁명은 기술 혁명을 촉진시키며 기술 혁명이 또한 문화 혁명을 촉진시킨다. 이미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의거하여 문화 혁명과 기술 혁명을 동시에 급속히 추진시키는 것—이것이 우리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을 촉진시키는 유일하게 옳은 길이다.

* *

농업의 협동화가 완성된 후 유일한 사회주의 경제로 전변된 농촌 경리를 처음으로 지도한 지난 1년 간의 경험은 군과 조합 간에 중간 다리가 없는 조건하에서 군의 지도적 력량이 직접 협동 경리를 조직 지도해야 하며 모든 일'군들이 자체의 정치 리론 수준과 실무 수준을 제고하며 특히 경제 지식과 기술을 더욱더 소유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인민 경제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촌 경리 분야에서도 《전 당이 학습하자》라는 당의 호소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이 고조되였다.

바로 이 시기에 김 일성 동지는 강서군 당 단체에 대한 구체적 지도 사업을 통하여 무엇이 문제이며 기본 고리를 어떻게 포착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방침에 근거하여 당 중앙 위원회가 취한 조치들과 그에 의하여 사람들의 정신 생활에서 일어난 변화는 인민 경제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촌 경리 분야에서 거대한 전변을 일으키고 있다.

농촌 경리 운영에서 계획화 수준이 현저히 제고되였으며 농촌의 중요 력량이 농사에 집중되고 있으며 로력 조직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였다. 작업반 상금제가 실시되고 사회주의 분배 원칙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근로자들의 생산 의욕은 더욱 비등되고 있다. 농업 협동 조합에서 민주주의 관리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고 있으며 군중들의 창발적 재능은 계속 혁신을 낳고 있다. 조합원들 속에서 공산주의 의식 수준이 더욱 제고되고 있다.

군 당 및 정권 기관 일'군들이 군내 농업 협동 조합들을 현지에서 고정 담당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수천 명의 농촌 경리 부문 과학 기술 일'군들이 역시 매개 조합에 2년 간 장기 파견되여 기술적 지도를 책임지고 있다.

농촌 경리에서는 공업에서와 함께 새로운 고조가 일어나고 있다.

오늘 우리 농민들은 로동 계급과 함께 어깨를 겨누어 쌍두 천리마를 타고 완충기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향하여 내닫고 있다.

한 귀국자의 수기

이 제도하에서 나는 행복하다

얼마 전에 본사 편집국은 일본에서 귀국하여 현재 청진 철도 공장 조립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김 규만 동무로부터 조국에 와서 느낀 몇 가지 점들에 대하여 쓴 수기를 접수하였다.

필자는 당원도 공산주의자도 아니다. 그는 다만 오랜 이역살이와 로동 생활을 통하여 현실을 리성적으로 보며 판단하게 된 보통 로동자이다.

편집국은 그의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하여 아래에 게재한다.

본사 편집국

재일 동포들이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품 안으로 계속 돌아 오고 있다.

나도 일본 도꾜에서 살다가 제 11 귀국선으로 여기 북반부로 왔다.

우리 재일 동포들이 북반부로 돌아 오고 있는 것은 다만 조국이라는 데서만은 아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재일 동포들의 90% 이상이 남조선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다. 나도 역시 그런 사람의 하나이다. 우리는 고향을 사랑하며 못내 그리워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고향으로 갈 수 없었으며 가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자체가 가르친 길이다.

생각하면 지난 날의 이국살이는 실로 몸서리치는 암흑의 나날이였다.

나는 열네 살 때(1934년)부터 대전 기관구에서 로동 생활을 시작하였다. 하루 12~15시간에 달하는 고된 로동은 나로 하여금 《쉬운 일》을 찾아 일본으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일본 도꾜의 이시까와지마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게 되였다. 그러나 그 곳에서의 로동은 그 강도에 있어서 대전 기관구에 비할 바가 아니였다. 나는 더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굴욕과 천대, 빈궁은 더 악착스럽게 뒤쫓았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8. 15 해방을 맞이하였다.

일본에 있던 우리 동포들은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 가려고 시모노세끼로, 하까다로 물밀듯 모여 들었다. 그러나 막상 가고 보니 부산으로 건너 가는 배를 탄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와도 같은 노릇이였다. 배는 적고 사람은 많다보니 천천으로 조금씩 건너 가면서도 숫한 사람들이 날과 달을 지체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그날그날의 끼니에조차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들은 쥔 것, 입은 것을 다 팔아 먹고도 려비가 떨어져 혹은 부두에서, 혹은 로상에서 쓰러져 갔고 수십만의 동포들이 온 길을 다시 되돌아 서지 않으면 안 되였다.

나도 도꾜로 되돌아 갔다. 그러나 공장들은 문을 닫았었고 로동자들은 거리로 쫓겨 났었다.

실업자의 소굴로 유명하던 아사구사 《스미다 공원 다리》 밑이나 후까가와 《도요스 합바》에서 무엇이든 뒤집어 쓰고 밤을 새운 우리들은 첫 새벽부터 직업 소개소의 문 앞에서 무리를 지어 일'감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였다.

그러나 직업 소개소가 알선하는 일공 로동이란 우리 실업자들의 수에는 비할 수조차 없었다. 결국 제비뽑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쥐여진 종이 쪽지를 편다. 마침 붉은 도장이 나오면 환성을 올린다. 어쨌든 그날은 얼마쯤 벌어 간신히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숫한 실업자들은 저들의 신세를 저주하면서 쓰레기통, 《철액 은행》, 전당포 등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간다.

해방 후의 나의 《생활》은 이렇게 하여 시작되였다. 이리하여 브로카, 야미장사, 고철 장사 등 닥치는 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활》이 15 여년을 하루같이 계속되였다. 아직 일본에 남아 있는 대다수 동포들의 《생활》도 바로 이러하다.

우리는 이쨌든 이러한 인간 생지옥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야만 했다. 그것은 조국으로 돌아 오려는 념원과 련결되여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고향인 남조선으로는 갈 수 없었다.

나 개인의 사정만 보더라도 고향 대전에는 예순 세 살 난 늙은 어머니와 스물 여덟, 스물 여섯 살 나는 두 동생이 있는데 동생들은 모두 직업이 없다.

큰 동생은 본래 폐가 나빴다. 게다가 1956년에 괴뢰군에 끌려가 6개월 만에 유령처럼 되여 제대되였다. 어머님의 편지에 의하건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는 세상을 더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해에는 또 작은 동생이 괴뢰군에 끌려 갔다. 그리하여 지금 나많은 어머니와 앓아 누운 큰 동생은 아직 일본에 남아 있는 형이 간혹 부쳐 주는 책을 팔아 간신히 연명해 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비극은 우리 한 가정의 사정만은 아니다.

얼마나 많은 남조선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거리에서 헤매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리 형제들이 굶주려 쓰러지고 있는가.

남조선에 비하면 일본은 그래도 《사람의 세상》이다. 부르죠아 출판물까지도 남조선은 인간 생지옥의 맨 밑창이라 부르고 있음에랴.

결국 재일 동포들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 날로 륭성 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 조국으로 돌아 오는 길만이 안정된 직업과 광명, 자유, 행복을 찾는 길이며 조국을 통일하고 고향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은 생활의 론리였다.

우리가 깨달은 이 론리는 일본에서 비교적 괜찮게 산다는 동포들에게 있어서도 매 일반이나. 경제 생활이 심히 불

안정스러운 자본주의하에서 누가 그들의 장래 생활을 담보하겠는가. 또 사실에 있어서 하루'밤 사이에 감쪽같이 파산을 당하고 실업자의 대렬에 떨어진 사람인들 얼마나 많았는가.

이리하여 오늘에 와서는 60만 재일동포들이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영광스러운 사회주의 조국에서 자기들의 삶의 희망을 보고 있으니 이 어찌 우연한 일이라 하겠는가.

청진항에 첫 발을 디디자부터 조국은 한량없이 두텁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포옹해 주었다.

17년 만에 다시 돌아 온 조국 땅! 강산도 사람도 모든 것이 변하였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훌륭하게 되였다.

청진시만 하더라도 4~5층의 훌륭한 문화 주택들이 즐비하게 일어서서 번화한 거리를 이루고 있다. 나는 25년 전에 청진에 와 본 일이 있다. 그때는 2~3층 집이면 제일 큰 집이였고 그것도 아주 희유한 형편이였다. 모든 것을 재'더미로 만든 전쟁에서 벗어난지 몇해 안 되는 이 도시가 이렇게 웅장하게 일떠 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청진에 못지 않게 건설된 함흥시도 구경하였고 지난 5.1절에는 귀국동포들의 관광단 성원으로 영광스러운 민주 수도 평양도 구경하였다.

평양의 거리들은 우리 관광단 성원들을 참으로 황홀한 세계에로 이끌어 갔다. 쓰딸린 대통로와 인민군 거리, 동평양의 청년 거리 등은 도꾜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거리들이다.

도꾜에서도 물론 전후에 건설이 진행되였고 고층 건물들이 일어 섰다. 그러나 고층 건물의 옆에는 으레 게딱지같이 초라한 판자'집들이 엎디여 있다. 이것은 흡사 거만하게 일어선 자본가의 발 밑에 구걸하는 실업자, 거지들의 가련한 모습을 련상시킨다. 그러나 우리 평양의 거리들은 얼마나 정연하게 5~6층 건물들이 빈틈없이 늘어서 있는가!

그 훌륭한 집들에 바로 우리 근로자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은 자기 로임의 1%도 안 되는 싼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도꾜에서는 보통 단간방 세'집을 하나 얻으려 해도 우선 《권리금》이 최소 하도 10만 원은 있어야 하고 매달 5,000~8,000원의 집세를 물어야 한다. 보통 남성 로동자들의 월 수입이 1만 5,000원 정도라는 것을 고려하다면 이 얼마나 살인적인 집세인가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다 큰 청년 남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도 무엇보다도 먼저 집 문제 때문에 시집장가를 못 가는 현상이 부지기수이다.

일본에서는 판자'집이라도 하나 지으면 큰 성공을 했다고 한다. 왜냐 하면 집터'값이 하늘에 닿을 지경이기 때문이다. 도꾜의 《긴자노 마찌》같은 데서는 평 한 평에 220만 원이나 한다. 자연이 인류에게 무상으로 준 땅을 이처럼 비싸게 팔아 먹는 자들에게 어찌 《하느님》인들 무심할 수 있겠는가.

우리 조국의 건설은 농촌 건설, 공장 건설에 있어서도 도시 건설에 못지 않는 훌륭한 성과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르는 곳마다 공장이요, 이르는 곳마다 판개 수로요, 온 땅이 창조와 로력으로 들끓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청진에만 하더라도 김책 제철소, 청진 제강소, 청진 방직공장 등 대기업소들이 다 완전히 복구되였으며 일제 시기에 비해 모두 몇 배씩의 놀라운 생산을 내고 있다.

이와 같이 공업과 농업이 대대적으로 발전되니 일본같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실업이란 찾아 볼 수 없다.

우리 재일 동포들도 오자마자 매 개인에게 직업이, 그것도 기능과 기호에 따라 알맞는 직업이 선택되였다.

나는 청진 철도 공장에서 15년만에 다시 용접봉을 들고 나의 기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였다.

나는 흥분된 감정으로 일터에 나갔다—십장이 시키기가 바쁘게 재빨리 일들을 해치우리라—마음 먹었다. 직장장이라는 사람이 첫 며칠 동안은 공장 사정이나 돌아 보라고 하기에 나는 조립직장에서 주로 용접공들의 일하는 모습과 일'거리들을 보았다. 그런데 이 곳 《십장》들은 어떻게나 능란한지 온 종일 나타나지도 않고 큰 소리 한마디 치지 않는 데도 일들은 부리나케 해치워지고 있었다. 나는 하도 이상해서 동무들에게 물어 보려 했으나 혹시 어디 숨어 있던 《십장》이 눈치나 채지 않을가 두려워 그럴 수도 없었다. 나는 퇴근할 때에야 길'거리에 나와서 한 동무에게 슬그머니 이 일을 물어 보았다. 그랬더니 그 동무는 큰 소리로 웃어대며 하는 말이 《동무는 옛말을 하는군, 우리 나라에서는 벌써 십장이란 말조차 잊은지 가 오래라오》.

십장이 없다니? 과연 수수께끼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나는 특히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라는 데서 놀라운 사실을 보았다. 이 운동은 일종의 경쟁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제각기 일을 잘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도와 주고 서로 일깨워 주고 기술을 나누어 모두가 다 일을 잘 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이 경쟁이라니?! 일본에서 경쟁이란 어떻게 하면 남이 잘못되게 하고 자신이 이기겠는가 하는 개싸움이 아니였던가.

어느 일요일에 나는 공장 동무들을 따라 지금 중축 중에 있는 청진역사에 사회 로동을 나간 일이 있다. 여기에는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 간부들도 모두 동원되였는 데 사람들의 일하는 열의는 오히려 보수를 받는 평상시의 로동에서보다 더한 것 같았다.

어린 소년들까지 와서 벽돌을 날라 주고 웅덩이에 빠진 자동차를 밀어 끌어내 주고…하는 데는 참으로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꾜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길을 달리던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교통에 대혼란을 주는 경우에도 돈을 내흔들기 전에는 누구 하나 자동차를 밀어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돈만 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래 살아 온 나로서는 리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어느날 나는 공장에서 상금 추천을 토의하는 모임에 참가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건 도대체 알 수 없는 광경이 아닌가! 일을 잘 해서 모두 응당히 상금을 받아야 할 동무들인데 서로들 사

양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했다고… 나보다 송 동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송 동무에게 주자구…》.

그저 이런 식으로 면 사람에게 서로 미는 것이다. 더우기 앞장 서서 일을 아주 잘 한 직장장이나 직공장 동무들은 거의 받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가!

지배인 동무나 당 위원장 동무는 언제나 우리 작업장엘 나와 보군 하며 손수 우리 로동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가정 살림까지 돌봐 주군 한다. 이것은 그들을 친어버이로, 허물 없는 동무로 대할 수 있게 해 주며, 하고 싶은 말이며 의견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해 준다.

일본에서는 지배인 쯤 되는 《량반》이면 1년에 한두 번 보면 잘 보는 것이다. 그 으리으리하게 나타나는 《량반》들 앞에 누가 감히 말을 할 용기를 낼 수 있었던가.

나는 오늘에 와서야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체험하며 깨닫고 있다.

우리 조국에서 사람들의 친절성과 사랑은 교양 사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공장에 일본에서 돌아 온 강 두홍이란 동무가 있다. 이 동무는 일본에서 그저 좀 벌어서는 두두려 먹고 투전이나 하고 뒤'골목이나 찾아 다니던 《망나니》였다. 일본에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조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동무는 조국에 와서도 그런 버릇을 못 놓아 일을 하기 싫어하고 로임을 타서는 사흘이 멀게 두두려 먹고는 흥흥하였다. 간부들이나 동무들이 아무리 타일러도 그의 머리에는 들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귀국 동포들의 얼굴을 뜨겁게 하는 것이였다. 하도 답답해서 하루는 우리 일본에서 온 공장 친구들이 모여 토의를 했다. 우리는 그런 자식에게는 《스파르타식》 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지었다. 이것이 당 위원회에 제기되였다. 당 위원장 동무는 이 말을 듣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동무의 벌적을 받아 줄 환경,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아껴 주고 꾸준히 설복하고 깨우쳐 주면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동의하면서도 반신반의하였다. 하지만 어쨌든 동의했으니 따뜻이 대해 주었다. 이곳 로동자 동무들, 간부 동무들은 더할나위 없이 그에게 깊은 배려를 돌려 주었고 꾸준하게 배워 주었다.

모든 것은 당 위원장의 말이 참으로 옳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몇 달 동안에 강 동무는 30년 가까이 쌓이고 엉킨 그 썩은 병'집을 고치기 시작했고 일에 열성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스파르타식》으로 들이댔더라면 물론 일시적 진통제로는 되였을지 모르나 고쳐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쓰여지고 있지만 누구 하나 고쳐 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사회의 도덕, 질서는 더욱 문란해지고 더욱더 썩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의 현실 앞에서 경탄해 마지않는 것은 나만이 아니다. 지난 5. 1절에

귀국자들의 판광단 성원으로 평양에 갔을 때 각처에서 모여 온 동무들이 서로 나눈 이야기들에는 참으로 웃지 않을 수도 없고 울지 않을 수도 없는 놀랍고 신기하고 아름다운 사실들이 너무도 많았다.

평양에 있는 한 친구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일본에서 돌아 온 한 임신부가 병원에 입원하여 해산을 하게 되였다. 그런데 그는 웬일 음식을 몹시 사양하였다는 것이다. 끼니다 밥을 몇 술 뜨다가는 말고 여러 가지 찬들이며 간식용으로 가져오는 사과나 과자같은 것은 전혀 먹지 않았다. 얼굴은 언제나 수심에 잠겨 있었다. 그를 시중 들어 주는 간병원은 그의 행동과 안색이 심상치 않아서 더 따뜻이 돌봐 주고 무슨 걱정되는 것이 있는가, 혹은 간병원 자신이 일을 잘 못해서 그러지나 않는가 하고 물어 봐도 그저 쓸쓸히 머리만 내저었다. 알고 본즉 그는 입원 해산비, 식사비 등을 매일매일 계산했던 것이다. 물론 그도 조국에서는 치료비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는 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병원에서 베풀어 주는 배려가 상상이외로 극진하다보니 그는 그만 그 만이 의심적 해졌던 것이다—이렇게 대우를 잘 해 주는 것을 보면 아마도 숫한 돈을 붙이야 할 것이 아닌가—그는 글장 이렇게만 생각하였던 것이다.

우리 귀국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십분 리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일본에서 입원 해산을 하자면 1주일에 적어도 7~8,000원은 치려야 하는 것이다. 집에서 1주일 간 해산 방조를 받는 데도 3,000원은 있어야 한다. 그 부인이 왜 어리둥절하지 않았겠는가!?

치료비를 모르는 나라,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조국에서 녀성들은 해산 방조에서만 나라의 큰 덕을 보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모든 조건들이 녀성들을 해방시키고 남녀 평등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여있다.

간단한 실례만 들어도 녀성들이 남자들과 조금도 차별 없는 로임을 받고 있으며 탁아소, 유치원들은 모두가 그들을 위하여 무상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러니 녀자들이 무엇 때문에 부엌에 처박혀 있겠는가. 우리 공장만 보더라도 어느 직장을 물론하고, 지어 복잡한 기술 로동 부분에까지도 녀성들의 비중이 아주 높다. 거기에 또 가정 부인들이 적지 않다.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하게 당, 국가 및 사회 단체 사업들에도 참가하고 있는데 무슨 회의 때에 나가서 토론이나 하는 것을 보면 참 대단들 하다.

일본에서는 녀자들이 사회 진출을 좀 해 보려고 하면서도 무엇보다도 애 때문에 도리가 없다. 일본의 탁아소들에서는 월 탁아비가 5~6,000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녀성들이 보통 일해서 받는 월 수입과 맞먹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직장엘 나가겠는가. 일본의 탁아소, 유치원들은 단순히 유한 계급 귀부인들의 기생 생활을 위한 도구로 될 뿐이다.

일본에서도 법적으로는 남녀 평등권이 보장되여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많이 론의들 한다. 그러나 녀자들이란 기껏해야 처녀 때에 방직 부분이나 기타 단추나 완구같은 것을 만드는 작업, 사무 부분같은 데서나 일할 수 있

을 뿐이라는 관념이 농후하다. 이 점도 로만 생각해도 사실적이다. 대체로는 아직도 집에서 부엌일이나 하고 애들이나 기르는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녀자들이 남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절반도 되나마나한 로임을 받아도 그에 대해서 누구도 크게 분노를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응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평등을 쟁취한 조국의 녀성들은 로동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후대들의 교양에서도 높은 재능을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조국 소년들의 실지 행동 자체가 증명해 주는 바이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나라의 훌륭한 교육 제도가 놓은 공로가 깃들어 있지만 역시 어머니들의 교양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 얼마나 똑똑한가. 사회 정치 생활, 국 내외 정세, 예술과 문학 등등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고 부르는 모든 면에서 그들은 성만 일본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높은 수준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주인공들인 것이다!

오늘 세상도 좋지만 미래의 조국은 말할 수 없이 더 좋을 것이다.

나도 이 조국의 당당한 주인으로, 영광스러운 사회주의 건설자로 된 것이다. 이제는 다시 나에게서 직업을 빼앗을 자도, 나의 로력을 착취할 자도 없다. 나를 위한 일이자 당과 조국을 위한 고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였다. 그저 힘이 부쩍부쩍 솟는다.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로동자가 어디 있으랴!

김주민

장백 근거지에 있어서 조국 광복회 조직의 확대와 그의 역할

김 을 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1930년대 후반기 장백 일대에 혁명 근거지를 창설하였다. 장백 근거지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대자연 요새를 리용하여 설치한 밀영지들과 혁명 조직들이 깊이 뿌리 박은 주민 지대를 포괄하였다.

1936년 5월 5일 김 일성 동지의 지도하에 장백 근거지에서 조국 광복회가 결성되였으며 장백 근거지를 중심으로 조국 광복회 운동은 국내외의 광활한 지역에서 조직 전개되였다. 실로 장백 근거지는 1930년대 후반기 조선 혁명의 근거지였으며 조국 광복회 운동 지도의 중심지였다.

장백 근거지에서의 조국 광복회 조직망의 확대

장백 근거지에서 조국 광복회 조직을 확대 공고히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였다. 그것은 장백 근거지에서 이 조직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조선 혁명의 근거지 자체를 우선 공고히 하고 그에 의거하여 전 조선에 조국 광복회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야 하였으며 항일 무장 투쟁을 더욱 강화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였다.

그러므로 김 일성 동지는 장백 근거지에서 조국 광복회 조직을 확대 공고히 하는 데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지도하였다.

조국 광복회 조직을 확대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선 조국 광복회의 강령을 인민 대중 속에 깊이 침투시키는 사업이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농민, 로동자, 종교인 등 각계 각층 인민 대중 속에 구두 선전, 출판물, 혁명 가요와 문학 예술 활동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는 전 인민적 항전에 힘 있는 사람은 힘을, 재산 있는 사람은 재산을, 총 있는 사람은 총을,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바쳐 조국 광복회의 기치하에 단결하여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강령의 기본 정신을 선전하였다.

이러한 선전 사업을 통하여 조국 광복회 강령은 장백 근거지 내외 인민들 속에 깊이 침투되였으며 그 조직망은 급격히 확대되였다.

장백 근거지에서 조국 광복회 조직망은 각계 각층 인민들 속에 확대되였다.

조국 광복회 조직을 확대 강화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원칙들이 있었다. 그것은 조국 광복회의 매개 조직들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이미부터 각 지방에 있던 반일 조직들을 조국 광복회에 인입함과 동시에 각계 각층의 광범한 대중(로동자, 농민은 물론 청년, 학생, 도시 소상공업자, 민족 자본가, 반일적 지주, 종교인 등)을 개인의 자격으로 포섭하여 지방 실정에 적응한 조국 광복회 조직들을 결성 확대하는 것이였다. 또한

서의 탄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며 대담하게 적들의 합법적 기관 내에까지 들어 가서 조직을 확대하며 활동하는 것이다.

장백 근거지에서의 조국 광복회의 조직은 우선 당시 조선 인민 혁명군의 활동 지역이였던 무송현 일대에서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조국 광복회의 창건 직후인 1936년 5월 무송현 서강 려하덕(西崗 黎河德)에서 김 일성 동지는 무송 일대에서 반일 투쟁을 하고 있던 동지들에게 조국 광복회 조직을 결성 확대할 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 후 무송 일대에는 무송현성 내와 대영(大營)을 비롯한 조선인 거주 지역에 조국 광복회 조직망이 포치되였다.

장백 근거지에서의 조국 광복회 조직은 장백현 일대에서 급속히 확대되였다. 그것은 1936년 8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혁명의 령도부가 장백 일대에로 이동하고 장백현 일대가 조선 혁명 령도의 총 참모부의 소재지로 되면서부터이다.

장백 일대는 반일 대중의 정치적 토대가 견고하였다.

이곳 주민의 다수는 1929~1933년 세계 경제 공황 시기 일제의 가혹한 략탈에 의하여 함남북 일대에서 실업 혹은 령락되여 이주하여 온 로동자들과 농민들로 구성되여 있었다.

또한 이 중에는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 앙양된 로동 운동에 참가하였다가 망명하여 온 동지들도 수 많이 있었다. 국내에서 망명하여 간 동지들의 지도하에 장백 일대에서는 적색 농민 조합 운동을 비롯하여 반일회 조직이 있어 지방적이고 수공업적인 반제 반봉건 운동들이 조직 전개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의 지도하에 곳곳에서 정치 및 문화 계몽 사업들이 진행되였다.

이러한 때에 김 일성 동지는 조선 인민 혁명군의 대부대를 인솔하고 장백에 나오셨다.

장백에 나오신 김 일성 동지는 권 영벽 동지를 비롯한 우수한 공산주의자들을 파견하여 장백 근거지에서의 조국 광복회 및 당 조직과 대중 운동을 조직 지도하도록 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권 영벽, 리 제순 동지들은 장백 일대의 조국 광복회 운동을 책임지고 그 조직을 확대함에 노력하였다.

장백 일대에서의 조국 광복회 조직은 우선 주민의 절대 다수를 이룬 농민들 속에 광범히 포치되였다.

장백 일대 주민의 절대 다수는 농민이였으며 조국 광복회 조직의 다수가 역시 농민들 속에 포치된 조직들이였다.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36년 10월부터 1937년 2월까지의 기간 장백현 상강구 산하 13개의 조국 광복회의 하부 조직들 중 12개의 조직, 중강구 일대에서 6개 지회 산하 38개의 분회들 중 36개의 분회, 하강구 일대에서 7개의 지회 산하 26개 하부 조직들 중 24개는 모두 농민들 속에 포치된 조직들이였다. 1937년 8월 장백현에 집단 부락이 실시되기 전까지 100 여개의 부락 중 농민들 속에 조국 광복회 조직이 포치되지 않은 곳은 거의 없었다.

* (상기 조직들의 수'자는 필자가 1960년 3월 현재까지 조사한 것임).

장백 일대에서 조국 광복회 조직은 로동자들 속에도 뿌리 박았다.

장백 일대 주민 구성에서 산업 로동자는 거의 없었다. 로동자들의 다수는 계절 로동에 종사하며 자유 이동이 심한 림산 로동자들이였다.

일정한 지역에 고정적으로 있지 않는 로동자들 속에 조국 광복회의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조선 인민 혁명군 내의 지방 정치 공작원들은 이 로동자들 속에 조국 광복회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장백현에서 제일 큰 홍산 목재소(일본인 자본가 이마노[今野]란 자가 경영함)에는 수백 명의 로동자들이 있었다. 정치 공작원들은 1936년 11월에 이 목재소의 로동자들 속에 조국 광복회를 조직하였다. 최초에는 5명으로부터 시작하여 1937년 8월까지는 수십 명의 로동자들이 이에 망라되였다. 기타 림산 로동자

들 속에도 조국 광복회 조직은 확대되었다.

장백 일대에서 조국 광복회 조직은 종교인들 속에도 광범히 포치되였다.

장백 일대에 류포된 종교들 중 가장 영향력이 있은 것은 천도교였다. 장백 일대의 천도교도들은 국내 삼수, 풍산 등 지대와 련계를 갖고 있었다.

장백 근거지에서 조국 광복회 조직이 급속히 확대된 것은 천도교도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지방 정치 공작원들은 천도교도들에게 조국 광복회 강령을 깊이 침투시켰으며 이리하여 이 교도들은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조국 광복회 본신의 정당성과 또한 민족적 영웅으로 명성이 높은 김 일성 동지의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이 운동이 전개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열렬히 지지하여 나섰다.

천도교 장백현 종리원장이였던 리 전홍 로인은 자신은 물론 2명의 자기 아들까지 조국 광복회에 가입시켰다. 천도교도인 리 창선, 리 경운 등 수명의 애국적 청년들은 조선 인민 혁명군에 입대하여 훌륭한 투사로 육성되였다. 그들은 천도교도들 속에서 정치 공작을 진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중강구의 조국 광복회의 한 개 조직은 천도교도들로 조직되였으며 장백 일대 천도교도들의 절대 다수가 조국 광복회에 가입하였다.

권 영벽, 리 제순 동지들은 장백현 종리원을 통하여 국내 삼수, 갑산, 풍산 등 지역의 교도들에게 조국 광복회 강령을 침투시켰으며 삼수, 갑산, 풍산 일대 종리원을 지도하던 도정(道正) 박 인진(朴寅鎭)을 조국 광복회에 가입시켰다. 도정 박 인진의 조국 광복회 가입은 교인들 속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천도교 신파 수뇌부인 최 린 등 주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광범한 지역의 천도교도들 속에서 조국 광복회 조직은 확대되였다. 조국 광복회에 망라된 일부 천도교도들은 직접 김 일성 동지를 방문하고 조국 광복회 강령을 지지하며 조선 인민 혁명군에 물심 량면의 원조를 줄 것을 결의까지 하였다.

장백 근거지에서의 조국 광복회 조직은 학생들과 적 기관 내에까지 심입하였다.

당시 장백현에 있어서 청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란 것은 오직 장백 농업 학교밖에 없었다. 농업 학교는 위만 장백 현공서 곁에 위치하여 있어 일제의 감시가 심한 곳이였다. 그러나 이 학교에도 1937년 초에 조국 광복회 대상동 지회의 공작에 의하여 조국 광복회가 조직되여 자기 조직을 점차 확대하여 갔다.

조국 광복회 조직은 적의 통치 기관 내에도 뿌리 박았다. 적지 않은 부락에서 적들이 신임하는 툰장들이 조국 광복회의 성원으로 되였으며 그를 책임자로 하여 그에 자위 단장, 협화회장 등이 망라되여 한 개 분회를 형성하기까지 하였다.

조국 광복회 장백현 위원회와 조선 인민 혁명군 내의 정치 공작원들은 주민 중 조선인이 다수이고 중국인이 소수인 장백현 일대에서 중국 인민들을 통일 전선에 인입하는 사업에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정치 공작원들은 당시 동북에서 중국인들의 통일 전선 조직인 반일 구국회를 중국인들 속에 확대하여 14도구, 15도구, 간구자(干溝子), 삼남리(三南里) 등지에 조직하였다.

특히 조국 광복회 장백현 하강구회 위원이였던 정 동철 동지는 통일 전선 공작을 적군 와해 공작과 밀접히 결부시켰다. 정 동철 동지는 요방사 부락에 주둔한 정안군 한 개 반의 반장(반장은 왕. 동무였는데 1938년 초 구국회 조직이 발각되여 사형 당하였다) 이하 전원을 장악하고 반장을 책임자로 하는 반일 구국회를 조직하였다.

이리하여 조국 광복회 조직과 구국회 조직은 1937년 봄까지 장백현 전 지역에 확대되여 각계 각층 인민들을 망라하였다.

사실상 장백 일대는 조국 광복회와 구국회 조직으로 일색화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장백 일대의 적들의 하부 통치 기구는 각 지방의 공고한 혁명 조직으로 인하여 공중 누각과도 같이 되였으며 혁명 조직의 위력에 의하여 통치 기구의 기능은 마비되였었다.

장백 근거지에서 조국 광복회 조직은 무송, 장백 일대에서부터 확대되여 림강현 7도구 일대, 안도현 량강구 일대에도 포치되였다.

장백 근거지의 각계 각층 인민들 속에 조국 광복회 조직망이 확대됨으로써 조선 혁명 근거지는 일층 공고화되였다. 이는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의 정당성과 빛나는 승리를 보여 주는 것이였다. 장백 근거지에서 조국 광복회 조직이 공고화됨으로써 장백 근거지를 혁명 기지로 조국 광복회 조직은 국내의 광활한 지역에 확대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지도하에 국내에서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이 결성되였으며 함남 반일 투쟁 동맹, 함북 반일 동맹 등이 결성되고 강화 발전된 것이 바로 이를 잘 실증하여 준다.

실로 국 내외에 확대된 조국 광복회에는 불과 수개월 동안에 20 여만의 회원이 망라되였는바 당시 조선 인구 약 2천 400만에 대비하면 120명에 한 명의 조국 광복회 회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장백 근거지에서의 조국 광복회 조직과 회원들의 역할

장백 근거지에 있어서 조국 광복회 조직들은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 및 조선 인민 혁명군에 대한 원호 사업 등 거대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장백 근거지에 있어서 조국 광복회 조직과 **회원들의 중요한 역할은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에 크게 기여한 그것이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1930년대 후반기 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의 중요한 방책의 하나로서 조국 광복회 로선을 제기하였다. 당시 조선에는 로동 계급의 전일적인 정치 조직으로서 직맹도 없었으며 농민들과 청년들의 전국적인 조직도 없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당 창건 준비 사업을 하여야 할 조국 광복회의 임무는 아주 중요하였다. 물론 조국 광복회 자체가 공산주의적 조직은 아니였다. 그러나 그는 로동 계급의 령도와 공산주의자들의 확고한 령도를 보장하면서 조선 인민 혁명군과 함께 당 창건의 조직적 골간을 육성하며 그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간고한 혁명적 실천을 통하여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하는 조직으로 되여야만 하였다.

장백 근거지 내 조국 광복회 조직들은 수 많은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리 제순 동지를 비롯하여 이미부터 장백 일대에서 활동하던 반일 투사들은 실지 투쟁을 통하여 불굴의 공산주의자로, 훌륭한 간부로 육성되였다. 이 핵심들을 골간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조국 광복회 회원들 속에 깊이 침투하여 처음에는 그들에게 민족적 의식을 제고시키고 점차 계급적 각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교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간고한 실천 투쟁 즉 일제 주구들의 청산, 인민 혁명군에 대한 원호 사업, 적 기관에 들어 가서 적정을 탐지하고 적을 와해시키며 좌우경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통일 전선 로선을 견지하는 등의 투쟁을 통하여 그들을 공산주의 투사로 육성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장백 근거지 내 조국 광복회원들 속에서는 당 력량이 급속히 장성하게 되였다. 장백현에 있어서는 조국 광복회가 결성된 이후 4~5개월 동안에 조국 광복회를 통하여 육성 단련된 동지들로서 당 조직을 결성할 수 있게 되였다. 그 후 장백현 당 위원회 산하에 수십 개의 당 하부 조직들이 결성되였으며 수 많은 당원들이 이에 망라되였다.

장백 근거지에 확고한 당적 및 군중적 토대가 이루어진데서 이를 근거지로 국내의 광활한 지역에 조국 광복회 조직망을 확대하고 당 창건의 조직적 골간을 육성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에 있어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 것은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의 결성과 그의 활동이였다.

조선 민주 해방 동맹은 국내 조국 광복회의 지도적인 한 조직으로서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하였다. 소위 《혜산 사건》 당시 적들은 2,000명의 애국자들을 체포하였는바 그들은 모두 공산주의자들이였거나 조국 광복회에 속하여 교양 받고 활동하던 동지들이였다. 이 사실만 보아도 장백과 갑산 일대의 조국 광복회 조직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육성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장백 근거지에서의 조국 광복회 조직과 회원들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는 조선 인민 혁명군을 물심 량면으로 원조한 것이다.

장백 근거지에서 조국 광복회 조직의 확대 강화는 항일 무장 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확고히 하였으며 조선 인민 혁명군과 인민들 간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하였다.

조국 광복회 조직들은 광범한 인민 대중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조선 인민 혁명군의 후비 력량을 보충하는 사업에 전력하였다. 장백현 한 개 현에서만 하여도 조국 광복회 조직들은 1936년 10월～1937년 10월까지의 1년 동안에 수백 명의 회원들과 청년들을 조직적으로 조선 인민 혁명군에 입대시켰다. 이 중에는 마동희 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영웅들도 있었다.

장백현 조국 광복회 조직들과 회원들은 김 일성 동지의 창의에 의하여 조직되였으며 지방 당 조직들의 지도하에 있은 생산 유격대 내에서 훌륭히 싸웠다. 생산 유격대는 반(半) 군사 조직으로서 혁명군의 큰 후비 력량이였다. 생산 유격대는 정상적으로 생산에 참가하면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주구들을 청산하며 혁명군과 함께 적 기관을 습격하며 또한 적정에 대한 정찰과 혁명군에 대한 물사 원호 사업을 조직적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장백 근거지 내 조국 광복회 조직들과 회원들은 조선 인민 혁명군에 대한 물자 원호 사업을 광범히 진행하였다.

장백현에서 백두산 아래 첫 동리라고 불리우며 김 일성 동지가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를 령솔하고 국경 지대에 나오셔서 처음 류숙한 지양개에는 당시 150 여 호의 농가들이 있었다. 이곳 농민들은 조국 광복회 회원들의 선봉적 역할에 의하여 1936～1937년 1년 동안에 수백 두의 쌀, 감자 및 밀가루와 수백 벌의 고르뗑 양복을 비롯하여 수다한 의약품들을 인민 혁명군에 보냈다. 이곳 인민들은 물품을 구입하기 힘들 때에는 혜산에 있는 조선인 헌병을 리용하여 그 헌병으로 하여금 승용차로 물품을 장백으로 이송케 하여 혁명군에 보내군 하였다.

장백현 상강구 신흥촌 일대 조국 광복회 회원들도 불과 수십 호밖에 되지 않는 주민들의 애국적인 열성을 동원하여 1936～1937년 1년간에 300 여 두의 쌀과 200 여 켤레의 솜버선, 150메터의 광목 등 수많은 의약품과 군수 불자를 원호하였다. 특히 신흥촌 조국 광복회 회원들인 청년들과 부녀들은 1937년 여름 1～2전씩 모은 돈으로 훌륭한 축기를 만들어 조선 인민 혁명군에 증정하여 그들의 전투적 사기를 고무하였다. 당시(1937년) 장백 일대에는 약 4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였다. 이들 중 친일 주구들을 제외하고는 남녀 로소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혁명군 원호 사업에 참가하였다.

장백 근거지 내 조국 광복회 조직들과 회원들은 적 통치 기관 내에 대담하게 들어 가서 공작하라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훌륭히 집행하였다.

장백현 조국 광복회 조직들은 장백현 내 적의 하부 통치 기관들을 거의 장악하였다. 상강구에서 20도구의 면장은 그곳 조국 광복회 분회장이며 공위로 있은 리 취 동지가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적들의 신임을 받으면서 주민들 속에서 식량, 피복, 의약품을 혁명군에 보내기 위한 사업을 광범히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수집된 원호 물자를 계획적으로 혁명군에 보내군 하였다. 그는 또한 1937년 여름 박 금철 동지가 김 일성 동지를 상봉하고 돌아 오던 길에 20도구 경찰에 체포되였을 때 박 금철 동지의 신원에 대하여 보증 서고 석방케 하였다.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에서 후대들에 대한 교육

김 관 섭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1932~1935년)에서 후대들에 대한 교육 문제는 공산주의자들 앞에 제기된 중요한 혁명 과업의 하나였다.

그것은 후비 대오를 육성하여 혁명의 승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될 혁명의 미래를 위해서,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아동들을 교육하여야 했기 때문이였다. 더우기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 내의 사정과 아동들의 형편은 이 문제를 더욱 긴절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에는 동만 일대 조선 인민들에 대한 일제의 대중적 탄압과 학살로 인하여 적 통치 구역으로부터 이동하여 온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일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32년도 동만 일대에서 근거지에 이동한 인민들(적들은 부랑민이라고 불렀다)은 3만 6,000 여명에 달하였다. 근거지에 이동하여 온 주민들 중에는 아동들 특히 적들의 토벌에 의하여 부모 형제와 집을 잃은 아동들이 수많이 있었다. 아동들의 대부분은 근거지에 올 때까지 일제의 식민지 노예 교육 정책과 생활의 곤난으로 말미암아 학교에 갈 수 없었으며 공부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동들에 대한 교육 교양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혁명 의식으로 무장시킬 수 없고 혁명 대오의 강력한 역군으로 키울 수 없으며 투쟁에로 동원시킬 수 없었다.

후대들에 대한 교육 문제는 또한 자위대, 소년 선봉대원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의 무장으로 유격 근거지에 대한 적들의 토벌을 물리치고 근거지 방위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사정으로부터 더욱 긴절한 과업으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를 창설하는 초시기부터 혁명 임무의 한 부분으로서 후대들에 대한 교육 문제를 제기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유격 근거지에 수립된 새로운 사회 제도에 상응하여 악독한 일제의 식민지적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고 민주주의적 교육 제도를 수립하였으며 모든 인민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주었다. 더우기 토지 개혁을 비롯한 일련의 민주 개혁들의 실시로 말미암아 조성된 물질적 기초에 근거하여 근로 인민의 자제들에게 일체 면비(免費) 교육을 실시하였다.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에서 후대들에 대한 교육 사업은 전적으로 당시 혁명 임무 수행에 복종되였으며 아동들에게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선진적인 과학 리론을 우리 말과 우리 글로 배워 주어 그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한 불굴의 혁명 투사로 육성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교육 정책의 관철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인민 혁명 정부 내에 일체 교육 문제를 취급하는 교양부를 설치하였다. 교양부는 공산

주의 청년단, 아동단, 부녀회 등 사회 단체와의 련계하에 근거지 내의 학령 아동들을 조사 장악하였으며 한편으로 유격대와 인민을 동원하여 비교적 안전한 지대에 교사를 건설하였다. 항일 유격대와 인민들의 애국적인 노력에 의하여 여러 곳에 많은 학교들이 건립되였다.

이와 같이 교양부는 교사 건축을 비롯하여 교육 사업의 제반 조건들을 보장하는 사업을 주로 하면서 교수 요강과 산수, 국어, 지리 등 일반 과목의 교재를 작성하는 사업도 담당 수행하였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 교양의 지도와 집행에 대한 임무는 공산주의 청년단에 위임하고 학교 교원으로 공청원들을 파견하였다.

후대들의 교육 교양에 대한 책임을 공산주의 청년단에 위임한 것은 당시의 정세에서 전적으로 정당한 조치였다. 그것은 우선 후대들의 교육에 있어서 정치 교양이 위주로 되였다는 사실이며 다음으로 아동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그들의 모든 정치 생활이 아동단 조직을 통하여 진행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아동단에 대한 지도 책임을 지닌 공청이 후대들의 교육에 대한 지도를 책임 짐으로써 그들의 정치 생활과 학교 교육의 통일적 지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었다.

정치 교양은 유격 근거지 내 후대들의 교육에 있어서 위주였다.

일반적으로 맑스-레닌주의는 정치를 떠난 교육이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교육은 소여 시기의 국가와 계급들의 일정한 목적에 복종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레닌은 《교육 분야에서의 우리의 사업도 역시 부르죠아지를 타도하기 위한…투쟁》이며, 《…생활 밖에 즉 정치 밖에 서 있는 학교는 허위이며 위선》(전집, 제 28권, 90페지)이라고 지적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일제와 그 주구 지주, 예속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조선 인민의 민족적 독립과 근로 인민의 사회적 해방을 위한 혁명 임무의 한 부분으로서 교육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그를 실천하였다.

아동들을 혁명의 후비 대오로 육성하자면 그들에게 혁명에 필요한 모든 것 특히는 계급 투쟁에 관한 지식과 혁명적 실천력을 배양하여야 하였다. 이것은 정치 교양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었다. 유격 근거지의 구체적인 혁명 정세가 또한 후대들에 대한 교육에서 정치 교양을 위주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산 혹은 령마루,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적과 대치하고 있는 근거지 내 인민들의 생활은 전투적이였다. 적들은 근거지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봉쇄하였으며 악랄하게 토벌을 감행하였다. 하루에도 수십차에 걸치는 적의 토벌대와 싸워야 하였다. 근거지 내에서 생산을 비롯한 모든 활동은 적과의 가렬한 투쟁 속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후대들에게 튼튼한 계급적 립장과 혁명적인 세계관을 형성시키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였다. 또한 아동들을 훌륭한 혁명가로 육성하며 그들로 하여금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정치 사상적으로 준비시켜야 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청년들을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준비시킨다는 것은 청년들을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민주 사상으로 교양하며 과학적 선진 리론으로 무장》(선집, 제 2권, 287페지)시키는 것이라고 교시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후대들에 대한 교양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재 작성을 비롯한 모든 사업에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정치 교재는 계급 교양을 중심 내용으로 하여 공청에서 작성하였다. 일제에 의하여 부모를 잃은 아동들의 처지와 그 아동들의 용감한 투쟁을 교재에 반영하였으며 《제국주의는 왜 나쁜가?》, 《지주와 자본가는 우리를 어떻게 착취하였는가?》,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쏘련 삐오네르의 생활》 등등과 같은 문제들을 학생들의 수준에 알맞게 교재에 반영시켰다.

국어, 산수, 음악 등 일반 과목의 교재에도 근거지 내 아동들의 가장 가까운 생활을 반영시켜 교양적 의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국어나 산수 과목에서 유격대와 인민이 협력하여

적과 싸워 이긴 내용이라든가, 생산 활동에 대한 정형들을 수준별에 따라 교재에 반영하였다. 이 밖에도 1주일에 1~2회 이상의 정치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지주와 농민》, 《시식과 구식》 등의 제목을 광범히 취급하여 아동들의 정치 수준을 제고시켰다.

과정안에 의한 학과 학습 외에 후대들에 대한 교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회 정치 생활이였다.

아동들은 아동단에 망라되여 조직 생활을 하였다. 학교 교원들은 동시에 아동단 지도사였다. 교원들은 부모를 잃은 아동들과 침식을 같이 하면서 아동단 생활을 지도하였다. 학생들의 일과에서 아동단 생활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아침 기상하면 조기 운동과 주위 청소를 하며 식사 후는 분단 모임을 가지였다. 이 모임에서는 그날 아동들이 하여야 할 과업들, 우선 학습에 참가할 준비며, 군사 훈련과 생산에 참가할 문제들을 토론하였다. 일과를 끝마치고 저녁이면 또 분단 모임을 가지고 그날 사업을 총화하였다.

아동단 생활은 아동들을 혁명적인 규률성과 정직성과 강한 투지의 소유자로 육성함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아동들은 점차 자기들의 계급적 처지를 알게 되여 일제와 그 주구 지주, 예속 자본가들을 증오하고 새로운 사회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자로 되었으며 열렬한 혁명 투사로 육성되였다.

다음의 몇 가지 사실들은 자기의 계급적 처지를 깨닫고 혁명적 규률성과 강한 투지의 소유자로 육성된 아동들의 훌륭한 품성을 잘 보여 준다.

아동들은 적들의 토벌에 의하여 학교가 소각 파괴되면 어른들을 도와 학교를 다시 세우고 공부를 하였다. 그들은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으로 1년에도 수십 차례씩 당하는 이러한 난관을 이겨냈다. 아동들은 적들의 토벌과 근거지에서의 기근으로 인하여 초래된 헤아릴 수 없는 큰 곤난도 용감히 이겨냈다. 1935년 초부터 1,000 여명의 군중이 집결되여 살던 처창즈 근거지는 적들의 포위 속에서 혹심한 기근을 만나게 되였다. 그러나 아동들은 락심하지 않고 굳센 의지로 기운을 내여 《교동하》에서 고기와 개구리를 잡아 식량을 보충하였다. 특히 그들은 자신들의 배고픔을 참고 이것들을 전투하고 돌아 온 유격대원들에게 드리군 하였다.

또한 1934년 왕청현 타호왜 유격 근거지에서 적 토벌대에 의하여 많은 아동들이 학살당한 일이 있었다. 이 때 11세 나는 한 아동이 적에게 체포되여 백초구 경찰서에 끌려갔다. 경찰놈들은 혁명 조직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그에게 야수적인 고문을 가하였다. 혁명 조직의 비밀을 생명으로 지켜야 한다는 정신으로 교양된 이 아동은 끝내 비밀을 말하지 않았다. 경찰놈들은 모진 고문 끝에 그를 총살하였다. 최후 순간 그는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고 장렬히 희생되였다. 이 영용한 사실은 아동단원들과 전체 인민을 원쑤에 대한 증오와 격분으로 불러 일으켰으며 당시 국제 공산당 기관지 《공산 국제》에까지 게재되였다.

또한 1933년 연길현 왕우구에서 있은 일이였다. 14세인 리 화순은 황 순희와 함께 유격대들이 로획한 물품을 왕우구에서 북동으로 운반하던 도중 휴식하다가 적에게 발각되여 체포되게 되였다. 때마침 황 순희는 현장에 없었다. 적들은 리 화순에게 3시간이나 악형을 가하면서 같이 가던 동무가 간 곳을 대라는 것이였다. 그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놈들은 그를 총살하였다. 리 화순은 자기의 희생으로써 전우이며 동지인 황 순희를 구원하였다.

다음으로 **교육과 생산 로동의 결합은 근거지 내 후대들의 교육에서 기본 방침으로 되였다.**

교육과 생산 로동의 결합은 후대들을 혁명 대오의 한 성원으로 참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였다. 아동들의 생산 로동에의 참가는 비단 그것이

교양적 의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근거지 내에서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생산 로동에 참가하는 문제는 과정안에 포함되였다. 아동들은 오전에 교내에서 학과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일과에 따라 실습 혹은 생산 로동에 참가하였다. 일부 아동단 분단 성원들은 자기들의 실습지에서, 혹은 농민들의 농토에 나가서 일을 하였으며 다른 분단의 아동들은 산에 가서 약초를 캐여 약품의 부족을 보충하였다. 한편 산나물을 캐여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병공창 부근에 있는 아동들은 직접 무기 제조나 수리하는 로동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폭탄 제조에 필요한 철, 철선, 양철을 수집해 오며 화약 원료도 구해 왔으며 권총을 자체로 만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들은 근거지 내의 실생활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로동에 참가하였다.

생산 로동을 통하여 아동들은 학과 시간에 습득한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로동을 사랑하며, 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공산주의적 품성을 배양하였다. 또한 생산 로동에 참가함으로써 아동들은 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단련되였다.

군사 교육은 유격 근거지 내 후대들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였다.

장기적이고 간고한 무장 투쟁을 통해서 일제를 타승하여야 할 혁명 임무로부터 또한 근거지 내 전체 인민의 무장으로 유격 근거지를 방위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후대들에 대한 교육 문제에서 군사 교육은 필연적으로 제기되였다. 아동들은 혁명의 후비대로서 원쑤들과의 투쟁에 직접 간접으로 참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그들에게 적과 싸우는 방법과 수단을 직접 가르쳐 주지 않고서는 그들을 적과의 싸움에로 준비시킬 수 없었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후대들에 대한 군사 교육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동단의 생활과 학교 교수 요강에 군사 교육 문제를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아동단 조직은 그것이 사실상 군사 조직과 같은 것이였다. 아동단 생활에는 엄격한 규률이 지배하였다. 조직으로부터 받은 위임에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집행하고야 마는 투쟁 정신과 엄격한 규률이 아동단 생활의 규범으로 되였다. 아동들은 항상 전투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배낭을 지고 다녔으며 40~50센치메터의 곤봉을 무기로 메고 다녔다. 아동들은 군사 학습과 훈련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였다. 군사 학습에서는 보초의 임무와 그의 수행 방법, 수기를 가지고 신호하는 방법, 무기 사용법, 정찰하는 방법, 비밀을 고수하는 방법, 통신 련락 방법 등이 체계적으로 취급되였다.

아동들은 보초를 서면서 적이 침공하여 오면 신호기 혹은 불'빛으로 유격대에 련락을 하였다. 아동들은 통치 구역에 나가 적정을 정찰하여 오기도 하고 근거지에 들어 온 간첩을 적발하기도 하였다. 1932년 연길현 생경리 남구에서는 7~8세 되는 아동들의 경각성 높은 활동에 의하여 근거지에 잠입한 간첩 15명을 일망타진한 일도 있었다.

아동들은 전투가 있을 때면 유격대원들과 함께 싸우거나 혹은 높은 고지에 모여서 노래를 불러 적의 사기를 저락시키는 한편 유격대원들의 사기를 고무 추동하군 하였다. 1933년 봄 왕청현 방어 전투시 아동들은 자신들이 만든 권총으로 신호하여 련락을 제때에 보장하여 주었으며 한편 나무에 큰 못을 박아 자동차 길에 매몰함으로써 토벌하려 들어 오는 적의 자동차 3대를 고장나게 하여 유격대원들의 전투 승리를 보장하였다. 물론 이 밖에도 아동들이 전투에 직접 간접으로 참가하여 빛나는 성과를 달성한 사실은 허다하다.

아동들은 군사 교육을 통하여 규률을 엄격히 준수하는 정신을 배웠으며 자기 조직을 무한히 사랑하며 집단주의 정신으로 무장된 혁명의 믿음직한 대오로 육성되여 갔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육친적 배려와 지도는 후대들의 교육 교양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무장 투쟁의 간고한 조건하에서도 후대들의 교육 교양에 각별한 배려를 돌렸다.

김 일성 동지는 학교에 자주 나가서 후대들에 대한 교육 교양 사업을 친히 지도하시였다.

1933년 10월 왕청현 대북구에 있는 학교에 나가신 김 일성 동지는 모든 정형을 일일이 보신 다음 아동들에게 요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였다… 우리 조국을 빼앗고 부모를 학살하며 너희들을 고아로 만든 일제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없애 버려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모두 마음을 굳게 먹고 몸을 튼튼히 하며 유격대로 나간 아버지 오빠 아저씨 누나 형님들을 생각하면서 모두 공부를 잘 해야 한다. 너희들은 우리 조국의 꽃봉오리이며 앞날의 기둥이다. 너희들이 명랑할 때 우리도 명랑하고 너희들이 잘 자라면 우리는 기운이 솟는다. …어서어서 무럭무럭 커서 조국의 훌륭한 일군이 되여라!…

김 일성 동지의 이 말씀은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자라나는 후대들에 대한 기대와 교양에 대한 총적인 표현이기도 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직접 후대들의 교양을 지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격대원들로 하여금 아동들의 피복, 식량, 학용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 주도록 하였다. 성시 습격 전투 시에는 일부 대원들에게 전적으로 아동들의 피복과 일용품을 로획할 임무가 분공되군 하였다.

공청원인 교원들은 김 일성 동지의 지도와 배려에 고무되여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후대들에 대한 교육 교양 사업에 충실성을 다하였다.

교원들은 적들의 토벌에 의하여 학교가 소각되면 다시 짓거나 그렇지 못한 때에는 숲속과 눈 속에서라도 막을 치고 아동들의 학습을 지도하였다. 적들의 토벌이 격심하여 아동들을 한 곳에 모일 수 없을 때는 곳곳에 분교식으로 학교를 설치하고 수십리 길을 오고 가고 하면서 일과 대로 교육을 보장하였다.

교원들은 아동들의 일상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 주었다. 학생들의 의복을 빨아 꿰매 주기도 하며 몸이 어지러우면 씻어 주기도 하였다. 적의 토벌에 의하여 아동들이 부상 당하면 업고 다니면서 치료를 하였고 밤을 새워가면서 간호하여 주었다.

학용품과 필묵이 떨어지면 교원들은 숯으로 먹을 만들고 털로 붓을 만들어서 아동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부족되는 용지 대신에 봇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것으로 글을 쓰도록 하였다. 교원들은 눈 혹은 모래판을 리용하여 학생들의 글 쓰기를 가르쳤다.

교원들은 모든 생활에서 학생들의 모범이였다. 학생들에 대한 교양 사업의 성과 여하는 교원들의 품행과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태도 여하에 많이 달려 있다. 유격 근거지 내에서의 학교 교원들의 모범적 활동은 모든 생활에서 아동들의 거울로 되였다.

※ ※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에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민주주의적 면비 교육의 실시는 조선 인민의 력사에서 특히 교육사상에서 빛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동만 일대의 유격 근거지에서 실시한 교육 사업의 경험에 기초하여 일제 식민지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며 청소년들에게 우리 말과 글로써 교육하며 의무적인 면비 교육을 실시할 것을 조국 광복회 강령에서 정식화하였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 공산주의자들의 교육 사상과 그 방침은 오늘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으로서, 교육 정책의 지침으로 되여 우리 인민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고 있다.

서적 해제 및 평론

고귀한 민족적 유산

—《삼국사기》 역주본 출판에 대하여—

채 희 국

금번 과학원 출판사는《삼국사기》역주본(상, 하)을 출판하였다.

《삼국사기》는 우리 나라 삼국 시기(기원 1~7세기 전반기)와 통일 신라 시기(기원 7세기 후반기~10세기 전반기)의 력사를 서술한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 중의 하나이다.

《삼국사기》는 우리 민족이 과거에 걸어 온 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문헌일 뿐더러 인류 력사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는 문헌 중의 하나이다.

《삼국사기》를 포함한 우리 나라의 고문헌들은 전부 한문으로 기록되여 있다. 이것은 오늘날 이 문헌들의 연구에 적지 않은 애로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문헌들을 번역 출판하는 사업은 민족 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삼국사기》가 편찬된 후 815년이 경과한 오늘, 우리 민족은 처음으로 우리 말로 된《삼국사기》를 가지게 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의 유구하고도 찬란한 력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로 된다. 이로써《삼국사기》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통한 력사 연구는 대중화되고 우리의 고문헌들이 인민의 두터운 사랑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 *

《삼국사기》는 기원 1145년(고려 왕조 인종 23년)에 왕명으로 당시의 저명한 유학자 김부식(金富軾)에 의하여 편찬된 정사(正史)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당시 정사 편찬의 기본 형식으로 되여 있었던《기전체(紀傳体)》를 채용하여 편찬되였다.

《삼국사기》는 총 50권으로 구성되여 있는바 그 중《본기(本紀)》는 28개권,《렬전(列傳)》은 10개권,《지(志)》는 9개권이고 나머지 3개권은《표(表)》로 되여 있다.

《본기》에는 왕에 관한 것과 왕의 정치에 관한 기사 및 당시 국가적 사건에 관한 기사들이 년대기적으로 서술되여 있다.《렬전》에는 당시의 유명한 인물들에 대한 전기가 실려져 있다.《지》에는 종교, 음악, 복식, 주택, 관직 등에 관한 제반 제도가 포함되고 있으며 특히는 당시의 지방 행정 구역을 취급한 지리지가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여 있다.《표》는 년대표의 내용을 가진 것이나 3국의 왕대를 한 개의 표 속에 종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삼국사기》에 수록된 력사적 시기는 우리 나라가 세 나라로 갈라져 있던 시대이다. 그

으므로 저자는 세 개 나라들의 력사를 개별적으로 서술하여 한 개의 책으로 편찬하였다. 그중 신라에 관한 부분이 제일 자세하게 서술되여 있다.

《삼국사기》를 편찬함에 있어서 김 부식은 당시에 남아 있었던 3국 시기에 관한 문헌들을 광범히 리용하였다.

이미 우리 나라에는 3국 시기부터 력사 편찬 사업이 발전하고 있었다. 고구려에서 일찌기 《류기(留記)》가 편찬되였고 이에 기초하여 600년에는 리 문진에 의하여 《신집(新集)》이 편찬되였으며 백제에서는 375년 고흥에 의하여 《서기(書記)》가, 신라에서는 545년에 거칠부에 의하여 《국사(國史)》가 각각 편찬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구삼국사》가 편찬되였다.

《삼국사기》는 《구삼국사》에 기초하여 편찬되였으므로 비록 12세기의 저작이기는하나 그가 가지는 사료적 가치는 매우 충분한 것이다.

3국 시기의 문헌들이 거의 인멸된 오늘날 《삼국사기》는 《삼국유사》와 더불어 3국 시기의 력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사료이다.

《삼국사기》를 통하여 우리는 1～10세기에 해당하는 1,000 여년 간의 우리 나라의 력사적 발전 과정을 해명할 수 있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의 고대 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하여 원시 공동체 제도의 붕괴 과정에서 국가로 형성되여 왔는가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3국이 각각 발전하는 과정과 3국 간의 호상 관계가 서술되여 있고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우리 나라 력사가 전진하는 방향이 어떠하였으며, 그 결과가 3국의 통일로써 종결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삼국사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사료적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는바 1～10세기의 1,000 여년 간의 우리 나라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을 연구함에 있어서 《삼국사기》는 둘도 없는 사료로 된다.

《삼국사기》는 우리 선조들의 고상한 애국주의 전통에 대하여도 잘 이야기하여 주고 있다. 외래 침략자들이 침입하였을 때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인민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영웅적으로 싸워 이겼는가를 생동성 있게 서술하였으며 조국 방위를 위하여 영용하게 싸운 애국자들의 업적들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다. 612년 고구려 인민의 《살수 대첩》, 645년의 《안시성 대첩》의 서술에서 이와 같은 실례를 볼 수 있으며 7세기 후반기 3국 인민들의 반당(反唐) 공동 투쟁의 승리 과정에 대한 서술에서도 우리 선조들의 애국주의 정신을 충분히 볼 수 있게 한다.

《삼국사기》는 당시의 피압박 인민들의 계급 투쟁에 대하여서도 적지 않게 서술하고 있다. 착취자, 억압자를 반대하여 항상 투쟁의 기'발을 든 3국 인민들의 다종다양한 계급 투쟁의 형태들과 그들이 달성한 성과들이 여러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다.

때로는 폭동의 형식으로, 때로는 토지에서 리탈하는 형식으로, 때로는 다른 나라들에로 집단적으로 도피하는 방법들을 통하여 계급 투쟁을 전개한 우리 선조들의 혁명적 기개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군도(群盜)》, 《류리(流離)》 등의 기사에서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볼 수 있다.

《삼국사기》는 3국 시기의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우수한 문화적 전통에 대하여도 많은 기록을 보이고 있다. 우수한 학자, 유명한 예술가, 문화적 창조 사업의 과정들이 수록되여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 민족 문화가 발전하는 과정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외에도 《삼국사기》를 통하여 3국 시기의 국제 관계, 대외 무역의 발전, 농업, 상업, 수공업이 발전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나마 알게 된다. 또 3국 시기의 선조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설화, 민속, 인민들의 기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도 적지 않게 보인다.

《삼국사기》는 이와 같이 풍부한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한편 적지 않은 부족점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삼국사기》를 연구함에 있어서 그 제한성을 정확히 리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삼국사기》가 편찬되던 12세기 중엽의 우리 나라는 국내외 정세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고려 국가는 봉건적 질서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급하였다. 《삼국사기》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편찬된 것으로 철두철미 봉건적 유교의 이데올로기로 일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삼국사기》는 사회 발전, 계급 관계의 서술이 심히 소홀한 한편 왕의 《선정(善政)》을 평가하기에 급급하였다.

또한 《삼국사기》의 저자는 사회 발전, 계급 관계, 인물 평가 등에 있어서 유교의 교리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을 적지 않게 외곡한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제한성에 대하여 맑스—레닌주의적 리론에 의한 분석을 가함으로써만 이 책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

이 역주본에는 원문이 첨부되였고 주석과 교감표까지 첨부되였는바 이는 독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줄 것이다.

그러나 《삼국사기》 역주본에는 부족을 느끼는 점도 적지 않다.

우선 번역된 문장이 완전한 현대 문장으로 되여 있지 못한 곳이 상당히 많은데서 그렇게 말하게 되며 또 번역한 곳에서 어려운 한문 어휘가 아무 주석 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불만을 주고 있다.

물론 개별적인 어휘에서 아직 정확한 고증이 되여 있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역서는 독자에게 만반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휘를 더 알기 쉽게 사용하고 주석을 보다 친절하게 달아 줄 여지는 아직도 많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실례는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앞으로 학자들이 《삼국사기》에 대한 연구 사업을 보다 심화함으로써 이러한 결함들을 시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 제 6호 (루계 175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로자사 인쇄소 •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 1960년 6월 15일 인쇄 • 1960년 6월 10일

ㄱ—31310 값 50전

력사적 유물론이란 무엇인가

4×6 판, 예정 페지 280 페지, 예정 값 80 전,
발행 부수 100,000 부, 발행 예정 6월

이 책은 이미 발간된 《철학 지식》 중에서 력사적 유물론에 해당한 부문만을 한 책으로 묶어 그 내용을 더욱 보충하고 수정 가필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력사적 유물론에 대한 기본 문제가 우리 당 정책 및 우리 나라 현실 문제와 결부되여 쉽게 계통적으로 서술되여 있다. 그러므로 철학을 처음 학습하는 독자라도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으며 자기의 정치 리론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은 《변증법적 유물론이란 무엇인가》와 함께 이 책을 읽음으로써 맑스주의 철학의 기본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자기 맡은 혁명 과업을 더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일정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경제 발전·개관 (1)

4×6 판, 예정 페지 330 페지, 예정 값 75 전,
발행 부수 10,000 부, 발행 예정 7월

이 책은 쏘련, 중국, 몽고, 월남의 경제 발전을 소개한 책이다. 여기에는 이 나라들의 지리적 개요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정확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 및 앞으로의 경제 발전 전망들이 상세히 서술되여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독자들에게 형제 나라들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하며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에서도 도움으로 될 것이다. 동시에 형제 나라 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을 강화하게 할 것이다.

이상 서적들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

1960년 6월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8호 8월 1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60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제 8 호 (177)

1960년 8월 15일

차 례

조선 인민의 민족적 명절 8.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

김 일 성

(전원 총 기립. 오래 계속되는 우뢰와 같은 박수 속에 등단)

친애하는 동지들!

조선 인민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 기반에서 해방된 때로부터 15년이 지나 갔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기들이 걸어 온 영광스러운 투쟁의 행로를 회고하면서 우리 나라 력사에서 류례 없는 번영과 륭성을 이루어 놓은 기쁨과 자랑 속에서 8.15 해방 15주년을 경축합니다.(우렁찬 박수)

나는 이 민족적 명절을 맞이하여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당신들과 전체 조선 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나는 우리 나라를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하여 주었으며 우리에게 항상 거대한 물질적 및 정신적 원조를 주고 있는 위대한 쏘련 인민에게 전체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나는 우리의 투쟁을 피로써 도와 주었으며 우리에게 계속 커다란 원조를 주고 있는 위대한 중국 인민과 우리를 항상 지지 성원하여 주고 있는 모든 형제 나라 인민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우렁찬 박수)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에서 15년이란 기간은 극히 짧은 시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우리 인민은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수천 년을 두고 우리 조상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해 놓았으며 모든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변을 이룩하였습니다. 나라의 면모는 일신되였으며 조국의 산천도, 사람들도 다 몰라 보게 달라졌습니다.

해방 후 오늘까지 우리 인민은 자기 조국의 통일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중첩되는 난관과 준엄한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는 낡은 사회로부터 극히 락후한 식민지적 경제와 문화를 넘겨 받았으며 민족 간부가 매우 부족한 형편에서 새 사회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국의 분렬과 원쑤들의 끊임 없는 파괴 활동은 우리의 건설 사업에 더욱 큰 난관을 조성하였습

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의 무력 침공으로 인한 가렬한 전쟁의 참화를 겪었으며 전후 도시와 농촌이 재'더미로 된 빈터에서 경제를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잡하고 간고한 환경에서도 우리 당은 항상 인민들을 승리에로 인도하였으며 우리 인민은 언제나 당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모든 난관과 시련을 영웅적으로 극복하면서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확신성 있게 전진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해방 후 15년 간의 조선 인민의 력사는 제국주의자들의 무력 침공과 온갖 침략적 책동을 격파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 낸 영광스러운 투쟁의 력사이며 중첩되는 난관을 뚫고 폐허 우에 인민들이 살기 좋은 훌륭한 새 사회를 건설한 위대한 창조의 력사입니다.(우렁찬 박수)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과 창조적 로동의 결과로 오늘 우리 나라 정세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투쟁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였습니다.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북반부의 혁명 기지는 불패의 력량으로 전변되였으며 남조선의 민주 력량은 날로 장성하고 있으며 인민들의 혁명 투쟁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미국의 식민지 통치는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은 걷잡을 수 없는 정치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15년 간 북조선과 남조선에서의 진보와 반동, 번영과 몰락의 상반되는 두 로선의 투쟁과 두 현실의 대립이 어떤 결말을 가져 올 것인가는 이미 명백하게 되였습니다.

8.15 해방 1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전체 조선 인민이 통일된 조국 강토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 날이 더욱더 가까와 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성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동지들!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지난 15년 동안에 북조선에서 위대한 혁명적 과업들을 수행하였으며 위대한 건설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방 직후 우리 인민은 낡은 일제 통치 기구를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인민 정권을 수립하였으며 제국주의의 잔재 세력과 봉건 세력을 청산하는 민주주의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토지 개혁, 산업 국유화를 비롯한 민주주의적 개혁들이 수행된 결과 북조선은 락후한 식민지 반봉건 사회로부터 인민 민주주의 사회로 전변되였으며 조선 혁명의 강력한 민주 기지로 발전하게 되였습니다.

만일 우리 당이 모든 애국적 력량을 동원하여 북반부에 민주 기지를 창설하고 그것을 급속히 강화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미제를 괴수로 하는 16개 제국주의 국가들의 무력 침공을 격퇴할 수 없었을 것이며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수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공화국 북반부의 정치, 경제, 군사적 력량과 형제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 성원에 의거함으로써만 우리 인민은 조국 해방 전쟁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3년 간의 전쟁은 나라의 생산력을 류례 없이 파괴하였으며 인민 생활을 극도로 령락시켰습니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촌 경리를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은 정전 후의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고 인민 경제 복구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옳은 로선이였습니다.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과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인민 경제는 급속히 복구 발전되였습니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생산력의 발전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도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후 불과 4~5년 내에 농업 협동화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승리적으로 완성되였으며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전일적 지배를 확립하게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생산력은 온갖 낡은 생산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였으며 도시와 농촌에서 착취와 빈궁의 근원은 종국적으로 청산되였습니다.

전후 복구 사업을 완성하고 5개년 계획을 수행하려던 때에 우리 당과 인민은 새로운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습니다. 국제 반동과 그 앞잡이인 수정주의자들은 《반쏘, 반공》의 요란스러운 소동을 일으켰으며 그에 발맞추어 미제와 그 주구들은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파괴 행위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우리 당내에서는 반혁명, 반당 분자들이 당을 공격하여 나섰습니다. 그 때에는 우리 나라의 경제 형편도 아직 어려웠으며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는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조금도 동요 없이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 대중을 당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킴으로써 적들의 공세와 반혁명 분자들의 음모를 철저히 분쇄하는 한편 대중의 모든 력량을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동원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력사적인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는 국제 국내적으로 조성된 모든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힘찬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 일으켰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의 시초를 열어 놓았습니다.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군중적 혁신 운동이 일어났으며 보수성과 소극성이 타파되고 새로운 기술 기준들이 창조되였습니다. 생산력은 비상히 높은 템포로 발전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은 급격히 그 면모를 개변하게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 건설은 대고조에 들어 섰으며 전체 근로자들은 천리마를 탄 기세로 전진하게 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 운동은 사회주의 혁명이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인민 경제의 자립적 토대가 축성된 기초 우에서 일어난 합법칙적 현상이며 락후하고 빈궁한 자기 조국을 하루 속히 선진 국가 대렬에 올려 세우려는 우리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는 것이며 당을 무한히 신뢰하고 사랑하며 당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모든 난관을 뚫고 나아가는 우리 근로자들의 불굴의 투지와 위대한 창조력의 발현입니다.(우렁찬 박수) 이러한 천리마 운동을 전개함으로써만 우리는 5개년 계획을 공업 총 생산액에서 2년 반 동안에 완수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높은 속도를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전후 6년 동안에 공업 생산은 매년 평균 43%, 5개년 계획의 3년 동안에는 매년 평균 45%의 높은 템포로 장성하였습니다.

우리 나라가 3년 간의 전쟁을 겪었고 전쟁을 전후하여 두 차례의 복구 시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우리의 공업 생산은 전쟁 전 1949년에 비하여 6.4배로, 해방 전 1944년에 비해서는 7.7배로 장성할 것입니다. 중공업이 급속히 발전되여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튼튼한 토대가 축성되였으며 경공업 기지도 창설되였습니다.

지난 날 기술 문명으로부터 멀리 뒤떨어지고 가난하고 무력하여 남에게 억눌리고 짓밟히던 우리 인민은 오늘 제손으로 현대적 설비와 기계들을 생산하며 대규모 공장과 기업소들을 건설하는 위력한 기술의 주인으로 되였습니다.

농촌 경리에서는 수리화와 전기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였으며 기계화가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후 불과 수년 내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36년 간에 하여 놓은 것보다 5배나 더 많은 면적에 물을 댈 수 있는 관개 공사를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치산 치수 사업을 광범히 진행하였습니다.(박수)

수천 년을 두고 자연 재해에 시달리던 우리 농민들은 우리 시대에 와서 비로소 한재와 수재를 모르는 농토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산간 지대에까지 전기가 들어 갔으며 새로운 기계들이 련달아 농촌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개인 경리의 좁은 울타리에서 락후한 농기구로 농사를 짓던 우리 농민들은 대규모적 집단 경리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헐하게 일하면서도 매년 풍작을 이룰 수 있는 튼튼한 기술 토대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의 말 그대로 우리 농촌에 일어난 천지 개벽입니다.(우렁찬 박수)

우리 나라가 이와 같이 빨리 발전하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발전 속도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인민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의 기초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였으며 락후하던 우리 나라를 자립적 경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적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시

졌습니다.

우리 인민의 생활은 날로 향상되고 있으며 민족 문화와 예술은 꽃피는 시기에 들어 섰습니다.

전체 근로자들은 번영하고 륭성 발전하는 자기의 조국을 자랑하며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더욱 광명한 앞날을 향하여 계속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고 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일제 시기에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가혹한 착취와 억압 밑에서 헐벗고 굶주렸으며 수 많은 사람들은 직업을 잃고 정처 없이 방랑 생활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일터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되였으며 자기의 의식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심 걱정도 하지 않게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 전에 이미 실업이 근절되였으며 근로자들의 수입은 대단히 장성되였습니다. 1959년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은 1949년에 비하여 약 2배로 장성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농민들의 실질 소득도 훨씬 증가하였습니다. 지금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 수준은 그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으며 농민들의 생활은 대체로 중농 수준에 올라 섰습니다. 근로자들에게는 매년 수 많은 새로운 주택들이 차례지고 있습니다. 전후 시기에만도 도시와 농촌에 2천 200만 평방메터 이상의 문화 주택들이 건설되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의 근로자들이 부유하게 잘 산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인민 생활에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앞으로 더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자기의 직업과 의식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제들을 공부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근심 걱정을 하지 않게 되였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모두가 다 국가 혜택에 의하여 무료로 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였으며 대학 및 전문 학교 학생들은 국가에서 장학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37개의 대학을 비롯하여 약 8,000개의 각급 학교들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250만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배움의 길이 열렸으며 누구나 다 희망과 능력에 따라 전문 학교나 대학에도 갈 수 있고 자기의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막대한 물질적, 문화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로동자들에게 8시간 로동제가 보장되여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은 또한 사회 보험에 의하여 유급 휴가제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녀성들은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고 있으며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국가 및 사회적 비용으로 운영되는 수 많은 탁아소들과 유치원들

이 설치되여 있습니다. 매년 수 10만 명의 근로자들이 휴양소와 정양소들에서 국가 비용으로 즐겁게 휴식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국가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무의무탁한 사람들, 불구로 된 사람들, 로인들, 고아들도 다 국가로부터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원래 락후하였고 류례 없는 참혹한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류랑자도 없고 걸인도 없습니다.

일제 시기에는 우리 근로자들이 항상 생활고에 쪼달리고 전도가 암담하여 살아 있는 것조차 귀치 않게 생각하였다면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에 더 오래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의 모든 생활은 희망에 가득 차고 즐겁고 흥겨운 것으로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사람들이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고 실업과 기아의 위협을 모르며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이 다같이 일하며 다같이 배우며 다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북반부의 현실이며 사회주의 제도하에서의 우리 인민의 생활입니다.

이국 땅에서 무권리와 민족적 차별과 생활고에 신음하던 재일 동포들도 날로 번영하는 조국의 품안으로 돌아 오고 있으며 이미 귀국한 동포들은 아무런 불편과 걱정도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재일 동포들을 받아 들일 것이며 그들에게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 줄 것입니다. (박수)

지금 북반부 인민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근심은 우리 조국이 통일되지 못하고 같은 동포들이 서로 갈라져 사는 근심, 남조선에 떨려 간 자기의 남편과 자식들, 형제 자매들, 친척, 친우들의 처지와 또한 전체 남조선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에 대한 근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아 있는 이 한가지 근심도 없어지고 3천만 인민이 다같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잘 살게 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가 달성한 이 모든 성과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의 거대한 우월성과 우리 당 정책의 불패의 생활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성과들은 당 주위에 굳게 단결되고 당 정책에 무한히 고무된 근로자들의 영웅적 투쟁과 헌신적 로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의 수행에서,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그리고 또한 전후 어려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높은 혁명적 열의와 백절불굴의 투지와 대중적 영웅주의와 무궁무진한 창조적 재능을 발휘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영웅적 투쟁으로써 공화국 북반부 민주 기지를 철옹성같이 강화 발전시켰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영예를 더욱 빛나게 한 우리의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들과 전체 조선 인민에게 나는 당과 정부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동지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위대한 성과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을 더욱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할 수 있는 광활한 전망이 열려졌습니다. 지금 우리 당과 정부는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결정적 시기로 될 1961~1967년 간의 인민 경제 발전 7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개년 계획 기간에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로선을 계속 견지함으로써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해야 하며 우리 인민의 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장기간의 전망 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 총적 방향을 옳게 설정하는 동시에 개별적 시기의 생산력 발전 수준과 나라의 정세에 따라 해당 시기 경제 발전의 구체적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현재 형편과 장래 전망으로부터 출발하여 7개년 계획의 첫 3년 간에는 이미 조성된 중공업 기지를 더욱 잘 정비하여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기초 우에서 경공업과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력량을 집중하게 될 것이며 다음 4년 간에는 중공업 기지를 더욱 확장하고 그 기술적 장비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인민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전후 시기에 우리 공업은 매우 높은 템포로 발전하였습니다. 금속, 전력, 석탄, 화학, 건재 등 기간적 중공업 부문들이 급속히 확대 강화되였고 자체의 기계 제작 공업이 창설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민 경제의 골간으로 되는 중공업 부문들을 강화 발전시킴으로써 나라의 경제 발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공업 발전 력사가 극히 짧은 까닭에 우리의 공업, 특히 중공업은 아직 일부 필요한 부문들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중공업의 골간은 만들어 놓았으나 거기에 충분한 살을 미처 붙이지 못하였으며 공업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해결하였으나 부차적인 것, 사소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중공업의 이러한 부족점을 보충함으로써만 그것이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인민 생활의 개선을 위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되고 더욱 훌륭하게 복무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7개년 계획의 첫 3년 간에 중공업 부문의 중심 과업은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며 기존 기업소들을 더욱 정비하고 완비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점차 중공업 기지를 더욱 확장하기 위한 대규모 건설 사업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계 제작 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7개년 계획에서 계속 기본적인 과업으로 제기됩니다. 기계 제작 공업을 더욱 발전시키지 않고는 인민 경제의 전면적 기술 개건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형 공작 기계 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이미 있는 기계 공업의 로대를 더 잘 리용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 요구되는 기계 설비들을 다량으로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7개년 계획에서 중심 과업의 하나는 화학 공업의 급속한 발전입니다.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해서나 특히 경공업의 원료 기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화학 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문에 화력을 집중하여 방직 공업과 일용품 공업에 충분한 원료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미 착공한 비날론 공장의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켜 년산 2만 톤 이상에 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의주 종합 방직 공장을 건설하고 청진 방적 공장을 확장하여 스프와 인견사 생산을 더욱 증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직물에 대한 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나이론 공장과 니트론 공장도 건설하며 아마, 대마, 잠견 등 자연 섬유를 가공하는 공장들도 건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앞으로 2~3년 내에 섬유 원료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용품 생산을 혁신하기 위하여 염화 비닐을 비롯한 각종 합성 수지 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화학 공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원유 제정 공장을 신설할 것이며 합성 고무 공업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튼튼한 원료 기지를 조성하는 토대 우에서 우리는 경공업을 더욱 높은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합니다.

방직 공업을 계속 확장하며 식료 가공 공업을 추켜 세우고 일용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용품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품종을 확대하고 품질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원천과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인민들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소비품들을 더 좋게, 더 값싸게,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대규모 중앙 공업과 중 소 규모의 지방 공업을 병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할 것이며 특히 지방 공업의 기계화에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최근 년간에 우리 근로자들은 전국 각지에 수 많은 지방 공업 공장들을 건설함으로써 인민 경제의 발전과 인민 생활 개선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장들을 기계화하고 로동자들의 기술 수준을 급속히 높인다면 지방의 모든 자원을 광범히 동원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일용품의 품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제품의 질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지방 공업 공

장들에서 앞으로 수년 내에 기계화의 과업을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농촌 경리는 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농촌 경리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알곡과 공예 작물 생산을 더욱 증가시키며 축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거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농촌 경리 부문에서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심 고리는 농촌 경리의 기계화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농촌 경리 기계화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금년부터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뜨락또르,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를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생산하여 농촌에 공급할 것이며 모든 농기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평지대 뿐만 아니라 산간 벽지에서까지도 모든 농산 작업을 기계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2~3년 내에 중형 뜨락또르의 대수를 2만 대 이상에 이르게 하며 이 밖에 3만 내지 4만 대의 소형 뜨락또르를 생산하여 농촌에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농촌의 기술적 락후성을 완전히 청산하고 농민들의 힘들고 어려운 로동을 기계 로동으로 대치시킴으로써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농민들의 모든 생활에서 새로운 혁신을 가져 오게 될 것입니다.

농촌 경리에서 알곡과 공예 작물 생산을 더욱 증가시키며 특히 목축업의 사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2모작을 광범히 실시하는 것입니다. 2모작을 실시하는 것은 새로운 땅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며 농업 생산의 장성을 위한 거대한 예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2모작을 실시하여 그 면적을 70만 정보까지 확장함으로써 알곡과 사료 작물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가시켜야 하겠습니다.

농업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동시에 농촌 건설 사업을 계속 광범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농촌에는 건설할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생산 건설도 더 해야 하고 주택과 학교도 더 지어야 합니다. 탁아소, 유치원, 목욕탕, 리발소 등 각종 문화 후생 시설도 계속 더 많이, 더 잘 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농촌 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킴으로써 수년 내에 우리 농촌의 면모를 일신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때에는 우리의 농촌이 참말로 현대적 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될 것입니다.

중공업 기지의 보충과 완비, 튼튼한 경공업 원료 기지의 조성, 소비품 생산의 확대와 품질의 제고, 농촌 경리의 기계화와 농업 생산의 가일층의 장성—이것

이 7개년 계획의 첫 3년 간에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중심적 과업들입니다.

우리는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경제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우리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2~3년 내에 년산 3억 메터의 직물을 생산할 것이며 농촌 경리에서는 400만 톤 이상의 알곡과 30만 톤의 육류를 생산하며 20만 두의 암소에서 젖을 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질 좋은 식료품과 공업 상품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생산의 급속한 장성에 기초하여 앞으로 수년 내에 농민들의 농업 현물세와 로동자, 사무원들의 소득세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이것은 근로자들의 실질 수입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든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실로 거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지는 시책으로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은 인민 생활의 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 법칙으로 삼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만이 실시할 수 있으며 생산 수단이 사회화되고 생산이 근로자들의 복리 향상에 복무하고 있는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앞으로 2~3년 내에 인민 생활을 급격히 개선함으로써 7개년 계획의 하반기에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더욱 큰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7개년 계획의 하반기에는 기간적 중공업 부문들을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켜 나라의 공업화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대규모의 수력 및 화력 발전소들을 더 많이 건설하며 탄광과 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며 기존 야금 기지를 확장하고 새로운 야금 기지를 조성하며 건재 공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화학 공업과 기계 제작 공업을 계속 급속히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공업 기지를 더욱 확대 강화하는 토대 우에서 경공업과 수산업 및 농촌 경리를 더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7개년 계획의 예비적 초안에 의하면 공업 총 생산액은 7년 동안에 2.5배 이상으로 장성할 것이며 알곡 총 수확고는 1.5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7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1967년 한 해 동안에만 1954년부터 1959년까지의 6년 동안, 즉 전후 3개년 계획과 5개년 계획 수행의 전 기간에 걸쳐 생산한 것과 거의 동일한 량의 공업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그 때에 가서는 우리 나라에서 한 해 동안에 170억 키로와트시의 전력, 2,300만 톤 이상의 석탄, 250만 톤의 강철, 430만 톤의 세멘트, 150만 톤의 화학 비료, 5억 메터의 직물과 140만 톤의 수산물을 생산할 것을 예견하고 있

습니다.(우렁찬 박수)

7개년 계획의 이 방대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기술적 진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7개년 계획은 우리 나라에서의 전면적 기술 혁명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민 경제의 어느 부문도 새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는 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기계이며 새로운 기술입니다.

우리는 농촌 경리와 지방 공업을 기계화할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광범한 기술 혁신 운동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현대적인 공장들과 근로자들의 주택 및 문화 후생 시설들을 더 많이, 더 빨리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 사업의 기계화를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장성하는 인민 경제의 수송 요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운수의 기술 장비를 더욱 강화하며 수송 능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여야 하겠습니다. 철도 운수에서는 기본 간선들의 전기화를 완성하고 새로운 철도를 더 부설하며 해상 및 하천 운수와 자동차 운수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운수 부문에서 상하차 작업을 기계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수산업의 발전도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인 우리 나라에는 수산 자원이 매우 풍부합니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며 수산물 가공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앞에는 수산업의 기술적 기초를 강화하는 문제가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수년 내에 지금 있는 범선들을 발동선으로 개조하고 새로 발동선을 더 많이 건조하며 어로 작업에서나 수산물 가공 사업에서 기계화를 광범히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전후 시기에 우리가 복구 혹은 신설하여 놓은 대규모의 중앙 공업 공장들은 대부분 현대적 기술로 장비되여 있고 생산 공정이 기계화되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이 부문에서 더는 기술 혁신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앙 공업 공장들에서도 계속 선진 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광범히 도입하며 부단한 기술적 진보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공장들에서는 모든 생산 시설들과 설비의 리용을 부단히 개선하며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는 데 력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술 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재에 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합니다.

기계와 기술은 사람이 창조하는 것이며 그것을 움직이는 것도 사람입니다. 기술을 소유한 사람이 없이는 기술적 진보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소집되였던 당 중앙 위원회 8월 확대 전원 회의의 결정에

의거하여 기술 교육 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기술 간부의 대렬을 급속히 확장하며 그 질적 구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요구되는 기계 기술자의 수를 급격히 증가시켜야 하며 전기 기술자, 화학 기술자, 광업 및 지질 탐사 부문의 기술자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술 수준이 낮은 식료품 공업, 일용품 생산, 수산업, 축산업 등의 기술자들을 많이 양성하여 이 부문들의 기술 력량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현 시기에 있어서 기술을 소유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가장 영예로운 의무입니다. 전 당이 동원되여 기술을 배워야 하며 전체 근로자들이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여야 하겠습니다.

7개년 계획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강령입니다. 이 계획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게 될 것이며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더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발전된 사회주의적 공업 국가로 전변될 것이며 우리의 도시와 농촌은 더욱 아름답게 건설될 것이며 우리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은 훨씬 유족하여질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이 휘황한 전망은 우리 나라 근로자들에게 더욱 큰 용기와 신심을 북돋아 줄 것이며 그들의 로력 투쟁을 더욱더 고무할 것입니다. 전체 근로자들은 있는 정력과 재능을 남김 없이 발휘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부단한 전진과 부단한 혁신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항상 당 주위에 굳게 단결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의거하여 승리하였습니다. 당과 인민의 깨뜨릴 수 없는 통일, 당 정책 관철을 위해서는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정열과 애국적 헌신성—이것이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들과 전체 인민이 우리 당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위업 달성에 한사람같이 동원된다면 우리는 능히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7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동지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거대한 혁명적 작용을 하고 있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 추동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리 승만 도당의 반동 통치로 말미암아 남조선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으며 새 전쟁 도발을 위한 군사 기지로 전변되였습니다. 해방 후 15년 간에 걸치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 강점은 남조선의 민족 경제를 파산 몰락시켰으며 남조선 인민들을 기아와 빈궁의 도탄 속에 몰아 넣었습니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 대중은 미국의 식민지 통치가 빚어낸 모든 사회악과 극심한 생활고에 더는 참을 수 없게 되였으며 드디여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영웅적 항쟁에 궐기하였습니다.

금년 봄에 남조선의 전 지역에서 일어난 대중적 인민 봉기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으며 자유와 해방, 새 정치와 새 생활을 요구하는 그들의 정당한 투쟁이였습니다. (박수)

남조선의 학생, 청년, 지식인들을 비롯한 광범한 시민들은 원쑤들의 총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영웅적으로 투쟁하여 리 승만 괴뢰 정부를 전복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이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달성한 거대한 첫 승리입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자기들의 용감한 투쟁을 통하여 조선 인민의 혁명적 기개를 시위하였으며 고귀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남조선 인민 봉기는 어떠한 총검의 위협으로나 기만적 술책으로도 인민들을 오래 동안 노예로 얽매여 둘 수 없으며 그들의 혁명 투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렁찬 박수)

이 봉기는 또한 인민들이 단결하여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궐기할 때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아성이라도 능히 쳐부실 수 있으며 인민들은 오직 자기들의 대중적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박수)

그러나 남조선 인민들의 이번 투쟁은 끝까지 철저히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투쟁에 광범한 로동자, 농민들이 참가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직도 남조선 인민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전취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요구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이 완전한 민주주의적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 대중이 투쟁에 참가해야 하며 이 투쟁은 반드시 철저한 반제국주의적, 반봉건적 투쟁으로 되여야 합니다.

자기 령토 내에 외래 제국주의의 침략 군대를 두어 두고는 민족적 독립이란 말할 수도 없으며 인민들은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의 분렬과 남조선 인민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은 미국 군대의 남조선 주둔에 있으며 그의 침략 정책에 있습니다. 미국 군대가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실현될 수 없으며 남조선 인민들은 오늘의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침략 군대는 남조선 반동 세력의 원흉이며 남조선 인민들을 략탈하고 온갖 만행을 다 감행하는 강도들입니다. 남조선 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 대상은 바로 이 반동의 원흉이며 강도들인 미국 침략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남조선 인민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미

국 침략 세력을 반대하며 미국 군대를 철거시키기 위한 투쟁에 견결히 나서야 합니다.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인민들이 반미 투쟁에 총 궐기할 때 미국 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배겨 내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서 물러 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남조선 인민들의 반제국주의 투쟁은 반드시 반봉건 투쟁과 결부되여야 합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침략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남조선의 봉건 지주, 예속 자본가, 반동 관료배들을 리용하고 있으며 그들을 적극 비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건 지주, 예속 자본가들은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부식하며 그들과 결탁하여 인민들을 억압하며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건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는 반제국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는 반봉건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청년, 학생, 지식인, 기업가, 상인 등 모든 애국적 역량이 일치 단결하여 미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봉건 세력을 반대하는 결정적 투쟁을 전개함으로써만 남조선 인민들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으며 완전한 민주주의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박수)

남조선에서 모든 애국적 운동과 민주주의적 운동이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정치 생활에서의 완전한 민주주의가 보장되여야 합니다. 인민들의 자유 의사가 유린되고 파쑈적 폭압과 테로가 횡행하는 사회에서는 부패와 타락만이 지배하게 되며 어떠한 진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 협상에 관한 문제들이 론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론의들이 아직 철저하지 못하고 구구한 것이지만 과거 평화적 통일이란 말만 하여도 《국시》 위반이라고 탄압하던 리 승만 통치 때에 비하면 좀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의 일부 반동 계층들은 이것을 또다시 탄압하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리 승만 통치와 꼭같은 파쑈 테로 통치를 회복하며 인민들이 고귀한 피의 대'가로써 얻은 극히 초보적인 전취물마저 말살하여 버리려는 이러한 반동적 기도는 철저히 분쇄되여야 합니다. (박수)

아직도 남조선 인민들에게는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여 있지 못합니다.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신앙의 자유가 없으며 모든 진보적인 사상과 애국적 운동은 억압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사상은 계속 가혹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자유라면 왜 공산주의 사상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로 될 수 없단 말입니까?

공산주의 사상은 가장 과학적인 사상이며 가장 진보적인 사상입니다. 벌써

세계에서 10억의 인민들이 공산주의의 기치 밑에 자유와 해방을 얻었으며 가장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우렁찬 박수)

공산주의 사상은 지구상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들의 해방과 승리의 기치로 되고 있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이 지배적인 사상으로 되였으며 북반부 인민들은 이 사상의 기치 밑에 자유롭고 행복한 새 생활을 창건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남조선에서는 이 사상이 금지되여야 하며 탄압되여야 하겠습니까?

력사의 경험은 공산주의 사상이 부단히 승리하고 있으며 그것을 탄압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고야 만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물론 공산주의 사상을 접수하고 안 하는 것은 매 개인들의 자유 의사에 달려 있으며 누구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상을 막론하고 결코 그것이 억압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한 사상을 선택하며, 자기의 의사를 발표하며 자기의 리념을 선전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결사와 집회의 자유, 모든 정당, 사회 단체들의 완전한 활동 자유가 보장되여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에는 주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로동자, 농민의 정당이 없습니다.

남조선의 자유당이나 민주당은 로동자,농민의 정당이 아니며 그것들은 결코 근로 인민의 리익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로동자, 농민들은 자기의 의사를 대표하며 자기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할 수 있는 자기 정당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정당도 반드시 합법적 지위를 차지해야 합니다.

북조선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산 계급의 정당인 민주당이 계속 합법적으로 존재하여 왔으며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데 왜 남조선에서는 근로 인민의 정당이 허용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어느 계급의 정당이 집권하는가는 별 문제로 치고 로동자, 농민들도 응당 합법적으로 자기 정당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당에도 완전한 자유 활동이 보장되여야 합니다.(박수) 이를 거부하는 것은 가장 광범한 근로 인민의 의사를 무시하며 그들의 리익을 억압하는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닙니다.

모든 계급들과 계층들, 특히 광범한 로동자, 농민들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게 되고 근로 인민의 정당까지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 단체들의 완전한 자유 활동이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남조선 사회에서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은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인민들의 각성과 계속되는 투쟁에 당황하여 남조선에 대한 자기들의 식민지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에 신형 무기들을 끌어 들이고 남조선 주둔 미군을 증강하며

전쟁 준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마비 상태에 빠진 괴뢰 통치 기구를 정비하기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반동 집단은 미국 상전의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면서 탄압과 기만 술책으로써 인민들의 투쟁 기세를 꺾으며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조선에서 진행된 소위 《국회》 선거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이러한 책동의 뚜렷한 표현입니다. 남조선의 지배층들은 이번 《선거》를 《가장 공명 정대한 선거》였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이번 《선거》도 과거에 남조선에서 진행된 모든 《선거》와 마찬가지로 금력과 협잡과 테로로써 조작된 것입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도처에서 선거 장소와 선거함을 짓부시며 경찰과 기타 괴뢰 통치 기관들을 습격하며 선거의 무효를 선언하며 시위를 단행하는 등 대중적 투쟁으로써 소위 《공명 정대한 선거》의 정체를 여지없이 폭로하였습니다. 이번 《국회》에도 리 승만 통치 때의 《국회》와 마찬가지로 로동자, 농민의 대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회》가 인민의 대표 기관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조선의 위정자들은 소위 《새 국회》와 《새 정부》가 마치 민주 정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제도 복구하고 인민 생활도 안착시킬 수 있을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민들에 대한 기만에 불과합니다.

지금 남조선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에 처하여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식민지적 략탈과 군사화 정책으로 인하여 남조선 경제는 여지없이 파괴되였습니다.

남조선은 미국의 상품 시장으로 되였으며 민족 산업은 미국 독점 자본과 국소수 예속 자본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계속 파산되고 있습니다. 공장수는 일제 시기에 비하여 절반으로 축소되였으며 남아 있는 중 소 기업체들도 원료, 자금, 판매난과 과중한 세금 부담으로 인하여 대부분이 휴업 또는 조업 단축 상태에 있습니다.

남조선 경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 경리는 극도로 황폐화되였습니다. 파종 면적은 일제 말기에 비하여 60만 정보나 축소되고 알곡 수확은 600만 석 이상이나 감소되였습니다. 남조선은 매년 극심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으며 만성적 기근 지대로 전락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로동자들의 임금은 최저 생활비의 3분의 1도 못 되며 그것마저 수개월 내지 반년 이상씩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지주와 고리대의 가혹한 착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막대한 부채를 걸머지고 있으며 절량 농가는 매년 100 여만 호에 달합니다. 수백만에 달하는 실업자와 반 실업자들이 기아 선상에서 헤매고 있으며 수십만의 걸식 아동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

습니다.

과연 남조선의 위정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며 인민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무엇으로써 파산된 민족 산업과 농촌 경리를 복구하며 수백만 실업자들에게 직업을 주며 광범한 인민 대중을 기아와 빈궁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미 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 강점이 계속되고 우리 나라가 분렬되여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누구가 어떠한 방법으로 정권에 들어 앉는다 하더라도 파국에 처한 남조선 사태를 수습할 수 없으며 인민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달라진다고 하면 리 승만 정부가 장 승만 정부로 개칭되는 것 뿐이고 그 처지와 말로는 한가지일 것이며 인민들의 생활에도 하등의 개선이 없을 것입니다.

해방 후 15년 간의 경험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먼저 절박한 생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며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은 어떠한 탄압과 기만으로도 남조선에서 이미 일어난 투쟁의 불'길을 끌 수 없으며 그 불'길이 더욱 힘차게 타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8.15 해방 15주년을 맞이하면서 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전투적 인사를 보내며 그들에게 북반부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동지들!

남조선의 현 사태를 수습하며 조선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출로는 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반드시 자주적으로,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자유로운 남북 총 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여야 합니다. 이것은 조국 통일 문제에 대한 우리의 시종일관한 주장입니다.

평화적 조국 통일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방안은 전체 조선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과 리익을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습니다.(박수) 남조선에서 리 승만의 《북진》 소동이 파산되고 평화적 통일에 대한 인민 대중의 요구가 더욱더 높아 가고 있는 사실은 우리의 통일 방안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의 위정자들은 인민들의 압력에 이기지 못하여 말로는 평화적 통일을 운운하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그것을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조선에서만 선거를 해야 한다》느니 《유엔의 감시하에 선거를 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민주주의적 자유 선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리 승만은 민족의 리익을 팔아 먹으면서 자기의 개인 독재나 유지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남북 조선의 자유 선거를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였지만 진실로 민족적 독립과 인민의 리익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왜 자유 선거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조선 문제를 우리 조선 사람들 자신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거기에 반드시 외국 사람이 끼여 들어야만 하겠습니까? 이러한 주장은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우리 인민을 영원히 외래 제국주의의 예속하에 두자는 것입니다.

조선 민족은 수천 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 전통을 가졌으며 오늘 나라의 절반 땅에 자기 손으로 훌륭한 새 사회를 건설하고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번영을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 일어난 민족이며, 용감하고, 근면하고, 슬기롭고, 애국적이고, 단결력이 강한 민족입니다.(우렁찬 박수)

우리 인민은 자기의 운명을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능히 자주적으로 훌륭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의 위정자들은 또한 자유로운 남북 총 선거는 《용공》으로 되며 《적화》의 위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접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여 싸우며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려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공산주의자들을 두려워할 수 없으며 《용공》을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시종일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민족적 리익의 가장 철저한 옹호자이며 가장 철저한 애국자이기 때문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제일 무서워하였고 그들을 가장 가혹하게 탄압하였습니다. 원쑤들의 감옥과 교수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혁명과 민족의 지조를 지키면서 일제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운 사람들이 과연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우렁찬 박수)

일제 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말할 수 없는 간난 신고를 다 겪으면서도 오직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손에 무기를 들고 15 성상이나 피어린 투쟁을 전개한 사람들이 과연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우렁찬 박수) 해방 후 북반부 인민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 쥐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수호하였으며 행복한 새 생활을 건설하였습니다. 만일 공산주의가 나쁜 것이라면 어떻게 북반부에서 민족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도시와 농촌이 더욱더 아름답게 건설되고 인민들의 생활이 날로 향상되고 민족 문화가 찬란히 꽃필 수 있겠습니까? 북반부에는 백만의 로동당원이 있고 인민들은 이미 오래 전에 공산주의 사상을 접수하였으며 그 기치 밑에 굳게 집결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조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젖혀 놓고는 민족의 통일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며 결국 나라의 분열을 영구화하

며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평화적 통일과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모든 정당, 사회 단체들 및 개별적 인사들과 굳게 단결하며 협력하여 나아갈 것을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나서는 인사들이라면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와 손을 맞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오직 민족의 리익을 팔아 먹는 외래 제국주의의 주구들만이 공산주의자들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정당이나 사회 단체나 개별적 인사들을 막론하고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고 평화적 통일을 원한다면 결코 《용공》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며 남북 자유 선거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는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의 자유로운 남북 총 선거의 실시가 평화적 조국 통일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길이라는 것은 론박할 여지가 없습니다.(우렁찬 박수) 우리는 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 단체들과 각계 각층 인민들에게 이러한 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만일 그래도 남조선 당국이 남조선이 다 공산주의화될가 두려워서 아직은 자유로운 남북 총 선거를 접수할 수 없다고 하면 우선 민족적으로 긴급하게 제기되는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하여 과도적인 대책이라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책으로서 남북 조선의 련방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합니다.(우렁찬 박수) 우리가 말하는 련방제는 당분간 남북 조선의 현재 정치 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대한 민국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 민족 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 조선의 경제, 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련방제의 실시는 남북 간의 접촉과 협상을 보장함으로써 호상 리해와 협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호상간의 불신임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였을 때에 자유로운 남북 총 선거를 실시한다면 조국의 완전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우렁찬 박수)

특히 이러한 련방제의 실시는 비록 각계 각층을 망라하는 통일적인 련합 정부가 못 되여서 통일적인 국가적 지도는 못 하더라도 이 련방의 최고 민족 위원회에서 전 민족에 유리한 경제 문화적 문제들을 협의하며 남북 조선의 경제, 문화 교류와 호상 협조를 보장함으로써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을 수습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오늘 남조선의 민족 경제를 바로잡으며 도탄에 빠진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은 가장 긴급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장하여 왔고 또 현실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실시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나라를 불문하고 중공업이 없이는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킬 수 없

고 인민 생활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은 경제학의 초보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중공업은 북반부에 있습니다. 해방 후 북반부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헌신적 로동으로 강력한 중공업 기지를 건설하였으며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닦아 놓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수 많은 민족 기술 간부가 있으며 경제 건설의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반부에서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는 전력, 석탄, 강철, 세멘트, 목재, 화학 비료, 각종 기계 설비들이 남조선 경제의 복구와 인민 생활 개선을 위하여 리용될 것을 절실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와 과학, 기술의 발전에서 우리가 달성한 모든 성과와 경험들을 남조선 동포들과 함께 나눌 것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우렁찬 박수)

북반부의 강력한 경제 토대에 의거함으로써만 남조선에서 원료와 자재와 자금의 곤난을 해결할 수 있으며 파산된 공장들을 제대로 움직이게 하고 새로운 공장들을 더 건설하여 민족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관개 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비료와 농기계도 충분히 공급하여 농업 생산을 빨리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조선에서 공업과 농업을 복구하지 않고서는 수백만의 실업자들에게 직업을 줄 수 없으며 인민 대중의 절박한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북반부와의 경제 교류와 협조를 떠나서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을 수습하려는 것은 빈 말공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조선의 어떤 사람들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을 끌어 들여야 한다고 떠벌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오래 동안 우리 나라 경제를 지배하던 일본 자본까지 끌어 들이자고 합니다. 조선 인민은 일제 통치의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또한 오늘의 남조선 현실을 통하여 외국 자본의 침투가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나라에 충분한 경제적 밑천이 있는 데도 그것을 리용하지 않고 한사코 외국 자본을 끌어 들여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주장은 그렇지 않아도 미국 독점 자본에 예속되여 여지없이 파괴된 남조선 경제를 더욱더 빠져 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밀어 넣자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에 있어서 3천만 인민의 힘을 합치고 북반부의 중공업을 토대로 하여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원을 통일적으로 개발하며 민족 경제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남 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습니다.(우렁찬 박수)

남조선의 수백만 실업자들과 걸식 아동들의 비참한 처지를 우려하며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남조선 동포들의 래일의 운명을 조금치라도 근심한다면 그 누구도 남북 간의 경제 교류와 경제적 협조를 반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남조선 당국이 우리가 제의하는 련방제까지도 아직 접수할 수 없다고

하면 남북 조선의 실업계 대표들로 구성되는 순전한 경제 위원회라도 조직하여 남북 간에 물자를 교역하며 경제 건설에서 서로 협조하고 원조하도록 할 것을 우리는 재차 제의합니다.(박수) 그리하여 정치 문제를 젖혀 놓고라도 우선 남조선 동포들을 기아와 빈궁에서 구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 교류와 함께 문화 교류를 광범히 실시하며 인민들이 자유롭게 래왕도 할 수 있게 되여야 합니다.

조선 민족은 단일 민족이며 단일한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력사와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써 15년 동안이나 분렬되여 서로 왕래도 못하며 만나 보지도 못하며 편지 거래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점차 언어와 문'자도 달라져 가고 있으며 문화와 생활 풍습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더우기 남조선에서는 부패한 양키 문화와 미국식 생활 양식이 지배하고 있으며 민족 문화와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 풍습은 말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적인 발전을 장애하며 특히 남조선을 헤여 나올 수 없는 부패와 타락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는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대립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장래 운명을 망치며 후손 만대에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남기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북 간에 문화 사절들이 래왕하게 하며 과학, 문화,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호상 교류를 실시할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제의합니다.(박수) 부자 간, 형제 자매 간, 친척, 친우들 간의 편지 거래부터라도 할 수 있게 되여야 하며 인민들이 자유롭게 래왕도 할 수 있게 되여야 합니다.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며 특히 남조선의 경제 생활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군대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방대한 군대의 유지는 인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남북 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할 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이것은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조치로 될 것이며 특히는 남조선 인민들의 과중한 군사비 부담을 덜어 주게 될 것입니다.(박수) 우리 나라에서 20만 군대만 가지면 민족 보위의 임무는 능히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모든 문제들은 조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도탄에 빠진 남조선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긴급히 해결되여야 할 절박한 문제들입니다. 남조선의 현 사태는 한 시각도 지체할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 조선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협의해야 합니다. 만나도 보지 않고 말도 안 해 보고 덮어 놓고 나쁘다거니, 할 수 없다거니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 민족을 계속 분렬시켜서 서로 물어 뜯게 하며 남조선을 영구히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에게만 유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갈

타져서 문을 닫아 매고 앉아 있는다면 사태는 더욱 엄중하여질 것이며 남조선 인민들은 더 큰 불행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양이나 서울이나 또는 판문점에서라도 시급히 남북 조선 대표들이 모여 앉아 이상의 모든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남조선 당국과 정당, 사회 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에게 제의합니다.(우렁찬 박수)

같은 조선 사람끼리 모여 앉아 협의 못할 아무런 리유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나라 땅인 판문점에서 우리 나라 문제를 가지고 북반부 사람들이 미국놈들과 계속 담판해야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남조선 사람들은 미국놈들에게 자기의 자리를 빼앗겨야 하겠습니까? 미국놈들은 물러 가야 하며 조선 문제는 우리 조선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협의해야 합니다.

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은 남북 간의 조속한 협상을 요구하여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인민들은 남북 간의 경제, 문화 교류를 위하여, 방대한 남조선 군대의 축소를 위하여, 자유로운 남북 총 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결코 용이하게 실현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적 조국 통일은 오직 전체 조선 인민의 완강한 투쟁에 의해서만 쟁취될 수 있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력량이 더욱더 강화되고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결정적 투쟁에 나설 때에 우리는 미국 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평화적 조국 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우렁찬 박수)

동지들!

조선 인민은 자기의 정당한 투쟁에서 위대한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강력한 지지와 원조를 받고 있으며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 정세는 평화와 사회주의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은 날로 장성 강화되고 있으며 그것은 국제 정세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쏘련은 세계 평화의 강력한 성새이며 사회주의 진영의 선두에 확고히 서 있습니다. 쏘련 인민은 경제와 과학, 기술의 발전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공산주의를 향하여 확신성 있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쏘련에서의 공산주의 건설과 특히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 세계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박수)

6억 5천만 중국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계속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인민 중국에서 공업과 농업 생산은 급속히 장성하고 있으며 인민

생활은 더욱 향상되고 있습니다.

구라파와 아세아의 모든 형제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건설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나라들의 정치 경제적 위력은 급속히 장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쏘련을 중심으로 확고부동하게 통일되고 단결되여 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단결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을 파탄시키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수호하며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담보입니다.(박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인 수정주의자들은 이 통일을 파괴하여 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책동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실패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조선 로동당과 조선 인민은 세계 평화와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의 공동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항상 쏘련을 비롯한 형제 나라 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강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우렁찬 박수)

특히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은 우리의 위대한 형제 나라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친근한 이웃 나라들입니다. 이 두 나라 인민들과의 굳은 단결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중요한 담보입니다.(우렁찬 박수)

우리는 앞으로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쏘련 인민과의 친선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모든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나아갈 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세계 사회주의 력량의 급속한 장성은 제국주의 침략 세력에 거대한 타격으로 되고 있으며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더욱더 많은 나라 인민들이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고 있으며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여 가고 있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며 평화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세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조선을 비롯하여 일본, 토이기 등에서 인민들의 강력한 항쟁에 의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큐바 인민들은 미국 침략자들에 항거하여 자기의 민족적 독립을 견결히 고수하고 있으며, 불란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알제리아 인민들의 해방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콩고 인민들은 민족적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박수)

제국주의자들이 제멋대로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던 시기는 벌써 지나 갔습니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도처에서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치고 있으며 그들의 침략 정책은 계속 파탄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침략을 저지시키고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내부 모순은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이 나라들에서 로동

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 대중은 평화와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회주의가 결정적으로 승리하며 제국주의는 더욱더 멸망하여 가며 평화 력량이 전쟁 세력을 압도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기본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국제 무대에서의 력량 관계의 근본적 변화는 현 시기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도발 음모를 파탄시키고 전쟁을 능히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운동이 더욱 발전되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로동 운동이 더욱 앙양되고 전 세계 인민들이 평화를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 때 세계 평화는 유지되고 공고화될 것이며 인류의 진보는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박수)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전쟁의 위험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전쟁의 근원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 가는 자기들의 처지로부터의 출로를 군비 경쟁과 긴장 상태의 격화에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도발 행위를 부단히 감행하며 세계 도처에서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며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종 침략적 군사 블럭을 조작하고 쏘련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주변에 자기들의 군사 기지들을 더 많이 설치하고 있으며 서부 독일 복수주의자들을 재생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침략자들은 자기들의 군용기로써 쏘련의 령공을 침범하였으며 4렬강 수뇌자 회의를 파탄시켰으며 군비 축소 10 개국 회의도 파탄시켰습니다. 그들은 또한 큐바 인민의 자주 독립을 침해하려 하고 있으며 콩고 인민들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 행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아세아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과 대만을 계속 강점하고 있으며 남부 월남에서 침략의 마수를 떼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일미 군사 조약을 조작하고 발광적으로 일본 군국주의를 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 제국주의가 인류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며 아세아 인민들의 흉악한 원쑤이라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도발 음모에 대하여 최대의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그들의 침략 행위를 계속 철저히 폭로 분쇄하여야 합니다. 평화는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쟁취해야 합니다.

쏘련과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은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레닌적 원칙에 확고히 립각하여 시종일관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평화 정책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고립시키고 모든 평화 력량을 단합하며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작용을 하고 있습

니다.

조선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행위를 저지시키며 긴장 상태를 완화하며 평화를 공고화하기 위한 쏘련의 확고한 립장과 평화적 발기들과 인내성 있는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할 것입니다.

조선 인민은 남조선, 대만, 남부 월남, 일본 기타 아세아 각 지역에서의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행위를 전결히 규탄하며 미국 군대가 이 지역들에서 완전히 철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인민은 미국 침략 군대를 아세아의 전 지역에서 물러 가게 하기 위하여 모든 아세아 인민들과 힘을 합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침략적인 일미 군사 조약의 철폐를 위한 일본 인민들의 투쟁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박수) 우리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느고 딘 디엠 도당을 반대하는 남부 월남 인민들의 투쟁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박수) 우리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큐바 인민들의 투쟁을 열렬히 지지하며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을 위한 콩고 인민들의 투쟁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박수)

우리는 평화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모든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박수)

조선 인민은 사회주의 진영 국가 인민들의 강력한 지지와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성원에 튼튼히 의거하여 자체의 혁명 력량을 더욱 결속하고 강화함으로써 조선에서의 공고한 평화를 유지할 것이며 반드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이리하여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를 튼튼히 수호할 것이며 평화와 사회주의의 공동 위업에 기여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조선 인민은 지난 15년 동안에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모든 투쟁은 조선 로동당에 의하여 령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에로 조직하고 동원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더욱더 세련되였으며 인민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와 사랑을 획득하였습니다. 우리의 백만 당원들은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칠석같이 단결되였으며 전체 인민은 당 주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굳게 집결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조국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완전히 강점되고 우리 인민의 혁명 력량이 아직 미약하던 때에도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진리를 믿고 끝까지 싸워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의 혁명 력량은 전례 없이 장성하였으며 강화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강철의 당이 있고 강력한 정권이 있고 반석같은 혁명의 기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편에는 위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지지가 있으며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성원이 있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를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모두다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당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전원 총 기립. 장내를 진동하는 우뢰와 같은 박수와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원수 만세!》 환호 소리 오래 계속)

전면적 기술 혁신은 현 시기의 기본적인 혁명 과업

방 호 식

1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나라는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으며 도시와 농촌에서는 사회주의 생산 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였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전면적인 확립은 생산력 발전의 광활한 길을 열어 놓았으며 근로자들을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온갖 예속과 착취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다.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 과업 수행에서 조선 인민이 쟁취한 거대한 력사적 전취물이며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해결하려던 념원의 실현이였다. 그러나 우리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고되고 힘든 로동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해방시켜야 할 과업이 아직 남아 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정치적 주권의 쟁취,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만으로써는 아직 부족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함께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여야 하며 나라의 생산력을 보다 높은 수준에로 이끌어 올려야 한다.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에 나선 첫날부터 생산력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심중한 관심을 돌렸는바 여기에서 거대한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 경제의 골간으로 되는 중공업 부문들을 강화 발전시킴으로써 나라의 경제 발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한 데 불과하며 기술 혁명의 첫 발'자국을 내디딘 데 지나지 않으며 인민 경제의 골간 체계를 이루어 놓았을 뿐이다.

우리 나라는 인민 경제의 기술적 장비와 로동 생산 능률 수준에서 선진 국가들보다 훨씬 뒤떨어졌으며, 농촌 경리를 비롯한 인민 경제 여러 부문에서 력사적으로 내려 온 기술적 락후성은 의연히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해방 전 우리 나라 사회 경제 발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과거 우리 나라는 정상적인 자본주의적 발전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으며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 통치는 기술 발전을 인공적으로 억제하였다. 결과에 생산의 기술적 토대는 극히 락후하였다.

부르죠아 혁명을 수행하고 산업 혁명

을 거쳐 자본주의적 공업화를 실시한 일련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높은 리윤 획득을 위한 새 기술을 도입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길에 들어 섰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락후한 봉건적 사회 경제 체제하에서, 자본주의적 산업 혁명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 경제 발전의 이와 같은 력사적 특성과 전쟁에 의한 생산력의 혹심한 파괴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함에 있어서 커다란 난관으로 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나라에서보다 기술 혁명이 긴절한 객관적 요구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나라의 기술적 락후성을 극복하고 선진 국가들이 달성한 기술 및 생산력 발전 수준을 따라 잡고 짧은 기간 내에 사회주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여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 국가에로의 전환을 이룩하여야 할 력사적 과업이 우리 세대 앞에 나서고 있다.

이것은 오직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하고 기술 혁명을 완수하여 한층 높은 생산력을 달성함으로써만, 보다 강력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창설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업화와 기술 혁명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위한 7개년 전망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 예비적 초안에 의하면 7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총 생산액은 2.5배 이상, 알곡 수확고는 1.5배 이상으로 증대될 것이다.

이 방대하고 웅대한 과업의 수행은 락후한 수공업적 기술로써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며 전면적 기술 혁신 없이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7개년 계획은 우리 나라에서 전면적 기술 혁명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 일성, 《조선 인민의 민족적 명절 8.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

오늘 우리 나라에서 생산력의 급속한 앙양을 위하여 공장, 광산, 농촌, 어촌 할 것 없이 어디서나 요구되는 것은 기계와 기술이다. 인제는 낡은 생산 방법과 건설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가지고서는 더는 인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게 되였다.

이와 같이 전면적 기술 혁명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절실하고도 기본적인 요구로 되였으며 그것이 없이는 나라의 생산력을 일보도 전진시킬 수 없게 되였다.

전면적인 기술 혁명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유일적 지배가 확립된 오늘의 조건하에서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로서 전면에 나서게 되였다.

《전면적 기술 혁명—이것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고되고 힘겨운 로동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하는 숭고한 위업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현 계단에서 우리 당이 제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혁명 과업이다》(당 중앙 위원회 8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에서).

때문에 현 시기 일은 헐하고 흥겹게 하면서 더 많은 재부를 얻게 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애국자로 될 것이다.

전면적 기술 혁명은 이와 같이 공화국 북반부에서 이미 민주주의 혁명 과업

과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토대 우에서 혁명이 한층 심화되여 제기되는 력사적, 순차적 혁명 과업이다.

김 일성 동지가 금번 전원 회의 결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술 혁명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숭고한 혁명 과업이다.

금번 진행된 8월 확대 전원 회의가 취한 조치는 우리 혁명 특히 사회주의 건설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지는바 그것은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로 하여금 자기의 우월성을 더 충분히 발휘하게 하며 우리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불패의 것으로 만들 것이며 인민 생활을 보다 유족하고 문화적인 것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2

우리 당 중앙 위원회 8월 확대 전원 회의는 전면적 기술 혁신을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혁명 과업으로 규정하면서 그의 방향과 구체적 과업들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전원 회의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기술적 락후성을 근본적으로 퇴치하기 위하여 앞으로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들에서 기술적 개건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며 기본 공정에서 뿐만 아니라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모든 공정에서 기술 혁신을 이룩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산간 벽지에 이르기까지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지방 공업, 건설, 운수, 수산 부문들에서 아직도 손 로동과 등짐으로 하는 일을 모두 기계화하며 이미 현대적 기계로 장비된 부문들에서는 기계화를 완성하면서 자동화를 강력히 추진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는 오늘 우리 나라 기술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농촌에서 긴장한 로력 사정을 풀며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만들며 그들의 사상 의식을 개변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로 된다. 특히 농경지가 제한되여 있는 조건하에서 논밭 2모작을 실시하며 알곡을 위주로 하면서 농촌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전반적으로 촉진시키는 문제가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게 달려 있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대기계와 중 소 기계를 배합하며 평지에서 뿐만 아니라 산간 벽지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 방침에 적응하게 각이한 지대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기계화할 수 있고 기계화 수준을 급속히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농기계가 생산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어느 지대에서나 할 것 없이 기경, 파종, 중경 제초, 수확, 탈곡 등 중요한 농산 작업들과 축산에서의 사료 분쇄 및 가공 그리고 모든 운반 작업을 전반적으로 기계화하여야 한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농기계의 수리 체계를 확립하며 농기계 작업소의 역할을 한층

높여 뜨락또르의 가동률과 각종 련결기의 리용률을 높이며 기계화 작업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며 모든 작업을 농학 기술적 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보장하며 지방 실정에 맞는 농기계를 창안해 내는 것이다.

우리는 1963년에 이르러 중형 뜨락또르를 2만대, 5~15마력짜리 소형 뜨락또르는 3~4만대에 달하게하며 최근 년간에 화물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며 각종 련결 농기계 및 탈곡기, 사료 분쇄기, 양수기, 전동기 등을 대량적으로 생산 공급함으로써 농촌 기계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지난 시기 현대적 기술과 함께 수공업적 기술도 리용하는 당의 방침에 의거하여 지방의 모든 예비를 동원함으로써 새로 지방 공업 체계를 확립하여 놓았다.

그러나 오늘 주로 비능률적인 수공업적 기술에 기초하고 있는 지방 공업으로써는 지방의 원료 원천의 동원과 급속히 장성하는 인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게 되였다.

당면하여 우리 앞에 나선 과업은 지방 공업에서 수공업적 기술을 현대적 기술로 교체함으로써 지방 공업의 생산을 급속히 확대 발전시키자는 데 있다.

지방 공업의 기계화에서 선차적으로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과업은 식료품 가공을 시급히 공업적 방법으로 이행시키며 육류, 채소류, 산과실, 수산물 등 각종 식료품의 대량 생산을 조직하는 것이다. 특히 옥수수 눈을 분리시키며 기름을 더 많이 짜내는 설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지방 공업에서 직물 생산을 기계화하는 문제가 긴급하다.

지방 방직 공업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가장 품이 많이 들고 천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사 작업의 기계화에 힘을 집중하면서 직포와 준비 공정들을 포함한 일체 공정을 전면적으로 기계화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 공업에서 하루 속히 전면적으로 모든 고리들을 기계화하여야 하지만 지방 공업의 기계화를 하루'밤 사이에 다 진행할 수는 없다. 그러니만큼 각 지방 공장들에서는 새 기계를 도입하는 데 힘을 경주하는 한편 기존 시설들을 내던질 것이 아니라 그 중 개조할 수 있는 것은 다 개조하여 쓰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합리적이다.

지방 공업의 기술적 개건의 촉진은 지방적 토대에 의거하여 어디까지나 자체의 힘으로 없는 기계는 만들어 내고, 있는 기계는 더 새 기술로 개조하여 능률이 높은 것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 여하에 달려 있다.

건설 부문에서 기계화 수준을 높일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토공, 적재 적하, 수직 운반 작업을 전면적으로 기계화하는 동시에 부재 생산을 대형화, 경량화함으로써 건설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룩하는 것이다.

우리 앞에는 수년 내에 중요한 건설 작업의 기계화 수준을 토공 작업에서 70%, 적재 적하 작업에서 75%, 수직 운반 작업에서 95%로 도달시킴으로써 손 로동과 등짐으로 하는 일을 극력 퇴치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건설에서 시공의 전면적인 기계화는 건설 부재 생산의 수공업적인 방법을 현대적인 방법으로의 교체와 밀접히 관련되고 있다. 건설 부재 생산을 대형화 및 경량화 하며 건설 사업을 더욱 청 방향으로 전환시킴으로써만 우리 나라의 조립식 건설은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되게 될 것이다.

운수 부문에서는 철도, 자동차 및 수상 운수의 기술적 장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아직도 일부 남아 있는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의 기계화를 최단 시일 내에 완성하여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운수 부문에서 우리가 선참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은 상하차 및 상하선과 구내 운반 작업을 기계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각종 기중기를 자체로 제작하여 이것을 전면적으로 기계화하며 선로 및 도로 수리에서 기계화를 2~3년 내에 기본적으로 완성하여야 한다.

인민들의 부식물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수산업 부문에서는 큰 배들을 건조하며 범선들을 광범히 동력화하여 기본 생산 수단을 확대 강화하는 한편 운반 작업과 할복, 세척, 건조 등 가공 작업의 기계화 수준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8월 확대 전원 회의는 나라의 전면적 기술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 경제의 중요한 골간을 이루고 있는 대규모 중앙 공업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힘차게 전개하는 문제에 특별한 주목을 돌렸다.

중앙 공업 기업소들이 수행하여야 할 기술 혁신의 중요 방향은 모든 작업의 기계화를 완성하고 생산의 자동화를 광범히 실시하며 과학 기술의 최신 성과들을 도입하여 생산 공정을 부단히 개선하는 데 있다.

아직 기계화 수준이 높지 못한 탄광, 광산, 림업 부문 등에서는 기계화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면서 점차 자동화를 실시하며 전력, 기계, 금속, 화학 기타 기계화 수준이 높은 공업 부문들에서는 자동화하는 데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기계화 및 자동화와 함께 중앙 공업 기업소들에서 생산 장성의 큰 예비는 기술 공정을 부단히 개선하는 데 있다. 기술 공정의 부단한 개선은 적은 추가적 지출로써 생산을 현저히 장성시킬 뿐만 아니라 원자재와 연료의 절약, 생산물의 질 제고를 보장한다.

선진 기술 공정을 적용하는 분야에서 달성된 성과가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예비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 허다히 있는 실정에서 자기 부문의 기계 설비, 원료와 연료, 생산되는 제품의 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생산성을 보다 높이도록 기술 공정을 개선함에 대중의 지혜와 력량을 옳게 동원하는 것은 인민 경제 각 부문 지도 일'군들의 중요 관심사로 되여야 할 것이다.

현 시기 모든 부문에서의 기술적 진보 특히 경공업의 원료 기지 조성을 위하여 인민 경제의 화학화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중공업, 경공업, 농업 등 모든 부문에서 화학적 생산 방법을 광범히 적용하는 것이 기술 공정의 개선, 원료와 폐품의 종합적 리용, 품종 확대와 질 제고 등에서 특히 큰 성과를 가져 오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 전원 회의는 비날론을 비롯한 합성 섬유와 인조 섬유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일용품 생산, 기계, 전기, 건설 기타 수다한 생산 부문들에서 광범히 적용될 수 있는 각종 합성 수지 생산을 증대하고 합성 고무 기타 유기 합성 원료 생산을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명의 성과 여부는 전적으로 기계 제작 공업에 달려 있다》(8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에서).

상술한 바와 같은 우리 나라 기술 혁명의 기본 방향과 중요 부문들에서의 기술 혁신의 제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는 바로 공업의 심장인 기계 제작 공업 자체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계속 힘차게 전개하며 그를 기술 혁명이 전면적으로 앙양되고 있는 현 실정에 적응하게 결정적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데 있다.

우리 나라 사회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로 제기되였으며 또한 우리 인민이 그의 급속한 해결을 열망하는 전면적인 기술 혁신을 성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 기술적 토대를 계속 강화하고 현존 기계 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여 품종을 확대하고 그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시킴으로써 기계 설비에 대한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긴절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계 제작 공업 부문 일'군들은 이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창발적 대책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기계 제작 공업의 생산 기술적 토대를 가일층 강화하는 문제이다.

당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에 의하여 급속히 발전하여 온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은 그의 발전 력사가 아주 짧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공작 기계, 광산 기계, 정밀 기계, 전기 기계, 건설 기계, 방직 기계 등 생산 부문들을 갖추었으며 그의 기술적 토대가 현저히 확대 강화되였다.

그러나 오늘 사회주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확고히 축성하며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 국가에로의 전환을 보장하여야 할 객관적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는 기계 제작 공업의 현존 토대를 계속 확대 강화함과 동시에 일련의 새로운 부문들을 창설 발전시킬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하여 금번 진행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8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는 우선 전면적인 기계화와 자동화의 실시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제기된 새로운 자동화 기구 공업의 창설과 기타 일련의 새로운 생산 부문들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기존 골간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자체의 내부 구조를 량적 및 질적으로 더한층 개선 강화하는 문제가 제기되였다.

이렇게 기계 제작 공업 부문을 가일층 발전시키고 그 부문 내부 구조를 부단히 개선 완성시키는 것은 전면적 기술 혁신 운동이 진척됨에 따라 요구되는 보다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각종 기계 설비들을 비롯한 기계화 수단들의 공급을 확대하며 그의 구성을 개선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지난 시기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주로 당면하여 가장 긴급한 기본 생산 수단, 중로동과 유해 로동 및 품이 많이 드는 생산 부문과 광업 부문에서 소요되는 각종 기계 설비 생산을 선차적으로 추진시켜 왔다. 그리하여 오늘 이러한 로동 수단들은 이미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단계에 들어 섰다. 그러나 아직 부차적인 것들 또는 기술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기계화 및 자동화 수단을 비롯하여 각종 현대적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일련의 최신 기계 설비들에 대한 수요는 원만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금번 8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제기한 과업—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전면적으로 기계화를 도입하며 현존 기계화 수준을 보다 높은 새로운 단계에로 한 단계 끌어 올려야 할 과업을 해결하자면 모든 부문에서 요구되는 각종 기계 설비들을 비롯한 생산 도구의 품종과 그의 생산량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기계 설비들의 기술적 수준을 가일층 제고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기계 제품의 품종을 확대하며 품종 구성을 개선하면서 높은 기술적 수준의 기계 설비들을 생산하되 그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계 제작 공업 분야에서 전문화와 협동화를 옳게 발전시키는 문제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의 급속한 발전은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의 전문화는 아직 주로 제품별 전문화에 국한되여 있으며 그의 가일층의 심화 발전으로 되는 생산 공정별 전문화와 부분품별 전문화는 극히 미약한 상태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 뜨락또르들과 현대적 공작 기계들을 비롯한 각종 정밀 기계, 복잡한 대형 및 중형 기계들의 생산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현 조건하에서 규격화, 표준화 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주물, 단조품의 생산과 련결 부분품들을 비롯한 각종 규격 부분품들의 생산에서 전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기술 혁명 추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공업 생산의 부문별 전문화와 함께 기업소 및 그의 내부 전문화의 정도를 더욱 제고하고 그의 재별성을 가일층 높임으로써 대량 생산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 것은 기술적 진보 및 생산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긴절한 요구로 되고 있다.

기술적으로 보다 수준이 높고 완성된 현대적 대 중 기계 설비 생산은 주로 중앙 기계 공장에서, 간단하고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중 소 기계 설비, 례하면 각종 련결 농기계, 식료 가공 설비 등의 생산은 지방 종합 기계 공장들에서 각각 전문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현존 기계 설비들의 보수를 위한 각종 부속품과 공구 생산에서 기계화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그의 질을 개선하며 원가를 저하시킴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공무 직장과 각종 공구, 지구 생산의 전문화를 발전시키는 문제에 큰 주의를 돌려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전면적인 기술 혁신의 촉진에서 중요한 것은 설계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기계화, 자동화 수단의 설계 사업을 개선함과 함께 설계를 반드시 제작에 선행시키며 설계 사업을 전문화하는 것이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3

오늘 기술 혁명은 충분히 성숙된 과

업이다.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기술 혁신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데 대한 8월 확대·전원 회의 결정을 실생활 속에서 철저히 관철시키는 데 있다.

기술 혁명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전 당이 동원되여 전체 근로 인민들이 기술 혁신을 전 군중적인 운동으로 전개하는 데 있다.

기술 혁명은 몇몇 지도 일'군들이나 개별적 기술자들의 힘만으로써는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과거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전체 군중이 동원되면 우리가 점령하지 못할 기술의 요새는 없다. 지도 일'군들로부터 전체 기술자, 로동자들에 이르기까지 한덩어리가 되여 힘을 합치며 기술에 대한 온갖 신비주의와 보수주의를 철저히 타파하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도 일'군들은 광범한 근로 대중의 기술 혁신을 위한 온갖 창의 창발성과 새로운 의견들을 적극 지지하여 그의 적시적인 실현을 보장하여 주는 동시에 기술 발전을 위한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 협조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기술 혁신은 모든 부문들에서 자체의 생산 기술적 특성과 구체적 현실에 적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 경리, 원료 채취 공업 부문들에서는 특히 자연 지리적 조건에 그리고 기타 가공 공업 부문들에서는 원료, 연료 및 생산되는 제품의 특성과 요구에 적응하게 기술 경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기계 설비들을 창안 제작하여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기술 혁신 운동을 광범히 전개함에 있어서 선진 경험들을 적극 일반화하며 우수한 기술적 창안, 선진 기술 공정 및 작업 방법들을 광범히 보급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조직 전개하여야 한다. 이것은 단지 동일한 부문 및 기업소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와 류사한 부문과 또한 기타 모든 인민 경제 부문에서 제기된 고귀한 경험들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그것들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기관 본위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퇴치할 것은 물론 각 기업소 간 밀접한 련계와 기술 및 생산 발전을 위한 호상 동지적 협조와 방조가 반드시 안받침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의 경험 뿐만 아니라 쏘련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에서 달성된 성과와 경험들을 창조적으로 섭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동원적이며 현실적인 기술 발전 계획을 더 잘 세우고 전망성 있게 생산 기술적 토대를 더욱 현대적으로 장비 강화하여야 한다. 개별적 기업소 및 생산 직장들에서는 대중들의 적극적인 참가 밑에 가장 합리적인 조직 기술적 대책 계획을 로의 작성하며 생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련쇄를 이루며 품이 많이 들고 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고리들에서 기술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군중적인 투쟁을 조직 전개하여야 한다. 그와 함께 새 기술 도입에 대한 강한 책임성과 물질적 관심성을 제고하도록 조직하며 대중의 적극성과 창의 창발성을 고도로 발양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군중적 기술 혁신 운동에서의 높은

성과는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의 제고와 선진 기술 지식의 습득 및 소여 생산 기술적 특성과 구체적 현실에 정통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 현대적 기계화, 자동화의 도입, 생산 공정의 부단한 완성은 기계 설비를 다루며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로동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생산자 대중이 새 기술을 부단히 소유함이 없이는 기술 혁신을 위한 군중적 투쟁에서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김 일성 동지가 여러 차례에 걸쳐 거듭 교시한 바와 같이 일하면서 배우며 배우면서 일하는 기풍을 확립하며 기술 기능 수준의 부단한 제고와 한 가지 이상의 기술 습득을 위한 완강한 군중적 투쟁이 전개되여야 한다.

모든 기술 혁명 사업의 성과적 수행은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 당과 혁명의 과업을 철두철미 관철시키려는 강한 혁명적 사상 관점에 달려 있다. 당적 사상 체계의 확고한 수립, 당 정책을 관철하려는 전체 당원들의 견결한 투지, 당을 무한히 신임하며 당이 가리키는 길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나아가는 근로 대중의 충천된 혁명적 기세, 여기에 우리의 모든 승리의 담보가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체 근로자들 속에서 확고한 당적 사상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정치 사상 교양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정치 사업을 선행시킴으로써 전체 군중들이 당 정책을 철저히 인식하며 자각적으로 기술 혁명 과업 수행에 적극 동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용감히 전진하면 점취 못할 요새란 없으며 우리는 기술 혁명 과업 수행에서 반드시 거대한 승리를 쟁취하고야 말 것이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은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정책

정 기 련

당 중앙 위원회 8월 확대 전원 회의는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절박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기술 인재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훌륭하게 양성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1970년도까지 기사 및 전문가는 23만 명 이상으로, 기수 및 중등 전문가는 60만 명 이상으로 각각 양성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전원 회의는 기술 인재 양성 계획과 전문 학과를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발전 및 기술 발전의 방향과 인민 경제 각 부문 발전의 전망에 상응하게 조직하는 기초 우에서 일하면서 학습하는 학교 형태들을 확대 발전시키며 현존 양성 기관들의 사업을 개선하는 동시에 또한 근로자들의 전반적 기술 문화 수준을 가일층 제고하며 기술자, 전문가들과 청년 학생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할 것을 그의 중요한 대책으로 강조하였다.

우리 당의 이 방침에 근거하여 금년 내에 우리의 중요 생산 현장들에 21개의 공업 대학들을 비롯하여 수개의 농업 대학들, 수다한 고등 기술 학교들이 일떠 서게 될 것이며 또한 현존 대학, 고등 기술 전문 학교들에서 교육 사업의 과학 사상 수준이 더욱 제고되고 교육과 생산 로동의 결합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전반적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도 급속히 제고될 것이다.

우리 당의 이 방침은 기술과 기술 인재가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현 시기 우리 나라의 실정에 가장 적응한 현명한 조치로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기술 인재 양성 사업에 특별한 주목을 돌려 왔다. 해방 후 우리 당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가 바로 력사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일제로부터 물려 받은 세기적인 문화 기술적 락후성을 퇴치하며 새 사회 건설에 필요한 자체의 기술 인재 대렬을 준비하는 사업이였다.

당은 주권을 장악한 로동 계급이 자기에게 충실한 기술 인재를 가지지 않고는 혁명적 위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로운 기술 간부들을 광범히 양성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새로운 선진적인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그를 확대 발전시켰으며 인민 대중의 문화 수준을 제고하며 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력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당의 정확한 교육 정책에 의하여 오늘까지 각급 학교망들은 부단히 장성되였으며 기술 교육망은 더욱 급속히 장성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전반적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낡은 교육 제도의 잔재와 그의 영향으로부터의 종국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기술 의무 교육제가 성과적으로 준비되고 있다. 또한 오늘 37개의 대학들에서 수만 명의 청년들이 현대적 과학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당은 기술 인재 양성 사업을 정규적인 학교망에만 의거하지는 않았다.

기술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우리 나라에서 단시일 내에 그의 락후성을 퇴치하기 위하여서는 전반적인 근로 대중의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는 한편 그에 확고히 의거하면서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기술 인재를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비교적 장기간을 요하는 교육 기관들과 단기 및 재교육 양성 체계를 결합하며 학업을 전업으로 하는 교육 방식과 일하면서 학습하는 방식을 결합하며 각종 상설적인 양성 체계들과 광범한 대중 속에서의 비상설적인 기술 교육망을 결합하는 등으로 우리 당은 기술자 전문가 대렬을 급속히 확장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여 왔다.

당은 기술 인재 대렬의 량적 확장과 함께 그의 질적 강화에 특별한 주목을 돌렸다. 우선 각급 학교 교육 기관들을 로동자, 농민 출신의 학생들로 구성을 변경시키는 중대한 과업을 해결하였으며 교수 교양의 전 행정을 낡은 착취자 사회를 반대하는 로동 계급의 끊임 없는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켰다. 동시에 학교와 실생활, 교육과 생산과의 밀접한 련계를 강화하였다.

우리 당의 정확한 기술 인재 양성 방침에 의하여 새로 양성된 10만 명 이상의 붉은 기사, 기수들과 전문가들이 오늘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다하여 복무하고 있다.

우리 당은 또한 오랜 기술 인테리들을 포섭하고 그들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에서도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오랜 인테리들에 대한 당의 정확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오늘 새로운 인재의 양성 사업에서와 새 사회 제도의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

이와 같이 해방 후 우리 당은 기술 인재 양성 사업에 최대의 력량을 기울인 결과 찬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오늘 우리 당은 믿음직한 자체의 기술 간부를 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을 확신성 있게 령도하고 있다. 《우리는 자체의 기술 간부를 많이 길러냄으로써 우리 나라의 장래 발전의 기초를 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우리 당이 필요한 기술 간부를 준비하지 못하였더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빠른 템포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을 것이다》(김 일성 선집, 제 6권, 410페지).

* *

우리 당은 기술 인재 양성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술 인재에 대한 문제를 가장 첨예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적 과정의 촉진과 인민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 속도에 기술 인재 양성 사업이 뒤따르지 못한 데 그 중요한 객관적 원인이 있다.

우리 나라의 공업은 전후 년간 년 평균 43.2%로 장성하였으며 그 중 생산 수단 생산은 52.8%, 소비재 생산은 34.8%의 속도로 장성되였다.

공업 부문별 구조에서도 근본적인 변동이 일어났는바 일제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형성이 퇴치되고 중공업과 경공업, 채취 공업과 가공 공업 간에 새로운 균형 관계가 설정되였다. 공업 생산에서 생산 수단은 1959년도에 52.2%, 소비재는 44.8%를 각각 차지하게 되였다.

이러한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비약적 발전은 기술 인재의 량적 수요를 비상히 제고하였으며 또한 기술 인재에 대한 수요의 부문별 구조도 급격히 변화시켰다. 특히 기계 제작 공업, 전력 공업, 화학 공업, 식료 가공 공업을 포함한 경공업, 수산업 등 부문들의 급속한 발전은 이 부문에 대한 새로운 기술자 전문가를 대량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전면적 지배는 또한 기술 인재 양성 사업 앞에 새로운 과업을 제기하였다.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된 농촌 경리와 도시 중 소 공업은 현대적 기술로 개조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선진 기술로 무장한 새 기술 간부들을 대량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회 경제적 령역에서 일어난 이러한 심각한 변혁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인민 정권 기관들과 당 기관들이 지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민 정권 기관들과 당 기관들이 새 환경에 적응하게 지도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공장, 기업소 및 농촌 경리에 대한 관리 지식과 현대적 기술에 정통한 기술자 전문가들이 더욱 많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 기술 인재에 대한 장성된 사회적 수요와 양성된 기술 인재의 수효 간의 불일치는 해결을 기다리는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금년에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중요 부문들에서의 기사의 확보 비률은 수요의 35.4%에 불과하며 기계 제작 공업에서의 그것은 더욱 낮아서 20.1%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래년부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결정적 전진을 위한 7개년 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7개년 계획은 전면적 기술 혁명의 계획이다. 《기술 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재에 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 기계와 기술은 사람이 창조하는 것이며 그것을 움직이는 것도 사람이다. 기술을 소유한 사람이 없이는 기술적 진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김 일성, 《조선 인민의 민족적 명절 8.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

우리는 오늘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급속히 발전시키는 우리 당의 로선을 관철시킨 결과 기계 공업을 핵심으로 한 튼튼한 중공업 기지를 창설하여 놓았으며 기술 혁명을 전면적으로 진개할 수 있는 자체의 충분한 물질 기술적 토대

를 가지고 있다.

오늘에 와서는 이러한 모든 가능성들을 리용하여 새로운 기계와 기술을 생산하고 그를 능숙하게 관리 조종할 줄 아는 기술 인재가 결정적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7개년 계획의 웅대한 전망은 특히 기술 혁명에서 골간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계 제작 공업, 전력 공업, 화학 공업, 금속 공업(지질 탐사) 등과 이 부문 기술자 전문가들의 역할과 사명을 더욱 증대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앞으로 기계 제작 공업, 전력 공업, 화학 공업, 금속 공업 등이 이미 축성된 중공업의 골간 체계에 살을 붙이며 또 공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대적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 공업에서는 우리가 이때까지는 해 보지 못하던 새로운 부문들이 광범히 창설 확대될 것이다. 정밀 기계, 대형 기계를 비롯한 각종 기계 기구들을 제작하는 기계 공업과 비날론, 인견 스프 등 합성 섬유 및 합성 수지 공업을 비롯한 유기 합성 공업 등은 그에 필요한 기계 기술자, 전기 기술자, 화학 기술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훌륭하게 길러낼 것을 요구한다. 또한 아직 기술 수준이 낮은 식료 가공 공업, 일용품 공업, 수산업, 축산업 등을 비롯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의 기계화, 자동화의 전면적 전개는 기술자 대렬의 보다 급속한 확대에 의하여서만 성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도처에서 요구되는 것은 기술이며 기술 인재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기술과 기술 인재가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우리는 이 중대한 과업을 해결함으로써만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봉우리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현 시기 기술 인재의 양성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문제는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의 차이가 없으며 근로자들을 일체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적게 힘들이고도 그들에게 더욱 많은 재부를 가져다 주는 공산주의의 래일을 위한 커다란 준비로 된다.

우리는 착취로부터 해방된 근로자들을 일체 힘들고 어려운 로동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하기 위한 숭고한 력사적 위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더 많은 기술 인재를 양성하며 근로자들의 전반적 기술 수준을 급속히 제고하여야 한다.

*　　　　*

8월 확대 전원 회의가 제시한 기술 인재의 방대한 사회적 수요를 최단 시일 내에 충족시키기 위한 명확한 방침은 오늘 우리 나라의 기술 인재 양성 사업에 조성된 새로운 조건들을 정확히 타산한 것이다.

기술 인재 양성의 실천적 경험은 사회의 유익한 로동에 참가하면서 학습하는 각종 교육 형태들이 인재 양성을 위한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당은 기술 인재 양성 사업의 이러한 력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방대한 기술자들을 최단 시일 내에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였다. 전원 회의는 학업을 전업으로 하는 상설 기술 교육 기관과 함께 각이한 직무에 종사하면서 학습하는 각종 류형의 교육 형태들을 확대할 것을 예견하였다.

이러한 양성 형태들은 이 형태 자체

가 가지고 있는 우월성으로 하여 앞날에 있어서는 합법칙적으로 기술 인재 양성 사업에서 더욱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할 것이지만 특히 오늘 우리 나라 실정에서 정규적인 학교 교육만으로써는 방대한 기술 인재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조건하에서 그것은 더욱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오늘 우리는 각종 직무에 종사하면서 학습하는 교육 형태들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현실적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 전반적인 대중의 기술 문화 수준이 제고되였으며 공장들에서 설비들의 현대화가 계속 진행되여 근로자들의 로동 조건이 더욱 유리하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 일'군들의 진영이 강화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공장, 기업소, 농목장들이 생산의 기지일 뿐만 아니라 기술 인재 양성의 유력한 기지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문제는 이 현실적인 가능성을 옳게 리용하여 기술 인재를 훌륭하게 양성하는 데 있다. 이에 있어서 특히 공장, 기업소, 농목장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의 역할과 책임성이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학교에 망라되는 학생들과 겸임 교원들에 대한 합리적인 로력 조직을 통하여 생산과 학습의 유기적인 련계를 보장하며 학교 내의 엄격한 교육적 질서와 규률을 확립하며 교수 교양의 과학 사상 수준을 제고하는 등과 같은 일련의 세밀하고 책임적인 사업 조직에 심중한 당적 주목을 돌릴 것이 요구된다.

기술 인재 양성 사업을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현존 기술 대학 및 고등 기술 전문 학교(고등 기술 학교) 사업들을 개선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현존 교육 기관들 앞에 제기된 중요 과업의 하나는 소정된 기간 내에 실생활의 요구에 만족을 주는 리론 실천적으로 준비된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교수 교양 사업에서 교조주의,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교육과 생산 로동, 학교와 실생활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고 청년 학생들을 부단히 실천적 활동에로 준비시키기 위한 제반 사업이 있어야 한다.

교육과 생산 로동과의 결합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과학-교육적 원칙에서 생산 로동을 조직하며 생산 로동의 체계성을 보장하며 생산 로동에 대하여 리론 과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비중으로 응당 평가하는 질서를 세울 필요가 있다.

유능한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교원들의 리론 실천적 준비이며 그들의 높은 책임성이다. 각급 교육 기관 내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은 교원들의 자질 향상에 특별한 주목을 돌리며 그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교수 교양 사업에 대한 통제와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전원 회의는 기술 인재 양성 사업을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광범한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제고하는 문제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방대한 기술 인재 양성 사업은 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기술 문화 수준의 제고와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그것은 기술 인재 양성 사업의 튼튼한 문화 기술적인 전제 조건으로 될 뿐만 아니라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의 불가결한 조건으로 된다.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각 공장, 기업소, 농목

장, 협동 조합 내의 기술 학습망들을 수준별로 개편 정리하고 그를 일정한 계획과 교육 요강에 근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학습망 운영에서 비정상성과 무규률적 상태를 청산하고 엄격한 규률과 질서 밑에서 운영되게 하여야 한다. 모든 생산 직장 내의 당 단체들과 책임일'군들은 생산과 근로자들의 기술 학습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기술 학습망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며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체계적으로 기술 성원의 수준에까지 제고하도록 전망성 있게 사업하여야 한다.

동시에 기성 기술자들의 자질 향상 사업에 주목을 돌리며 그들을 부단히 새로운 과학 기술의 리론과 선진 경험으로 무장시키며 생산에서 뿐만 아니라 기술 학습에서도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협조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기술 인재 양성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양성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며 양성된 기술자를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성 계획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와 기술 발전 수준 및 그의 발전 속도, 우리 나라 과학 발전의 전망, 인민 경제 각 부문 발전의 균형 등을 옳게 타산하여 세우며 이에 따라서 양성 전공학과 조직을 개편 확장하여야 한다.

우리는 기술 인재 양성 사업에서 축적된 경험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옳게 리용하여 창발적으로 새로운 기술 인재 양성 형태들을 발견하고 도입하여야 하는바 기술 인재 양성 계획은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원 회의는 모든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 특히 혁명 전통 교양을 더욱 강화할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우리의 모든 기술자 전문가들이 우리 당의 혁명 전통으로, 당의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될 때라야만 그들은 우리의 혁명적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확신하고 그에 충실히 복무할 수 있으며 계속 전진, 계속 혁신하며 낡고 로후한 것과 보수적인 것을 타파하고 대담하고 창발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기술자, 전문가, 청년 학생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모든 당 단체의 제 1차적인 과업으로 된다.

우리는 앞으로 특히 모든 기술자 전문가들 속에서 항일 빨찌산들의 사상과 군중에 대한 관점, 태도, 그들의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 곤난을 극복하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혁명적 의지와 완강성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더욱 더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 앞에 나선 절박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기술 인재 양성 사업에 전 당적, 전 인민적 주목을 돌리며 모든 일'군들이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기 위한 전 군중적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당 단체들이, 모든 일'군들이 이 사업에 적극 동원될 때 우리 당이 제시한 방침은 성과적으로 관철될 것이며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은 더 빨리 촉진될 것이다.

기술 인재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훌륭하게 양성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당이 제시한 웅대한 전망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여야 할 것이다.

쏘련 인민과 함께 15년

리 기 영

1

우리 인민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날들이 많지만 조선 인민의 운명에 근본적 전환을 가져 온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처럼 그렇게 의의 깊은 민족적 명절은 둘도 없다.

15년 전 8월에 영웅적 쏘베트 군대는 간악한 왜적들을 이 땅에서 소탕하고 원한에 찬 우리의 가슴에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안겨 주었다.

이와 동시에 15개 성상 왜적을 무찔러 3천만의 겨레에게 희망의 홰'불을 지펴 준 영광스러운 항일 빨찌산의 명장 김 일성 동지는 휘하 부대를 친솔하고 조국 해방 전투에 참가한 후 전우들과 함께 고국에 승리의 개선을 하시였다.

근 반세기에 걸친 일제의 암흑 통치 밑에서 인민들의 고통과 비애로 하여 암담하였던 이 나라 강산에는 자유의 태양이 솟아 올랐다.

8. 15 해방은 기나긴 수난의 력사를 가진 조선 인민의 생활에서 새 력사의 페지를 열어 놓았다. 조선 인민은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자기 조국과 자신의 운명을 자기 손으로 개척할 수 있게 되였다.

해방 후 15년 간 우리 인민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새 사회를 위한 투쟁에서 중첩되는 난관을 뚫고 준엄한 시련의 시기를 겪어 왔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매우 락후한 식민지적 경제와 문화를 물려 받았고 민족 간부의 부족, 국토의 량단과 원쑤들의 파괴 활동이 우심한 처지에서 새 사회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우리 인민은 3년 간의 가렬한 전쟁을 겪었고 전후 도시와 농촌이 문'자 그대로 재'더미로 된 빈터에서 인민 경제를 복구하고 령락된 인민 생활을 안착시키지 않으면 안 되였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을 조선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우리 당은 아무리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항상 인민을 승리에로 인도하였으며 전체 조선 인민은 언제나 우리 당의 주위에 굳게 뭉치여 온갖 애로와 시련을 극복하면서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승리의 신심을 안고 확신성 있게 전진하고 있다.

그리하여 15년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 인민의 《꿈》이였던 사회주의는 지금 현실로 바뀌였다. 나라의 면모는 일신되였고 산천 초목도, 사람들의 마음씨도 몰라 보게 달라졌다. 지난 날 세계 지도상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기'발을 붙고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한 성원으로서 동방 초소를 굳건히 지키며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는 이미 사회주의 제도가 확고히 수립된 결과 빈궁과 실업, 착취와 억압의 근원이 영원히 청산되였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저마다 즐거운 일터를 가지고 먹고, 입고, 살기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비나 병이 나면 치료비도 걱정하지 않게 되였다.

수천년을 두고 압박과 천대를 받고 가난에 시달려 온 근로자들이 오늘과 같이 자유롭고 흥겹게 일하며 타고난 재능과 창발성을 마음껏 발휘하게 된 것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세기적인 전변이다.

지난 날 락후한 농업 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오늘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금년에 우리 나라 공업 생산은 해방전 1944년에 비하여 7.7배로 장성하게 된다.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이 완전히 퇴치되였으며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튼튼한 토대가 축성되였다.

우리는 나라를 가까운 년간에 선진적인 공업 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중공업, 경공업 기지들을 가지고 있는바 오늘 북반부의 전 지역은 현대적인 야금 공장, 기계 공장, 화학 공장, 발전소, 건재 공장, 방직 공장, 식료품 공장 기타 대소 공장들과 광산, 탄광들의 조밀한 그물로 뒤덮여 있다.

특히 해방 전에는 보잘 것 없었던 기계 제작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기술 력량이 장성된 결과 우리는 대규모의 수력 발전소, 제철소, 종합 방직 공장, 비날론 공장 등을 자체로 건설할 뿐만 아니라 8메터 타닝반, 3,000톤 프레스를 비롯한 각종 공작 기계들과 원동기, 자동차, 뜨락또르, 엑쓰까와또르와 같은 중기계들을 생산하고 있다.

농촌에서도 《천지 개벽》이 일어났다. 전체 농민들은 대규모적인 사회주의 협동 경리에 망라되였으며 강력한 공업의 지원하에 수리화와 전기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고 기계화가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민들은 비단 온갖 착취로부터 해방되였을 뿐만 아니라 한재와 수재를 모르는 사회주의 농촌의 주인이 되였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쫓아 다니던 게딱지 같은 오막살이와 몽매로부터 벗어나서 문화 생활에로 올라 섰으며 고된 로동의 중하에서 해방되고 있다.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인민의 생활은 현저히 향상되였다.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은 1959년에 벌써 10년 전인 1949년에 비하여 약 2배로 장성하였으며 농민들의 생활은 대체로 중농 수준에 올라 섰다.

근로자들에게는 궁궐같은 아빠트와 아담한 문화 주택들이 차례지고 있는데 전후 시기만도 도시와 농촌에서 2천 200만 평방메터의 문화 주택들이 건설되였다.

민주 수도 평양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는 과거에 우리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하게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우리 민족 문화 예술은 전례 없는 개화기에 들어 섰다.

1958년부터 전반적인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고 기술 의무 교육제도 불원간 실시하게 된다. 지금 인구 4명당 1명이 각급 학교들에서 무료로 공부하고 있으며 이미 우리는 10만 명의 기술 간부를 길러냈다.

문학 예술은 백화란만한 화원같이 꽃피여 선진적인 국제 수준에 올라 섰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우리 인민은 력사상 전례 없는 영광의 시대, 번영의 시기에 살고 있다.

지난 날 나라를 빼앗겼을 때 살'길을 찾아서 현해탄을 건너 갔던 재일 60만 동포들은 그 대부분이 남조선에 고향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따뜻한 품 속으로 돌아 오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가렬한 3년 간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떠벌리던 미국 침략자들을 무릎을 꿇게 하고 전후에는 폐허 속에서 불사조마냥 일떠 선 조선 인민은 오늘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쌍두 천리마로 내달리고 있다. 이 영웅적 형상이야말로 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2

지난 날 15년 간의 력사는 조쏘 량국 인민들 간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이 강화 발전된 년대기이기도 하다.

조쏘 친선의 뉴대는 오랜 력사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

인류 력사에 새 기원을 열어 놓은 위대한 10월 혁명의 승리는 당시 일본 식민지 통치하의 압혹 속에서 신음하던 조선 인민에게 해방과 투쟁의 길을 밝혀 주었다.

1930년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레닌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항일 무장 투쟁을 조직 전개하면서 쏘련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 보고 쏘련의 위력 장성에 무한히 고무되여 왜적을 무찔렀다. 김 일성 동지는 무장 대오와 혁명 군중을 항상 쏘련을 옹호 지지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하였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고귀한 혁명 전통은 벌써 이 시기에 확고하게 이루어졌다.

8. 15 해방 후 조쏘 량국 인민들 간의 친선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강화 발전하게 되였다.

해방 후 북반부에 주둔한 쏘베트 군대는 조선 인민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동적 책동을 물리치고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온갖 가능성과 조건을 지어 주었으며 한편 파괴된 공장, 기업소, 철도 등을 복구 건설하는 데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쏘련 인민은 조선이 해방된 첫날부터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쏘련은 조선 문제에 관한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 채택과 그의 실행을 위한 쏘미 공동 위원회 사업에서 그리고 유엔과 기타 국제 무대에서 미제의 조

선에 대한 침략 정책을 반대 규탄하고 조선 인민의 자주권을 옹호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미제가 리 승만 괴뢰 정권을 날조하여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정책을 로골화하고 민족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책동하였을 때 쏘련 정부는 조선 인민 자신이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자기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조선으로부터 쏘미 량군을 동시에 철거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1948년 말까지 북조선으로부터 쏘베트 군대를 솔선 철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제국주의자들은 쏘련의 공명 정대한 태도에 호응할 대신에 자기 군대를 계속 남조선에 주둔시키고 새 전쟁 도발 준비에 광분하였다.

1948년 9월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기초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창건되자 쏘련 정부는 누구보다 먼저 우리 공화국을 승인하고 외교 및 경제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것은 신생 공화국의 국제적 위신을 제고시키는 데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1949년 3월 17일 조쏘 량국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의 체결은 량국 인민들 간의 친선과 협조의 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였다.

이 협정에 근거하여 쏘련은 우리 나라에 2억 2천만 루블의 크레지트를 비롯하여 막대한 경제, 기술 및 문화적 원조를 주었다.

쏘련 인민이 준 거대한 경제적, 기술적 및 문화적 원조는 우리 인민이 당의 령도하에 조국 북반부에 철옹성같은 혁명적 민주 기지를 다지며 경제와 문화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담보의 하나로 되였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16개국 무력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도 쏘련 인민은 《미제는 피묻은 손을 조선에서 떼라!》고 규탄함과 동시에 우리 인민에게 막대한 물질적 원조를 주었으며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쏘련 인민이 우리에게 준 물심 량면으로 되는 이 거대한 원조는 싸우는 조선 인민을 일층 승리에로 고무하였다.

정전 후 우리 인민이 폐허 우에서 복구 건설의 첫 삽을 들었을 때 쏘련은 누구보다도 먼저 10억 루블의 무상 원조를 주었으며 많은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주었다.

또한 1956년 7월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조쏘 량국 정부 대표단 간의 회담에서 쏘련은 우리 나라가 이전에 크레지트로 받은 5억 3천만 루블을 갚지 않게 해 주는 외에 새로 3억 루블의 무상 원조와 통상의 방법으로 1억 7천만 루블의 물질적 및 기술적 원조를 주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당은 형제 국가들의 원조를 《당장 먹고 쓰는 인민 소비품을 구입하는 데 리용하자》고 하는 반당 종파 분자들의 그릇된 주장을 물리치고 나라의 장래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원조를 인민 생활과 인민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부문에 효과 있게 리용함으로써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경제 로선을 더욱 성과 있게 관철시켰다.

그리하여 우리 산업에 남아 있던 식

민지적 편파성을 완전히 퇴치하고 자립적 경제 토대를 구축하며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켰다.

우리는 쏘련의 원조를 잘 리용하여 김책 제철소, 성진 제강소, 남포 제련소, 흥남 비료 공장, 수풍 발전소, 평양 방직 공장, 2.8 마동 세멘트 공장, 룡성 육류 가공 공장을 비롯한 30 여개의 대공장, 기업소들을 복구, 개건, 신설하였다. 이 공장, 기업소들은 우리 공업의 골간을 이루고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거대한 역할을 놀고 있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 보자.

우리 나라의 화학 공업 기지의 하나인 흥남 비료 공장은 전쟁 때 적들에 의하여 무참히 파괴되였으나 쏘련의 경제 기술적 원조와 우리 근로자들의 영웅적인 로력으로 훌륭히 복구 개건되여 지금은 년산 58만 톤의 화학 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그 밖에도 2만 톤의 유지 제품들과 전극, 전지들을 비롯하여 무려 36종의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쏘련은 질안 공장 건설을 위하여서만도 가스 랭각기, 산화기, 증발 분리기를 비롯하여 6,760종에 달하는 1만 478톤의 각종 기계 설비, 88만 메터의 전선, 100 여톤의 스텐과 350톤의 유색 금속, 2,500톤의 철판을 비롯한 압연, 강재 기타 각종 설비들을 보내 주었다.

그리고 1954년부터 1958년 간에 흥남 비료 공장에 기술적 방조를 준 쏘련 기술자 수는 150 여명에 달한다.

실로 전후 복구 건설과 사회주의 건설에 준 쏘련의 원조를 몇 장의 글에다 담기는 어렵다.

또한 쏘련은 많은 류학생, 실습생, 연구생들을 받아 들이여 우리의 민족 간부 양성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었으며 우리 나라의 과학, 문화 건설 분야에 대하여서도 다방면적인 방조를 주었다.

조쏘 량국 간의 문화적 협조는 과학, 문화, 예술 대표단의 호상 방문, 영화 필림, 기술 문건, 자료, 표본, 출판물 등의 호상 교환, 도서들의 번역 출판, 류학생, 연구생의 교환, 전문가들 간의 창조적 협조 기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례컨대 우리 나라에서는 1959년 말까지에 5,086종의 맑스-레닌주의 고전을 비롯한 과학, 기술, 문학, 예술에 관한 쏘련 도서들이 4천 893만 934부나 번역 출판되였다.

1959년 9월에 조쏘 량국 간에 체결된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 리용함에 있어서 쏘련이 우리 나라에 방조를 줄 데 대한 협정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쏘련과의 과학, 문화, 기술적 협조의 강화와 선진적인 쏘베트 과학, 기술, 문화의 창조적인 연구 섭취는 우리 나라에서 문화-기술 혁명을 추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쏘련 인민은 조선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숙망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도 시종일관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쏘련의 원조는 자립적인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며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진정한 형제적 원조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의 산 표현으로 된다.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원조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오직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공통한 목적과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친선적인 대가정—사회주의 진영 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는 전혀 상반되는 다른 하나의 소위 《원조》를 알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허울 좋은 《원조》의 미명하에 지난 15년 간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략탈 정책과 군사 기지화 및 전쟁 도발 정책, 민족 분렬 정책을 추구해 왔다.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의 미국식 《원조》가 남조선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

미제와 그 주구 리 승만 도당의 학정과 미국식 《원조》 때문에 인간 생지옥에서 《1천년래의 민생고》에 허덕여 온 남조선 인민들은 결연히 항쟁의 불'길을 솟구쳐서 매국노 리 승만을 내쫓았다. 오늘도 그들은 새 제도,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하여 반미 구국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은 백악관의 전쟁 상인들이 떠들어 대는 《원조》가 어떤 것인가를 전 세계의 면전에 여지없이 드러내 놓고 있다.

조선 인민은 실생활과 체험을 통하여 자기의 진정한 벗이 누구이며 원쑤가 어느 놈인가를 너무나 똑똑히 알고 있다.

3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쏘련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며 쏘련을 향하여 배우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공인된 중심인 쏘련을 적극 옹호 지지하는 정신으로 인민들을 교양하였다.

당에 의하여 교양된 우리 인민들은 1930년대에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이 이룩해 놓은 고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쏘련 인민과의 친선 단결을 백방으로 발전시켜 왔다.

그리하여 오랜 력사적 근원을 가지고 공통된 목적과 사상, 근본적 리해 관계의 일치성에 기초하고 있는 조쏘 량국 인민들 간의 친선 단결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강화 발전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쏘련 인민과의 단결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면서 그를 약화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의 온갖 시도에 대하여 항상 타협하지 않고 결정적인 반격을 가하였다.

최근 년간 미제를 비롯한 국제 반동은 《반쏘 반공》에 미쳐 날뛰였으며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이에 맞장구를 치면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훼방하고 쏘련을 비방 중상하며 사회주의 진영에 쐐기를 박으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당은 적들의 악랄한 시도가 로골화되면 될수록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쏘련을 적극 옹호 지지하였으며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공인된 중심인 쏘련을 중심으로 단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동시에 우리 당은 형제 당들과 보조

를 맞추어 제국주의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면서 우리 나라 자체의 혁명 진지를 보다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당 대렬을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 주위에 굳게 결속시켜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수행에로 조직 동원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침해로부터 자기의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며 자체의 혁명 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제 투쟁으로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력량의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혁명의 민족적 과업과 국제적 임무를 유기적 통일 속에서 충실히 수행하여 온 변함 없는 태도이다.

조쏘 량국 간의 친선과 협조는 1957년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사회주의 제 국가 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에 명확히 지적된 원칙들 즉 완전한 평등, 령토의 완정과 국가적 자주성, 주권의 존중, 호상간의 내정 불간섭, 형제적 호상 원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들에 립각하여 강화 발전되고 있다.

이 위대한 친선은 영구 불멸하며 그 누구도 훼손시킬 수 없다.

조선 인민은 현대 력사의 전 과정—특히는 해방 후 15년 간 민족적 독립의 완성과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쏘련과의 친선 단결이 우리 혁명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가 가지는 불패의 생활력을 충분히 체험하였다.

조선 속담에 《그릇은 새 것이 좋고 벗은 오래 사귈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 이 말 그대로 조선 인민과 쏘련 인민과의 친선 단결은 날이 갈수록 해와 더불어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조선 인민은 앞으로도 쏘련 인민을 지지하고 그를 향하여 배우며 영원히 그와 함께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의 신성한 공산주의적 의무로 인정하고 있다》.

위대한 쏘련 인민은 지난 40 여년 간 영광스러운 쏘련 공산당의 령도하에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공산주의 대로를 개척하면서 풍부한 투쟁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인류 진보를 위하여 세계사적 공헌을 하였다.

오늘 쏘련 인민은 흐루쑈브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쏘련 공산당과 쏘련 정부의 령도 밑에 세계 평화와 공산주의 사회의 전면적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쏘련에서 7개년 계획 수행의 성과들과 과학 기술 분야에서 달성한 놀라운 성과들은 전체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제국주의 전쟁 세력을 제압하고 있다.

조선 인민은 위대한 쏘련을 자기의 동맹자로 가지고 있는 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여기면서 쏘련의 위력 장성에 크게 고무되고 있다.

《영원히 쏘련 인민과 함께!》—당이 준 이 구호는 조선 인민의 확고한 생활 신조로 되였으며 리념의 범위를 벗어나 실생활 속에서 구현되고 있다.

금번 8.15 해방 15주년에 제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버러지고 있는 조쏘 친선 월간(8월 10일～9월 20일까지)은 쏘

련 인민에 대한 조선 인민의 친선의 정이 얼마나 두터운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민족적 명절 전야에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 1 비서이며 쏘련 내각 수상인 엔. 에쓰. 흐루쑈브 동지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의하여 금년 10월 초에 우리 나라를 방문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접하였다.

우리 나라를 해방시킨 위대한 린방의 사절—엔. 에쓰. 흐루쑈브 동지의 우리 나라 친선 방문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및 정부 대표단의 수차에 걸친 쏘련 방문과 함께 조쏘 량국 인민들 간의 친선을 강화하는 길에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경사스러운 일이다.

흐루쑈브 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쏘 량국 인민들 간의 전통적인 친선 단결을 가일층 강화하며 조선과 극동의 평화를 공고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로 될 것이다.

지금 전체 조선 인민은 8. 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보고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성과 있게 실행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천리마 진군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쏘련 인민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 인민들과 손을 맞잡고 공산주의 대로를 향하여 전진하는 조선 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이 있을 뿐이다.

전후 우리 당의 경제 로선과 그의 승리적 실현

리 석 심

1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경제 로선은 자립적 경제 토대를 축성하며 인민 생활을 급속히 안정 향상시켜야 할 과업을 다같이 돌보면서 나라의 실정에 적합하게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는 길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전후 시기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하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경제 건설 방침이였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은 기술적 발전에 기초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키면서, 확대 재생산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기본 원칙이며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에서의 중심 임무이다. 전후 시기에 우리 당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의 필요성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 명제에 기초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나라의 자립적 경제 토대를 공고히 하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복구 건설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전후 우리 나라에서는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고 그 성과에 의거함으로써만 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의 복구 건설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만큼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은 인민 경제 앞에 제기된 과업들의 완수에서 모든 문제 해결의 기본 열'쇠였다.

전후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일련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경공업, 농업 등 부문들의 복구 발전이 중공업의 지원을 특별히 긴절하게 요구하였다. 경지 면적이 적은 우리 나라에서 집약 농법에 의한 단위 면적당 수확고 제고는 농업 생산 증대의 기본 방도이다. 그런데 전후 시기에 우리 나라 농업은 로력, 축력, 농기구 등이 극히 부족한 조건하에서 복구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농업 생산의 증대는 무엇보다도 화학 비료, 농약, 농기구 등의 공급을 급속히 증대시키며 농촌 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등을 적극 추진시킴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복구 발전이 중공업 부문들의 복구 건설에서의 성과들에 의거하여서만 추진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경공업의 복구 발전도 중공업의 선차적인 복구 건설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력사적 제 조건으로 말미암아 농업 생산이 아직 경공업 원료를 원만히 공급하는 데 이르지 못한 조건하에서 우리 나라 경공업은 기계 설비, 부속품들 뿐만 아니라 원료들까지도 중공업에 의하여 보장 받아야만 상당히 발전될 수 있었다. 이것은 경공업에서 가

장 중요한 부문의 하나인 방직 공업의 례에서 뚜렷이 볼 수 있다. 방직 공업의 복구 발전을 위하여서는 중공업이 기계 설비, 부속품들과 함께 더욱더 많은 인조, 화학 섬유의 공급을 보장해 주어야만 하였다. 전후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목축업이 발전되지 못한 조건하에서 수산업이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경공업 발전의 중요한 한 환절이였다. 그런데 이 부문의 복구 발전도 어선, 어구 등의 보장을 위하여 중공업의 지원을 특히 크게 요구하였다. 일반적으로 농업, 경공업 등 부문들의 발전은 중공업의 지원이 있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것이지만 이와 같이 전후 시기 우리 나라의 조건하에서는 이 부문들의 복구 건설이 중공업의 우선적인 복구 건설을 요구하는 정도가 특수하게 높았다.

전후 시기에 방대한 생산적 건설과 함께 인민 생활을 시급히 안정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택과 문화 후생 기관들의 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야 했던 사정도 건재 공업을 비롯한 일련의 중공업 부문들을 선차적으로 복구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켰으며 당면한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중공업의 지원을 더욱 절실한 것으로 만들었다.

중공업의 선차적인 복구 건설은 전후 경제 건설을 위하여 우리 나라 인민 경제 자체의 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도 절실히 필요하였다. 우리 나라에는 과거에 비록 편파적으로 발전된 것이였다 할지라도 중공업의 일정한 토대가 있었던만큼 그것을 복구 건설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였다. 더우기 우리 나라에서 경공업과 농업이 락후하였던 조건하에서 중공업을 시급히 복구 리용하는 것은 자금 축적, 외화 획득 등을 위하여서도 긴절히 요구되였다.

우리 나라에는 중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들이 있다. 그리하여 중공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그것에 의거하여 인민 경제 제 부문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 조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견지로 보아서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경공업과 농업의 급속한 복구 발전은 전쟁으로 인하여 심히 령락된 인민 생활을 조속히 안정 향상시키기 위하여 잠시도 뒤로 미룰 수 없는 긴절한 과업이였다. 만일 이 부문들의 복구 건설이 지연되여 긴절한 소비품들에 대한 수요를 계속 충족시킬 수 없다면 인민 생활을 개선 향상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될 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인민 경제 전반의 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것이였다. 그리고 이 부문들이 원래 비교적 미약하게 발전하였고 전쟁의 피해가 혹심하였기 때문에 그것들의 발전은 전후 복구기에만 아니라 개건기에도 계속 커다란 노력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되였다.

이리하여 나라 앞에 제기된 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과 아울러 경공업 및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야만 하였다.

당 경제 로선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 당은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것을 전후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근로 대중을 동원하였다. 이것은 유일하게 옳은 길이였다.

물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부족한 조건하에서 이러한 로선을 집행하며 전후 경제 복구의 기본 과업을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우리는 파괴된 인민 경제의 복구 사업을 오래 동안 끌 수 없었으며 또한 인민 생활의 어려운 형편을 오래 동안 지속할 수 없었다》(선집, 제 6권, 59페지).

이렇게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로선은 전후 시기 우리 나라에서 서로 밀접히 련결되면서 절실하게 제기된, 자립적 경제 토대 축성의 과업과 인민 생활을 시급히 안정 향상시켜야 할 과업을 다같이 수행해 나아가기 위하여 유일하게 정당한 경제 건설 방침이였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적 장성에 대한 우리 당의 전후 시기 경제 로선은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원칙적 요구들을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가장 적합하게 실현시킬 수 있게 하는 방침이였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경제 발전에서는 부단한 기술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또 생산 수단과 소비품 생산에서 공업의 역할이 부단히 제고되는 것만큼 공업을 농업보다 더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다른 한편 인민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는 과업과 당면한 인민 소비를 보장할 필요성을 다같이 돌보면서 소비와 축적 간의 적절한 균형을 조성하며 농업, 경공업의 락후성이 인민 경제 발전을 제약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중공업, 경공업, 농업 등 부문들의 발전 템포상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야 한다. 물론 경제 건설의 구체적 조건들에 따라 중공업, 경공업, 농업 등 개별적 부문들의 급속한 발전에 특별한 력량을 기울여야 할 시기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은 원칙상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위주로 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다 같이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견지로 볼때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로선은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전후 시기 우리 당 경제 건설 로선은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기본적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나라 앞에 제기된 긴절한 과업들을 옳게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원칙적이며 창조적인 경제 건설 방침으로 된다.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원칙적 요구도 옳게 반영하고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의 특성에도 부합되는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적 발전에 대한 로선은 우리 나라에서 전후 시기에 일련의 조건들이 그의 실현을 가능케 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채택될 수 있었다.

비록 전시에 혹심히 파괴되기는 하였으나 복구 리용할 수 있는 밑천을 일정하게 가지고 있었던 중공업과 특히 전시중에 당이 온갖 곤난을 극복하고 계속

발전시킨 기계 제작 공업은 전후 시기 중공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게 한 유리한 조건이였다. 그리고 형제 나라들의 거대한 경제-기술적 원조는 인민 경제 복구 발전 첫 시기에 있어서의 자금 문제 해결을 용이케 하였으며 복구기 시초부터 인민 경제 주요 부문들의 본격적인 건설을 추진시킬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당은 무엇보다도 전쟁을 통하여 더욱 단련되였고 당과 정부 주위에 굳게 단결된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에 의거하면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적 발전에 대한 방침을 실현해 나아갔다.

2

전후 시기 당 경제 로선의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은 인민 경제의 주요 부문들 간의 균형을 정확히 조성해 나감으로써 경제 건설의 순조로운 추진을 보장하였다.

우리 당은 우선 인민 경제 전반의 발전을 위하여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소비와 축적의 호상 관계를 정확히 조성하는 데 커다란 주의를 돌렸다. 이 문제에서 우리 당은 전후 시기에 인민 경제 앞에 제기된 정치 경제적 과업들로부터 출발하여 소비와 축적을 다같이 돌보며 건설에서 생산적 건설과 비생산적 건설을 다같이 추진시키도록 하면서 생산 장성의 긴절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축적을 적극 보장하도록 하였다.

전후 시기에 소비와 축적의 호상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당이 취한 방침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전후 시기에 우리 당은 자기의 경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인민 생활의 장래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축적을 급속히 증가시키면서 인민 생활의 당면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비를 동시에 장성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여 왔다. 이 원칙의 정당성은 실생활에 의하여 증명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축적을 계통적으로 증가시키는 토대 우에서 소비를 동시에 장성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광범한 기본 건설과 기술적 개건을 진행하며 생산을 계속 확대하고 발전시켜야만 인민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체 근로자들에게 옳게 인식시켜야 하며 동시에 부단히 장성하는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요구를 돌보지 않는 현상과 투쟁하여야 하겠다》(선집, 제 5 권, 549페지).

전후 시기에 우리 당은 당면한 인민 생활 향상에 커다란 배려를 돌리는 동시에 인민 생활의 향상은 생산의 장성에 기초하여 점차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그리하여 당은 축적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축적의 우위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그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고 축적 폰드 중에서 생산적 건설에 돌려지는 부문의 크기도 동일한 원칙에서 규정하였다. 전후 시기 우리 나라에서 리용된 국민 소득 중 축적 폰드의 비중은 약 4분의 1을 오르내렸으며 인민 경제에서의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 중 생산적 건설의 비중은 대체로 70~75% 정도였다. 이것은 전후 시

기 우리 나라의 조건하에서 당면한 인민 생활을 적절히 돌보면서 생산 장성의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축적을 상당하게 보장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당은 소비와 축적 간의 호상 관계와 밀접히 결부되여 있으며 인민 경제의 가장 중요한 균형의 하나인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 등 부문들 간의 호상 관계를 당면한 정치 경제적 과업들의 해결에 가장 적합하게 규정해 나갔다.

우리 당은 전후 시기 경제 건설에서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적인 장성에 대한 방침을 실현하면서 인민 경제 제 부문의 발전을 위한 결정적 조건인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에 첫째가는 주의를 돌렸다. 이 문제에서 중공업 발전 일면에만 치우치지 않으면서 그러나 이 부문의 우선적 장성을 견결히 보장하는 것이 당의 방침이였다. 당의 이러한 방침에 의하여 공업 생산에서 생산 수단 생산은 1959년에 1953년과 대비하여 약 12.6배로 장성하였으며 동일한 기간에 소비재 생산은(이 부문의 생산액이 1953년에 1949년과 큰 차 없는 형편에 있는 조건하에서) 약 6배로 장성하였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적극 보장한 당의 방침은 특히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자립성을 급속히 증대시킴으로써 생산 장성의 템포를 제고시킬 수 있는 결정적 조건을 조성하였다. 경제 발전의 계속되는 높은 템포는 생산 수단들에 대한 인민 경제 제 부문의 다양한 수요를 상당한 정도 자체로 충족시킴이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는 3개년 계획 기간에 자립적 토대를 기본적으로 축성함으로써 자체의 물질-기술적 토대에 의거하여 생산 장성의 높은 템포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었다. 3개년 계획 기간에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에 기초하여 자립적 경제 토대가 기본적으로 축성된 것—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가능케 한 물질적 토대였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때 국민 소득 리용에서 축적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기본 건설 투자에서 생산적 건설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산 장성의 속도를 제고시키는 데 유리한 경제적 조건이 조성된다. 또한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보장되는 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 속도가 크면 클수록 생산 장성의 높은 속도를 위한 물질-기술적 조건이 더 조성된다. 그러나 생산 장성의 높은 속도를 위한 이러한 경제적 조건들은 소여 시기의 구체적 정세에 적합하게 조성되여야 한다. 전후 시기 우리 나라에서 당의 경제 로선은 당면한 인민 생활을 급속히 안정 향상시켜야 할 과업을 중요하게 돌보면서 동시에 생산의 계속적 장성을 위한 물질-기술적 조건도 적극 보장하는 로선이였다.

전후 시기 우리 나라에서 인민 생활의 시급한 안정 향상은 어려운 조건하에서 인민 생활에 대한 당의 일관된 배려를 실현시키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제고시켜 경제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도 큰 의의를 가졌다. 그리하여 인민 생활을 시급히 안정 향상시킬 조건들은 조성하는 동시에 생산 장성의 속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경제적 조건들도 적극 조성해 나간 당의 방침은 전후 시기 우리

나라에서 경제 건설의 순조로운 추진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정확한 방침이였다.

우리 당은 전후 시기에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적극 추진시킴으로써 생산력 발전을 위하여 더욱 광활한 길을 열어 놓았으며 그리하여 당의 경제 로선 관철을 위하여 유리한 사회 경제적 조건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특히 농촌 경리 분야에서 뚜렷하였다. 이 분야에서 농업의 협동화는 생산 발전을 위하여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의 실현을 보장하였다.

당은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추진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제 조건들을 옳게 조성하고 자원성과 점차성의 원칙을 준수하였다. 또한 농업 협동화 과정에서 일부 남아 있던 개인농들의 영농 사업을 적극 보장해 주었으며 개인 상공업의 개조 과정에서도 상품 류통망과 상품 공급의 축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등 인민 경제의 가장 순조로운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신중히 강구하였다.

전후 시기의 어려운 조건하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적 장성에 대한 방침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당은 제한된 자원을 가장 합리적,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특히 중심 고리를 정확히 장악하고 력량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경제 건설의 순차성을 옳게 보장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중공업, 경공업, 농업 등 인민 경제의 주요 부문들을 다같이 발전시키면서 여하히 력량을 중점적, 집중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우리 당은 이 문제를 우선 중공업, 경공업, 농업 등의 각 부문내에서 가장 긴절한 부문들로부터 중점적으로 복구 발전시키면서 달성되는 성과에 기초하여 점차 건설 사업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당은 가장 많은 기본 투자를 요구하는 중공업의 건설에서 자립적 경제 토대의 구축과 당면한 인민 생활의 안정 향상을 위하여 가장 긴절한 부문들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특히 중공업의 건설과 당면한 인민 생활 향상의 과업 수행을 밀접히 결부시켰다. 그리하여 당은 중공업의 복구 건설에서 무엇보다도 긴절한 의의를 가지는 소비품들의 생산과 관련된 부문들을 우선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그를 인민 생활 향상에 복무케 하면서, 기간적 중공업 부문들이 장성하는 데 따라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을 위한 보다 제고된 과업을 점차 해결해 나가도록 하였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적 발전에 대한 우리 당 경제 로선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당이 나라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한 방도들에 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이 경제 정책을 관철하는 데 있어서 동원할 수 있는 국내의 모든 자원과 형제 국가들이 주는 원조를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인민 경제의 복구 발전에서 기본 고리를 옳게 틀어쥐고 거기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였다.

공업 분야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기본 투자의 방향을 옳게 설정하는 문제였다. 우리는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해결하였다. 첫째로, 중공업의 복구 건설에서 인민 생활의 개선과 밀접히 관련된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였으며, 둘째로, 자금을 절약하며 투자의 효과를 단시일에 내기 위하여 남은 기업소들과 설비들을 복구하는 데 중심을 두면서 동시에 그 기업소들을 새로운 기술에 토대하여 복구 개건하며 일부 공장들을 신설하는 방침을 취하였다》(선집, 제 5권, 163～164페지).

인민 생활과 밀접히 결부시키면서 중공업 부문들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당은 당면하게 긴절한 소비품 생산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부문들을 다같이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당면한 소비품 생산에 필요한 《소비재 생산을 위한 생산 수단들》을 생산하는 중공업 부문들 뿐만 아니라 《생산 수단 생산을 위한 생산 수단들》을 생산하는 중공업 부문들도 인민 경제의 긴절한 수요와 결부시키면서 적극 발전시켰다. 이것은 전후 시기 경제 건설에서 우리 당이 중공업의 건설을 당면한 인민 생활 향상과 밀접히 결부시키면서 중점적, 점차적으로 진행하였으나 동시에 시초부터 중공업의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면한 인민 생활과 결부시키면서 기간적 중공업 부문들을 적극 발전시킨 당의 방침에 의하여 제철, 기계 제작, 화학, 석탄, 전기, 건재 등 중공업 부문들은 우선 긴절한 주택 건설, 알곡 생산, 수산업, 경공업 등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장성하여 점차 그 수준이 제고되는 데 따라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 특히는 중공업 자체를 위한 생산 수단들의 공급을 더욱 높은 정도에서 보장할 수 있게 되였다.

당은 전후 경제 로선의 관철을 위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예비들을 동원 리용하면서 절약 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키는 대책들을 정확히 강구하였다.

제한된 자원으로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여야 했던 전후 시기 우리 나라에서 절약 제도는 특별한 의의를 가졌다. 그러므로 당은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절약 제도의 강화를 위한 조직적 대책들을 주밀히 강구하였으며 온갖 랑비 현상과의 투쟁에 전체 근로자들을 불러일으켰다. 당은 절약 제도를 심화시켜 체화된 로동과 활로동을 포괄한 전체 사회적 로동을 절약하며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생산을 증대시키는 데 즉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을 백방으로 제고시키는 데 심중한 주목을 돌렸다.

그리하여 당은 인구 중 유용 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제고시키고 또한 그들 중에서도 물질적 생산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높이며 부단한 기술 발전을 보장하여 현존하는 고정 폰드의 리용을 개선하며 생산 조직을 개선하며 물자 지출에서 랑비와의 투쟁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 제고를 가져 오는 모든 수단, 방도들에서 온갖 예비들을 동원 리용하도록 노력하였다.

모든 예비들을 동원 리용하면서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이 가장 큰 관심을 돌

된 것은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첫째 조건인 기술 발전을 촉진하며 설비 리용에서의 예비들을 백방으로 동원 리용하는 문제였다.

전후 경제 건설에서 당은 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에서의 급속한 기술 발전을 위하여 국가의 기본 투자로써 현대적 기계 설비들의 도입을 급속히 증대시키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애국적 로력 투쟁에 의하여 기술 발전에서 온갖 예비를 동원 리용하도록 하였다. 이때 당은 단꺼번에 현대적 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없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적합하게 현대적인 대기계화와 소기계화를 적절히 배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은 소기계화와 지어는 일시 수공업적 기술까지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도 부단히 현대적인 기술의 전면적인 보급을 위한 투쟁을 완강히 전개하여 왔으며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애국적 로력 투쟁이 최신 과학과 기술의 성과로써 안받침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종 일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 당은 전후 시기에 복구 개건되고 신설된 기업소들에서 귀중한 기계 설비들의 리용률을 백방으로 제고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생산 장성의 속도를 현저히 제고시킬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설비 리용률을 급속히 제고시킬 것을 전체 근로자들에게 호소한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 이후 이 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이 비교적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고정 폰드의 조업 개시 후 그것을 다루는 기술 습득이 뒤떨어지는 관계로 고정 폰드의 장성에 비하여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이 뒤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성과적으로 극복되였다.

설비 리용률 제고를 위한 투쟁 특히 공작 기계들의 리용률 제고를 위한 투쟁은 인민 경제에서의 기술적 발전을 급속히 추진시키기 위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그리하여 당은 기계 제작 공업과 인민 경제 제 부문 기업소들의 공무-동력 직장이 보유하는 공작 기계들의 리용을 백방으로 개선하면서 기술 발전 대책들을 광범히 강구하도록 근로자들을 인도하여 왔다. 특히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을 위하여 기본적 의의를 가지는 공작 기계 보유량을 급속히 증대시킨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은 당의 이러한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대중 운동의 전형적 형태였다.

당은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위한 투쟁에서 중앙이 직접 관리하는 기업소들에서의 예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동시에 지방의 예비를 광범히 동원 리용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의 이러한 방침에 의하여 짧은 기간 내에 창설된 1,000여 개의 지방·공업 기업소들은 종래 리용되고 있지 않던 지방의 로력, 설비, 원료 원천 등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일용품 생산, 식료품 가공 등을 급격히 증대시킴으로써 경공업 기지 창설에 대한 당의 방침의 실현을 촉진시켰다.

당의 정확한 시책들을 실현시키고 전후 당 경제 로선을 관철시킬 수 있게 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근로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제고시키고 경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지도 사업을 보장할 수 있게 한 우리 당의 정치 조직 사업

이였다.

당은 인민 경제 복구 건설에 착수하는 바로 첫 시기부터 근로자들 속에서의 정치 사상 사업의 개선 강화에 특별한 주의를 돌렸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그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향상에 깊은 배려를 돌렸다. 근로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제고시키는 데 있어서 당은 특히 군중 로선을 관철시키는 데 노력하였으며 광범한 근로자들 속에 당의 경제 정책을 침투시키고 당면한 과업들을 해결하는 방도들에 대하여 그들과 직접 토론하면서 근로 대중의 무진장한 창조적 력량을 더욱 전면적으로 발동시켰다. 근로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당의 노력은 경제 건설에서 허다한 난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불러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당, 국가, 경제 기관들의 경제 건설에 대한 조직 지도 사업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당은 형식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인 사업 방법을 퇴치하는 데 일관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제고시키는 데 부단한 주의를 돌렸다.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은 주관주의적 편향들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의 객관적 법칙들을 능숙히 파악 리용케 하는 데 커다란 주의를 돌렸다. 그것은 객관적 경제 법칙들의 능숙한 리용과 혁명적 열성의 유기적 결합만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성과적 추진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당은 례컨대 계획화 사업의 정확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 분야에서 사무실적,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을 퇴치하는 동시에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요구를 더욱 정확히 타산케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사회적 로동 조직에서 로동에 의한 분배 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실현하며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의 로력 열의를 제고하는 로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을 옳게 리용하도록 지도하였다.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 수준 제고를 위한 당의 꾸준한 노력은 경제 건설에서 군중로선을 더 잘 관철시키고 경제 사업에 대한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분석적인 지도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근로 대중의 열의에 의거하여 모든 예비를 동원 리용하면서 생산 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수주의와 소극성, 기술 신비주의를 극복하는 투쟁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다. 그것은 과거의 기술, 과거의 공칭 능력에 매달리여 근로자들의 무진장한 창조적 력량을 믿지 않으며 새로운 발기들을 두려워하는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철저히 극복함이 없이는 대중의 창조적 력량을 충분히 발양시킬 수 없으며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고 당 경제 로선을 관철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의 대담한 발기들을 실현시키면서 기적적 성과들을 달성하고 기술 발전의 속도

를 비상히 촉진시킨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는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 신비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불가분적으로 결부되여 있었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의 애국적 열의를 고도로 앙양시키면서 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해당 시기 전체 인민 경제 발전의 필요로 보아 가장 긴절한 부문들을 특히 급속히 장성시키는 데 근로자들의 력량을 집중시켰다. 례컨대 전후 시기에 당은 성숙된 요구에 따라 강재, 기계, 알곡, 일용품과 식료 가공품 등의 특히 급속한 생산 장성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였다.

소여 시기에 가장 긴절한 부문들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력량을 집중시킨 당의 대책들은 인민 경제의 높은 발전 속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였다. 이때 우리 당은 약하고 일시 뒤떨어진 부문들에 기준하여서가 아니라 앞섰으며 그리하여 말하자면 앞으로 돌파해 나간 부문들에 기준을 두고 약하고 뒤떨어진 환절들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급속히 보충 강화함으로써 인민 경제 전반의 급속한 장성을 적극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인민 경제의 예비 동원을 위한 전 인민적 운동은 소여 시기에 가장 긴절한 부문들의 특히 급속한 생산 장성을 가져 오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 속에서 인민 경제 제 부문간의 건전한 균형 관계 조성에 기여하였다.

우리 당 경제 로선은 어떤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그의 철저한 실현을 보장한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서만 성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었다. 당은 모든 부문들에 대하여 당면한 과업들을 정확히 제시하는 동시에 이 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였다. 당 경제 정책의 충실한 집행은 어느 부문에서나 성과적인 사업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 것만큼 당 정책의 외곡, 불집행에 대한 철저한 투쟁은 당 경제 로선의 관철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최 창익, 박 창옥 등을 두목으로 한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은 우리 당의 경제 로선에 대하여 온갖 비방 중상을 다하는 동시에 그들이 잠입하였던 일부 경제 부문들에서 그들은 고의적으로 당 정책을 외곡하였으며 당이 제시하는 과업들의 실행을 태공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건설, 상품 류통 등 분야에서 볼 수 있었다. 당은 종파 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꾸준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이 부문들에서의 사업의 급속한 개진을 보장하였다.

일부 경제 부문 일'군들 속에서는 사업 수준이 어리고 보수주의와 소극성에 사로잡힘으로써 당 정책을 견결히 집행하지 않으며 당이 해당 부문 앞에 제시하는 긴절한 과업들을 완수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었다. 당은 일'군들의 당성과 사업 수준을 제고시

키며 모든 사업에서 중심 고리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정치 사업을 선행시켜 군중을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 조직 사업을 강화케 함으로써 이러한 현상들을 극복하였다. 례컨대 당은 수산업의 락후성을 퇴치하기 위하여 꾸준한 정치 조직 사업을 전개하여 이 부문의 사업을 개선시켰으며,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 기술 신비주의, 보수주의, 소극성을 극복하기 위한 꾸준한 투쟁을 전개케 함으로써 이 부문에서 특히 긴절한 의의를 가진 설비 리용률의 제고, 생산 품종의 확대 등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기계 공업에서의 기술 혁신을 촉진시켰다.

3

당의 정확한 령도와 근로자들의 애국적 열성으로 말미암아 전후 시기에 우리 나라 인민 경제는 당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우리 당 경제 로선이 추구한 목적들은 성과적으로 달성되여 왔다.

자립적 경제 토대 축성의 과업은 3개년 계획 기간 내에 기본적으로 수행되고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완수되였다. 자립적 경제 토대의 축성은 우선 인민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의 퇴치를 의미하였다.

전후 시기에 우리 나라 공업 생산에서는 원료 생산으로부터 반제품 생산에로, 반제품 생산으로부터 완제품 생산에로의 전진이 급속히 추진됨으로써 가공 공업의 비중이 현저히 제고되였으며 공업 부문 구조가 질적으로 개선되였다. 우선 중공업 부문에서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 등 핵심적 부문들의 특히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 공업 생산에서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의 총 생산액은 1959년에 1946년과 대비하여 83배 이상으로 발전하였고 공업 총 생산액에서 이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4년에 1.6%이던 것이 1959년에는 20.6%에 달하였다. 광업, 야금 공업 및 기계 제작 공업 간에서와 흑색 야금의 공정들 간에 있었던 심한 불균형도 퇴치되였다. 광업 생산액을 100으로 할 때 1944년에는 야금 공업의 생산액이 85, 기계 제작 공업이 10에 불과하였는데 1959년에 와서는 야금 공업이 242, 기계 제작 공업은 526에 달하였다. 선철 생산량을 100으로 할 때 강철 생산량은 1944년의 30으로부터 1958년에는 93으로 높아졌다. 중공업에서 가공 부문들의 비중이 제고됨과 함께 경공업 부문들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나라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의 한 측면인 이 부문의 기형적 락후성이 퇴치되였다. 우리 나라 공업 총 생산액 중 방직 공업의 비중은 1944년에 6%였던 것이 1959년에는 17.4%로 장성하였다.

공업의 부문 구조상 변화는 그것에 의하여 제 부문 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조건이 조성되고 사회적 재생산 과정이 우리 나라 자체의 경제 토대 우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함으로써 식민지적 편파성의 청산과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을 보장하였다. 과거에는 얼마간 발전되였던 일부 중공업 부문들도 재생산 과정에서 다른 부문들과 유기적인 련계

를 가지지 못하고 고립적인 것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의 경제적 의의가 현저히 감소되였다. 그러나 이제는 부문들 간의 균형이 보장되고 재생산적 련계가 강화됨으로써 우리 나라 공업은 질적으로 다른 발전 단계에 들어 서게 되였다.

인민 경제의 자립성의 확립은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인 공업에서의 부문 구조상 질적인 개선과 함께 인민 경제 부문의 생산 수준의 비약적인 제고, 인민 경제의 기술적 락후성의 극복에서 표현되였다. 우리 나라 공업 총 생산액은 1959년에 전쟁 전 1949년과 대비하여 6.1배로 그리고 1944년과 대비하여 6.6배로 장성하였다. 부문 구조가 개선되고 생산 수준이 이와 같이 제고됨으로써 우리 나라 공업은 생산 수단과 소비품들에 대한 인민 경제의 긴절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력으로 충족시킬 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 중공업은 오늘날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의 생산을 광범히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을 적극 추진시킬 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제 1 단계의 과업—공업화의 기초 축성의 과업이 완수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업 생산의 장성 특히 중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의거하여 농업 생산이 현저히 장성되였으며 농산물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토대가 축성되였다.

공업 생산의 비상히 빠른 장성은 농업 생산이 현저히 장성한 조건하에서 공업 및 농업 생산 총액 중 공업의 비중을 계속 제고시켰다. 공업 및 농업 생산 총액에서 공업의 비중은 1949년의 46.7%로부터 1958년에는 68.6%로 높아졌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사회주의적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이 모든 것은 당이 전후 경제 로선을 규정하면서 당면하게 제기한 과업—자립적 경제 토대의 구축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는 것을 말한다.

생산 장성에서의 거대한 성과들은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나라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은 벌써 3개년 계획 말 1956년에 거의 전쟁 전 1949년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1959년에는 1949년의 2배 이상으로 제고되였다. 농민들의 생활 형편도 급속히 개선되였으며 전쟁 직후 전체 농가 호수의 약 40%에 달하였던 령세 농민들의 생활 형편이 대체로 중농 이상의 수준으로 제고되였다. 이것은 당이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며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적 발전에 대한 로선을 규정하면서 자립적 경제 토대의 급속한 구축과 함께 중요하게 제기한 인민 생활 안정·향상의 과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립적 경제 토대의 축성, 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에서의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전일적 지배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케 하였다. 그리하여 전후 시기에 사회주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의 실현에서 첫 계단의 과업이 성과적으로 완수되였다.

8. 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1961년부터 개시될 7개년 계획 기간에 사회주의의 경제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나라의 공업화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고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 국가로 전변시키며 인민 생활 향상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 장엄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김 일성 동지는 이 과업의 완수를 위하여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 로선을 계속 견지할 데 대하여 말씀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제 6차 전원 회의가 제시하였고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의 세 단계에 걸치는 과업들을 수행하는 전 행정에서 그 정당성이 확증된 경제 로선은 인민 경제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도 우리 인민의 로력 투쟁에 의하여 반드시 빛나게 관철될 것이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성과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쏘련의 위대한 조국 전쟁사*

《로동자, 농민이 자기의 쏘베트 정권—근로자들의 정권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과 또 그들이 승리하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모든 문화재와 인간 로동의 모든 창조물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위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로동자, 농민의 대다수가 알았고 느꼈고 또 본 그러한 인민은 결코 타승할 수 없다》.

웨. 이. 레닌

I

쏘련 인민이 강도적 독일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운 위대한 조국 전쟁(1941～1945년) 시기는 쏘련 력사상 가장 곤난하고 동시에 또 가장 영웅적인 시기이다. 어떤 인민도 이 시기에 쏘련 사람들이 겪은 것과 같은 그런 간고한 시련을 겪어 본 일은 일찌기 없었다. 이 전쟁의 불'길 속에서 사회주의 나라의 위력이 더욱 힘있게 나타났다.

쏘련 인민은, 외국 무력 간섭과 국내 전쟁 이후 국제 제국주의가 세계의 첫 사회주의 국가를 무력으로 말살하려고 한, 두번째의 시도에 반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국 전쟁에 궐기하였다. 이 전쟁은 쏘련의 완전한 승리와 또한 그 당시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던 군대 즉 거의 전체 구라파 부르조아 국가들의 군사-경제적 잠재력에 의거하고 있던 파쑈 독일 군대의 피멸로 끝났다.

1960년 1월 14일 쏘련 최고 쏘베트 회의에서 한 자기의 보고에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 1 비서이며 쏘련 내각 수상인 엔. 에쓰. 흐루쑈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국내 전쟁과 위대한 조국 전쟁에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자기 생명을 바친 우리 인민의 영용한 아들딸들의 이름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쏘련 사람들은, 원쑤들의 공격을 격퇴하였으며 힘을 아끼지 않고 위력 있는 자기 조국을 강화하였고 또 현재도 강화하고 있으며 쏘련 인민의 평화적 로동을 수호하는 초소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있다》.

쏘련 인민은 공산당의 령도하에 독일 파씨즘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위대한 공헌을 하였다. 쏘련 인민이 영웅적 인민, 승리자, 용사, 해방자의 영예를 쟁취한 것은 응

---

* 이 글은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직속 맑스-레닌주의 연구소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권으로 된 《1941～1945년 쏘련의 위대한 조국 전쟁사》의 서문이다. 제 1권은 근일에 출판된다. 이 저작은 다음과 같은 성원들로 구성된 편집 위원회의 지도 밑에 집필되고 있다: 뽀쓰뻴로브 뻬. 엔. (위원장), 안드레예브 웨. 아., 안또노브 아. 이., 바그라먄 이. 하., 벨로브 뻬. 아., 볼진 예. 아. (부위원장), 보라긴 엠. 게., 골리꼬브 에프. 이., 그레치꼬 아. 아., 엘리쎄예브 이. 뻬., 젤또브 아. 에쓰., 질린 뻬. 아., 쥬꼬브 예. 엠., 쥬라울료브 엔. 아., 젬쓰꼬브 이. 엔., 일리이쵸브 엘. 에프., 꾸진 뻬. 엠., 꾸라쏘브 웨. 웨., 꾸치낀 아. 뻬., 민쯔 이. 이., 모쓰꼽쓰끼 웨. 뻬. (부위원장), 오비치낀 게. 베., 오씨뽀브 게. 에쓰., 뽀메보이 베. 엔., 루젠꼬 에쓰. 이., 씨도로브 아. 엘., 쏘꼴롭쓰끼 웨. 데., 쩰부홉쓰끼 베. 에쓰., 찌모페옙쓰끼 아. 아., 흐워쓰또브 웨. 엠., 샤따긴 엔. 이.. 제 1권의 저자 집단과 편집 집단의 지도자는 게. 아. 제보린이다.

당한 일이다. 히틀러 독일에 대한 쏘련의 승리는 그 의의와 그 결과로 보아 여러 세대의 운명을 결정한 세계사적 대사변이다. 이 승리로 말미암아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전취물은 파멸의 위험에서 구원되였으며 쏘련 인민의 민족적 및 국가적 존립에 대한 파쑈의 위협은 없어졌다. 강대하고 잔인하고 교활한 원쑤를 격멸함으로써 쏘련 근로자들은 전 인류 앞에 지닌 자기의 국제주의적 의무를 완수하였으며 인류가 독일 파쑈 악당들에게 예속화될 무서운 위험은 제거되였다. 쏘련 인민은 세계 제패를 망상하던 독일 제국주의자들의 얼빠진 계획을 산산이 분쇄하였다.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위대한 조국 전쟁의 준엄한 시련 속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바로 사회주의적 사회 제도와 국가 제도가 쏘련에 무비의 위력을 주었으며 이 위력으로 말미암아 쏘련 인민과 쏘련 군대는 가장 곤난한 조건하에서도 자기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고수하며, 독일 파쑈 군대의 진공을 저지하고 격멸하며, 구라파 인민들이 파쑈 기반에서 해방되는 데 형제적 원조를 줄 수 있었다. 전쟁은 사회주의의 력사적 불패성, 이미 자기 시대를 다 산 자본주의에 비한 새로운 사회 제도의 결정적 우월성을 가장 뚜렷이 또 가장 확신성 있게 보여 주었다.

쏘련 공산당과 쏘련 정부 주위에 단결된 쏘련 인민은 전쟁 기간에 공산주의의 리념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보여 주었다. 위대한 조국 전쟁의 가렬한 전투 마당에서 사회주의 사회의 앞으로의 존립 문제, 쏘련 국가의 자립성과 독립 문제, 쏘련 인민의 생사 문제가 결정되였다. 파씨즘에 예속된 모든 인민의 장래와 현대 문명의 운명이 쏘련과 파쑈 독일과의 판가리 싸움의 결말 여하에 달려 있었다. 쏘련 사람들은 자기의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는 동시에 또 전 인류와 세계 문화의 모든 성과를 파쑈 야만으로부터 수호하였다. 현대 사회의 력사적 발전에서 사회주의가 노는 지도적 역할이 여기에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전쟁에서의 쏘련 인민의 민족적 리익은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 자체와 또 프로레타리아적 련대성의 고귀한 원칙에서 흘러 나오는 국제주의 로선과 완전히 일치하였다.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에 쏘련 인민은 고독하지 않았다. 쏘련 인민의 편에는 세계의 모든 진보적 력량이 서 있었다. 외국의 근로자들은 자기의 민족적 리익과 국제주의적 리익을 위하여 반파쑈 해방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쏘련 인민에게 있는 힘을 다하여 방조를 주려고 하였다. 파씨즘에 대한 승리를 달성하려는 각국 인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또한 히틀러 독일을 반대하는 전쟁에 참가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지배층이 자기 지위를 유지하려는 지향은 전쟁에 대한 자유 애호 인민들의 리해 관계의 공통성을 조건지었으며 그 결과 각국 인민들과 정부들의 반파쑈 련합이 형성되였다. 그러나 이 련합에 참가한 나라들이 전쟁의 시련과 부담을 균등하게 담당한 것은 결코 아니다. 파쑈 강탈자들을 반대하는 전투에서의 기본 력량은 쏘련이였다. 즉 전쟁의 결말은 쏘독 전선에서 결정되였다.

사회주의를 말살하고 쏘련 인민을 살륙하며 노예화하는 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내세웠던 파쑈 독일의 통치자들은 기술적으로 훌륭하게 장비한 수백만의 군대를 쏘련에 투입하였다. 독일은 《전격전》에 기대를 걸고 쏘련을 돌연히 배신적으로 공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독일은 현저한 군사적 우세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쏘련은 전쟁 초기에 아주 곤난한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붉은 군대는 조국의 도시와 농촌, 많은 주민 그리고 로씨야인, 우크라이나인, 백로씨야인, 리뜨바인, 라뜨비야인, 에쓰또니야인, 몰다비야인 및 기타 쏘련 인민들의 여러 세대에 걸친 로동에 의하여 축적된 수 많은 물자와 문화재들을 남겨 두고 동부로 후퇴하였다.

쏘련 군대의 일시적인 실패, 쏘련 군대의 부득이한 후퇴와 관련하여 특히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은 전선과 후방의 정신 상태였다. 가장 곤난한 조건하에서, 적의 력량이 일시 우세한 환경에서 우선 적의 공격을 이겨내고 격퇴하며 히틀러 대군을 막아내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군대와 인민

위 거대한 육체적 및 정신적 긴장, 무비의 견인성, 용감성, 과감성이 요구되였다. 적의 진로를 막는 것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을 쏘련 국경 밖으로 몰아 내며 그 무장력을 제팍하고 파쑈 제도 그 자체에 치명적인 패배를 주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거대한 경제적 및 군사적 위력, 훌륭한 군사 조직, 높은 군사 예술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자기 조국을 무한히 사랑하며, 공산당에 의하여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는 레닌적 사상으로, 곤난을 극복하는 사상으로 교양된 쏘련 인민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다. 쏘련은 전쟁의 무서운 시련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르죠아 국가도 이런 시련에 부딪쳤다면 틀림 없이 멸망하였을 것이다) 준엄한 전투에서 더욱더 강화되고 단련되였다. 레닌적 당에 의하여 교양되고 고무된 수백만의 소박한 쏘련 사람들의 애국주의, 견인성, 용감성은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히틀러 독일을 격멸할 수 있은 주되는 요인이였다.

처음에 불리하였던 전쟁 행정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킨 쏘련 무력은 후퇴와 방어로부터 강력한 공격에로 넘어 갔다. 방어나 공격이나 모두 곤난한 조건하에서 진행되였으며 언제나 커다란 곤난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전쟁의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전쟁은 쏘련 병사들과 군관들이 확고부동한 견인성과 무한한 용감성, 희생에 대한 각오, 높은 군사 기술과 적을 타승하려는 굳건한 결의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다.

쏘련 무력은 자기 앞에 나선 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하였으며 자기 인민의 신뢰와 외국 근로자들의 기대에 완전히 보답하였다. 위대한 조국 전쟁에서의 승리는 쏘련 군인들 즉 전사복과 군관복을 입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의 전투 공훈에 의하여 달성되였다. 전쟁 행정에서 붉은 군대 즉 새 형의 군대, 해방군—쏘베트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정신으로 교양된 해방군의 특성이 가장 훌륭하게 표현되였다.

위대한 조국 전쟁에서의 승리는 또한 후방에 있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로동 계급, 꼴호즈 농민, 쏘베트 인테리의 영웅적 로동에 의하여 달성되였다.

기울어져 가는 자본주의 경제 제도에 비한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우월성, 당과 정부 주위에 뭉친 쏘련 인민의 단결, 적을 타승하려는 강력한 의지, 쏘련에 대한 전 세계 진보적 력량의 지지—이 모든 것은 쏘련 인민의 영웅적 투쟁, 후방의 활동과 견고성, 적에 대한 경제적 승리, 전 인민적 성격을 띤 무장 투쟁의 방법과 형식, 후방과 전선에서의 사기의 미증유의 앙양 등에서 나타났다.

독일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총사령부는 쏘련보다 우세를 차지하려고 애썼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쏘련을 공격하기 오래 전에 자기들의 경제를 전시 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자기들에게 예속시킨 구라파 국가들의 경제를 자기들의 강도적 계획에 복종시켰다. 그들은, 인간 증오 사상으로 훈련되였으며 황당무계한 파쑈 사상 즉 독일 사람은 《고등 인종》이고 다른 나라 인민을 지배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상에 물젖었으며 기술적으로 훌륭하게 장비된 수백만의 군대를 미리 조직하였다. 그러나 자기들의 력량의 우세에 대하여 완전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독일 장군들은 불의에 공격함으로써 보충적인 일시적 우세를 얻으려고 결심하였었다.

독일 총사령부는 전쟁의 항구적 요인을 타산하기는 하였지만 일시적, 우연적 요인에 더 큰 의의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전격전》이라는 독일 파쑈의 리론은 이러한 요인을 리용한 것이였다. 이 리론에는 군대를 보다 빨리 전개하며 이 군대를 적을 놀래우고 아연실색케 하며 마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장비하는 것, 공격 측의 유리성을 리용하는 것, 적을 하나씩 격파하는 것과 같은 전술의 효과를 독일 제국주의자들이 망상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이 표현되여 있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쏘련을 반대하는 전쟁을 도발하면서 독일 제국주의자들과 그 장군들은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었다. 그들은 자신의 계급적 제한성과 편견으로 하여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기인하는 쏘련의 위력의 원천을 리해할 수 없었다. 사회주의 사회 및 국가 제도의 힘과 공고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그들은 쏘련의 경제적 및 군사적 잠재력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없었으며 또한 쏘베트 사회를 공고히 하며 쏘베트 사회에 반석같은 단결, 내부적 통일 및 불패의 견고성을 부여하는 요인들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다른 나라 제국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쏘련 사람들의 정신을 알지 못하였으며 쏘련 사람들의 커다란 애국주의,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성을 과소 평가하였다. 제국주의 계층들은 쏘련이란 《지리적 개념》에 불과하며 독일 군대의 첫 타격을 받자마자 곧이 《허수아비 장수》는 산산이 부서지리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쏘련 인민을 《귀족들의 위계 제도》에 의해서 관리되는 《노예의 무리》로 만들려고 타산하였다.

많은 점에서 다른 자본주의 렬강 지배층의 견해와 일치한 독일 제국주의자들의 타산은 전쟁의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쏘독 전선에서의 정세는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자본주의적 구라파에서의 전황과는 매우 달랐다. 쏘련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쏘베트 제도를 헌신적으로 수호하였는바 히틀러 도당은 이것을 전혀 타산하지 못하였다. 히틀러 도당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충만되고 파쑈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전쟁의 정의적, 해방적 목적을 자각한 쏘련 인민의 강력한 의지에 부닥치게 되였다. 쏘련 인민은 바로 파쑈 독일의 군사 기구를 분쇄한 결정적 력량이였다.

쏘련과의 전쟁에서 독일이 패배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독일 제국주의자들은 사회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거역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를 격멸하며 세계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며 진보 대신에 퇴보를, 문화와 문명 대신에 몽매와 야만을 내세우려고 하였다. 그들은 새롭고 청소하고 공고화되는 전도 양양한 사회 제도 대신에 사멸하여 가는 낡은 사회 제도의 승리를 보장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자유로운 인민들을 노예로 만들며 여러 나라의 민족적 독립을 유린할 것을 타산하였으며 많은 민족들의 량심의 호소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독일 군국주의자들이 일으킨 폭풍은 파쑈 독일의 군사 기구와 히틀러 제도를 쓸어 버린 태풍으로 화하였다.

제 2차 세계 대전의 교훈은 아주 크다. 그 교훈은 력사 법칙의 확고부동성을 특징짓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의연히 이 교훈을 리해하지 못하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의 일부 정치가들이 사회주의 나라들의 자유로운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의 노예》라고 부르며, 히틀러 도당을 완전한 군사적 및 정치적 파국에로 이끌어 간 그 오유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교훈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르죠아 력사 위조자들은 제 2차 세계 대전의 결과를 의식적으로 외곡하고 있는바 제국주의의 리익에 복무한 자본주의 나라들의 수 많은 력사가, 선동가, 장군 및 정치가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력사의 위조자들은 수백만 사람들의 심장에 아로새겨진, 쏘련 인민과 그 군대의 불멸의 공적에 대한 고귀한 기억을 말살하려고 발악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쏘련 무력의 승리의 의의를 감소시키려 날뛰고 있다.

그들이 즐겨 날조하는 수법의 하나는 붉은 군대의 승리를 그 어떤 반복될 수 없는 력사적 우연성에 귀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리론》의 날조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견해의 진면모를 드러내 놓고 있다. 그들은, 새 전쟁에서는 우연성의 요인들이 다른 쪽으로 넘어 갈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를 무력으로 격멸하기 위하여 《전쟁을 재발해 볼》만하다고 확정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특히 이 방면에서 서부 독일 복수주의자들이 열성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독일 군국주의자들이 또다시 세계 대전을 감히 도발한다면 그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

위대한 조국 전쟁에서 쏘련이 쟁취한 승리를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아무도 인민들의 기억에서, 력사에서 쏘련 인민의 위대한 공적을 지워 버릴 수 없다! 우리의 동시대 사람들 뿐

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도 결사전에서 파쑈 무리를 쓸어 버린 영웅적 투사들을 영원히 존경하여 기억할 것이며 인류의 휘황한 미래를 구원한 사람들을 기억할 것이다.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한 것은 독일 장군들과 그들이 우상화한 히틀러의 오산이나 오유(비록 이러한 오산도 작용하기는 하였지만)로 인한 것이 아니다. 독일 제국주의의 가장 큰 오유는 그들이 전쟁을 도발한 것이였으며 특히는 쏘련에 대한 침공이였다. 미국, 영국 및 불란서의 뮨헨 정책은 전쟁 도발에 도움을 주었다. 전쟁의 교훈은 이 정책의 제창자들이 심히 오산하였다는 것을 립증하고 있다.

독일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서방에 대해서 《평화를 애호한다》고 미 영 불 국가 활동가들에게 그렇게도 열심히 설교하기는 하였으나 결코 그들의 기대에 보답하지 않았다. 독일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반쏘 계획을 광범히 광고함으로써 서부 렬강으로부터 더욱더 새로운 양보를 얻어내려고 노력하였으며 한편 쏘련에 대한 계급적 증오로 하여 눈이 먼 서부 렬강 지배층들은 독일의 요구를 《하나 더 마지막으로》 충족시켜 준다면 그들이 독일과 협약하여 히틀러의 침략을 동방으로 즉 사회주의 나라에로 돌릴 수 있으리라고 타산하고 그러한 양보를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미 영 독점체들은 독일의 무장을 도와 주었으며 또한 미국의 위력한 계층들의 지지하에 영 불 정부들은 집단적 안전을 거부하고 침략자에게 길을 열어 주고 그로 하여금 구라파 여러 나라들을 노예화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정책이 무엇으로 끝났는가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독일은 파란을 침공하였고 그 다음에 불란서를 침공하였으며 또한 영국을 격멸하려 하였다. 일부 자본주의 국가의 지배층들이 실시한 독일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절충》 정책의 진가는 이러하였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미국, 영국 및 불란서 정부들이 서부 독일 군국주의자들과 복수주의자들이 새로 광범히 떠벌리는 《평화 애호》에 대한 종전과 같은 보증에 기꺼이 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파쑈 련합의 형성은 공산당과 쏘련 정부의 대외 정책의 정당성을 실증한 것이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뮨헨에서 예정된 자본주의 렬강들의 반쏘 통일 전선 형성의 실제적 위험이 방지되였다. 전전 시기에 있어서 당과 정부의 정책은 쏘련 인민으로 하여금 파쑈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을 타승하게 한 국내 국제 정세를 보장하였다.

쏘련의 승리는 공산당과 인민의 모든 거대한 창조적 활동에 의하여 준비되였으며 당의 현명성과 의지에 의하여, 당과 인민의 통일에 의하여 보장되였다. 이 전 세계사적 승리는 쏘련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그의 경제적 독립과 국방력을 강화하며 인민의 창조적 력량을 발양시키기 위한 공산당의 레닌적 정책의 승리였다. 《나라의 공업화와 농촌 경리의 집단화 정책을 실현하면서 우리 인민은, 당과 오랜 기간 이. 웨. 쓰딸린이 수반으로 있은 그 중앙 위원회의 령도하에 가장 심각한 변혁을 수행하였다. 자기의 앞길에 가로 놓인 일체 난관을 극복하고 계급적 원쑤들과 그 앞잡이들—뜨로쯔끼 도당, 우익 기회주의자들,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과 기타 도당들의 반항을 분쇄하면서 우리 당과 전체 쏘련 인민은 력사적인 승리를 달성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였다. 과거에 락후하였던 우리 나라는 강력한 사회주의적 공업-꼴호즈 국가로 되였다》(엔. 에쓰. 흐루쑈브, 《쏘련 공산당 제 21차 대회 주요 문헌집》,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9년, 4페지).

사회주의의 승리로 말미암아 쏘련은 비단 정치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경제적으로도 파쑈 독일보다 강력하게 되였다. 쏘련의 경제와 기술은 히틀러 독일, 그 동맹국들, 그가 강점한 구라파 나라들의 경제 및 기술과 단독으로 맞서게 되였다. 쏘련의 후방 근로자들은 이 판가리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파쑈 독일이 전쟁 초기에 수백만의 주민과 풍부한 자원, 수 많은 공업 기

업소들을 포괄한 우리 나라의 현저한 부분을 점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쏘련은 벌써 1942년부터 전투 기재와 무기를 히틀러 독일보다 더 많이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자본주의 제도에 비한 쏘베트 사회주의 제도의 결정적 우월성이 나타났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는 결국 파쑈 빨럭 국가들의 력량에 비한 쏘련의 력량의 우세를 조건지은 경제적, 도덕적 및 국방상 잠재력을 조성하였다.

독일 제국주의에 대한 승리는 공산당의 대내외 정책의 정당성, 쏘련 공산당과 광범한 근로자 대중과의 불가분적 련계를 보여 주었으며 쏘련 인민이 공산당의 주위에 통일되고 단결되여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쏘련 공산당은 적에 대한 전 인민적 반격의 결정적인 동력이였다. 쏘련 공산당은 전선과 후방에서 수천만의 쏘련 사람들의 로력을 조직하고 단합시켰으며 그것을 유일한 목적에로 향도하였다. 당은 그들을 영웅적인 전투적 위훈과 로력적 위훈에로 고무 추동하였으며 그들의 가슴 속에 승리에 대한 깊은 신심과 한치의 쏘련 땅도 고수하여 적을 완전히 격멸할 때까지 싸울 굳은 각오와 결심을 북돋아 주었다.

당 중앙 위원회는 조국의 운명과 사회주의 위업에 대하여 모든 력사적 책임을 지니고 파쑈 독일의 배신적 공격에 의하여 야기된 막대한 난관을 극복함에 있어서 불요불굴의 용감성과 볼쉐위크적 활동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당과 인민의 모든 력량과 나라의 일체 자원을 승리를 쟁취하는 데로 돌렸다. 간고한 시련의 시각에 공산당은, 우리 나라가 처한 위협을 사실 그대로 숨김 없이 말해 주었으며 쏘련 사람들에게 조국을 보위하여 궐기하며 자기의 모든 힘을 파쑈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바칠 것을 호소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와 쏘련 정부는 사회주의 경제 법칙에 대한 심오한 지식에 기초하여 인민 경제를 전시 태세로 개편하는 방도를 작성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론증하였다. 전쟁 시기에 우리 당이 취한 온갖 정력적인 조직자적 및 교양자적 활동은 쏘련 인민이 히틀러 침략자들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하는 데 돌려졌다.

공산당은 그의 우수한 력량을 전선에 즉 원쑤를 타승하는 위업에 돌렸다. 수 많은 지도적인 당 일'군들과 국가 활동가들이 군대에 파견되였다. 당 중앙 위원회 위원과 후보 위원들 중 거의 3분의 1이 조국 전쟁 전선에 동원되였다. 무장 투쟁과 후방 사업에서 탁월한 조직자적,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당의 저명한 활동가들인 중앙 위원회 위원들과 지방 당 단체 지도 일'군들이였다.

공산당은 전쟁 초기부터 붉은 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온갖 대책을 취하였다. 수만명이나 되는 당, 쏘베트, 직맹, 공청의 지도적 일'군들이 전선에 동원되였다. 공산당원들은 쏘베트 군인들을 사회주의 조국에 무한히 충실하며 원쑤를 증오하는 정신으로 교양하였으며 군대 내에서 혁명적 질서와 규률을 강화하고 그들의 사기와 전투력을 제고시켰다.

거대한 대중 정치 사업은 후방 주민들 속에서도 진행되였다. 공산당 및 쏘베트 국가의 탁월한 지도자들, 지방 당 일'군들과 쏘베트 일'군들, 과학 및 문화 일'군들, 수 많은 선전원과 선동원들이 대중 속에 깊이 들어 가 인민의 사기를 북돋아 주며 승리에 대한 그들의 신심을 굳게 하며 근로자들의 모든 힘을 전선을 원호하여 히틀러 략탈자들을 섬멸하는 데로 동원하였다.

적들이 강점한 지역에서는 지하 당 단체들이 주민들 속에서 정치 사업을 진행하였다. 적이 강점한 조건하에서 지하 당 단체가 향도적 력량으로 되였으며 그의 령도하에 쏘련 애국자들이 활동하였다. 지하에서 공작하는 공산당원들은 생명을 걸고 희생적으로 볼쉐위크적 진리를 대중 속에 해설하였으며 강점자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사람들을 고무하고 궐기시켰다. 독일 파쑈 략탈자들을 위협한 수 많은 빨찌산 부대들과 소부대들이 강점 구역 내 당 단체의 지도하에 발생하였으며 전투적 활동

을 전개하였다.

전선과 후방에서의 공산당의 거대한 조직자적 사업과 사상-교양 사업은 우리가 승리하게 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대중 속에서의 당의 불요불굴의 활동에 의하여 쏘련의 위대한 조국 전쟁은 진정으로 전 인민적인 전쟁으로 되였다. 전선에서는 영용무쌍한 군인들이, 적의 후방에서는 주민의 지지를 받은 용감한 빨찌산들이 이 전쟁을 수행하였으며, 로동자들은 기대와 평로 곁에서, 철도 일'군들은 철로에서, 꼴호즈원들은 전야에서, 학자들은 실험실과 설계실에서 이 전쟁을 수행하였다. 수백만 쏘베트 공민들이 방어선을 구축하였으며 형언하기 어려운 전시의 곤난과 궁핍을 억세게 이겨냈다. 포위 속에 들었던 영웅 도시—오데싸, 쎄와쓰또뽈, 레닌그라드, 쓰딸린그라드의 주민들은 붉은 군대 용사들과 함께 미증유의 용감성과 영웅성을 발휘하였다. 수십만의 애국자들이 파쑈 독일 항공대의 폭격과 적 간첩의 암해 공작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였다. 쏘련 녀성과 청년들도 적을 타승하는 위업에서 거대한 기여를 하였는바 그들은 전선의 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전쟁 행정에서 쏘베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위대성과 강대성이 남김 없이 발현되였다. 이 불멸의 애국주의는 로씨야 인민과 쏘련의 기타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훌륭한 민족적 애국주의 전통이 사회주의에 대한 그들의 무한한 충실성 및 쏘련에서 달성된 거대한 사회적 전취물에 대한 당당한 자부심과 결합되고 융합된 것이다.

쏘베트 애국주의의 위력은 배타주의와 민족주의로 중독된 독일 파쑈 군대의 기계적 훈련과 맹목적 규률에 비하여 우월하였다. 공산당에 의하여 교양된 쏘련 사람들의 도덕적 우월성은 조국 전쟁 시기에 특히 뚜렷이 표현되였다.

국제 제국주의 반동의 주동 세력으로 되였던 일련의 파쑈 국가들이 격파된 결과에 사회주의는 세계적 체계에로 전화되였다. 우리가 승리한 결과에 국제 무대에서의 력량 호상 관계는 사회주의에 유리하게 근본적으로 전변되였다. 10월 혁명의 위업은 구라파와 아세아의 많은 나라들의 사회주의 혁명에 의하여 전지되였으며 계승되였다. 위대한 중국 인민과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근로자들 및 몽고 인민 공화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월남 민주 공화국의 인민들이 사회주의의 휘황한 길을 따라 나아가고 있다.

세계 사회주의 체계는 구라파와 아세아의 일련의 나라들이 자본주의에서 떨어져 나와 사회주의의 길로 이행한 결과에 발생하였다. 이 나라들은 평등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위대한 형제적 대가정 속에 단결되여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과 통일은 우선 력사적 경험에서 검열된 백절불굴의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통일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구라파와 아세아에서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형성과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의 가일층의 앙양은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붕괴를 촉진시켰다. 전후 시기에 약 15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식민지 기반의 멍에를 벗어 던졌다. 이전에 식민지 및 반 식민지였던 지대에서 발생한 아세아와 아프리카의 비사회주의 국가들은 평화 애호적인 정책을 견지하고 있는바 바로 이 평화 애호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일치하고 있다. 동방 나라들의 광대한 지역이 이제는 제국주의의 후방으로 되지 않게 되였다. 식민주의는 림종에 가까와 가고 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수백만 주민들은 민족적 독립을 전취하고 있다.

사회주의가 세계적 체계로 전화하였고 이전의 식민지 소유 국가들이 붕괴된 결과 쏘련에 대한 자본주의의 포위는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쏘련 국경에 린접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적대 국가가 아니라 친선적인 사회주의 국가이거나 아프가니스탄 및 분란과 같은 비사회주의적 중립국들이다. 우리 나라는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서 벗어났으며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조성된 력량 관계는 외국 무력 간섭으로 우리 나라에 자본주의를 복구할

가능성을 소멸하였다. 《세계에는 지금 우리 나라에 자본주의를 재생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을 섬멸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란 없다. 쏘련에서 자본주의가 부활될 위험성은 제거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승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쏘련 공산당 제 21차 대회 주요 문헌집》,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9년, 100페지).

쏘련이 위대한 조국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쏘베트 사회 제도와 국가 제도는 가일층 강화되였다. 공산당과 그의 레닌적 중앙 위원회의 령도하에 우리 인민은 전쟁에 의하여 중단되였던 공산주의의 건설을 다시금 시작하였다. 우리 인민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파멸적인 전쟁의 모든 후과를 기본적으로 세거하였으며 강점자들이 우리 인민 경제에 끼친 심대한 상처를 깨끗이 가시였다. 이미 1947～1948년에 쏘련의 공업 제품 생산은 전전 수준에 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릉가하였다. 전쟁에 의하여 파괴되였던 끼예브, 민쓰크, 쓰몰렌쓰크, 오데싸, 쎄와쓰또뽈, 쓰딸린그라드 및 기타 많은 쏘련의 도시들이 재'더미를 헤치고 일떠섰다. 꼴호즈 농촌도 전쟁의 심대한 후과를 가시였다. 전후 수년간 쏘련 인민의 생활은 몹시 곤난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무궁무진한 정력은 이 모든 곤난을 이겨내였다.

쏘련 인민의 영웅적 로력 투쟁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 발전은 전전 수준을 훨씬 릉가하였으며, 공산주의의 건설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성과가 달성되였다. 물질적 생산 분야에서의 이 성과는 공업, 운수, 농촌 경리의 미증유의 급속한 장성 템포로 특징지어진다.

과학 기술 발전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는바 쏘련은 핵 물리학, 원자 동력학, 추진식 항공기, 로케트 기술 등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세계에 으뜸가는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다. 경제, 과학, 문화 발전에서 사회주의가 거둔 거대한 성과에 의하여 세계에서 최초의 인공 지구 위성과 쏘베트 우주 로케트들을 발사할 수 있게 되였다. 우주 비행선의 성과적 발사를 보장한 쏘베트 과학과 기술의 성과로 인류는 행성간 비행의 시대에 접근하게 되였다.

쏘련 인민 경제 발전 7개년 계획을 수립한 공산당 제 21차 대회는 쏘련이 그 력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면적 공산주의 건설의 새 시기에 들어 섰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인민 경제 발전 7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에 기초한 쏘련 경제의 전체 부문을 가일층 앙양시키며 나라의 경제적 잠재력을 현저히 강화하며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킬 수 있게 한다. 7개년 계획을 수행하면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축성하는 데서와 력사적으로 최단 기간 내에 인구 1인당 제품 생산에서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 잡으며 따라 앞설 데 대한 쏘련의 기본 경제 과업을 실현하는 데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 것이다.

쏘련의 7개년 계획은 쏘베트 국가의 평화 애호적 지향을 반영하고 있는바 이 지향은 근로자들의 국가인 쏘베트 국가에 유기적으로 고유한 것이다. 쏘련과 기타 구라파 및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계획의 실현은 지구상에 자본주의가 아직 남아 있는 조건하에서도 인류 사회에서 전쟁을 제거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조성하는 것이다. 평화 애호 인민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에 의거함으로써 제국주의 호전 분자들로 하여금 새 전쟁 도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다. 만약에 제국주의 모험가들이 건전한 사고력을 잃고 끝끝내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들은 이것으로 오직 자본주의 체계 전체의 멸망만을 촉진시킬 뿐일 것이다.

위대한 조국 전쟁 이후 쏘련의 승리를 조건지은 합법칙성의 작용은 약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훨씬 강화되였다. 사회주의가 새로운 나라들에 전파되며 민족 해방 운동이 승리하고 있는 사실은 세계 제국주의 체계가 전반적인 붕괴 과정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제국주의는 인민들의 증오를 받고 있다. 그는 피로써 땅을 물들였고 새 살륙 전쟁으로 인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침략을 꿈

구는 제국주의자들이 국제 무대에서 더욱더 고립되여 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전쟁 시기와 전후 시기에 도처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장성하였다. 인민들은 그들을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가장 견실하고 가장 믿음직한 투사들로 바라보고 있다. 공산당들의 영향력의 장성은 세계 력사의 발전 행정에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맑스-레닌주의 사상이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1960년 3월에 엔. 에쓰. 흐루쑈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맑스-레닌주의 학설은 추상적 리론이거나 저승의 극락 생활에 대한 환상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학설은 생활에 확고히 립각한 진실한 학설이다. 그의 진실성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 건설의 실천과 사회주의 국가의 수억만 사람들의 경험을 통하여 매일같이 확증되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모든 것이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복무하며 자유로운 인민이 자신의 로동으로 자신의 행복을 창조하고 있다. 자기 나라의 독립과 평화와 지상에 가장 훌륭한 생활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많은 나라 인민들이 바로 이러한 모범과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쁘라우다》, 1960년 3월 6일부)

모든 최신형 방위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쏘련은 비할 바 없이 강대하다.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가장 선진적인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쏘련의 무력은 조국을 보위하는 초소에 경각성 있게 서 있다. 사회주의의 원쑤들이 제아무리 군사 집단을 긁어 모은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사회주의 진영과 모든 평화 애호 인민들의 단합된 력량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정세이다. 제 2차 세계 대전의 《불을 다시 일구어 보려고》 하는 자들은 불피코 패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쏘련의 위대한 조국 전쟁은 이미 과거의 일로 되였다. 그러나 이 전쟁에 대한 기억은 쏘련 인민들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그 기억은 남아 있을 것이다. 그처럼 비참하였고 그처럼 많은 피를 흘리게 한 이 전쟁을 우리 인민이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1941~1945년의 위대한 전투의 참가자로서 오늘날 살아 있는 수백만 사람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아들딸, 손자, 증손자들은 투사들의 영웅적 위훈에 대한 이야기를 즉 쏘련과 전 인류를 노예화의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었으며 독일 파씨즘을 격파하고 공산주의에로의 쏘련의 평화적 전진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한 투사들의 영웅적 위훈에 대한 이야기를 대대손손 길이 전할 것이다. 위대한 조국 전쟁과 파씨즘에 대한 우리의 전 세계사적 승리—이는 비단 영광스러운 력사적 과거사일 뿐만이 아니다. 이 위대한 승리와 그의 결과는 세계 력사의 전 발전 행정에 오래오래 영향을 줄 것이다.

II

쏘련 인민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서게 한 파쑈 독일의 쏘련 침공은 제 2차 세계 대전 행정에서 시작되였다. 쏘련의 위대한 조국 전쟁은 제 2차 세계 대전의 불가분의 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 2차 세계 대전의 원인과 성격에 관한 문제는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제 2차 세계 대전은 제 1차 세계 대전과 마찬가지로 현대 자본주의 제도, 그에 고유한 모순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제국주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지구상에서 자본주의가 점령할 수 있었던 모든 령토들이 자본주의 렬강 간에 완전히 분할되였었다. 이러한 분할은 자본주의 략탈자들의 치렬한 투쟁을 통해서 그들의 실재적인 력량 호상 관계에 알맞게 실현되였다. 그러나 력량 호상 관계는 불변한 대로 남아 있지 않는다. 자본주의 발전의 절대적 법칙인, 각이한 나라들 간의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의 불균등성은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인 제국주의 단계에 이르러 더욱 격화된다. 이러한 불균등성의 결과에 충돌이 발생한다. 자본주의 렬강들의 실재적인 새로운 력량 관계는 그들 간의

식민지 및 세력권의 기존 분할과 부합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충돌은 불피코 전쟁으로 결말을 짓게 한다. 왜냐 하면 제국주의 렬강들 간의 세계 재분할은 다른 방도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제 1차 세계 대전을 야기시킨 심각한 원인을 밝히면서 웨. 이.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자본주의가 지구상의 재부를 일부 국가의 수중에 집중시켰고 지구를 마지막 한 쪼각까지 분할한 까닭에 앞으로의 분할, 앞으로의 치부는 벌써 타국을 희생시키며 일국이 타국을 희생시켜야 가능하게 된 점이다. 이 문제는 오직 힘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세계 략탈자들 간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되였다》(전집, 제 28권, 80 폐지).

제 1차 세계 대전에서 승리한 미국, 영국, 불란서를 선두로 한 제국주의 렬강 그루빠들에 유리하게 세계가 재분할된 결과는 제 1차 세계 대전이 산생한 모순을 제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모순을 새로이 첨예화시키며 폭발시킬 수 있는 온갖 조건을 조성하였다. 제 1차 세계 대전과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승리로 말미암아 일어난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는 자본주의 제도의 일체 내부 모순을 보다 더 심화시켰다. 특히 첨예한 성격을 띤 것은 옛 제국주의 렬강과, 발전의 불균등성으로 인하여 급진적으로 발전한 보다 청소한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이며 또한 제 1차 대전에서의 옛 전승국과 복수하려는 전패국 간의 모순이였다.

제 1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독일과 그리고 전승국들 간의 전리품 분배시에 한 몫 보지 못했다고 생각한 이태리와 일본은 세계의 새로운 재분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옛 식민지 렬강인 영국, 불란서와 아주 청소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미국의 독점 자본은 제 1차 세계 대전의 참화 속에서 비상히 장성하였으며 비대하여졌다)은 서로 옥신각신하려 하지 않았다. 반대로 그들은 자기의 판도를 확대하며 세계 무대에서 독일, 이태리 및 일본 제국주의와의 경쟁을 막기에 급급하였다.

두 제국주의 렬강 그루빠 간에는 세계 제패를 위한 투쟁이 치렬하게 버러졌으며 이 투쟁은 더욱더 강화되여 갔다. 제 1차 세계 대전 전 기간에 있어서와 같이 독일 제국주의는 가장 첨예하고 침략적인 형태로 이 투쟁을 진행하였다.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쏘련의 존재와 그의 급속한 장성은 제 2차 세계 대전이 준비되던 환경 및 조건을 제 1차 세계 대전이 준비되던 환경 및 조건과 구별하게 하는 새롭고도 결정적인 요인이였다. 이제 와서는 제국주의자들 호상간의 모순과 더불어 그들을 결합한 근원 즉 두 사회 경제 제도—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근본 모순도 존재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 영 제국주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증오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반대하는 투쟁의 기치하에 전체 자본주의 진영의 세력을 규합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투쟁을 진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기의 경쟁자들을 리용하려고 타산하였다.

독일 군사력의 재생이 구라파(구라파에서 뿐만은 아니지만)에서의 자본주의의 지위를 공고하게 할 것이라고 타산한 미국과 영국의 독점체들은 독일 제국주의 장성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미국과 영국 제국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독일 제국주의를, 쏘련을 반대하여 투쟁할 수 있는 실재적 세력으로 보았던 것이다. 국제 반동, 무엇보다도 미국 독점체들의 원조에 의해서만 전쟁의 이 장본인은 제 1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를 당한 후 그처럼 급속히 재생할 수 있었다. 독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기도에 대해서 준 광범한 지지는 그들로 하여금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자국의 공업 시설을 갱신하고 또다시 무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붉은 군대와 맞서기 전까지는 불패의 군대라고 알려진 강력한 군대를 점차 조직할 수 있게 하였다. 미국, 영국 및 불란서의 독점적 반동 계층들은 히틀러주의를 길러 냈으며 세

모운 파쑈적 면모를 띠고 출현한 독일 군국주의를 도와 쏘련을 격멸할 목적을 가진 《동방 원정》을 위한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사회주의 제도를 한없이 적대시하는 구라파와 미국의 제국주의적 부르죠아지의 근시안적이며 보수적인 반쏘 정책(이 정책은 사회 민주당 우익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은 파쑈 침략의 위협이 증대된 조건하에서 민족적 리익을 직접 배반하는 막다른 길에까지 이르렀으며 일련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계선을 넘어 섰다. 제 2차 세계 대전을 준비한 전력사는 독일 파쑈 강점자들이 반동적 부르죠아지의 계급적 제한성과 공산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로 하여 어떻게 구라파의 여러 국가를 무서운 파국에로 이끌어 갔으며 이 국가들을 예속시켰는가를 보여 주는 몸서리치는 행정이다.

세계 제패를 참망한 파쑈 침략자들은 미국, 영국 및 불란서 지배층의 반쏘적 기분과 반쏘적 계획을 리용하기에 몰두하였다. 파쑈 침략자들은 자기의 경쟁자들에게서 크레지트와 기술상의 특허를 께여내며 원료와 전략 물자를 받으며 외교 무대에서의 지지, 나아가서는 국제적 략탈을 공모하기 위하여 《반공산주의》라는 괴물을 리용하였다. 독일 파씨즘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십자군 원정》이란 말로써 쏘련 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를 위협한 세계 제패를 위한 자기의 계획을 엄폐하였다. 피비린내나는 파쑈 제도를 산생한 독일 금권 정치는 결코 쏘련에 대한 침공에만 국한하려고 하지 않았다. 독일 금권 정치는 쏘련에 대한 침공을, 딸라와 파운드도 전복하려고 한 자기의 세계 제패를 확립하는 도상에서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단계로 본 데 불과하였다.

두 사회-경제적 구성태 간의 첨예한 적대적 모순은 물론 사회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에 의하여 조건지어진 자본주의 제도의 내'적 모순을 덮어 버리거나 약화시킬 수는 없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반쏘적 로선에서 호상간 더욱 접근하게 되고 그것이 불가피하게 파쑈 침략자들을 가일층 강화시키면 시킬수록 세계 제패를 위한 투쟁에서 그들 호상간의 충돌은 더욱 치렬해질 것이다. 제 2차 세계 대전은 제국주의 제도의 합법칙성에 의해서 산생되였으며 이 제도의 내부에서 발생하였다.

세계 반동이 력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함이 없이 두 사회 제도 간의 모순을 전쟁의 방도로써 해결하려고 하였을 때 한편 쏘련 공산당과 쏘련 정부는 웨. 이. 레닌의 유훈을 지침으로 삼아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의 조건하에서 국제적 분쟁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완강하고도 꾸준하게 노력하였다. 집단적 안전의 방법으로 전반적 평화와 제 인민의 독립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평화적 조건을 조성하기에 노력하여 온 쏘련의 정책은 제국주의자들이 실시하여 온 세계 대전 준비와 도발 정책에 대치되였다. 평화와 민주주의의 모든 수호자들은 쏘련을 중심으로 하여 결속되였다. 제 사변의 발전 행정은, 만약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인민들이 이 전쟁을 민족적 독립을 수호하며 파쑈 제국주의 압제자들을 반대하기 위한 정의의 해방 전쟁으로 전화시키기에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론박할 여지없이 증명하여 주었다.

독일 총참모부는 전녕 작전을 서두르면서 처음에는 세계적 규모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키는 모험을 하지 않고 략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강점하고 다음에는 독일보다 덜 강한 부르죠아 국가들을 제압한 후에 세계 제패를 위한 결정적 원정을 개시하려고 결심했던 것이다.

제 2차 세계 대전의 특수성의 하나는 이 대전이 인차 세계적 규모로 확대되지 않은 그것이다. 이 전쟁에 앞서 하나의 련쇄를 이룬 1931～1939년 간의 일련의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 제국주의적 침략자들이 광대한 세 대륙—구라파, 아세아 및 아프리카—에서 일으킨 이 《국부적 전쟁들》은 략탈적 목적으로 즉 침공을 받은 나라들의 인민을 예속시키며 앞으로의 략탈과 억압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행되였다.

이 모든 전쟁들에서 침략의 대상으로 되였

던 나라들의 인민 대중은 민족적 독립과 제국주의의 가장 반동적인 주요 세력인 파씨즘을 반대하는 민주주의의 리익을 용감히 수호하였다. 그러나 미국, 영국 및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은 변함 없이 침략자들을 부추겨 주면서 전쟁의 예봉을 조만간에 쏘련을 반대하는 데로 돌릴 것을 기대하였다. 그들은 소위 서방 국가들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더욱 위험한 것으로 된 파쑈 국가들이 강화되여 가는 것을 묵과하였으며 자기 측이 당하게 되는 일부의 희생에 대해서도 류의하지 않았는바 그들은 이러한 희생이 차후에 쏘련이 독일에 의해서 격멸되던가 그렇지 않으면 독일이 쏘련에 의해서 약화됨으로써 몇 배나 더 크게 보상되리라고 기대하였던 것이다.

1938년의 뮌헨 공모는 바로 이 서방 《민주주의》 정책의 정점이였다. 바로 여기에서 독일 제국주의로 하여금 제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게 한 《개방선(開放線)》이 열리여졌다.

세계적 규모의 군사적 충돌의 위협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류에게 경고한 쏘련은 평화를 옹호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전체 인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조치들을 제의하였다. 쏘련은 불가침 및 중립 조약 리념과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의 강령을 내놓았으며 침략자들의 두 손을 결박해 놓을 집단적 안전 체계를 제의하였다. 침략자들과 그 공모자들이 거부한 사회주의 나라의 평화적 이니샤티브는 수백만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서 열렬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1939년 여름 경에 조성되였던 국제 정세와 사회 여론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영국 및 불란서 정부는, 그들에게 침략을 반대하는 호상 원조 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한 쏘련과 회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조약은 히틀러의 침략을 제지시키는 믿음직한 담보로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방 자본주의 렬강들은 히틀러 독일을 제어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돌려 왔는바 그것은 어떻게 하면 독일의 침략의 예봉을 쏘련을 반대하는 데로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이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국 및 불란서 정부는 파쑈 침략을 반대하는 호상 원조 조약을 쏘련과 체결하는 것을 종시 원치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쏘련으로서는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외에 다른 출로가 없었다. 이 조약이 체결됨으로 하여 자본주의 렬강들의 반쏘 통일 전선 결성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였으며 쏘련은 사회주의 건설과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약 2년 간의 평화적 시기를 보장 받았다.

제 2차 세계 대전은 1939년 9월 1일 히틀러 독일이 파란을 침공함으로써 개시되였다. 이것은 두 개의 큰 자본주의 렬강 련합들의 싸움이였다. 이 싸움은 그 발발 원인으로 보아 제국주의 전쟁이였다. 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은 모든 나라의 제국주의자들이며 현대 자본주의 제도 자체이다. 전쟁의 발발을 촉진시킨 것은 《자국》 부르죠아지를 지지하였으며 로동 계급을 분렬시킨 사회 민주당 우익 지도자들의 정책이였다. 전쟁을 도발한 중대한 책임은 전쟁의 직접적인 도발자들인 독일을 선두로 한 파쑈 뿔럭 국가들의 지배층에 있다.

웨. 이. 레닌은, 전쟁이란 다른 수단(바로 폭력적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며 《이것이야말로 맑스와 엥겔스가 견지한 견해인데 그들은 매개 전쟁을 그 시기의 소여의 관계 렬강—그리고 그 렬강 내부의 각 계급—의 정치의 연장으로 보았던 것이다》(전집, 제 21권, 248페지)라고 루차 지적하였다. 제 2차 세계 대전은 제국주의 렬강의 정책 즉 판매 시장 및 원료 원천지와 자본 투하권을 위한, 세계 제패를 위한, 자본주의 제도의 옛날의 유일적 지배의 복구를 위한 투쟁의 직접적인 연장으로서 발생하였다.

전쟁은 파쑈 국가들 측에서 볼 때 그의 전 기간을 통하여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였다. 파쑈 국가들은 세계를 정복할 목적 즉 다른 모든 나라들과 인민들을 식민지적 예속하에 둘 목적으로 전쟁을 도발하였다. 파쑈 강점자들은 자기들의 략탈 정책에 대한 인민 대중의 반항을 분쇄하려고 하면서 수백만 사람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는 전대미문의 잔인한 행동

을 감행하였다. 파쑈 강점자들은 구라파의 여러 국가들의 자주권과 민족적 독립을 빼앗았다. 더우기 강점자들—독일, 이태리 및 일본—은 자기들이 승리하면 지구상에 소위 파쑈적 《신 질서》를 수립할 것을 망상하였는바 이러한 《신 질서》란 가장 반동적이며 가장 전횡적인 강점 제도를 의미하였으며 또한 인민들의 완전한 노예화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위협은 파쑈 국가들을 반대하는 전쟁을 정의의 해방 전쟁으로 전화시킬 잠재적 가능성을 조성하였다.

제 1차 세계 대전 시기에는 정의의 전쟁의 일부 근원지(쎄르비아, 벨기)들이 있었으나 그것들은 전쟁의 전반적 성격에 아무러한 본질적 영향도 주지 못하였다. 제 2차 세계 대전 시기에는 최초부터 파씨즘을 반대하는 해방적 무장 투쟁의 서광이 비쳤으며 그것은 결국에는 제 인민과 국가들의 반파쑈 전쟁의 하나의 위력한 흐름 속에 합류되였으며 세계 대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시켰다.

파란 인민은 독일이 침략을 개시한 첫날부터 붉은 군대와 파란 군대에 의하여 나라가 해방될 때까지 자기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해방적이며 정의적인 반파쑈 전쟁을 전개하였으며 동시에 파씨즘을 도와 준, 국내와 반동과 망명해 있은 파란의 반동을 반대하는 투쟁도 전개하였다. 영 불과 독일 간의 전쟁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 전쟁은 첫 시기에 있어서는 쌍방이 다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파란을 옹호한다는 것은 영 불 지배층들이 한갖 선전 포고를 하기 위한 형식적이며 외'적인 구실에 불과하였다. 그들이 독일을 반대하여 나서게 된 실제적 원인은 대식민주의 렬강으로서의 자기 지위를 고수하며 독일 파씨즘(1939년에 쏘련을 반대하기 위한 독일 파씨즘의 침공은 성공하지 못하였다)이 침해한 제국주의적 리익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는 데 있다.

1939～1940년에 영국과 불란서는 독일을 반대하여 소위 《괴이한 전쟁》 혹은 오늘날 서방 력사가들이 《가능성을 상실한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는 전쟁을 진행하였다. 이때 영국과 불란서의 110개 사단은 불과 23개의 독일 사단을 앞에 두고 싸우지 않았다. 전쟁사에서 보기 드문 이러한 소극성은 영국 및 불란서 사령부가 쏘련을 반대하는 간섭을 집중적으로 준비한 것과 관련되여 있었다. 1940년 초에 그들은 독일 제국주의의 충복인 분란 반동을 원조한다는 구실 밑에 이런 간섭을 하였다.

개시된 전쟁이 불란서와 영국 측에서도 제국주의적 성격을 띤 것은 불 영 정부들이 민주 력량을 반대하는 광범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반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쟁 정세를 리용하려고 한 그의 대내 정책에 기인하였다.

전쟁을 앞두고 평화의 유지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참가할 것을 거부한 사회 민주당 우익 지도자들은 군사적 충돌의 시초부터 자국의 제국주의 정부를 지지하였으며 다시금 로동 계급의 위업을 배반하였다.

공산주의 인터나쇼날과 공산당들은 제 2차 세계 대전의 첫날부터 이 전쟁에 대한 적절한 맑스주의적 평가를 내렸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22주년에 제한 콤인테른 집행위원회의 호소문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전쟁은 구라파의 중심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영국, 불란서 및 독일 지배 계급은 세계 제패를 위한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전쟁은 자본주의 진영에서 다년간에 걸쳐 진행되여 온 제국주의적 경쟁의 연장이다… 부정의적이며 반동적이며 제국주의적인 이 전쟁의 실제적 내용은 이러하다》(《공산주의 인터나쇼날》, 1939년, 8～9호, 3～4페지). 영국 공산당은 자기 선언에서 이것은 《리윤, 시장 및 세계 제패를 위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전쟁》(우와 같은 책, 127페지)이라고 지적하였

다. 불란서 공산당은 《불란서 인민에게 강요한 전쟁—그것은 자본가들의 전쟁이며, 영국과 독일 제국주의자들이 서로 반대하여 진행하고 있는 전쟁이다…》(우와 같은 책, 123페지)라고 성명하였다. 미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성명도 그와 류사한 것이였다: 《현 전쟁—그것은 제국주의 전쟁이며 이 전쟁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 부르죠아지들에게 다같은 책임이 있다》(우와 같은 책, 129페지).

전쟁전 시기에는 공산당원들만이 파쑈 침략자들을 반대하고 평화를 옹호하여 시종일관하게 단호히 투쟁하였다. 한편 전쟁이 치렬하게 진행되던 시기에 공산당원들의 지도를 받은 독일, 이태리 및 일본과 이 나라들에 예속되여 있은 위성국들의 애국적 력량은 부정의적인 제국주의 전쟁에서의 자국 정부의 패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이 나라들의 공산당의 정책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국제 로동 운동의 지지를 받았다.

파쑈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인민적 투쟁은 전쟁 첫날부터 시작되였다. 그 성격으로 보아 정의적이며 해방적인 인민 투쟁은 더욱더 확대되여 갔다. 동방에서는 중국 인민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구라파에서는 서반아 공화주의자들이 추켜든 민족 해방 운동의 기치를, 공산당원들의 지도를 받는 체코슬로바키야의 애국자들과 파란, 유고슬라비야, 불란서 및 기타 침략의 희생으로 된 나라들의 평화 애호 인민들이 받아 들었다. 파쑈적 예속화와 문명의 파괴를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투쟁은 쏘련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독일, 이태리 및 일본을 반대하는 전쟁으로 하여금 합법칙적으로 해방적이며 반파쑈적인 전쟁으로 전환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제 2차 세계 대전은 1914～1918년의 전쟁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이였다. 이 시기에 와서는 제 사변의 발전에서 전혀 새로운 일정한 합법칙성이 나타났다. 이 합법칙성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일방으로는 침략을 당한 일련의 나라의 대부르죠아지와 지주들의 민족적 배반을 조건지었으며 타방으로는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해방 투쟁에서 광범한 인민 대중의 적극성을 장성케 하였다는 데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파쑈 침략의 희생물로 된—의 군사적 패배는 정부들의 파산과 강점자들에 대한 인민적 항쟁의 장성을 동반하였다. 례컨대 파란에서의 사태가 그러하였는바 파란 정부와 최고 사령부는 파쑈 침략의 초시기에 벌써 붕괴되였으며 국외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인민은 강점 시기에도 강점자들의 횡포한 탄압을 물리치고 장성하는 력량으로 강점자들을 반대하여 항쟁을 계속하였다.

공산당원들을 선두로 한 불란서, 노르웨이 및 기타 구라파 나라들의 애국자들은 개시된 전쟁과 그 제국주의적 목적을 단호히 규탄하였다. 이 나라들에 파쑈적 노예화의 위협이 닥쳐 왔을 때 이 나라들의 애국자들은 침략자들에 대해서 용감히 항거하였으며 자국 정부를 반파쑈 전쟁의 길에 들어 서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불란서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1940년 6월 6일에 정부에 보내는 자기 호소에서 전쟁의 성격을 변경시키며 그 전쟁을 자유와 독립을 위한 인민적 전쟁으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불란서 공산당원들의 신문 《라비 우브리에르》는 이미 전쟁 초에 자기 인민을 두려워하는 정부는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자본주의 세계에는 독일 파쑈의 군사 행동을 제지시킬 수 있는 력량이 없었다. 짧은 기간 내에 히틀러 독일은 구라파 대륙의 거의 모든 부르죠아 국가들을 강점하였으며 이 나라들을 희생시켜 자기의 군사 경제적 잠재력을 현저히 강화하였다.

파쑈 침략자들이 서구라파 나라들을 련이어 강점하여 감에 따라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인민적 항쟁도 확대되여 갔다. 1940년 10월에

희랍을 침공한 파쑈 이태리는 근로 대중의 일치한 반격에 부딪쳤다. 희랍 공산당원들은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투사들의 선두에 서 있었다. 전 인민적 해방 투쟁의 강대한 앙양은 희랍 정부로 하여금 침략자에 대한 반격을 조직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희랍 애국자들의 투쟁은 알바니야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 결과 이태리 강점자들은 희랍 령토에서 쫓겨났다. 알바니야 애국자들은 자기 령토의 일부를 이태리 강점자들로부터 해방하였다. 1941년 4월에 유고슬라비야와 희랍에 대한 히틀러 독일의 침공은 해방 투쟁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 해방 투쟁에는 희랍 및 알바니야 인민과 함께 유고슬라비야의 용감한 아들들이 참가하였는데 이들은 독일과 그 동맹국들의 현저한 력량을 제어하였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역시 파씨즘에 반격을 가하려는 인민 대중의 결의가 드높아 갔으며 정부에 대한 그들의 압력이 강화되였다. 정세는 이 나라들의 지배층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파산되여 가는 반인민적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민족적 독립과 국가적 자주권을 상실하게 될 현실적인 위험에 직면한 영국과 미국 지배층은 국내의 친파쑈 세력(특히 미국에서 유력하였고 현저하였던)의 완강한 반항에도 불구하고 제 사변의 행정에 따라 파쑈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실제적 투쟁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0년 하반기부터 특히는 1941년 초에 독일을 반대한 나라들 측에서는 제 2차 세계 대전이 제국주의 전쟁으로부터 반파쑈 전쟁으로 전화하는 과정이 강화되였다. 그러나 이 전쟁을 해방적 반파쑈 전쟁으로 전화시킨 주요하며 가장 중요한 요인은, 히틀러 독일이 쏘련을 침공한 까닭에 쏘련이 이 전쟁에 참가한 사실이다.

쏘련이 제 2차 대전에 참가한 결과 제 2차 세계 대전이 파쑈 블럭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정의적, 해방적 전쟁으로 전화하는 과정은 끝났다. 전쟁의 정의적 성격을 종국적으로 규정함에 있어서 쏘련이 논 결정적 역할은, 쏘련의 투쟁이 파씨즘과 투쟁한 다른 모든 인민들에게 새로운 힘과 확신성을 준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쏘련의 역할은 또한 다음과 같은 데서도 표현되였다. 즉 부르죠아 국가들과 그 정부들 특히는 파쑈 침략자들과 싸우고 있었던 대강국들은 정세에 못 이겨 쏘련과의 동맹, 련합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그들의 동맹국으로 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하여 사상적으로 적대시하며 일정한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적대시하면서도 이렇든 저렇든 간에 쏘련의 투쟁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에게는 달리 할 도리가 없었다. 그들의 승리란 쏘련의 승리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였으며 그리고 쏘련의 승리는 반동에 대한 진보와 자유의 승리를 의미하였다.

미국과 영국 지배층의 정책의 제국주의적 본질은 그들의 군사 전략상에서 나타났는바 그것은 특히 구라파에서 파쑈 독일을 반대하는 제 2 전선의 형성을 지연시킨 것이다. 제국주의 렬강의 지배층은 자기 정책에서 이와 같은 반동적 경향이 마음대로 날뛰게 함으로써 결국은 자기의 계급적 리익에 손실을 주었다. 왜냐 하면 쏘련이 단독으로 파쑈 독일을 격멸할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히틀러의 기반에서 해방된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에 미국과 영국 제국주의자들이 강제적으로 반동적 제도를 부식하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정세가 조성되였기 때문이다.

제 2차 대전의 성격과 그 성격의 변화에 관한 문제는 거대한 리론적 및 정치적 의의를 가진다. 파씨즘을 반대한 서부 렬강들의 전쟁이 정의적 전쟁으로 전화한 것은 구라파의 여러 나라 인민들이 자기의 요구와 절실한 리해를 가지고 독자적 력량으로서 이 전쟁에 참가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10월 혁명과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결과에 일어난 사회적 력량 호상 관계에서의 전 세계사적 변화를 반영하는 사회 생활에서의 인민 대중의

장성하는 역할이 표현되여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모순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도발한 전쟁은, 비록 고립된 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강대하고 생활력을 가진 나라인 사회주의 국가가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 당시 제국주의적 반동의 지주였던 파쑈 국가들을 반대하는 정의적이며 그 본질에 있어서 인민적인 전쟁으로 전화하였다. 이 전쟁은 독일, 이태리 및 일본에 대한 련합된 반파쑈 력량의 승리로 끝났으며 이 승리를 달성함에 있어서는 쏘련과 그의 영광스러운 무력이 주되는 역할을 하였다. 파쑈 국가들의 무력은 심대한 패배를 당하였다. 동시에 제 2차 세계 대전은 전체 자본주의 체계를 약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호에 계속)**

(쏘련 《꼼무니스트》 1960년 제 9호)

근로자 제 8호 (루계 177호)

편집 위원회

발 행 소 • 근 로 자 사　　인 쇄 소 •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 행 • 1960년 8월 15일　　인 쇄 • 1960년 8월 10일

ㄱ—31462　　값 50전

서적 안내

김일성선집

제 4권

국판, 양장, 571페지, 발행 부수 300,000부

선집 제 4권에는 1953년 8월부터 1956년 말까지의 기간에 저술한 주요 로작들이 수록된다.

선집 제 4권에는 《모든 것을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와 《산업 운수 부문에서의 결함들과 그 시정 대책에 대하여》 등 우리 당 전원 회의에서 한 보고들을 비롯하여 전후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을 천명한 강령적 문헌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선집 제 4권에는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와 《평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 그리고 《당원들의 계급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를 비롯한 1955년 4월 전원 회의에서 한 보고 및 결론,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등 중요 문헌이 새로 수록된다.

제 5권

국판, 양장, 563페지, 발행 부수 300,000부

선집 5권에는 1957년 1월부터 1958년 6월까지의 기간에 저술한 주요 로작들이 수록된다.

선집 5권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것은 《제 1 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 얻은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건설 분야에서 당 정책을 관철할 데 대하여》, 《함경남도 당 단체들의 과업》 등 제 1 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완수와 조국의 통일 발전에 바친 로작들이다.

또한 선집 5권에는 《위대한 10월의 사상은 승리하고 있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위대한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새로운 단계》 등을 비롯하여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들과 형제적 친선 단결을 강화하는 데 바친 로작들과 기타 적지 않은 문헌이 처음으로 수록된다.

제 6권

국판, 양장, 580페지, 발행 부수 300,000부

선집 6권에는 1958년 7월부터 1959년 12월까지의 기간에 저술한 주요 로작들이 수록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농업 협동화의 승리와 농촌 경리의 금후 발전에 대하여》,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함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 《모든 문제 해결에서 중심 고리를 든든히 틀어잡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자》 등 당을 공고화하며 간부들에게 맑스—레닌주의적 사업 방법을 체득시키는 데 바친 로작들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계속적 앙양에 바친 로작들이 수록된다.

이상 서적들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했다.

1960년 8월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9 호 9 월 15 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60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잡 지

제 9 호(178)

1960년 9월 15일

차 례

천리마 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이다

전국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 대회에서
한 연설 1960년 8월 22일

김 일 성

(전원 총 기립. 오래 계속되는 우뢰와 같은 박수 속에 등단)

친애하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 여러 동무들!

영광스러운 해방의 명절에 뒤'이어 이 자리에서 소집된 전국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 대회는 새 생활의 창건을 위하여 떨쳐 일어난 우리 근로자들의 충천하는 혁명적 기세와 고상한 공산주의적 풍모를 과시하는 력사적 모임입니다. 지금 전체 근로자들은 커다란 흥분과 감격 속에서 이 대회의 사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천리마의 기수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을 류례 없이 빠른 속도로 전진시키는 영광스러운 선구자들이며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공산주의의 광명한 앞날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당의 붉은 전사들입니다.(우렁찬 박수)

당신들은 자랑찬 천리마 시대의 참다운 주인공들로서 전체 인민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훌륭한 행동과 특출한 업적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으며 무한히 고무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륭성과 번영을 위하여 당신들이 영웅적 로동으로 쌓아 올린 위대한 공적은 우리 나라의 력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후손 만대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우렁찬 박수)

나는 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이 대회에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전체 천리마 기수들에게 충심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전원 총기립.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동무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로동당의 령도 밑에 조국 땅 우에 인민의 행복한 락원을 더 빨리 건설하려는 우리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불타는 애국심을 반영하는 것이며 당에 의하여 교양되고 당의 기치 밑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나아가는 우리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시위하는 것입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영웅적 조선 로동 계급이 창조한 우리 시대의 훌륭하

고 위대한 공산주의의 학교입니다.

작년 3월 강선 제강소 진 응원 작업반원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기된 이 훌륭한 운동은 불과 1년 반 동안에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대되였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전국 각지에서 8천 600 여개의 작업반들이 이 운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벌써 766개의 작업반들이 천리마 작업반의 칭호를 받았고 그 중 13개의 작업반은 2중 천리마 작업반의 높은 영예를 지니고 있습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과 생활에서 일대 전변을 가져온 새로운 군중적 혁신 운동이며 가장 높은 형태의 사회주의 경쟁 운동입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거대한 의의는 그것이 인민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이며 자각된 근로자들의 대중적 경제 운영의 훌륭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훌륭한 대중적 교양의 방법으로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운동의 참가자들은 생산, 기술, 문화, 사상, 도덕의 모든 령역에서 서로 돕고 이끌어 다 같이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살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천리마 작업반들에서는 전체 성원들이 공동으로 생각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며 집체적 지혜와 집체적 창발성을 발휘하여 생산과 기술의 발전에서 집단적 혁신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천리마 기수들은 생산 공정을 기계화하고 자동화하며 부단히 새로운 생산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일은 더욱 쉽게 하면서도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고 있습니다.

천리마 작업반들에서는 전체 성원들이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며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하며 공산주의적 도덕을 배양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배우고 있으며 집단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집단의 교양과 집단의 방조에 의하여 어제'날의 소극 분자가 오늘은 적극 분자로 되고 어제'날의 락후 분자가 오늘은 선진 분자로 되며 모두가 다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인류의 리상이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주의, 리기주의, 자유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서 커다란 장애로 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리상을 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낡은 사상 잔재들을 청산하고 락후한 사람들을 개조하여 모두가 다 인민 대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게 하며 공산주의를 향하여 확신성 있게 나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천리마 작업반은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하며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 집단입니다. 우리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생산과 기술 분야에서 보수주의와 신비주의, 온갖 소극적이고 침체한 것을 대담하게 타파하고 일대 혁신을 일으킨 운동이며 사상과 도덕 분야에서 낡은 사회로부터 넘겨 받은 온갖 부패하고 락후한 것을 결정적으로 쓸어 버리고

새로운 공산주의적 사상과 도덕의 전면적 승리를 보장하는 력사적 운동입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위대한 힘은 이 운동 참자자들의 실천적 활동에서 뚜렷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오지 탄광의 2중 천리마 청년 작업반장 리 승환 동무는 청년들을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전통으로 부단히 교양하여 작업반원들의 자각적 로동 규률을 확립하고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급격히 높임으로써 생산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동무가 지도하는 작업반 성원들은 한 개 채탄장에서 한 달에 5천 톤의 석탄을 캐던 것을 지금은 1만 톤 이상의 수준으로 높였으며 년말까지는 1만 5천 톤의 수준에 올릴 것을 목표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룡성 기계 공장 2중 천리마 청년 작업반장 주 성일 동무를 비롯한 작업반 전체 성원들은 8메터 타닝반, 3천 톤 프레스, 기타 대형 기계들을 제작하는 데서 커다란 공훈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라는 당의 부름에 따라 모든 애로와 난관들을 용감하게 극복하고 각종 창의 고안을 도입함으로써 제품 가공 시간을 수배, 수십배씩 단축하였으며 가장 힘든 부분들의 가공을 훌륭히 보장하였습니다. 이 작업반 동무들은 로동 생산 능률을 5배 이상으로 높여 근 2만 공수의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벌써 7월 말 현재로 금년 계획을 초과 완수하였습니다.

평양 제사 공장 천리마 작업반장 길 확실 동무는 자기의 작업반을 천리마 작업반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 자진하여 일도 몇 곱절 힘들고 수입도 훨씬 떨어지게 되는 가장 락후한 작업반으로 넘어 가서 그것도 천리마 작업반으로 추켜 세웠습니다. 그는 로동 규률도 잘 지키지 않으며 작업에도 성실히 참가하지 않던 락후한 동무들을 인내성 있게 교양하고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 전체 집단을 단결되고 각성된 집단으로 만들었으며 과거에는 생산 계획을 70% 밖에 수행하지 못하던 것을 오늘은 140%로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평양 의대 병원 안과 과장이며 2중 천리마 작업반장인 정 성희 동무는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며 그들의 불행을 덜어 주려는 일념으로부터 거듭되는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있는 열성을 다하여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각막 이식 수술법을 도입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앞 못 보던 사람들을 500 여명이나 눈을 뜨게 하여 주었습니다. 지금 정 성희 동무의 성의 있는 치료에 의하여 광명한 세상을 보게 된 사람들은 이 동무를 우리 시대의 심 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박수)

만년 광산의 길 만식 동무, 해주 수산 사업소의 녀성 선장 김 순복 동무, 덕흥 광산의 녀성 광부 최 련옥 동무, 원산 화학 공장의 김 순금 동무와 오 덕자 동무, 흥남 비료 공장의 김 석태 동무, 함흥 3. 1 종합 상점의 김 순자 동무, 본궁 화학 공장의 주 창로 동무, 평양 기관구의 리 종호 동무, 신의주 피복 공장의 배 성실 동무, 개성 직물 공장의 리 영순 동무, 개천 철도 관리국의 박 학수 동무, 평양 방직 공장의 최 례순 동무들도 다 대중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천리마의 기수들입니다.

우리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선구자들은 수십명인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들의 훌륭한 업적들과 미거들을 도저히 다 렬거할 수 없습니다.

천리마 기수들의 안중에는 자기 개인의 향락도, 개인의 공명도 없으며 그들은 항상 집단과 전체의 리익을 생각하며 그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것은 고상한 애국주의와 공산주의 도덕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며 진실한 인민의 충복입니다.(우렁찬 박수)

천리마 작업반에서는 관료주의도, 형식주의도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개조하고 동지적 우애와 공산주의적 호상 방조로써 모든 일을 훌륭히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선구자들은 다만 생산 혁신자들일 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관리 일'군들이며 능숙한 조직자들이며 세련된 정치 일'군들입니다.

이와 같이 천리마의 기수들은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전통을 훌륭히 계승하고 있으며 당의 정책을 자기의 살과 피로 만들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 공산주의자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발전은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증명하는 것이며 당과 인민의 확고 부동한 통일을 시위하는 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이 운동은 대중을 믿으며 항상 그들에 의거하고 대중의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우리 당의 인민적 사업 방법과 군중 로선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당 중앙은 당신들이 이 운동을 발기하고 거기에 광범히 참가하여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하고 있으며 당의 정책을 받들고 일편단심 힘차게 전진하는 당신들의 충실성과 혁명적 기개를 높이 평가합니다. (전원 총 기립.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 운동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으로 됩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더욱 광범히, 더욱 전면적으로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근로자들과 전체 작업반들이 이 운동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공업 부문 뿐만 아니라 농업, 건설, 운수, 상업, 교육, 보건, 과학, 문학, 예술 등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이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리마 작업반의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며 이 운동을 한 계단 더 높여 천리마 작업반으로부터 천리마 직장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천리마 운동의 급속한 확대와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 성, 국 지도 일'군들로부터 지방 당, 정권 기관 일'군들과 공장의 지배인, 기사장, 직장장들에 이르기까지 각급 기관의 일'군들이 이 운동의 거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인식하

고 그것을 적극 지지하며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 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천리마 기수들의 모범을 따라야 하며 그들에게서 허심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디서나 천리마 작업반을 창설하고 천리마 직장을 창설해야 하며 전체 근로자들이 천리마 기수로 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무들!

지금 우리 앞에는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결정적 전진을 가져 오게 될 7개년 계획의 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8. 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 보고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7개년 계획은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강령입니다.

우리는 전후 짧은 기간에 전쟁의 상처를 회복하고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하였으며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다같이 일하며 의식주에 대한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이 편히 살 수 있게 되였습니다. 전체 근로자들은 일하면서 배우며 자녀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있으며 병이 나면 언제나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오랜 동안 천대 받고 가난에 시달리던 우리 인민이 오늘 어떠한 압박과 착취도 없는 좋은 세상에서 즐겁고 희망에 가득 찬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거대한 전변입니다.(박수)

그러나 우리는 달성된 성과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데 불과합니다.

앞으로 7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는 공업화를 실현하여야 하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여 일은 헐하게 하면서 나라의 재부를 더욱 풍족하게 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부유하고 문명하게 만들자는 것이 7개년 계획의 목적입니다.

7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총 생산액은 2.5배 이상으로 장성할 것입니다. 1967년에 가서는 한 해 동안에 전력은 170억 키로와트시, 석탄은 2천 300만 톤 이상, 강철은 250만 톤, 세멘트는 430만 톤, 화학 비료는 150만 톤, 직물은 5억 메터 생산될 것입니다.

농촌 경리 부문에서 알곡 총 수확고는 1.5배 이상으로 장성하게 될 것이며 육류, 기름, 우유 등의 생산량도 상당히 증가될 것입니다.

공업과 농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위해서는 공장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하며 거기에 따르는 기계와 설비들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농촌에서도 수리화 사업을 더 진행하며 새 땅을 더 많이 개간하여야 하며 지금 있는 땅을 잘 정리하기 위한 토지 건설 사업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합니다. 특히 2모작 면적을 확대하여 사료 작물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장성하는 근로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에서 주택과 상점 및 각종 봉사 시설들의 건설 사업을 더욱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학교와 과학 기관, 연구소들도 더 많이 지어야 하며 각종 문화 시설들을 더욱 확장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과업을 수행하여야만 우리 나라는 더욱 부강하게 될 것이며 우리 인민은 더욱 부유하게 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 건설에서 거대한 사업을 하여 놓았지만 앞으로 하여야 할 사업은 더 웅대하고 방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대하고 웅대한 과업은 락후한 수공업적 기술을 가지고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공장, 광산, 농촌, 어촌 할 것 없이 어디에서나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기술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전면적 기술 혁명의 시기에 들어 섰습니다. 기술 혁명은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고되고 힘겨운 로동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는 숭고한 혁명 과업입니다.

우리는 산간 벽지에 이르기까지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여야 하며 지방 산업, 건설, 운수, 수산 부문들에서 아직도 손로동과 등짐으로 하는 일을 모두 기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현대적 기재로 장비된 부문들에서는 기계화를 완성하면서 자동화를 강력히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현 계단에서 우리 당이 내세운 기술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 나서야 하겠습니다.

7개년 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며 기술 혁명의 요새를 점령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능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후 모든 것이 파괴된 재'더미 우에서도 경제를 단시일에 복구하고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현저히 향상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경제 토대는 매우 튼튼하며 우리는 이미 새 사회 건설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근로 대중의 혁명적 기세는 충천하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들이 당에 튼튼히 의거하여 당 정책의 관철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당이 또한 대중에 의거하여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을 동원한다면 어려운 과업도 승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에 도취하지 말아야 하며 더욱 열심히 배우고 꾸준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혁명은 결코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용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 발전 법칙에 의거하여 낡은 것을 부단히 새 것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며 계속적인 전진과 혁신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창조적 로동으로 낡은 사회를 새로운 사회로 빨리 개조하면 할수록

근로 인민의 행복한 생활은 더 빨리 창조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새 사회를 건설하는 공산주의의 혁명 투사들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정열적인 투쟁으로써 우리 나라의 락후성을 속히 퇴치하고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는 중대한 력사적인 과업을 우리 시대에 반드시 완성하여야 합니다. 이 력사적인 과업의 실현은 바로 우리 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7개년 계획의 승리적인 완수에 달려 있습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선구자들인 당신들과 전체 근로자들은 천리마의 고삐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더욱 높은 기세로 계속 전진하며 계속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배우고 사는 위대한 모범을 보여 주었으며 새 사회 건설에서 수 많은 기적을 창조한 당신들에게 나는 기술 혁신의 숭고한 과업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정력과 열의를 다 바쳐 투쟁할 것을 호소합니다. (전원 총 기립.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모두다 기술 혁명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인민들의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위하여,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우리 당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전원 총 기립. 장내를 진동하는 우뢰와 같은 박수,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원수 만세!» 환호 소리 오래 계속).

현대적 화학 공업의 기지를 창설하기 위하여

비날론공장건설 관계부문 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1960년 9월 1일

김 일 성

동무들!

오늘 이 회의에는 비날론 공장 건설에 참가하고 있는 제 17 건설 트레스트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그리고 이 공장 건설에 직접 참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계 설비를 제작하여 공급하며 자재를 보장해 주고 있는 각 공장, 기업소들의 책임 일'군들과 로동자 동무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자기들의 토론에서 이 공장을 기한 내에 훌륭히 건설할 굳은 결의를 표시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를 물론하고 비날론 공장 건설에 참가하고 있는 동무들은 다 당이 제시한 기한보다 더 빨리 건설을 끝내여야 하겠다는 결심을 다지고 있으며 기계 설비들과 자재를 보장해 주는 동무들도 다 기한 전에 보내 주겠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기한 내에 건설을 완성하겠다고 하면서 명년 5. 1절에 우리가 이 공장에 와서 테프를 끊어 달라고 하는데 더 오래 회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틀 동안 하자고 하던 회의를 오늘 하루에 끝내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문제가 충분히 토론되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천리마 시대에 회의만 계속하겠는가?

우리는 당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명년 5. 1절 전으로 이 커다란 공장을 완성하자고 하는 동무들의 결의가 반드시 실천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비날론 공장을 건설하는 의의에 대하여서는 보고에서 이미 지적되였고 토론하는 동무들도 많이 말하였습니다.

비날론 공장이나 염화 비닐 공장, 염료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 나라 공업 발전에서 거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입니다.

우리는 중공업 부문에서 이미 발전소도 건설하였고 용광로와 평로도 세우고 세상소도 복구 신설하고 기계 공장들도 많이 차려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중공업의 튼튼한 기초를 닦아 놓았습니다.

화학 공업 역시 중공업인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무기 화학 계통에서는 흥남 비료 공장을 비롯한 일련의 현대적인 대규모 공장들을 건설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기 화학 부문에서는 아직 해놓은 것이 적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비날론 공장을 건설하면 무기 화학에서 뿐만 아니라 유기 화학 방면에서도 커다란 기초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실정으로 보아 화학 공업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발전 전망도 대단히 큽니다.

오늘에 와서는 기술적 진보에서 기계화와 함께 화학화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날론 공장을 건설해 놓는다면 화학화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기초는 더욱 튼튼히 축성될 것입니다.

리 승기 박사도 토론한 바와 같이 화학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에 있는 원료에 기초하여 화학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없는 원료를 가지고 화학화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공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동무들이 아시다싶이 우리 나라에는 카바이드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가 매우 풍부합니다. 석회석이 무진장으로 있고 무연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력도 풍부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수력 자원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력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또 무연탄을 가스화하면 연료와 동력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화학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 생활의 향상과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나라는 경지가 적기 때문에 목화를 심어서 섬유 원료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주의 나라들 중에서 우리 나라는 경지 면적이 제일 적은 나라입니다. 공화국 북반부의 경지 면적은 2백만 정보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과밭이요, 뽕나무밭이요 하는 것을 제외하면 실지 경지 면적은 불과 180만 정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적은 땅에서 알곡도 내고 가축 사료를 얻어내여 육류와 우유도 생산하자고 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연 섬유까지 충분히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몇 해 동안 시험해 보았는데 우리 나라 기후 조건에서 목화는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화학 공업을 발전시켜 나무와 갈'대, 옥수수'짚 등으로 스프와 인견사를 만들며 카바이드에서 섬유를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프 공장을 많이 건설하고·비날론 공장, 염화 비닐 공장을 건설한다면 우리는 흉풍을 겪으면서 발에서 자연 섬유를 얻는 것보다도 질 좋고 다양한 화학 섬유를 훨씬 더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이며 그들의 생활을 더욱 풍족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좋은 방도를 두고 구태여 없는 땅을 힘들게 개간하여 목화를 얻자고 할 필요가 어데 있겠는가?

2만 톤의 비날론에 해당하는 자연 섬유를 얻으려고 하면 20만 정보의 땅이 요구되는데 이만한 땅을 새로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계화를 한다고 하여도 새 땅을 얻는 데는 많은 로력과 자금이 요구되며 더우기 우리 나라에는 새로 개간할 만한 땅이 별로 없습니다.

화학화를 광범히 실시한다면 자연 조건에 제약을 받지 않고 화학 섬유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에 더 많은 비료와 농약 등을 공급해 줌으로써 농업 생산을 급속히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화학화의 길로 나아간다면 섬유 원료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많이 요구되는 합성 고무도 앞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고무는 어디서나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뜨락또르나 자동차를 굴리려 해도 고무가 요구되고 여러 가지 인민 소비품을 만들려고 해도 고무가 요구됩니다.

건재 부문에서도 염화 비닐과 기타 합성 수지 공업을 발전시킨다면 철이나 목재 대신에 훨씬 값싸고 간편하고 보기 좋은 프라스마스재를 광범히 리용할 수 있습니다. 염화 비닐과 기타 합성 수지 원료로써는 훌륭한 비옷이나 신발도 만들 수 있고 가구, 문화용구, 장난'감과 가지각색의 소비품들을 훌륭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결정적으로 화학화의 방향에서 출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당은 오래 전부터 화학 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힘을 돌렸습니다. 리 승기 선생을 비롯하여 려 경구 선생 그리고 우리의 과학자들은 당의 지도 밑에 전쟁 시기부터 우리 나라 원료를 가지고 화학화를 실시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당의 옳은 령도와 과학자들의 인내성 있는 노력에 의하여 우리는 화학 공업 부문의 과학 연구 사업에서 찬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오늘 대규모의 비날론 공장을 건설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비날론 공장 건설의 거대한 의의는 그것이 1억 5천만 메터의 천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더욱 충분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화학 공업의 강력한 기지를 축성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 공장을 토대로 하여 우리는 앞으로 화학 공업의 여러 가지 부문들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화학화를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당이 화학화의 기초를 조성하는 비날론 공장 건설에 주의를 돌려야 하며 모든 힘을 여기에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나라 과학 일'군들이 연구 사업을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우리 당이 여기에 힘을 집중하여 하나하나 체계 있게 건설하여 나간다고 하면 우리 인민은 아주 부유하게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며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은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화학화의 기초로 되는 비날론 공장의 제 1 계단 공사를 명년 5. 1절까지 끝낸다는 것은 곧 우리가 7개년 계획의 첫해에 사회주의 건설에서 하나의 중요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으로 됩니다.

우리가 이 방대한 공사를 단시일 내에 한다고 하면 조선 사람들이 무슨 허풍이나 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굳게 단결된 우리 인민은 당이 하자고 내세우는 과업을 못 해본 일이 없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특히 정전 후 6~7년 동안의 우리의 복구 건설 력사가 이것을 뚜렷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전 후 벽돌 한 장, 세멘트 한 그람, 철재 하나 없는 빈터에서 복구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함남도에 올 때마다 정전 직후 본궁 화학, 흥남 비료 공장 등에 처음 왔던 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 때의 비료 공장이나 본궁 화학 공장은 여지없이 파괴되여 형태조차 알아 보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그 길로 화학 공업 대학에 찾아 갔습니다. 그 당시 화학 공업 대학 학생들은 다 마사진 집 복도에서 토막 널판자를 깔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공장에 나가서 재'더미 속에서 부속품을 꺼내여 정비도 하고 조사 사업도 하고 설계도 하여 공장 복구에 방조를 주면서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정전 직후에 우리 나라 형편은 이와 같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들, 공장과 기업소들을 이렇게 혹심하게 파괴함으로써 조선 인민을 다시는 일어 서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원쑤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되였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동무들이 다 보는 바와 같이 비료 공장이나 본궁 공장은 일본 사람들이 해놓은 것보다 몇 배나 더 좋은 공장으로 건설되였습니다.

우리는 중공업의 기지도 축성하였고 기계 제작 공업도 창설하였습니다. 수리화를 단시일 내에 기본적으로 완성하자고 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실현하였습니다.

복구와 건설을 많이 하여 전쟁 전보다 경제적 토대가 더 튼튼해지고 생산력이 몇 배로 장성된 오늘 우리는 비날론 공장 건설 사업을 능히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 와서 돌아 보고 동무들의 높은 열의와 건설 성과에 대단히 만족했습니다.

동무들은 이미 많은 일을 해놓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초 공사들이 거의 완성되였고 이제는 건물을 세우고 설비를 설치하면 됩니다. 이것이 다 누구를 막론하고 일편단심 당 주위에 뭉쳐 당이 내세운 비날론 공장 건설을 속한 시일내에 완수함으로써 명년 상반년에 7개년 계획의 첫 고지를 점령하려는 동무들의 열성적 노력의 결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설은 자재를 제때에 생산 보장해 주고 운반해 준다면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습니다. 이 건설 공사에 관계된 공장, 기업소 일'군들은 반드시 필요한 강재, 목재 기타 자재들을 정확히 보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공장에 설치할 기계 설비를 제때에 훌륭히 생산 보장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날론 공장 설비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동무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과거 우리 나라가 락후한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무슨 일 하나 자체로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기관차를 모는 일조차도 조선 사람들이 알가봐 두려워서 조선 사람은 겨우 화부노릇이나 시켰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조선 사람들이 무엇을 자체로 온전히 해볼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해방 후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 밑에 과거에 해보지 못한 일들을 훌륭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민 정권을 수립하고 새로운 사회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며 국가를 훌륭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 많은 현대적 공장과 기업소들을 건설하였고 그것을 다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해본 일이 있는가?

지금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각종 기계 설비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룡성 기계 공장에서 만들어 낸 8메터 타닝반같은 것은 그전에 우리가 이름조차 모르던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이였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날론 공장 설비를 만드는 일이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복잡한 기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고 주저하며 동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일'군들 속에서 신비주의는 거의 없어졌지만 앞으로도 계속 신비주의를 타파하고 모든 것을 다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만 가지고 대담하게 실천한다면 설계도 할 수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또 만들어 낸 것을 갖다가 장치할 수도 있습니다.

동무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설비들을 제때에 생산하되 그것이 설치되여 아무런 지장이 없이 훌륭히 움직일 수 있게 질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생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수 부문에 있는 동무가 아까 토론한 데 의하면 생산된 자재나 설비의 운반 문제에 대해서도 근심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재와 설비가 제때에 보장되는 조건에서 문제는 건설하는 동무들이 짧은 시간 내에 건설하면서도 그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리 승기 박사도 토론한 바와 같이 건설 기간을 단축하며 그 질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건설자들과 과학자들의 력량을 옳게 배합하여 서로 도와 주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처음하는 일인만큼 공사 과정에서는 반복 시공을 하는 일도 혹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시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과학자들과 건설자들, 설계가들이 다 서로 힘을 합하여 모든 공사를 기술적으로 정확히 보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장과 트레스트, 공사에 참가하고 있는 군부대 지도부와 성 기관에서는 조직 사업을 면밀하게 잘 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당면하게 제일 중요한 것은 과동 준비 사업입니다. 겨울은 눈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에도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로동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을 더욱 강화하고 과동에 필요한 후방 공급 사업을 잘 하여야 합니다. 채소 기타 부식물의 보장 준비, 석탄 공급과 주택의 난방 장치 등 일체 과동 준비 사업을 잘 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설 공사에서는 겨울 동안에 지장 없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사전에 모든 작업 조건들을 잘 지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직 사업들을 진행하여 모든 문제들을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난관들을 돌파하고 전체 인민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비날론 공장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명년에 7개년 계획의 첫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지구에서의 방대한 공업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을 더 말하려고 합니다.

함흥과 흥남은 우리 나라에서 화학 공업의 중심 기지입니다. 이 기지를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앞으로 많은 새로운 대책들을 취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화학 공업 기지에 적응한 령도 체계가 수립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보다 더 강유력한 화학 공업을 건설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화학 공업을 지도할 수 있는 령도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당 중앙 위원회에서 토론한 후 적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화학 공업 관리국이나 혹은 화학 공업성을 직접 여기에다 둔다든지 하여 관리 체계를 결정적으로 강화함으로써만 우리 나라 화학 공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전망성 있게 발전시킬 수 있고 강력한 화학 공업 기지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지구에서의 과학 연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리 승기 박사를 비롯한 화학자 및 기술자들과 며칠 동안 담화를 하였는데 그들은 화학자들이 다 흥남에 집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평양에 앉아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화학 공업의 기지에 화학 실험실이나 화학 연구소들을 설치하고 화학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의 연구 사업을 직접 생산과 결부시켜 진행할 수 있는 그들의 진당을 여기에 건설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사업과 생산을 밀접히 결부시키는 것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함흥, 흥남 지구에는 이미 이러한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규모의 화학 공장들이 있고 새로운 공장들이 건설 중에 있고 또한 화학 공업 대학, 동력 대학도 있고 기타 조건들도 다 구비되여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함흥과 흥남은 공화국에서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화학 공업의 중심지로 되여야 하며 이에 적응한 령도 체계와 연구 체계들이 확립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하여야 할 것은 지금 흥남시에서 로동자들에 대한 공급 체계가 잘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남시 인민 위원회의 역할이 대단히 미약합니다.

흥남에는 본궁 화학 공장, 흥남 비료 공장, 룡성 기계 공장, 제련소, 제약 공장 등이 있고 또한 여기에서는 방대한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요업 공장, 가구 공장 등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리하여 흥남과 함흥 지구에는 수 많은 로동자들이 집결되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공장들이 있는 조건하에서 과거와 같이 매개 공장이 자체로 로동자들의 먹을 것도 해결하고 주택도 짓고 생활의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다 돌보아 주려고 한다면 공장의 발전에 지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배인이 공장을 잘 꾸리고 공장의 설비를 더 증강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본 문제에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배추가 몇 포기며 명태가 몇 키로그람인가 하는 생활 문제에 머리를 더 쓰게 됩니다. 물론 궁벽한 산간에 들어 가 있는 광산이나 탄광같은 데서는 이런 일까지 지배인이 다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큰 도시에 있는 공장들에서는 경리 부장이나 지배인이 로동 공급 사업에서 기본적인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시 인민 위원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시 인민 위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민 정권 기관으로서 시내에 있는 로동자, 사무원, 기술자들에게 주택을 보장하며 채소를 공급하며 육류를 공급하며 석탄을 공급하며 유치원, 탁아소, 목욕탕, 리발소 등 봉사 시설들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로동자들의 자제를 교육시키는 교육 기관을 창설하고 운영하는 일들도 해야 하며 극장, 영화관, 도서관 등도 잘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시 인민 위원회에서 이러한 생활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써 로동자들은 안심하고 공장에 나가 일할 수 있고 지배인은 공장의 생산 발전에 주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흥남시 인민 위원회는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흥남시 인민 위원회에서 호구 조사와 주민 등록 사업을 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무엇을 해 놓은 일이 있는가? 로동 공급 사업도 대부분 공장 자체에서 하고 있으며 로동자들의 주택도 다 공장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목욕탕, 리발소 심지어 구급처까지 매개 공장에 설치되여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시 인민 위원회는 시내에 있는 생산 협동 조합이나 지도하는 외에 신통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방대한 공업 도시의 시 인민 위원회가 시 인민 위원회다운 역할을 하자고 하면 과거에 공장이 한두 개 있을 때의 낡은 사업 체계와 방법으로는 안됩니다.

오늘 흥남시에서는 공장이 많아졌고 또 공장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지금 흥남시의 인구는 약 13만 명인데 앞으로 공장들이 계속 건설된다고 하면 수만 명의 인구가 더 증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편에서 만약 흥남 비료 공장이나 본궁 화학 공장 지배인이 로동자들에 대한 식량, 주택, 피복 문제를 맡아 본다면 그는 결국 경리부장의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며 공장 관리 수준의 제고, 생산과 기술의 발전에 관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낡은 식의 시 인민 위원회의 사업 방법은 우리 천리마 시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인민 위원회는 응당 자기 사업을 개편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군 당 사업을 개편할 것을 강서군 당에서 제기하였는데 흥남에 와 보고 이제는 시 인민 위원회 사업들을 새 환경에 맞게 개편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양시 인민 위원회는 금년에 자기 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평양시 인민 위원회에서는 각 공장, 기업소 로동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더 관심을 돌리게 되였으며 시 인민 위원회가 주인이 되여 공장 로동자들의 주택을 건설하며 휴식 조건을 보장해 주고 편의 시설도 보장하여 주게 되였습니다.

흥남시도 평양시와 같이 자기 사업을 개편하지 않고서는 더 전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동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일을 공장 지배인이 하고 호구 조사만 하는 따위의 시 인민 위원회의 사업 체계를 결정적으로 뜯어 고치는 동시에 불합리한 행정 구역 체계도 반드시 개편하여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시 인민 위원회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흥남시와 함흥시를 한 개 시로 합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한 개의 대도시를 만들고 시 인민 위원회가 책임지고 시내 로동자, 사무원들의 모든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비날론 공장 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 우리 나라 화학 공업의 기지를 조성함으로써 화학화를 위한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겠습니다.

나는 함남도 당 단체와 비날론 공장 건설에 동원된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군인들, 그리고 련대적 책임을 진 각 기관, 기업소 일'군들이 최대의 열성을 발휘하여 이 공장 건설을 기한 내에 보장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평화적 조국 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

8.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한 력사적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전 조선 인민 앞에 조국 통일과 민족 번영의 새로운 위대한 강령을 제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조국의 통일 문제에 대하여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과 평화적 통일에 대한 기본 원칙을 다시금 천명하고 새로운 방안들을 제기하였다.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반드시 자주적으로,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자유로운 남북 총 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여야 한다》(김 일성).

조선에서 일체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조국의 통일을 전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외국의 간섭하에서가 아니라 조선 인민이 자주적으로, 강제적 방법으로가 아니라 남북 조선 인민들의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총 선거에 의하여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주장이며 확고 부동한 립장이다.

우리 당은 이 확고한 립장을 항상 견지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가능한 모든 방도를 다 강구하였다.

조선 문제는 조선 사람 자신의 문제이므로 조선 사람 자체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하며 또 해결될 수 있다. 1945년 12월에 모쓰크바 3상 회의에서 조선 문제가 토의 결정되고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였을 때에 벌써 우리 당은 이것을 확고히 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1946년 신년사에서 민주주의 통일 전선 문제, 민주주의 국가 건설 문제가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문제는 결국에 가서 우리 조선 인민 자체에 의하여 해결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공화국 북반부에 민주 기지를 창설하고 이를 조국 통일의 확고한 담보로 만들데 대한 로선도 우리 당의 조국 통일에 대한 문제, 조선 혁명의 기본 문제에 대한 자주적인 립장에서 출발한 것이다. 미제 침략자들이 계속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 앉아서 민족 분렬, 전쟁 도발을 흉모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우리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강화하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이 주체적 력량이 없이는 조국 통일을 주동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강화하는 문제가 선결적으로 요구되였다.

민주 기지 창설 로선의 정당성은 그 후의 사실들이 증명하여 주고 있다. 우리 당의 령도 밑에 북반부 민주 기지가

제대에 창설 강화되지 않았더라면 지난 3년간의 전쟁 시기에 우리 조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였으리라는 것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또 오늘 공화국 북반부의 거대한 사회주의 력량이 없다면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을 그처럼 고무하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 민족이 자기의 운명을 자체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력사적 사실과 현실이 증명해 주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 력사에서 외래 침략을 받은 수난의 시기를 한두 번만 겪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민족은 일치 단결하여 외래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 강토를 수호하였다. 가까운 실례로 일제의 식민지 통치 밑에서 우리 민족의 비운이 극도에 달했을 때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들은 손에 직접 무기를 들고 강대한 적을 상대로 끝끝내 싸워 승리하였고 민족의 영예를 고수하였다.

우리 인민의 슬기로운 지혜와 총명은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남김 없이 발휘되였다. 우리는 일제가 남겨 놓고 간 빈 터전 우에서 훌륭히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새 사회를 건설하였다. 특히 미제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3년간의 가렬한 전쟁을 겪고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이 재'더미로 된 페허 속에서도 락망함이 없이 용감히 일떠 서 오늘의 지상 락원을 건설하여 놓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 인민이 자기 운명을 자체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오늘 조선 인민은 자체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일된 후에 파괴된 남조선 경제를 복구하고 전 조선에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물질적, 정신적 력량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력량이 비상히 장성 강화되고 혁명적 민주 기지가 반석같이 공고화되고 있는 사실이다.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는 결정적으로 승리하였으며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가 튼튼히 구축되였다. 북반부 인민들의 정치 도덕적 통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였다. 오늘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력량의 급속한 장성은 조국 통일의 결정적 담보로 되고 있다.

북반부 인민들의 찬란한 성과에 고무되면서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대중적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이 항쟁의 불'길을 막을 힘은 없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 실현을 더욱더 앞당기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와 평화의 력량이 제국주의 세력을 단연 압도하고 있으며 승승장구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사실도 평화적 통일의 실제적 가능성을 조성하여 주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로선과 원칙이 날이 갈수록 그 정당성이 실증되며 그 실현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그의 주구들은 대세를 거역하고 사태를 외곡하면서 계속 평화적 통일을 방해해 나서고 있다.

리승만 독재 《정권》이 전복된 후 남조선의 반동 지배층은 감히 《북진》을 떠벌리지 못하게 되였으나 《유엔 감시하의 선거》를 주장하면서 조선 문제 해결에 계속 미제를 끌어 들이려고 시도하

고 있다.

미국 침략자들의 감시 밑에서 자기 나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매국 배족한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실지로 지난 기간 남조선에서 《유엔의 감시》하에 진행된 수차례의 《선거》가 어떤 것이였는가를 조선 인민은 잘 알고 있다. 미제는 총칼로 인민들을 선거장으로 내몰았다. 그 어느 선거치고 야만적인 테로와 탄압, 협잡과 공갈로 날조되지 않은 것은 없다. 미제 총칼의 비호 밑에서 진행된 이러한 살인적 《선거》가 어떻게 인민의 민주주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겠는가.

더우기 《유엔》은 조선 전쟁에서 미제의 침략 도구로 직접 리용되였다. 이러한 수치스러운 역할을 수행해 온 《유엔》이 어떻게 조선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유엔 감시하의 선거》란 결국 우리 조국을 영구히 분렬시키고 우리 인민을 미제의 식민지 노예로 만들려는 흉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인민은 이러한 요구를 접수할 수 없다.

남조선의 위정자들은 또한 자유로운 남북 총 선거의 실시는 《용공》으로 되며 《적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접수할 수 없다고 떠들고 있다. 심지어 장면은 경제 교류와 서신 왕래까지 《위험》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리 승만 역도가 《평화 통일》이란 말만 하여도 《용공》이요, 《국시 위반》이요 하면서 검거, 투옥, 학살한 것과 다른 것이 없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운명을 우려한다면 결코 공산주의자들을 두려워할 수 없을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철저한 애국자이며 민족적 리익의 옹호자이다. 과거 일제의 야만적 탄압 속에서 민족의 운명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일제를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15개 성상이나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여 민족의 영예를 고수한 사람들이 바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아니고 누구였던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인민을 새 사회 건설에로 인도하였다. 북반부 인민들은 이미 오래 전에 공산주의 사상을 접수하고 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되였다. 만일 공산주의가 나쁜 것이라면 어떻게 북반부에서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고 인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였겠는가. 사실상 오늘 조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젖혀 놓고는 민족의 통일이란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엄연한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며 인민을 기만하여 민족 분렬을 영구화하고 남조선을 계속 미제의 식민지 통치하에 두려는 흉책밖에는 되지 않는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켜야 한다. 미제 침략군은 우리 민족 분렬의 원흉이며 조국 통일의 가장 큰 장해물이다.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있는 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실현될 수 없으며 남조선 인민들은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즉시 철거시

키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자유로운 남북 조선 총선거를 통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길이란 것은 오늘 누구에게나 명백하며 론박할 여지가 없다.

김 일성 동지는 남조선 당국이 남조선이 다 공산주의화될가 두려워서 아직은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접수할 수 없다면 우선 민족적으로 긴급하게 제기되는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하여 과도적 대책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대책으로서 남북 조선의 련방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것은 남북 간의 접촉과 협상을 보장함으로써 호상 리해와 협조를 가능케 하며 호상 간의 불신임도 제거하여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의 실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파국에 처한 남조선 경제를 수습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남조선 당국이 이러한 련방제 실시까지도 접수하기가 곤난하다면 남북 조선의 실업계 대표들로 구성하는 순전한 경제 위원회라도 조직하여 남북 조선 간의 물자를 교역하며 경제 건설에서 서로 협조할 것을 재차 제의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 간의 문화 교류, 자유로운 래왕과 편지 거래, 남북 조선의 군대 축소 등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며 남조선의 경제를 정상화할 데 대한 것도 거듭 제의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은 우리 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다시금 명백히 보여 주는 것이다.

이 모든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 조선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흉금을 털어 놓고 서로 협의해야 한다. 우리 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나서는 사람이라면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와 손을 맞잡고 나갈 것이란 것을 무차 성명하였다.

오늘 우리 앞에는 조국 통일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열려지고 있다. 이러한 국면 앞에서 조국 통일의 결정적 력량인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8.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결정적 시기로 될 1961~1967년 간 인민 경제 발전 7개년 계획의 장엄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7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총 생산액은 2.5배 이상으로 장성할 것이며 알곡 총 수확고는 1.5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7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1967년 한 해 동안에만 1954년부터 1959년까지의 6년 동안 즉 전후 3개년 계획과 5개년 계획 수행의 전 기간에 걸쳐 생산한 것과 거의 같은 량의 공업 제품이 생산될 것이다. 그때에 가서 우리 나라에서는 한 해 동안에 170억 키로와트시의 전력, 2,300만 톤 이상의 석탄, 250만 톤의 강철, 430만 톤의 세멘트, 150만 톤의 화학 비료, 5억 메터의 직물과 140만 톤의 수산물을 생산하게 된다.

7개년 계획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건설의 웅대한 강령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 국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7개년 계획의 거대한 의의는 무엇보

다도 그것이 우리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비할 바 없이 강화하는데 있다.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비상히 강화함이 없이는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 수 없으며 조선 혁명을 주동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력량은 우리 혁명의 결정적 력량이다. 7개년 계획의 수행은 북반부 민주 기지를 철옹성같이 강화할 것이며 우리 혁명 력량을 비할 바 없이 장성시킬 것이다.

북반부에서의 혁명 력량의 비할 바 없는 장성은 남반부 인민들로 하여금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결정적 구국 투쟁에 나서게 할 것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리 승만 파쑈 독재 《정권》을 전복함으로써 자기들의 투쟁에서 거대한 첫 승리를 쟁취하기는 했으나 아직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지 못했으며 그들의 생활상 요구도 해결하지 못하였다. 남조선 인민들이 완전한 민주주의적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 대중이 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철저한 반제국주의적, 반봉건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남반부 인민들로 하여금 결정적인 반미 투쟁에 나서게 하는 것도 북반부의 사회주의 력량에 달려 있다.

7개년 계획의 수행은 장차 통일된 후 파괴된 남조선의 경제를 복구하고 인민 생활을 개선하는 강력한 물질적 담보로 된다. 우리 혁명 앞에는 조국을 하루 속히 평화적으로 통일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통일된 후 미제에 의하여 파괴된 남조선 경제를 급속히 복구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켜야 할 과업도 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힘을 보다 급속히 증대시켜야 한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7개년 계획은 우리 나라에서 기술 혁명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 기술 혁신을 전개하고 부단한 전진, 부단한 혁신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인공적으로 량단된 우리 나라가 통일될 것은 력사 발전의 필연성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쟁취하여야 한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력량이 더욱더 강화되고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결정적 투쟁에 나설 때에 우리는 미국 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평화적 조국 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김 일성).

오늘 모든 정세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인며 선조선 인민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다. 남북 조선의 전체 인민들은 8.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위대한 강령을 받들고 더욱 용감히 투쟁하자.

우리 당이 계승한 빛나는 혁명 전통의 위대한 생활력

하 앙 천

우리 인민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동지의 령도 밑에 지난 15년 간 우리 조상들이 수천년 동안 걸려서도 하지 못한 일들을 수 많이 하여 놓았으며 조국의 륭성 발전과 후손들의 번영을 위한 백년 대계의 기초를 닦아 놓았다.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력사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락후한 식민지 농업 국가로부터 자립적 경제의 기초를 가진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의하여 나라의 생산력은 급격히 발전되고 있으며 인민 생활은 날로 유족하고 즐거워지며 조선 인민의 유구한 민족 문화는 찬란하게 꽃피고 있다.

실로 조선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과 기적적인 성과들은 형제 국가 인민들과 전 세계 선량한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지어 우리를 반대하는 적들까지도 이 엄연한 사실을 부득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오늘과 같은 자유와 행복을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오래 동안 동경하고 또 이를 위하여 투쟁하였던가! 애국 선렬들이 갈망하던 리상은 오늘에 와서야 실현되였다.

조선 인민은 오늘의 자유와 행복이 우리 당이 계승한 빛나는 혁명 전통이 있음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더욱 똑똑히 인식하고 있다.

* *

맑스-레닌주의 당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레닌은 사회주의가 빈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인류가 달성한 고귀한 유산과 혁명 전통을 기초로 하여서만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력사적으로 형성된 우수한 민족적 유산과 혁명적 전통의 의의를 거부하는 민족 허무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면서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를 거부하고 무슨 밑천으로 혁명을 하겠는가? 이런 것을 다 버리면 우리 인민은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 것으로 된다》(《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329페지)라고 말씀하였다.

혁명 전통은 매개 민족들이 자기 나라의 혁명을 추진시키는 바탕으로 되며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자기 나라 현실에 알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우리 당 규약 제 1조에는 《조선 로동당은 우리 나라의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일본 및 기타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한 조선 인민의 혁명적 전통의 계승자다》라고 명백히 규정되여 있다.

우리 당이 계승한 혁명 전통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형성된 고귀한 혁명적 유산이다. 이 전통은 우리 당의 창건과 강화 발전을 위하여 또는 우리 당이 혁명과 새 사회 건설을 령도하는 투쟁에 있어서 승리의 튼튼한 토대와 밑천으로 되여 왔다.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는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계급적 원쑤들을 항거하여 일어 선 애국적 및 혁명적 투쟁으로서 충만되여 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강점한 이후 일제를 반대하여 식민지 통치 기반에서의 해방을 위한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은 장기간에 걸쳐 끊임 없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조선 인민의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이 민족 해방 투쟁이 백전 백승의 무기—맑스-레닌주의와 결합된 것은 1930년대부터이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진행된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처음으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정확한 로선과 전략 전술에 의하여 진행되게 되였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 이전의 투쟁은 의병 운동이나 독립군 운동이나를 막론하고 모두 민족주의적 립장에서 자연 발생적이며 분산적으로 진행되였다. 10월 혁명 이후 20년대에 우리 나라에서 전개된 각종 투쟁들도 그것이 비록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영향 밑에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고무되면서 진행된 것이기는 하나 진정한 공산주의적 령도 핵심을 가지지 못한 조건하에서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 전략 전술에 의하여 지도되지 못하였으며 혁명적 리론과 실천의 유기적 통일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항일 빨찌산 투쟁 과정에서 형성된 혁명 전통은 선행 시기의 모든 우수한 유산들을 계승하고 사회 발전의 새로운 요구와 혁명 투쟁의 새로운 추세에 적응하게 그를 일층 발전시킴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형성된 혁명 전통은 필승 불패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철두철미 맑스-레닌주의적 전통이며 공산주의자들의 신념과 정열과 지혜와 투쟁의 결정체이며 그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맑스주의 사상에 대한 굳은 신념은 항일 빨찌산들의 량식이였다. 항일 빨찌산 투쟁의 위대한 힘과 생활력은 바로 그가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적 전략 전술에 의하여 지도된 데 있다.

동시에 이 전통은 자체에 고유한 일련의 특성들로 말미암아 더욱 비할 바 없는 위력과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

그 특성은 이 전통이 극히 간고한 투쟁 속에서 형성되였으며 또한 준엄한 시련 속에서 검증된 데 있다. 일반적으로 혁명 전통은 간고한 투쟁 속에서 형성된다. 그러나 이 투쟁은 매개 나라가 처한 환경과 조건, 구체적인 계급적 력량 관계, 투쟁이 진행되는 기간 등 구체적인 실정으로 말미암아 그 간고성에서 일정한 차이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 당이 계승한 혁명 전통은 력사

에서도 보기 드문 장기적이고 간고한 빨찌산 투쟁 속에서 형성되였다. 항일 빨찌산이 상대로 한 적은 수량상 많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야만적이며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 제국주의였다. 항일 빨찌산들은 이러한 적을 상대로 하여 15 여 성상이나 영용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적과의 투쟁에서 항상 승리하였다. 이것은 결코 쉽게 얻어낸 승리가 아니였다.

이와 같은 어려운 투쟁 속에서 형성된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은 어떤 간고한 환경 속에서도 굴할 줄 모르는 필승 불패의 신념을 북돋아 주며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낳게 한다.

다음으로 이 전통은 우리 인민의 탁월한 령도 핵심인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도되고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결합된 자원적 집단—항일 빨찌산에 의하여 형성되였다.

항일 빨찌산 집단의 의식성과 자원성은 언제나 혁명의 신심을 굽히지 않고 온갖 곤난과 애로를 뚫고 나가는 혁명 투사들의 의지의 통일과 굳은 단결의 힘의 원천으로 된다.

다음으로 이 전통은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와 국제주의적 단결의 뉴대에 의거하여 형성되였다. 항일 빨찌산들은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각계 각층 인민의 반일적 진출과 결합되여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혁명 운동의 대중적 지반을 가지게 되였으며 그들은 투쟁의 전 행정을 통하여 쏘련을 무장으로 보위하며 중국 인민과 공동 투쟁을 진행하며 사회주의와 국제 혁명 력량과의 긴밀한 련계 밑에 과감한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항일 빨찌산 투쟁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불가분적 통일의 산 모범으로 된다.

다음으로 이 전통은 자체 속에 혁명에 필요한 고귀하고도 풍부한 모든 경험을 전면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우리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은 당 창건을 위한 조직 사상적인 준비로부터 통일 전선, 인민 정권 형태, 교육 문화 정책, 인민 무력 건설에 이르기까지 일체 문제들에 대하여 리론적으로 완전한 해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들에서의 사업, 조국 광복회와 민족 해방 동맹 등 조직체를 통한 사업 등 항일 무장 투쟁의 전 행정을 통하여 실천에 옮겼으며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창건의 력사로 보아서는 청소함에도 불구하고 혁명 앞에 나서는 어렵고도 복잡한 과업 수행에서 능란하고 솜씨 있는 조직적 수완과 능력을 발휘하는 굳센 당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해방 후에 창건되였으나 빈터에서 창건된 것이 아니라 항일 빨찌산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직접 계승하고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형성되고 검열된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레닌적 령도 핵심에 의하여 창건되였다. 이것이 우리 당의 력사적 근원이며 뿌리다. 해방 후 우리 당은 이 령도 핵심에 의하여 지도되였으며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작성한 로선, 정책과 축적된 경험은 해방 후 새로 조성된 정세에 적응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발전되였다. 항일 민족 통일 전선 사업은 미제와 그 앞잡이 매국노들을 반대하는 조

국 전선 사업으로 확대 강화되였고 인민 정권 형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국가 주권 기관들로서 구현되였다. 항일 빨찌산을 골간으로 하여 조선 인민군이 창건되였고 이 인민 무력이 있음으로 하여 조국 해방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였다. 조국 광복회의 10대 강령은 해방 후 김 일성 동지가 발표한 20개조 정강으로 발전되였으며 이것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의 모체로 되였다.

우리 당이 강한 원인이 바로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전통을 계승한 데 있으며 우리 당의 힘의 원천이 바로 이 뿌리가 튼튼한 데 있다. 1925년에 창건된 조선 공산당을 마사먹은 박 헌영, 최 창익 등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은 해방 후 남조선의 혁명 운동을 파괴하고 북반부의 민주 기지마저 파괴하려고 악랄한 책동을 하였으나 우리 당이 의거하고 있는 이 뿌리와 이 뿌리에 의하여 성장한 대중의 혁명 력량 앞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우리 당은 장기간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인민 대중 속에 깊은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당과 혁명의 원쑤들도 이것을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겁내며 될수만 있으면 이 뿌리를 짓밟으려고 어리석게도 발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원쑤들의 발광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 당의 뿌리는 약화된 것이 아니라 더욱 힘있게 뻗었으며 더욱 그 위력을 과시하였다. 우리 당의 뿌리는 어느 때나 흔들리지 않았고 이 뿌리에서 솟아 나온 가지들은 힘있게 자라났고 잎은 더욱 무성하여졌으며 꽃은 더욱 만발하게 되였다.

우리 당이 계승한 빛나는 혁명 전통은 이처럼 무궁무진한 불패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일 빨찌산들이 이룩하여 놓은 사상 체계, 사업 방법과 사업 작풍 등에 대한 혁명 전통 교양 사업은 우리 당 사상 사업에서 선차적인 과업으로 되여 왔으며 또 되고 있다.

혁명 전통 교양은 우리 당이 자기 주체를 살리며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한 우리 당 사상 사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형성된 혁명 전통은 그 자체가 우리 혁명의 주체적 특성을 철저하게 살린 모범으로 되기 때문에 혁명 전통의 계승 그 자체는 우리 당 사상 사업에서의 주체를 살리는 것이며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지도부의 의도 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당적 사상 체계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 시기 우리 혁명 앞에 제기된 과업에 비추어 우리 당에 의한 혁명 전통 교양은 사상 사업에서의 교조주의, 민족 허무주의적 편향들을 극복함에 있어서 결정적 힘으로 되고 있다.

동시에 우리 당의 혁명 전통 교양은 현 시기 공화국 북반부를 단일한 정치 력량으로 전변시키며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을 남김 없이 당의 붉은 전사로 만드는 공산주의 교양 사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현 시기 우리 당이 추구하고 있는 공산주의 교양의 종국적 목적은 근로자들을 참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하는 데 있다. 그런데 바로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우리는 항일 빨찌산 투사들에게서 본다.

우리 당이 계승한 혁명 전통은 바로 이러한 참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링

성되였으며 바로 공산주의적 사상, 공산주의자의 위대한 행동들의 집중적 발현들이다. 우리 당이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함에 있어서 혁명 전통 교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김 일성 동지는 《왜 우리는 혁명 전통을 계승해야 하는가? 혁명 전통을 계승해야만 선렬들이 과거 혁명 투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신심을 굳게 할 수 있으며 매개 사람들에게 열렬한 애국심과 혁명적 투지를 북돋아 줄 수 있다》(《량강도 당 단체들의 과업》 선집, 제 5권, 1960년도 판, 503페지)라고 교시하였다.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 조국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 사업의 성과적 수행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 *

최근 년간에 우리 당은 정치 사상 사업 전반에 걸쳐 혁명 전통에 대한 교양 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였다.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들 속에서 혁명 전통에 대한 학습과 연구는 일대 사회적 기풍으로 되였다.

우리는 직장 안에서만 아니라 기차와 뻐스칸에서 공원과 유원지에서도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읽기에 여념이 없는 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회상기는 무려 40~50만 부씩이나 발행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점에서는 하루 사이에 다 팔리고 말았다. 평양 견방직 공장 박 봉녀 동무는 회상기를 전부 정통하여 가지고 담화 대상의 특성에 따라 한 대목씩 리용하고 있으며 청산리 문 성숙 작업반에서는 분공 륜독의 방법으로 학습하여 매 개인이 그 내용을 소유하게 한다. 이렇듯 혁명 전통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열의는 비상히 제고되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 간 중국 기자 대표단 동무들은 자기들의 소감을 이렇게 쓰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국토상에서 어디를 가던지 항일 빨찌산 시기의 혁명 가요를 듣게 된다…혁명 가요는 라지오 방송에서도 매일 울려 나오고 있다. 모든 학교들에서 항일 빨찌산 시기의 혁명 가요를 배우고 있다. 우리들이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관람한 몇 개의 공장 및 농업 협동 조합 써클 공연에서도 첫 종목은 모두 항일 빨찌산 시기의 혁명 가요 합창이였다》.

혁명 전통 교양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논 것은 로동당 력사 연구실 운영과 함께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와 그들과의 상봉 모임 등이였다. 또한 혁명 전통을 주제로 한 창작 활동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서광》, 《붉은 기'발 휘날린다》, 《밀림아 이야기하라》, 《불사조》, 《미래를 사랑하라》, 《벗들이여 우리와 함께 가자》 등 작품들의 출판과 공연, 상영을 통한 대중적인 교양은 항일 빨찌산의 정신 세계를 더욱 폭 깊게 인식하게 하였다.

혁명 전통 교양을 통하여 우리의 근로자들은 모두 항일 빨찌산의 혁명 사상과 투쟁 정신으로 무장하며 당과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새 형의 인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되고 있다. 항일 빨찌산들의 매개 영웅들의 형상은 우리의 머리 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그들의 높고 거룩한 정신 세계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불멸의 불'길을 타 오르게 하고 전진할 용기를 북돋

아 주고 있다.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정신과 사업 작풍은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기술, 문화 각 부문에 침투되면서 천지를 뒤집고 세인을 경탄케 하는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 있다.

바로 천리마의 기세로 내닫는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불러 일으킨 1956년 12월 전원 회의 결정의 위력은 우리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된 혁명 전통의 실생활에의 구현의 산물이다. 국제 반동의 반쏘 반공 깜빠니야와 이에 발맞추어 미제의 충복 리 승만 매국 도당의 《북진》 소동이 계속되고 우리 내부에서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의 책동이 감행되고 경제적으로도 곤난한 환경 속에서 우리 당은 대중의 지혜와 력량을 동원하는 군중 로선에 의거하여 곤난을 극복하며 내부 원천을 발동하여 우리 자체의 힘으로 제 1차 5개년 계획을 초과 완수할 방도를 찾았다. 우리 당의 이 방침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룩된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 과업 수행에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창조적으로 주체성 있게 적용할 줄 아는 능숙성, 난관 극복의 강인성, 승리에 대한 확신성과 예견성, 대중을 믿고 대중에 의거하는 혁명가적 사업 작풍 등 고귀한 혁명 사상의 발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항일 빨찌산이 이룩한 혁명 전통이 얼마나 거세찬 힘을 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들에게 고무적 힘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당 정책 관철에서의 천리마 기수들의 높은 자각성과 책임성, 불요불굴의 완강성과 고도의 창의 창발성에서 뚜렷이 찾아볼 수 있다.

1959년 5월 30일 당 중앙 위원회 확대 상무 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에서 첫 봉화를 올린 주을 아마 공장 로동자들은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에 공산주의자들은 손에 한 조각의 쇠부치도 없이 총과 수류탄을 만들어 내였다는데 현재 우리는 공작 기계를 세대씩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왜 공작 기계를 더 만들 수 없겠는가! 하고 궐기한 결과 44대의 각종 공작 기계와 2대의 반 자동화된 용선로를 생산하였으며 아마 직물을 짤 수 있는 완전한 직기와 로뿌 기계를 생산하였다. 룡성 기계 공장 주 성일 영웅은 더 많은 기계와 부속품을 깎아 인민 경제 각 부문에 보내라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실천함에 있어서 곤난에 부닥칠 때마다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연구하는 모임을 가지고 승리에 대한 신심과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리하여 그는 대중의 지혜를 발동하여 100날이 걸려야 한다던 압연기 스텐드를 단 15일 동안에 가공하였으며 우리 나라 기계 공업 발전에 일대 기술적 혁신으로 되는 8메터 타닝반을 제작하였으며 3,000톤 프레스를 제작하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였다. 평양 의학 대학 병원 안과 과장 정 성회 동무는 인민의 의사가 되라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과학적인 환자 치료 사업을 더욱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연구 실험에서 실패하고 애로가 생길 때마다 회상기와 연극 《불사조》 속에 나오는 항일 빨찌산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곤난을 극복하고 계속 인내성 있게 연구 사업을 거듭하였다. 그 결과 끝내 각막 이식 수술에 성공하여 앞 못 보는 환자의 눈을 500 여명이나 눈 뜨게 하여 《현대의 심청》이라는 찬양을 받게 되였다.

황해 제철소의 용광로 복구를 위한 투쟁, 해주-하성 간의 철도 부설 공사,

8.15 해방 15주년을 기념하여 완공된 평양 대극장, 옥류교 건설 등 천리마 기수들이 달성한 기적적 성과들은 우리 근로자들의 당 정책 집행에서의 무한한 충실성을 보여 주었으며 조선 인민의 고도의 애국주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세계에 시위하였다.

이 모든 것은 혁명 전통 학습을 통하여 당과 혁명에 충실하며 무엇이든지 극복 못 할 요새가 없다는 공산주의 투사들의 품성을 배웠으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긴 결과 얻어진 고귀한 열매들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이 발휘하고 있는 불요불굴의 강의성의 특성은 그것이 어떤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일관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과거 우리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들에도 물론 간고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일관한 지속성이 부족하였다. 오직 맑스-레닌주의의 유물 변증법에 철저히 립각한 항일 빨찌산들의 투쟁과 이 투쟁 과정에서 이룩된 혁명 전통을 계승한 오늘의 우리 인민들의 불요불굴의 강의성과 난관 극복의 투쟁만이 끝을 모르며 정체와 약화를 모르는 일관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오늘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혁명성을 보여 주면서 대중의 집체적 지혜와 능력을 발동시켜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여》 적극 로력하는 대중적 영웅주의, 집단적 혁신 운동으로 표현되였다.

천리마 행군에서의 혁명 전통의 위대한 생활력은 이 운동 참가자들이 단순히 생산 계획을 초과 완수하는 데서만 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료원의 불'길과 같이 일어나고 있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비단 이 운동 참가자들을 경제 건설에서의 생산 혁신자로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능숙하고 세련된 관리 일'군, 정치 일'군으로 만들며 당의 군중 로선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개조함으로써 새 형의 공산주의 투사를 육성하는 사회주의 경쟁의 가장 높은 새로운 형태이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위대한 공산주의의 학교》로 되고 있다. 이리하여 이 운동 참가자들은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사는 새 형의 인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평양 제사 공장 길 확실 영웅을 비롯한 천리마 기수들은 모두 당에 의거하여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며 각계 각층 군중을 쟁취하여 교양 개조함으로써 당의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우수한 정치 일'군들이다. 그들은 항일 빨찌산들의 군중 공작 방법인 설복과 교양의 방법을 지침으로 삼고 인민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몸소 모범을 보이며 군중의 실정을 료해하며 아픈 점과 애로를 해결하여 주며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양을 주어 긍정적인 측면을 키우고 부정적인 측면을 퇴치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자유주의 습성이 농후한 고아에게 영화 관람을 통하여 자기 부모가 어떻게 희생되였는가를 회상시켜 점차 그를 각성시켰으며 말 안 듣고 일 안 하고 써클만 좋아하는 동무에게는 써클 사업에 대한 분공을 주고 우점을 발견하여 찬양하여 주는 한편 그의 결함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그를 점

차 개조하였으며, 계모 슬하에 동생을 두고 근심에 쌓여 사업에서 열성을 잃은 동무에게는 계모를 감동시키는 편지를 써서 계모까지 개조함으로써 그의 적극성을 발동시키는 등 《적대 분자를 제외하고는 못 고칠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다. 특히 자기 수입이 낮아지고 곤난이 많은 것을 예견하면서도 자진하여 락후한 작업반에 달려 가서 온갖 애로를 극복하면서 그 반을 선진적 수준에까지 끌어 올리는 이 운동은 공산주의 교양 사업에서 거대한 정치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이룩된 혁명적 군중 공작 방법은 이렇듯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활짝 꽃피고 있다. 특히 청산리와 강서군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에서 산 모범으로 구현된 《청산리 정신》은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심장을 장악하면서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과 인간 의식의 개변에서 위대한 전변을 가져 오고 있다.

항일 빨찌산들의 원칙적 단결과 동지애의 모범은 오늘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의 전체 당원들의 강철같은 통일과 단결에서 집중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이에 있어서 우리 나라 로동 운동을 분렬시키며 각종 파괴적 책동을 감행하던 종파 분자들을 청산하고 1920년대부터 내려오던 종파주의의 력사적 오물을 제거한 것은 가장 큰 성과의 하나이다.

특히 전후 시기에 이르러 농업 협동화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승리적으로 완성되고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동지적 단결은 그의 계급적 기초를 더욱 굳건히 하였다.

오늘 우리의 동지적 단결은 호상 방조와 신뢰, 사랑과 존경으로써 특징되는바 이것이 어디까지나 우리 혁명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투쟁 속에서 발현되고 있다는 데 그의 위력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지금 위대한 생활력을 시위하고 있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바로 《동지 호상간의 우애와 방조를 강화하는 것을 집단 생활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수 많은 천리마 기수들은 《한 홉의 미시'가루》, 《이 총을 받아 주!》, 《돈화의 수림 속에서》 등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에서 참다운 인간 관계의 모범을 찾았다. 추운 겨울에 이동 판매차를 밀고 다니는 동지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제 손으로 장갑과 보선을 기워 준 당의 상업 전사가 있는가 하면 어린 학생을 데리고 모내기에 나가 자기 몸의 아픔과 괴로움을 무릅쓰고 의복과 넥타이를 전부 빨아 주는 붉은 교원이 있고, 일손이 없어서 곤난해 하는 후방 가족에게 물을 길어 주고 나무를 하여 주는 농업 전선의 모범 일'군들이 있는가 하면 앞을 잘 못보는 남편에게 당 정책을 알려 주면서 그 사업을 방조하여 농장 천리마 작업반장까지 되게 한 마음씨 고운 안해가 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눈물 겨운 사실들인가!

* *

해방 후 15년 간 우리 인민이 달성한 성과는 실로 거대하다. 그러나 우리 조국은 아직 통일되지 못하였다.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과업이 제기되고 더욱 힘찬 투쟁이 요구된다.

김 일성 동지가 8.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제시한 7개년 계획의 강령

적 과업과 기술 혁명 과업을 성과 있게 실천하며 조국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새 방안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서는 모든 부문에서 더욱 정력적인 혁명 전통 교양이 필요하다.

공화국 북반부의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을 항일 빨찌산의 사상 체계로 무장시켜 물질-정신적으로 주체적인 력량 준비를 강화하는 한편 남반부의 로동 계급과 전체 애국적인 인민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리해시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에서 가장 철저한 애국자이며 적들의 감옥과 교수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민족의 지조를 지켜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일제 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온갖 난관과 신고를 다 겪으면서도 오직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손에 무기를 들고 15 여 성상이나 괴어린 투쟁을 한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조선 인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면서 그 정체를 은폐하기 위하여 소위 《반공》을 떠들어 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력사와 현실이 똑똑히 증명하여 주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철저한 애국자이며 민족의 리익의 가장 충실한 옹호자일 뿐만 아니라 민주와 자유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가장 철저한 투사들이다. 이것은 오늘 남조선에서 진정 민족의 리익을 위하여 참으로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공산주의자를 반대하고 《용공》을 반대할 아무러한 리유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는 남조선을 강점하고 국토를 량단시켰으며 남조선 인민을 기아와 실업과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은 미제와 그 앞잡이인 소수 매국 도당들이다. 전체 조선 인민의 투쟁의 화살은 여기에 집중되여야 한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혁명 력량이 더욱 강화되고 남조선 로동 계급과 모든 애국 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결정적 투쟁에로 나설 때 미제 침략자는 물러 가게 되고 조국은 평화적으로 통일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국제 국내적으로 보다 유리한 정세에 처하여 있다. 국제 무대에서 사회주의 체계는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남반부에서 인민 항쟁의 불'길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들은 쏘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모든 력량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에 경주하여야 한다.

조국 통일의 위업을 촉진시키며 사회주의의 더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하여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며 이 땅 우에서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공산주의의 위력을 과시하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천리마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세차게 전진하자.

반관료주의 투쟁을 위한 강령적 문헌

(1955년 4월 1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보고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가 가지는 력사적 의의)

김 진 택

조선 로동당이 조선 인민의 믿음직한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옳게 수행함에 있어서 당 사업 방법을 개선하며 일'군들의 사업 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금년 2월에 있은 김 일성 동지의 강서군과 청산리에 대한 지도가 모든 분야에서의 사업에 새로운 활기와 고조를 이룩한 것은 바로 사업 방법과 사업 작풍의 개선이 혁명 발전 전반에 얼마나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는가를 똑똑히 보여 준다.

우리가 만약 사업 방법과 사업 작풍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과소 평가한다면 그것은 혁명 사업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1955년 4월 전원 회의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만일 우리 당과 정권 기관의 일'군들이 당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 그릇된 사업 작풍과 방법으로 하며 광범한 군중을 이 사업에 동원하지 못한다면 우리 당의 정당한 정치적, 조직적 대책들은 모두다 수포로 돌아 가고 말 것이다》(《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239페지).

우리 당은 그의 창건 첫날부터 일'군들의 사업 작풍을 바로잡는 문제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다. 이에 있어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 것은 반관료주의 투쟁이였다.

우리 당에 있어서 반관료주의 투쟁은 심지어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의정에 독립적인 문제로서까지 제기되였다. 이것은 반관료주의 투쟁이 우리 당내에서 얼마나 날카로운 문제로 제기되였는가 하는 것을 말해 준다.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선 우리 당 발전의 특수한 사정과 관련된다.

우리 당은 해방 후에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장기간의 혁명 투쟁에서 검열되고 세련된 공산주의자들을 지도적 핵심으로 하여 창건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인민 대중을 혁명의 승리에로 능숙하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당 창건 초기에 우리 당에는 혁명 사업의 경험을 가진 일'군들이 비교적 적었다. 그런데 우리 당 앞에는 당 대렬의 조직 사상적 강화를 위한 사업과 새 국가 건설을 지도하는 과업이 동시에 제기되였다. 그리하여 당은 혁명 사업의 경험도 없고 정치 실무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적지 않은 일'군들을 당 및 정권 기관과 경제, 문화 기관들에 파견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이러한 사태는 우리의 적지 않은 일'군들

속에서 낡은 사회 지배 계급의 통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부분적이나마 나타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다음으로 우리 당내에서 반관료주의 투쟁이 날카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한때 당의 지도적 위치에 우연히 기여든 반당 종파 분자들이 낡은 행정식 관료주의적 사업 방법을 류포시키고 조장시킨 사실과 관련된다.

본래 우리 당은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적 군중 관점과 인민적 사업 작풍을 계승하였으며 또 이 줄기가 있음으로 하여 비록 당의 력사는 청소하나 총체적으로 인민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를 보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에 잠입한 소수 시정배들은 자기들의 개인적 정치적 야욕을 추구하면서 우리 당이 계승한 혁명 전통 전반을 말살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자기들의 《틀》을 만들어 놓고 썩어 빠진 관료주의적 사업 방식을 적극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혁명적 사업 방법을 소유하지 못한 적지 않은 일'군들이 이것을 본받게 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일'군들의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을 퇴치하는 문제는 당이 대중 속에서 지도적 역할과 선투적 기능을 부단히 제고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군중 로선의 관철을 전 당적인 문제로서 항상 강조하여 왔으며 낡은 사업 방법과 틀을 마스기 위한 결정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력사적인 2월 연설을 비롯한 많은 교시들에서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옳게 인식하며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적 령도 작풍을 체득할 데 대하여 간곡하게 말씀하였다.

관료주의를 청산하고 인민적인 사업 작풍을 확립하는 문제가 결코 하루 아침에 한 개의 깜빠니야로써 해결될 수 없는 것만큼 당과 김 일성 동지는 변천되는 환경과 제기되는 새로운 혁명 과업에 따라 부단히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취하여 왔다.

특히 전후 사회주의 건설에 본격적으로 들어 서는 시기에 우리 당은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반관료주의 투쟁을 가장 긴박한 문제의 하나로서 제기하였다.

그러면 전후 사회주의 건설에 본격적으로 들어 서는 시기에 왜 이 문제를 그와 같이 날카롭게 제기하였는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건설은 기백만 대중의 창조적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대중의 자각적 열성의 비상한 제고를 요구한다. 더우기 전후 시기 극히 어렵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근로 대중의 비상한 정치적 열성과 창발성을 요구하였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 불을 건 동시에 대중의 창발성을 억제하는 관료주의에 대하여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게 되였다.

다시 말하면 당은 전후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인 보장을 위하여 대중의 의식적 활동을 제고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전면적인 반관료주의 투쟁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과업을 제기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견성 있고 능숙한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일대 고조를 불러 일으킨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의 대담하고 현명한 조치들이 빈터에서 실현된 것은 결코 아니다.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과 전 당적인 반관료주의 투쟁을 위한 예견성 있는 조치는 대중의 정치적, 로력적 앙양을 위한 실제적 조건들을 이미 한걸음 한걸음 조성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955년 4월 전원 회의에서의 김 일성 동지의 보고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가 가지는 력사적인 의의는 전후 사회주의 건설의 초기

에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일'군들의 사업 작풍을 바로잡을 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줌으로써 대중과 지도 일'군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킴에 있어서 크게 작용하였다는 데 있다.

보는 바와 같이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일부 일'군들의 그릇된 작풍을 시정할 데 대하여서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일'군들이 사업 작풍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며 그들의 지도 수준을 한층 더 제고할 데 대하여 교시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보고에서 제기한 문제들과 명제들은 당시 즉 사회주의 건설의 초기에서만 깊은 리론 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오늘에 있어서도 그의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반관료주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변천된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게 일'군들의 사업 작풍을 바로잡는 문제는 계속 첨예한 문제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 ❀

반관료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관료주의의 본질에 대하여 옳게 파악해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관료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관료주의—이것은 봉건 제도나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절대 다수의 피압박 인민 대중을 억압하기 위한 지배 계급들의 반인민적 통치 방법이다》(우와 같은 문헌, 239페지).

이 규정은 관료주의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에 대한 가장 결정적 투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된다. 소수 착취자들이 인민 대중을 억압하는 방법은 인민 자신이 정권을 행사하는 우리 제도하에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관료주의는 그 본질에 있어서 우리 제도하에서의 령도 방법과 작풍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제도하에서는 관료주의를 산생할 그 어떤 사회적 근원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 일'군들의 사업에서는 관료주의적 작풍이 종종 발로되는가.

그것은 우리 일부 일'군들이 개인 리기주의, 출세주의, 고용자적 노예 근성 등의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지 못한 데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혁명과 당의 리익이 자기의 리익보다 높다는 것을 실제에 있어서 모르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일'군들의 사업에서 발로되는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을 우선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이라고 지적하였다. 《관료주의는 과거 리조 봉건 제도나 일본 제국주의 통치 제도에서 물려 받은 썩어빠진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이다》(우와 같은 문헌, 241페지).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이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인만큼 이는 하루 이틀 동안에 갑자기 소멸될 수는 도저히 없으며 그를 퇴치하기 위하여서는 봉건 사상 또는 부르죠아 사상을 반대하는 일상적이며 체계적인 사상 투쟁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관료주의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로서 낡은 사상 잔재, 낡은 사업 방법을 반대하는 심각한 사상 투쟁을 제기하였다.

반관료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투쟁과 함께 관료주의 작풍이 나올 수 없게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또한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들은 관료주의의 근원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청산하기 위하여 심각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관료주의를 퇴치할 수 있는 실제적 대책들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248페지).

그러면 이 실제적 대책들이란 무엇인

가.

우선 그것은 정확한 령도 방법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공산주의자들의 령도 방법이란 대중을 교양하여 대중 자신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각적으로 투쟁하도록 하는 것이다. 맑스주의자들은 령도의 정확성 여부를 대중이 얼마나 자각적으로 발동되며 당 주위에 단결하는가 하는 데서 그의 척도를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당적 령도 방법은,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마비시키고 그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발성을 마비시키는 관료주의적 방법과는 도저히 량립될 수 없다.

령도 방법에 대하여 교시하면서 김일성 동지는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시키는 원칙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일반적 지도는 일'군들의 지도 사업에 목적 의식성과 방향을 옳게 잡게 하며 사업에 대한 당의 통일적 지도를 가능하게 하며, 개별적 지도는 해당 지역의 구체적 실정과 대중의 의식 수준에 적응하는 구체적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 지도 사업에서 량자 중 그 어느 것이라도 결핍된다든지 또는 량자가 옳게 배합되지 못한다면 그 지도 사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반적 지도에 개별적 지도를 결합시킴으로써만 당의 결정과 지시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 조건과 대중에게 적합한 투쟁 형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사업의 중심 방향을 명확히 알고 경중을 갈라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249페지).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의 결합은 당적 지도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의 하나이다.

김 일성 동지의 모든 현지 지도가 항상 대중을 새로운 정치적 열성과 로력적 위훈에로 불러 일으키는 요인의 하나는 바로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능숙하게 결합시키는 데있다. 우리 일'군들이 오늘과 같이 자기의 지도 능력과 수준을 현저히 제고 시킬 수 있은 것은 정확한 령도 방법에 대한, 특히는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의 결합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열심히 연구하고 그를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노력한 데 크게 의존된다. 우리는 계속 이 령도 예술을 더욱 심오히 연구하며 부단한 실천 과정을 통하여 이를 구체화하며 세련시켜야 한다.

령도 방법에 대하여 교시하면서 김 일성 동지는 모든 사업의 집행에서 설복과 해설의 방법을 관철시킬 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오직 설복과 해설의 방법만이 지도와 대중을 밀접히 결합하고 대중의 자각적인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게 하며, 대중의 자각적인 투쟁이 있어야만 혁명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의 결합, 설복과 해설의 방법 등이 지도 사업의 성과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되지만 물론 이것이 령도 방법의 전부로는 될 수 없다. 이 원칙과 함께 우리 당 지도부가 항상 능숙하게 실현하였으며 특히 최근 시기에 와서 더욱 강조하고 있는 문제들 즉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 시키는 문제, 중심 고리를 옳게 포착하여 그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는 문제, 집체적 협의제를 강화하는 문제 등등은 모두다 맑스주의적 령도 방법의 불가결의 요소들이다. 이 모든 원칙들을 옳게 소유하고 실천에서 원만히 적용할 때에만 우리는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사회주의 건설과 대중에 대한 지도를 보장할 수 있다.

령도 방법이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다. 혁명 정세의 변천에 따라 령도 방법은 부단히 발전하며 완성될 뿐만 아니라 혁명 과업의 성격에 따라 령도 방법의 이러저러한 측면들이 더욱 완성되며 더 중요하게 전면에 나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

술한 제 원칙들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부차적이라고 일반적으로 단언할 수도 없으며 또 단언해서는 안 된다. 가령 1955년 4월 전원 회의 당시 김 일성 동지는 령도 방법 일반에 대하여 교시하면서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의 원칙을 특별히 강조하였다면 최근 변천된 환경에서 중심 고리 포착에 대한 문제, 정치 사업 선행에 대한 문제를 더욱 강조하였으며 또 이런 측면들을 통하여 당의 령도 방법을 새로운 수준에로 제고시켰던 것이다. 우리의 과업은 우리 당 지도부가 발전시키고 있는 령도 방법의 제 측면들 특히 군중 공작 방법의 산 모범인 《청산리 사업 방법》을 전면적으로 연구 체득하며 그것을 구체적 혁명 과업 해결과 밀접히 결부시키면서 더욱 심화시키는 데 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의 결합의 원칙이 오늘에 와서 그의 의의를 상실하였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 원칙은 상술한 바와 같이 어느 때 어느 곳에 있어서든지 지도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준수되여야 한다.

다음으로 김 일성 동지는 관료주의를 반대하며 일'군들의 사업 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실제적 조치로서 일'군들에 대한 계급 교양을 강화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원래 작풍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군들의 성격상 문제 또는 능력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일'군들의 세계관, 사상 관점 또는 당적 사상 체계와 관련되여 있는 것이다. 옳바른 사상 관점이 서지 않고 당적 사상 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일'군들에게서 우리는 인민적 사업 작풍은 기대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옳은 계급적 립장, 당적 립장에 서는 것—이것이 바로 인민적 사업 작풍을 소유하는 전제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지난 시기의 경험은 일부 일'군들이 그릇된 사업 작풍을 발로시키는 원인이 적지 않은 경우에 그들이 우선 옳은 사상 관점, 당적 립장에 서지 못한 데 기인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의 적지 않은 일'군들이 그릇된 사업 작풍을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리유의 하나는 그들이… 혁명적 원칙, 로동 계급의 립장에 튼튼히 서지 못한 데 있다》(우와 같은 문헌, 250페지).

그렇기 때문에 반인민적인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과 기타의 모든 그릇된 사업 작풍을 퇴치하고, 인민적 사업 작풍을 체득하기 위하여서는 프로레타리아적 세계관으로 더욱 확고히 자기를 무장하며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기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바로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우리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에서 사소한 편향과도 타협하지 않으며 항상 모든 사업을 혁명의 관점에서, 당과 인민의 리익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품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251페지).

이 문제는 4월 전원 회의 당시에만 날카롭게 제기된 것이 아니라 오늘에 있어서도 계속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적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우리는 계속 이 방면에서 노력해야 하며 투쟁해야 한다.

또한 김 일성 동지는 관료주의를 퇴치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로서 집체적 지도 원칙을 강화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집체적 지도는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에서 개인의 주관적 독단을 방지함으로써 문제 처리에서의 일면성과 우연성을 극복하고 문제의 옳바른 해결을 보장한다. 만약 우리 일'군들이 사업 집행에서 다수의 의견과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집체적 지혜에 충분히 의거한다면 관료주의의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집체적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당과 국가의 각급 지도 기관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다》(우와 같은 문헌, 252페지)라고 교시하였다. 이 교시는 사회주의 건설이 급속히 진척되고 우리 앞에 복잡하고 방대한 과업이 제기됨에 따라 더욱더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당 중앙 위원회는 최근 시기 국가 및 경제 문화 기관들에서 당 위원회의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취하였다. 례하면 국가 기관 및 경제 문화 기관 등 모든 기관들에서 당 위원회가 최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데 대한 사업 체제를 확립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관주의와 관료주의를 방지하며 당의 정책과 로선을 더욱 성과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된다.

끝으로 김 일성 동지는 관료주의를 퇴치하며 옳바른 사업 작풍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군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일'군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문제는 오늘 새로운 각도에서 즉 새로운 방대한 혁명 과업이 제기된 조건에서 더욱 긴절하게 제기된다.

원래 우리의 적지 않은 일'군들은 해방 후부터 처음 혁명 사업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그의 정치 리론적 수준이 높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높이는 사업은 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으며 또 옳바른 사업 작풍을 수립하는 것도 이와 많이 관련되여 있다.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 우리의 많은 일'군들은 정치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아직 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 리론 수준과 실무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양과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그들에게 정확한 사업 방법을 가르쳐 주는 문제는 우리 당 앞에 제기된 중요한 과업이다》(우와 같은 문헌, 253페지).

4월 전원 회의에서 제기한 과업을 실천하는 투쟁을 통하여 오늘에 와서는 우리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그러나 새로운 혁명 과업이 계속 제기되며 당의 요구 수준도 계속 높아지는 조건에서 우리는 자만할 하등의 근거도 없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사업 수준이 혁명 과업과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적지 않게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시기에 와서 특히 작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전 당이 학습하며 전체 당원들과 특히 일'군들의 지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업은 계속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월 전원 회의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보고는 전원 회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군들의 사업 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심오하고 전면적인 교시로 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들의 지도 방법과 사업 작풍을 개선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헌으로 된다.

* *

1955년 4월 전원 회의가 있은 이후 우리 당은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은 대중에 대한 지도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고귀한 경험들을 축적하였다. 그리하여 김 일성 동지는 그 이후의 수 많은 로작들에서 당의 풍부한 실천적 활동의 경험에 기초하여 4월 전원 회의에서 제기한 기본 사상들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풍부화시켰다.

특히 청산리와 강서군에서의 교시는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령도 방법의 견지에서 본 이 지도의 의의는 우선 새로운 변천된 조건 즉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고 생산력이 계속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제반 협동 경리의 규모가 커진 환경에 적응하는 사업 체제와 령도 방법을 전면적으로 교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그의 산 모범을 실천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데 있다.

우리는 이 교시에 포함된 중요한 사상을 통하여 우리의 지도 수준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김 일성 동지가 몸소 보여 주신 령도 예술에서 무한히 귀중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는 인차 우리 당원들과 일'군들의 사업에서 거대한 전변을 일으켰으며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건설 전반에서 거대한 동원적 역할을 놀았던 것이다.

우선 김 일성 동지는 변천된 새로운 환경에서 생산력을 어떻게 계속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였다.

이와 함께 청산리와 강서군에서 김 일성 동지는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는 원칙에서 어떻게 매개 당 단체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빠짐 없이 발동시킬 것인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낡은 사업 체제와 형식주의와 교조주의 사업 방식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가,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교시를 주었다. 이 교시는 현재 우리 나라의 모든 사업 단위에서 대담하게 낡은 사업 체제를 개편하며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사업 작풍을 한 계단 올려 세우기 위한 명확한 지침으로 되고 있다.

그런데 이 교시에 포함된 심오한 내용을 정확하게 체득하기 위하여서는 당 건설과 당적 령도에 관한 그 이전 시기의 로작들, 특수하게는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를 함께 연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당과 수령이 당적 령도 방법을 어떻게 부단히 완성시켜 왔는가를 력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우리 당의 령도에서 이룩된 력사적 경험으로 무장됨으로써만 청산리와 강서군에서의 교시를 깊이 체득하며 이를 실생활에 성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더우기 청산리와 강서군에서의 일련의 교시들은 이미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에서 제시한 사상을 변천된 환경에 적응하게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청산리와 강서군에서의 교시는 4월 전원 회의에서의 교시의 연장이며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 당 지도부가 당적 령도를 완성시키기에 얼마나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저작들과 함께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를 오늘의 실천적 견지에서 더욱 심오히 연구해야 한다.

농촌 경리 부문에서 기계화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 달 선

우리 당 중앙 위원회 8월 확대 전원 회의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데 대한 력사적 과업을 제기하면서 오늘 우리 나라 기술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농촌 경리의 기계화라고 규정하였다.

과거 식민지 농업 국가였던 우리 나라에서 기술적으로 제일 락후한 부문이 바로 농촌 경리였다. 우리 농업에서는 과거 손 로동이 전적으로 지배하고 극도로 유치한 소농 기구들이 사용되고 있었던 관계로 우리 당에 의하여 수리화 및 전기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고 기계화에서 큰 전진이 있은 오늘에 와서도 손 로동이 가장 많이 남게 되였다. 기술 혁명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문이 바로 농촌 경리이며 오늘 농촌 경리 부문에서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심 고리는 농촌 경리를 기계화하는 것이다.

기계화는 착취와 압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우리 농민을 고되고 힘겨운 로동으로부터 다시 한 번 해방함으로써 로동을 흥겹고 능률적인 것으로 되게 하며 손 로동을 기계 로동으로 대치시킴으로써 그들의 사상 의식의 개변을 촉진시킨다. 이리하여 기계화는 우리 농민을 진정으로 문명한 사회주의 근로자로 되게 한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는 나라의 공업화를 위하여 많은 인원을 내보낸 농촌의 긴장된 로력 사정을 풀며 논밭 2모작을 실시하고 토지의 리용률을 높이며 알곡을 위주로 하면서 농촌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농산물의 급격한 증대를 가져 오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그것은 우리 농촌을 풍족한 식량, 기름, 채소, 고기 생산의 튼튼한 기지로 되게 함으로써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위한 현실적 토대를 구축하게 한다.

농촌 경리를 기계화함으로써만 농업 생산력을 새로운 기술 토대 우에서 급격히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것을 한 계단 더 높이고 공업과 농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며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완전한 승리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오래 전부터 예견성 있게 농촌 경리를 기계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하여 왔으며 금년부터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이미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농기계 공장도 없었으며 또 농업 협동 경리도 없었던 전쟁 전 시기에 벌써 우리

당은 국가 소유인 뜨락또르와 현대적 대농기계를 개인 농민 경리가 지배하던 우리 농촌에 도입하였다. 그것은 부농들의 착취로부터 빈농민을 옹호하며 농민들에게 기계화된 대규모 경리의 우월성을 과시하였으며 농촌에서 협동화의 전제를 준비하였다. 전후 시기 농기계 작업소 망의 계속되는 확장은 협동화의 완성을 촉진시켰으며 농업 협동 조합들의 통합은 또한 농업 기계화를 위한 더욱 광활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었다.

오늘 농업의 기계화는 농업 기술 혁명의 통일적 과업의 완성으로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게 되였다. 농업 기술 혁명의 첫 단계에서 기본 고리였던 수리화는 그 방대하고 힘든 공사들을 기계화하지 않고서는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없었으며 수리화의 실현은 농업 기계화를 위한 유리한 포전 및 작물 배치 조건들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기계화의 실현을 촉진하였다. 전기화 역시 기계화의 힘에 의하여 추진되면서 기계화를 위한 유리한 동력 원천을 조성하여 주었다.

농업 협동화의 완성과 거의 때를 같이 하여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도 완성됨으로써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된 유리한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보다 높은 대고조가 일어났으며 바로 이 대고조 속에서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하에 수리화 및 전기화가 결정적으로 승리하였고 기계화에 주요한 력량을 집중할 수 있었다. 더우기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가 제시한 방침에 의하여 특히 력량을 집중한 황해남도와 평안남도에서는 기경 작업과 수송 작업이 기본적으로 기계화되였다. 이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는 앞으로 최단 기간 내에 산간 벽지에 이르기까지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지게 되였으며 그것을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기술 혁신 운동의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서 전개할 수 있게 되였다.

해방 후 우리 나라에서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위한 물질적 토대가 전혀 없었던 빈터로부터 또한 전대미문의 파괴적인 3년 간의 전쟁을 겪은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불과 몇 해 동안에 이와 같이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 서게 된 것은 전후 우리 당 경제 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며 또 이는 농촌 경리의 기계화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전적으로 정확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준다.

우리 당은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방침을 규정함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의 지대적 특성 및 기후 조건과 그에 따르는 영농 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으며 다른 편으로는 우리 나라 농기계 공업 발전의 수준을 옳게 타산하였다. 그리하여 기계화하여야 할 지대 및 작업에 대하여서는 평야 대로부터 점차 산간 지대에로 이행하며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으로부터 점차 종합적 기계화에로 이행하는 방향과 기계화 수단의 동원 및 리용에 있어서는 대기계와 중소 기계, 현대적 기계화와 간단한 소기계화를 결합시키는 방향을 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왔다. 이것은 기계화 대상에 비하여 기계화 수단이 부족한 조건, 특히 아직 소형 뜨락또르가 대량 생산되지 못하였

던 조건하에서 최단 기간 내에 기계화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유일하게 옳은 방침이였다.

그러나 금년도 완충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천 대의 중형 뜨락또르를 비롯한 수만 대의 련결 농기계를 생산하여 농촌에 공급한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이 오늘 소형 뜨락또르도 대량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된 사정과 또 한편 황해남도 및 평안남도에서의 기계화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은 소형 뜨락또르를 광범히 도입한다면 산간 지대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작업을 기계화할 수 있으며 산간 벽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촌에서 기계화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8월 확대 전원 회의는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평지대와 산간 지대에서 동시에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할 데 대한 방침을 규정하였다.

이 새로운 방침에 근거하여 1963년까지 중형 뜨락또르는 2만 대, 5~15마력짜리 소형 뜨락또르는 3~4만 대 생산 공급하며 화물 자동차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이에 따르는 각종 련결 농기계 및 탈곡기, 사료 분쇄기, 양수기, 전동기 등을 대량적으로 생산 공급한다면 경지 100정보당 뜨락또르는(15마력으로 환산하여) 2대에 달하게 되며 중요한 영농 작업을 거의 다 기계 동력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농촌에서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된다.

8월 확대 전원 회의가 명시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농촌 경리가 가지고 있는 락후성의 마지막 근원을 뿌리 빼는 이 혁명 과업을 가까운 년간에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업은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뜨락또르, 화물 자동차 및 각종 농기계들을 제때에 질적으로 생산 보장하는 문제이며, 다음으로는 뜨락또르와 기타 농기계들을 옳게 리용하며 그 사용 년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공고한 수리 기지를 창설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촌 기술 혁명의 거점인 농기계 작업소들의 역할을 한층 더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 *

농촌 기계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뜨락또르 및 각종 련결 농기계들과 화물 자동차를 대량적으로 생산 공급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그의 질과 시기성을 보장하는 문제이다. 농기계 생산에서 량과 질과 시기성은 다 같이 선차적으로 해결되여야 할 문제들이다.

그런데 농촌 기계화의 속도, 범위 및 기계의 질 등은 전적으로 공업 특히 기계 제작 공업의 발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전원 회의가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농기계 공장들에서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며 농기계 사용자들과의 련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보다 정밀하고 쓸모 있는 기계들을 생산하는 것은 농촌 기계화의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이와 함께 전원 회의는 농기계 생산에서 중앙 공장들은 뜨락또르, 화물 자동차 등 현대적 농기계들을 생산하며 각 도 농기계 공장들은 간단한 농기계들과 축산 기계들을 생산하며 군 농기계 공장들은 축력 농기계들과 소농기구

들을 생산하는 방향에서 전문화할 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농기계 공장들의 현존 기술 토대에서 농기계 생산을 질량적으로 적시에 보장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침이다.

현 시기 중앙 공장들에서 뜨락또르, 화물 자동차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존 생산 능력을 현저히 확장하는 동시에 이 부문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 데 있다. 지난 시기 이 분야에서 기술 장비가 계속 강화되였고 거보의 기술적 전진이 이루어졌으며 완충기의 과업 수행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 부문에서 생산의 기계화 및 자동화 수준은 아직 낮은 상태에 있는바 특히 조립 부문과 소재 생산 부문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조립 및 소재 생산 부문에서 기계화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특히 선진 주조 방법과 프레스 작업의 비중을 높이며 기계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된 가공 부문에서는 자동화에로의 이행이 당면 문제로 제기된다.

기본 생산 부문에서의 기술 혁신의 촉진은 보조 생산 부문의 기계화 수준을 급격히 제고할 것을 또한 요구하며 대량 생산을 위한 흐름식 운반 체계의 확립을 절실히 요구하게 된다.

현 시기 뜨락또르 및 자동차 생산의 증대를 보장하며 그의 질을 제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비의 하나는 생산 조직을 한층 개선하며 생산의 정상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금년 상반년 기간에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에서는 률동성이 보장되지 못하였는바 이것은 생산 계획을 량 및 질적으로 수행함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생산의 률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기업소에서 매개 직장들 간의 생산 능력을 옳게 타산하며 소재 생산을 가공에 선행시키고 중간 조립품들의 균형을 보장하여야 하며 매개 직장들에서는 작업 대상을 기술 공정 및 품종별로 고착시키며 기업소 내부 전문화를 촉진함으로써 해당 직장 단위별로 중간 조립품을 완성하는 등 기업소 생산 조직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뜨락또르 및 화물 자동차 공장들과 협동 생산을 하고 있는 모든 공장들에서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질량적으로 보장된 협동 생산품을 제때에 생산 공급하는 것은 농기계 생산의 정상성을 보장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문제이다.

앞으로 일정한 생산적 경험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공장들과 계속 협동 생산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뜨락또르, 자동차 공장들은 일반적 금속 가공품에 대하여서는 자체 생산의 비중을 부단히 제고하여야 한다.

당은 대형 및 중형 뜨락또르와 함께 산간 지대의 작은 포전들에서와 일반적으로는 논 작업 및 과수, 채소 재배 등에 유리한 소형 뜨락또르를 옳게 배합 리용하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평지대에서 뿐만 아니라 산간 지대에서도 동시에 여러 종류의 작업을 기계화할 수 있고 기계화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다.

소형 뜨락또르 공장 건설을 촉진시키며 그의 대량 생산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설계의 표준화와 부속품의 규격화를 광범히 도입하여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의 력량을 집중적으

로 조직 동원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조성하며 협동화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있다.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의 급격한 증대에 따라 련결 농기계에 대한 요구는 더욱 절실하게 제기된다. 련결 농기계 생산에는 현재 우리의 거의 모든 기계 공장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앙 기계 공장들이 기본 과제 이외에 복잡한 련결 농기계 생산을 점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매개 기업소들에서 련결 농기계 생산을 위한 직장, 직구들을 신설하고 그 기술 토대를 강화하며 농기계 생산과 기타 생산 지표 수행을 옳게 결합시킬 수 있는 계렬 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서는 매개 기업소 및 이 부문 지도 기관들에서의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 소 농기계 생산의 급격한 증대와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도 및 시, 군에 있는 지방 공업 기업소들의 생산 설비들을 더욱 정비하고 그에 농기계 생산 품종들을 되도록 고착시키며 농기계 및 부분품, 부속품들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광범히 실시하며 설계 사업을 생산에 선행시킬 뿐만 아니라 그에 더욱 접근시키며 생산 조직과 공급 사업의 계획화 수준을 현저히 제고할 것이 요구된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실현할 데 대한 완충기의 중심 과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뜨락또르, 자동차를 비롯한 련결 농기계, 중 소 농기계들이 대량적으로 농촌에 공급됨으로써 그의 품종과 량은 급격히 증가되였으며 또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 예견된다. 이에 따라 그것들을 옳게 리용하며 사용 년한을 연장시키기 위한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는바 이것은 수리 기지의 창설 강화를 절실하게 요구한다. 뜨락또르 수리 능력을 확대 강화하며 농기계 작업소들과 국가 농목장들의 수리 설비를 더욱 확장할 뿐만 아니라 지방 공장들과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도 일정한 소농기계 수리 시설을 갖추게 함으로써 농기계의 수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원 회의는 이러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사리원 뜨락또르 수리 공장의 능력을 2배로 확장하며 건설 중에 있는 함흥 뜨락또르 수리 공장의 조업을 금년내에 개시하도록 하며 각 도에 점차 수리 공장의 건설을 예견하는 등 농기계의 수리 능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거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뜨락또르 수리를 제때에 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뜨락또르 부속품의 40%를 차지하는 규격품 생산을 높은 정밀도에 기초하여 중앙 기계 제작 공장들에서 생산하며 각 도 지방 공장은 일반 부속품을 생산하는 문제가 또한 절실하게 나선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공급된 뜨락또르, 련결 농기계 등 현대적 기계 기술들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현대적 기계 기술이 국가 소유로서 농기계 작업소에 집중되여 있는 우리 조건하에서 농기계들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농촌 기술 혁명의 거점인 농기계 작업소들의 역할을 한층 제고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선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제고하는 데

있다.

뜨락또르 가동률의 제고는 뜨락또르 대당 년간 작업량의 증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량의 작업을 기계화함에 소요되는 뜨락또르 대수의 감소를 의미하며 막대한 사회적 로동의 절약을 의미한다. 그것은 뜨락또르에 따르는 련결 농기계의 소요 대수, 수리소의 건설 및 설비를 위한 비용을 축소하며 뜨락또르 및 농기계 보관을 위한 건설 비용과 소요 간부수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지난 상반년 간의 우리 농기계 작업소들에서 뜨락또르의 계획 가동률은 아직 85%에 도달하지 못하고 78.6%에 불과하였다. 뜨락또르들이 뜨락또르 운전수들에게 인도되기 전에 벌써 년간 재적 대수의 26.19%는 정차하고 있었는바 그 중 뜨락또르의 주기적 정비에 의한 정차가 년간 재적 대수의 12%를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나머지 14.19%는 뜨락또르가 작업에 동원되기 전에 벌써 정차하고 있었던 것으로 된다. 이것은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 지도 일'군들이 특히 사업 조직을 잘 하고 책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현 시기 농기계 작업소들에서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되여야 할 문제는 정차의 분포와 원인을 매개 환절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 부서, 작업소, 운전수들의 정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원인별로 그 퇴치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다. 즉 관리 일'군들은 뜨락또르들을 재적 대수가 모두 가동할 수 있도록 제때에 부속품을 해결하여 주고 수리를 견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운전수들은 기술 정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당이 요구하는 85% 이상으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가동률 제고를 위하여서는 또한 뜨락또르 운전수들로 하여금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높이도록 물질적 자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원 회의는 뜨락또르 작업의 량에만 치중하고 질을 홀시하는 경향과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특히 강조하였는바 이에 있어서도 역시 작업소의 역할을 높이는 동시에 작업반 및 분조, 매개 운전수에 이르기까지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련결 농기계들에 대한 기술 정비를 실속 있게 하기 위한 대책에 심중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농기계 작업소들에서 기계화 작업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뜨락또르 작업반의 옳은 조직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난 해의 황해남도 농기계 작업소들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와 청산리 당 총회에 대한 현지 지도가 있은 후 뜨락또르 작업반 사업에서는 근본적 개편이 있었으며 현저한 개선이 있었다. 그리하여 현재는 동일 작업소 내에서도 군내의 구체적 지대 조건에 따라 뜨락또르 작업반들의 규모가 합리적으로 규정되였으며 작업반장의 조직 지도 기능이 높아졌고 기술 지도원이 계획적으로 순회 지도를 할 수 있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수들에 대한 정치 교양 사업을 위하여서도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였다. 특히 황해남도와 평안남도의 평지대에서는 이미 중형 이상의 뜨락또르는 소정 대수가 충분히 돌

어 간 곳이 적지 않으며 뜨락또르 작업반의 분조와 조합 간의 관계에서 현저한 전진이 있었다. 온천 농기계 작업소의 뜨락또르 작업반의 분조들은 조합에 자체 기술 기지를 가졌으며 생활 근거를 잡고 조합 생산에 깊이 침투함으로써 현저한 성과를 올렸다. 이 경험은 다른 모든 작업소들에서도 급속히 보급되여야 할 것이다.

현 시기 우리 당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농기계 작업소들의 역할을 한층 더 높임에 있어서 독립 채산제의 도입은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작업소들로 하여금 뜨락또르의 작업 원가의 저하를 위하여 투쟁할 필요를 환기시키고 절약 제도를 강화하게 한다.

이에 있어서 앞으로 점차 작업반 내부 채산제에로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내부 결제 가격의 제정을 더욱 과학적 원칙에서 개선하여 나가는 것은 작업소 독립 채산제 강화의 중요 조건으로 된다. 이에 기초하여 작업 원가를 부단히 저하하며 수익성을 높이도록 작업소 일'군들의 역할을 제고하여야 한다.

농기계 작업소들에서 뜨락또르 작업 원가를 저하할 수 있는 결정적 예비는 원가의 57.1%를 차지하는 유류비의 절약에 있다. 유류 랑비와의 투쟁—여기에 최대의 예비가 있는 것이다.

농기계 작업소들에서 사회주의적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더우기 기계 설비 등 재산 관리에서 질서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격한 규률을 적용하는 것은 현 시기 농기계 작업소들에서의 모든 사업 성과의 출발점으로 된다.

농기계 작업소들이 사회주의적 제도와 질서를 강화하고 기계화 작업을 원만히 보장하여 농민들에게 생산적 리익을 줌으로써만 그것은 조합 생산에 대한 조직자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능히 다할 수 있으며 농민들에 대한 로동 계급의 영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적극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미 있는 현대적 기계화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농기계들을 창안 제작해야 하며 농기계의 합리적 리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 연구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소농기구들을 적극 개량하여 작업 능률을 현저히 높일 데 대하여 심중한 관심을 돌리는 문제가 중요하다.

농기계 생산, 리용 및 수리 부문에서 일하는 전체 일'군들은 자체의 기술 기능 수준을 계속 높이며 농촌 청년들은 당의 부름에 따라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함으로써 누구나자 다 과거에 소를 몰던 것처럼 뜨락또르를 자유자재로 운전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 시기 농촌 기계화의 의의를 옳게 인식하고 기계화를 위한 투쟁에 적 군중적으로 동원될 때 8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은 철저히 관철될 것이며 농촌에서 기술 혁명 과업은 성과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기계화의 촉진은 지방 공업 발전의 결정적 담보

남 인 호

당 중앙 위원회 8월 확대 전원 회의는 우리 나라 지방 공업 발전을 위한 가장 절박하고도 성숙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지방 공업 부문에서 2~3년 내에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6월 전원 회의 결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 지방 공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황해북도에 있어서도 6월 전원 회의 이후 각지에서 우후죽순처럼 공장들이 일떠 섰으며 현재 매개 시, 군들은 평균 12개의 공장들을 가지게 되였다. 지방 공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수(가내 공업반까지 포함)는 도'적으로 2만 6,000명 이상에 달한다.

우리 도 지방 공업의 총 생산액은 1949년에 비하여 13.7배로 장성하였는바 이것은 1949년 1년 동안에 생산하였던 것을 불과 25일 간에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월 전원 회의 직전인 1958년 상반년에 비하여도 금년 상반년 공업 생산액은 2.7배에 달한다.

이 결과 우리의 지방 공업은 도내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소비품들의 수요를 많은 부문에서 도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시킬 수 있게 되였다.

농촌 경리를 기계화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도 뜨락또르, 자동차 등과 일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내 기계 공장들에서 능히 생산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축성하게 되였다.

이와 같은 커다란 성과는 큰 국가 투자 없이 지방에 잠재하고 있던 예비를 탐구 동원함으로써 달성한 것이다. 이것은 대 중 소 공업을 병진시킬 데 대한 우리 당 경공업 정책의 빛나는 승리로 된다.

지방 공업 분야에서 달성된 성과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 당이 제시한 7개년 계획의 웅대한 강령적 전망 과업 특히 최단 기간 내에 인민 생활 필수품을 유족하게 생산하며 산간 벽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촌에서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할 데 대한 과업에 비추어 볼 때에는 그것은 아직 불만족한 형편에 처하여 있다.

우리 당은 계속 인민 소비품 생산 분야에서 대규모적 중앙 공업과 함께 전국 각지에 산재하여 있고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다양한 원료를 가공하는 중 소 규모의 지방 공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인민 생활을 더욱 급속히 향상시킬 것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대규모 중앙 공업이 새로운 기술 토대 우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을 때 지방 공업이 계속 락후한 수공업적 기술 토대 우에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 당의 이 방침은 성과적으로 관철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계화를 촉진하는 것은 전국 각지에 살고 있는 근로자들의 다종다양하고 부단히 변화하는 일상적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결정적 조건으로 된다.

또한 우리 당은 현 시기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상응하게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착취로부터 해방된 근로자들을 힘들고 고된 로동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시킬 것을 가장 기본적인 혁명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금년에 벌써 우리 나라 공업 총 생산액에서 40%, 소비재 생산에서 5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지방 공업은 아직 다른 그 어느 부문보다도 락후한 수공업적 기술에 토대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방 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현대적 기술과 함께 수공업적 기술도 리용하였기 때문에 단숨에 수 많은 공장들을 건설하고 인민 경제 발전에 큰 리익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 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기계화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였으며 우리 지방 공업에서도 락후한 수공업적 생산 방법을 현대적 방법으로 대담하게 교체할 때가 왔다.

지방 공업의 기술적 락후성을 급속히 퇴치함으로써만 우리 나라 기술 혁명의 전반적 과정과 사회주의 건설의 완전한 승리가 촉진될 것이다.

지방 공업의 기계화는 지방 공업 자체 발전 과정의 일련의 구체적 사정들에 의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즉 지방 공업에서의 기계화가 없이는 지방 원료 원천을 리용하여 생산량을 더욱 장성시키며 제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 경제에 막대한 리익을 주어야 할 지방 공업의 사명을 충분히 다할 수 없다.

우선 지방의 풍부한 원료 원천을 남김 없이 동원하여 이를 잘 가공함으로써 더 많고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생산 공정을 기계화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지방 공업을 지방 원료 원천에 확고히 기초하여 발전시킬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실 우리 나라 각지에는 농촌 경리 부문에서 생산되는 원료들, 산간의 야생 원료 원천들, 대규모 중앙 기업소의 부산물과 페설물들, 회수하여 재생 가공할 수 있는 고자재 원천들 등 각종 많은 지방 원료 원천들이 있다. 이것들을 수집 리용하는 것은 사회적 부의 원천을 추가적으로 얻는 것으로 되며 인민 생활 향상에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우리의 산과 들에는 도토리, 밤, 딸기, 다래, 멀구, 돌배 등 산과실들이 풍부하며 초물 제품, 기류 제품 원료들도 많다.

황해북도의 실례만 보아도 금년에 우리는 도토리는 1만 톤 이상, 밤은 3,500톤 이상, 다래, 멀구, 돌배를 비롯한 각종 야생 과실류는 2,500톤 이상 각각 채취할 수 있는 원천이 있다. 만일 도토리 1만 톤을 가공한다면 술 1만 키로리터, 단닝엑스 600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1만 두 이상의 돼지를 길러낼 수 있는 사료 단위를 획득할 수 있다.

산중 재부의 동원은 산간 지대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도 큰 의의를 가지며 나아가서는 국가 재정에 주는 수입도 대단히 큰바 개략적 계산에 의하더라도 도적으로 1천만 원 이상에 달할 것이 예견된다.

이상과 같이 막대한 리익을 줄 수 있는 지방 원료 원천의 채취 및 가공은 결정적으로 능률적인 채취 도구의 도입과 기계화에 달려 있다. 이때까지 지방 원료 원천의 동원은 로력 문제와 함께 특히 경제적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 이것은 오직 채취 도구들을 부단히 개선하고 그의 기계화 수준을 높여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함으로써만 풀릴 수 있는 문제이다.

야생 원료의 채취 수집 사업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가공 사업에 있어서 작업 공정을 기계화하지 않는다면 제품 생산의 경제적 타산이 맞지 않는 례들이 적지 않다. 왕골로 생산하는 여름 모자는 순전한 손 로동으로 생산할 때에는 6~

7공수의 로력이 필요한바 이렇게 되다면 모자 한 개의 생산 원가는 15~16원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값 비싼 모자가 인민들에게 소용될 수 없다.

지방 공업에서 기계화가 성과적으로 촉진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지방 원료 원천에 기초하여 다종다양한 많은 제품을 생산하면서 지방 공업이 가일층 발전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문제가 좌우된다.

다음으로 생산 공정을 기계화함이 없이는 지방 공업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오늘 우리의 지방 공업 생산에서는 그의 량적 장성 뿐만 아니라 제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문제가 더욱더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지방 공업 제품들 중에는 인민의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는 질이 낮은 제품들이 적지 않다.

제품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방 공업의 기술적 장비도를 제고하는 문제이다. 손 로동은 그대로 두고는 가공 제품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

방직 공업의 실례만 보아도 수직기로는 위사를 20~25오리 이상 넣을 수 없으나 력직기로는 그를 30오리 이상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기를 력직기로 교체한다면 더 튼튼하고 보기 좋고 입기 좋은 직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수지 제품 생산에 있어서도 수동 프레스로는 제품의 두터이를 균일하게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 이러한 실례는 허다히 찾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계화 수준이 낮을 때, 특히 손 로동에서는 정밀도가 고도로 보장될 수 없으며 생산자의 기능 수준, 기타 개별적 사정들이 제품의 량과 질에 주는 영향이 기계화 정도가 높을 때보다 더욱더 크다. 이러한 개별적 조건, 우연적 사정들이 생산물의 질에 적은 영향을 주도록 하며 제품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기계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기계화를 촉진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더 아름답고 튼튼한 제품들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공장(지방공업 공장—필자 주)들을 기계화하고 로동자들의 기술 수준을 급속히 높인다면 지방의 모든 자원을 광범히 동원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일용품의 품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제품의 질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김 일성, 《조선 인민의 민족적 명절 8.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

또한 지방 공업에서 기계화의 촉진은 모든 기업소에서 수익성을 높이고 국가에 더 큰 리익을 주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지방 공업 부문에서는 중앙 공업 부문에 비하여 로동 생산 능률이 현저히 낮으며 생산 원가도 높은 형편에 있다. 공업에서의 국가 거래세 수입 총액의 37%를 지방 공업이 담당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지방 공업 부문에서의 로동 생산 능률 제고와 원가 저하의 예비를 백방으로 동원하여 그의 수익성을 높이는 문제는 국가 축적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황해북도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방직 공업에서 아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직기를 력직기로 교체하며 호보, 위권, 해사 등 준비 공정들의 손 로동을 기계화한다면 직물 공장에서의 종업원 1인당 생산량을 5배 이상으로 능히 높일 수 있으며 직물의 원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다. 식료 가공품, 일용 필수품과 기타 제품 생산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지방 공업에서의 기계화는 이 부문 일'군들의 사상 의식을 개변시킴에 있어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지방 공업 부문 일'군들의 대부분

은 어제'날의 농민들과 가정에 파묻혀 있던 부양 가족들이다.

이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오랜 세기를 두고 내려온 수공업적 생산 방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불가능하다. 반드시 작업 공정 자체를 선진적인, 기계화된 것으로 이행시킴으로써만 이 부문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뿌리 박혀 있던 낡은 사상 잔재를 종국적으로 퇴치하고 선진적인 사상으로 그들을 무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 공업 부문에서 기계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지방 공업의 자체 발전을 위하여 가장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지방 공업에서 기계화를 실현함으로써 그의 기술적 락후성을 퇴치하고 우리 나라의 전반적 공업화의 완성과 사회주의 공업국으로의 력사적 전환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방 공업의 발전은 종전까지 농민들이 집집마다 수공업적으로 생산하던 식료 가공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농민들로 하여금 더욱더 농사에 주력케 하며 그들의 생활을 보다 문화적인 것으로 되게 하고 농촌 경리에서의 로력의 긴장을 완화시킬 것이며 나아가서는 지방적 자원을 종합적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전국 각지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가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지방 공업의 기계화를 완수하여 우리 나라 방방곡곡이 현대적 기술로 튼튼히 장비된 지방 공업 공장망으로 뒤덮일 때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한 우리의 전진 운동은 보다 촉진될 것이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소멸되고 높은 생산력에 토대하는 공산주의의 래일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 *

당 중앙 위원회 8월 확대 전원 회의가 명시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지방 공업에서 기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오늘 각 도에는 도 종합 기계 공장들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기계 공장들이 있으며 우리 당의 예견성 있는 조치에 의하여 많은 기술자들이 중앙 공업으로부터 지방 공업에 진출하여 사업하고 있다.

황해북도만 보더라도 도 종합 기계 공장은 낡은 선반 1대밖에 없던 락후한 형편으로부터 79대의 공작 기계를 가진 큰 공장으로 전변되였으며 도 내에 수백 대의 공작 기계와 1만 2,000 여 톤의 주물 능력이 있다. 이러한 능력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지방 공업의 기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계 설비들을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능히 자체로 생산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자체로 기계화를 추진시킨 우수한 경험들도 가지고 있는바 이것은 앞으로 기계화의 촉진에서 중요한 밑천으로 된다.

송림 천공 생산 협동 조합에서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의 성과에 토대하여 일부 보조 작업을 제외하고는 전체 작업 공정의 80%를 기계화함으로써 생산량을 금년에 작년 동기에 비하여 3배 이상 높였고 제품의 질도 현저히 개선한 것은 그의 단적인 실례로 된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지방 공업에 내재하는 가능성들을 옳게 조직 동원만 한다면 기계화의 과업은 능히 도 자체의 힘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성숙된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고 그의 해결 방도를 전면적으로 제시한 데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현명성이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지방 공업에서의 기계화는 도 경제 위원회를 비롯한 이 부문 일'군들의 꾸준하고 완강한 투쟁과 면밀한 조직 사업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촉진될 수 있다.

이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이 사업에 전체 대중들을 적극 참

가시키는 데 있다.

기술 혁신은 어느 한 개인이나 지도 일'군들만으로는 성과적으로 전개될 수 없다. 모든 근로자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때 도처에서 새로운 기술적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지방 공업 부문 일'군들 중에 남아 있는 새 기술에 대한 그릇된 관점을 퇴치하는 문제가 선차적 의의를 가진다.

이 부문 일부 일'군들 중에는 아직 지방 공업에서는 수공업적인 생산 방법이 응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새 기술 도입을 주저하는 보수주의가 퇴치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식료품은 가정에서와 같이 수공업적으로 가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낡은 관점이 남아 있다.

이것은 생산력 발전에 관한 경제 법칙을 리해하지 못한 데로부터, 인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지방 공업이 담당하고 있는 중대한 사명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데로부터 나온 견해이다. 이러한 관점을 타파하지 않고는 대중적인 기술 혁신도, 지방 공업의 새로운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지도 일'군들은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기술 혁명이 갖는 정치 경제적 의의와 특히 우리 나라 기술 혁명에서 지방 공업의 기계화가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전체 근로자들에게 철저히 인식시키고 그들 속에서 보수주의와 소극성, 《신비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 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자기의 제1차적 임무로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지방 공업에서의 기술 혁신은 대중적인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다른 모든 사업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지방 공업의 기계화에서도 중심 고리를 옳게 포착하고 로력의 랑비가 많고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작업 공정으로부터 중점적으로 력량을 집중하여 우선 기계화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수요가 높을 뿐만 아니라 로력 랑비가 큰 각종 식료품 가공의 공업화와 그의 기계화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기계화한다고 하여 단꺼번에 전체 공장들과 모든 공정들을 선진 기계 설비로 장비할 수는 없다. 이것은 지방 공업의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

현대적 기술은 가장 선차적인 공정부터 점차적으로 도입하면서 종전의 수공업적 기술도 개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개조하여 사용함으로써 가장 적은 투자로써 가장 큰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 공업 기술 혁신의 핵심 력량으로 되는 도 종합 기계 공장을 우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 공업에서의 기계 생산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바 그의 하나는 지방 공업 자체에 필요한 동력 작업 기계의 생산이며 다른 하나는 지방적 특성에 알맞는 농기계 생산이다. 이 두 부문은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 이에 있어서 농기계 공장을 강화함으로써 도 종합 기계 공장이 농기계 생산에 매달리는 현상을 퇴치하고 그가 지방 공업 공장들의 기계화에 주력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도 종합 기계 공장만으로는 시, 군에 수다히 포치되여 있는 공장들의 기계화에 필요한 기계 설비 및 부속품들을 제때에 생산 공급할 수 없다. 따라서 매개 공장들은 자체의 힘으로 기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백방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선후차를 규정하고 기계화를 촉진시킴에 있어서는 각 부문별로 한두 개의 선진 기업소들을 만들어 그 모범을 해당 부문 전체 기업소들에 보급시키는 것이 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수 많은 기업소들에 동시에 도'적인 기술 지도 력량을 파견하여 기술 혁신을 지도할 수 없다는 사정에 의

하여서 뿐만 아니라 일'군들에게 구체적 실물로써, 직관적으로 기계화의 우월성을 보여 주는 데서도 유리하다.

사실 지방 공업의 많은 로동자들은 새로운 기계들과 설비들을 다루어 본 경험이 없으며 기능자들이라 하여도 락후한 수공업적 기술에 토대한 기능공들이다. 따라서 이 부문 일'군들의 보수성과 소극성을 퇴치하는 것은 꾸준한 해설 설복 교양에 실물 교양을 옳게 배합함으로써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대중의 적극적인 혁신 운동을 추진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 공업에서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에 파견된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며 그들과 로동자들 간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로 무장된 기술자들이 하여야 할 일은 지방 공업 부문에서 더욱 많다. 모든 지도 일'군들은 기술자들의 력량을 옳게 조직함으로써 아직 일부 공장에서와 같이 기술적 타산에 근거하지 않고 주먹치기 식으로 생산을 조직하는 것과 같은 결함들을 퇴치하며 기술 일'군들을 차요한 일에 종사시키는 현상들을 근절하여야 한다.

구체적 경험들은 기술자들이 이 부문 사정에 정통하고 있는 로동자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적극 높이면서 직접 생산 현장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 커다란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지방 공업의 기계화를 성과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대규모 중앙 기업소들과의 협조 방조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중앙 공업에서 축적된 풍부한 경험을 지방 공업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며 지방 공업에서 제기되는 기술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선진 중앙 공업 기업소가 지도 방조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오늘 지방 공업의 기술 혁신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지방 공업에서 기계화를 촉진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실현함에 있어서 이 부문 모든 근로자들 특히 지도 일'군들로부터 새 기술을 부단히 배우는 문제가 극히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새 기술을 모르고는 기술 혁신을 일으킬 수 없으며 락후한 수공업적 기술에 토대한 지방 공업을 지도하던 지난날의 경험만 가지고서는 오늘 새 기술로 부단히 장비되고 있는 지방 공업을 지도할 수 없다.

이 부문 지도 일'군들은 부단히 새 기술을 배우며 관리 지도 능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만 지방 공업의 기계화를 능히 추진시킬 수 있다.

지방 공업의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는 기계화의 촉진을 위한 영예롭고도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힘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 황해북도 경제 위원회 위원장)

우리 시대의 위대한 공산주의의 학교

강 용 섭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는 《로동당의 령도 밑에 조국 땅 우에 인민의 행복한 락원을 더 빨리 건설하려는 우리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불타는 애국심을 반영하는 것이며…

영웅적 조선 로동 계급이 창조한 우리 시대의 훌륭하고 위대한 공산주의의 학교이다》라고 김 일성 동지는 말씀하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8.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7개년 계획의 웅대한 강령적 과업을 수행하며 기술 혁명의 요새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전국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 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이 운동의 내용과 의의를 심오하게 천명하였으며 그 발전 방향을 명시하였다.

1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가장 높은 형태의 사회주의 경쟁 운동이다》(김 일성).

전후 시기에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천리마 운동) 행정에서 사회주의 경쟁은 집단적 혁신 운동에까지 발전하였는 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경쟁 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이며 가장 새로운 형태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의 산물로서 천리마 운동의 집중적이며 조직적인 표현 형태로 된다.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의 행정에서 도시와 농촌에서의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은 생산력의 급격한 장성을 조건 지은 동시에 력사적인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의 과업을 절박하게 제기하였다.

또 5개년 계획의 승리적 완수와 관련하여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가 튼튼히 구축되여 현대적 중형 기계들을 비롯한 거의 모든 기계와 설비들을 국내에서 생산 공급하며 기술 혁명,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을 능히 우리 손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였다. 이와 함께 우리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도 당면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수행에 모두다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끔 장성되였다.

원래 혁명성이 높고 남보다 빨리 나가려 하며 당에 의하여 공산주의적 의식으로, 특히 혁명 전통의 정신으로 교양 받는 우리 근로자들의 당에 대한 헌신성, 당 정책을 무조건 관철시키려는 혁명적 열의는 대고조 행정에서 더욱 고도로 제고되였다. 근로자들의 이 헌신성과 혁명적 열의는 당이 제기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의 절박한 과업을 보다 빨리 실현하며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하루 속히 점령하려는 불가항력적인 의지로 나타났다.

당은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과 관련하여 기술 혁명의 당면 과업과 함께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웅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당은 천리마의 진군을 저애하는 일체 낡은 사상 잔재의 질곡으로부터 근로자들을 해방하기 위한 사상적 령도를 강화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은 사회주의의 대고조를 한 계단 더 높이는 데로 근로자들을 불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사회주의 건설

의 대고조 행정에서 조성된 이와 같은 객관적, 주관적 조건들이 결합된 토대우에서 발생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9월 전원 회의 후 당의 붉은 편지에 고무되여 고도의 정치적 로력적 열의로 불타는 근로자들 속에서는,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고도의 집단주의 정신과 불요불굴의 투지, 고상한 도덕적 품성으로 무장되고 높은 기술 기능을 소유한 이 운동의 선구자들, 공산주의적 새 형의 인간의 싹들이 배출되였다. 이 선구자들은 전체 집단을 교양하고 동원하여 당의 주위에 한사람같이 묶어 세움으로써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로 궐기시켰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의 축성을 촉진하며 공산주의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할 것을 지향하는 경쟁 운동이다. 그것은 이미 산업 운수 부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농촌 경리, 류통 및 봉사, 교육, 문화, 보건 등 경제, 문화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 행정에서 준비된 이상과 같은 물질적, 정신적 요인들이 당의 정확한 령도와 결합된 결과로서 발생 발전하는 합법칙적 현상이다.

2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인민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이며 자각된 근로자들의 대중적 경제 운영의 훌륭한 방법》(김 일성)이다.

생산을 장성시키며 인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기본 요인은 로동 생산 능률이다. 모든 천리마 작업반들은 로동 생산 능률을 장성시키는 데 제 1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혁신적인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전국 500개의 천리마 작업반들에서, 칭호 쟁취 후 6개월 간의 로동 생산 능률은 운동에 참가하기 전 6개월 간에 비하여 131.4%로 장성하였으며 특히 기계 부문의 천리마 작업반들에서는 156.1%로 장성하였다. 한개 채탄장에서 석탄 생산량을 월 5,000 톤 수준으로부터 1만 톤 수준으로 비약시킨 아오지 탄광 리승환 2중 천리마 청년 작업반, 광산 전체 종업원의 4.3%밖에 안 되는 인원으로 광산 총 생산량의 60%를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한 덕흥 광산 최 련옥 천리마 작업반 등등은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서의 대표적인 례로 된다.

이상의 수'자들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생산력과 인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여 준다.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은 높은 기술과 생산 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전제로 한다. 모든 천리마 작업반들에서의 로동 생산 능률의 비약적 장성은 무엇보다도 기계화, 자동화의 도입에 의한 기술적 혁신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 500개의 천리마 작업반들에서만도 이 운동에 참가한 후 6개월 간에 총 3,864건의 창의 고안들을 생산과 건설에 도입함으로써 기술적 장비를 개선하고 생산 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는 데 현저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평양 제침 공장 변 명선 천리마 작업반을 비롯한 많은 천리마 작업반들에서는 이미 생산 공정을 완전히 기계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생산 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부단히 기술적 혁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을 소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천리마 작업반원들은 새 기술을 배우며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 데 모든 열성을 발휘하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는 지난 8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전면적 기술 혁명의 과업을 제기하였다. 당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며 이를 위하여 전체 근로자들이 새 기술을 습득하며, 기술 혁신을 위한 투쟁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주요한

내용으로 되게 하라고 호소하였다.

전체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은 지금까지도 그러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당의 호소를 받들어 기술 혁명의 과업을 영예롭게 실현할 것이며 7개년 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완수 초과 완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력량으로 될 것이다.

천리마 기수들은 기술 혁신과 생산 장성을 위한 투쟁에서 위훈을 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모두가 재능 있는 관리 일'군들로서 대중적으로 경제를 관리 운영하는 훌륭한 방법을 배우고 있으며 발전시키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원들은 직일 반장제를 실시하여 모두가 작업반의 전 생산 공정에 정통하고 그것을 훌륭히 관리하고 있으며 또 그들은 창의 고안들을 제때에 도입하며 작업반 채산제를 실시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다. 지금 많은 천리마 작업반들에서는 검사원을 없애고 로동자들 자신이 제품의 질을 검사하고 있으며 정량원의 참가 없이 자기가 수행하는 로동의 기준량을 자기들이 제정하고 있다. 결과에 제품의 질과 로동 기준량은 계통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오작품은 근절되여 가고 있다.

이상과 같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기술 혁신과 생산력 발전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며 대중적 경제 운영의 훌륭한 새로운 방법으로 되는 동시에 거기서 매개 근로자들이 높은 기술과 경제 관리 운영의 방법을 습득하는 학교로 되고 있다.

3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것은 《사람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훌륭한 대중적 교양의 방법》(김 일성)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가일층의 추진을 위하여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예롭고 선진적이고 영웅적인 일이다. 그러니만치 그것은 수천수백년래의 온갖 낡고 락후한 의식과 습성의 잔재들을 극복하고 고상한 공산주의적 의식과 품성을 소유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 대회에서의 보고와 토론들이 보여 준 바와 같이 어디서를 물론하고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개인주의, 리기주의, 그의 변종인 본위주의, 안일성과 무규률성,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 신비주의 등 일체 낡은 사상과 습성의 잔재를 청산하고 사람들을 당적 사상 체계로, 당 정책과 공산주의적 의식으로 무장시키며 당의 주위에 묶어 세우기 위한 선구자들의 교양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공산주의 교양 사업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기본 내용의 하나로 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력한 방도는 긍정적 모범에 의한 교양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들은 자기 집단 성원들과 다른 집단 동지들을 교양하고 감화하는 데 있어서 례외 없이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의 교양, 항일 빨찌산들의 고귀한 공산주의적 모범의 힘에 의거하였으며 또 스스로 실천에서 모범을 보여 주는 방법에 의거하였다.

항일 빨찌산들과 같은 절세의 애국자-혁명가-공산주의자들의 모범은 도처에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 심한 리기주의자도, 락후 분자도 가장 헌신적인 애국자로, 선진 분자로 전변시키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은 항일 빨찌산의 모범과 운동 선구자들의 실천적 모범에서 모든 우수한 것들을 배우며 무한한 용기와 신심을 얻어내고 있으며 혁명 선렬들의 정신으로 투쟁하며 생활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고 집단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주위에 한사람같이 묶어 세우는 여기에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기적을 창조하는 기본

요인이 있다.

이리하여 오늘 전체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은 이 운동을 통하여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교양되였으며 또 교양되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 혁명 과업을 무조건 집행하며 관철시키려는 불굴의 의지로 충만되여 있다.

당과 조국에 대한 충실성은 바로 로동과 국가 재산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여야 한다. 천리마 기수들은 바로 당과 수령이 항상 가르치고 있는바 그대로 조국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성실하고 영용하게 로동하여 국가에 보다 많은 리익을 주려는 고도의 애국주의적, 공산주의적 사상으로 교양 받고 있다.

천리마의 기수들은 또한 운동 행정에서 온갖 보수주의와 소극성과 기술 신비주의 등을 불살라 버리고 당이 가르치는 대로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며 계속 혁신하고 부단히 전진하는 혁명적 정신과 불요불굴의 투지로 무장되고 있다.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로동하려는 고상한 태도도 부단 혁명의 정신, 불굴의 투지와 결합됨이 없이는 당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시킬 수 없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의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로동에 대한 높은 자각적 태도,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상—이 모든 공산주의적 사상 의식이야말로 생산과 기술적 혁신에서 기적을 창조하고 당 정책을 무조건 관철시키며 인민 경제 발전을 강력하게 추동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허다한 사실들 중에서 하나를 들기로 하자.

림 춘환 동무가 사업하는 희천 정밀 기계 공장 유압기 직장 2층 천리마 청년 작업반원들에게는 금년 내에 3,000대의 뜨락또르 생산을 위한 유압기 생산을 보장할 데 대한 당적 과업이 제기되였다. 뜨락또르의 심장으로 되며 1,400여 공정을 거쳐야 하는 이 유압기를 생산하는 데서 그들은 허다한 난문제들을 해결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부란쟈 부슈와 변좌의 가공에서 결정적으로 걸리게 되였다. 이 때 전체 작업반원들은 《손발이 움직이고 있는 한 부란쟈 부슈와 변좌 가공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 결의에 충만되여》 모두가 이 부속품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연구하였으며 밤잠을 안 자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이 문제 해결에서 무려 24회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않았으며 25회만에는 드디여 생산에 성공하였는데 로동 생산 능률은 종전의 200배로 높이는 기적을 낳았다.

불요불굴의 정신,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상,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 없고서야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것만으로써 그들의 모든 기적적 성과들과 업적들을 설명할 수는 없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은 또한 이 운동을 통하여 고도의 집단주의 정신으로 교양 받고 있으며 이에 기초한 새 형의 인간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오늘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 속에서는 교대나 작업반에 구애됨이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저마다 먼저 수행하며 다음 교대나 다른 작업반들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조건을 지어 주며 서로 돕고 협조하여 전체의 생산 장성을 보장하며 모두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새 형의 인간 관계가 확고하게 자라나고 있다.

천리마 기수들은 벌써 개인적 또는 작업반적 계획 수행에만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집단과 기업소 전체의 계획 수행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그들은 뒤떨어진 사람들과 집단들을 도와 선진 수준에 올려 세우는 것을 자기들의 응당한 의무로 간주한다.

현재 지 응원 작업반에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발기하던 당시의 반원 10명 중 3명밖에 남지 않고 모두를 다른 작업반을 도와 주기 위하여 옮아 갔다. 오늘 이미 허다한 천리마 작업반원들이 락후한 작업반을 방조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천리마 직장 운동에로 발전시키고 있다. 로력 영웅 김 확실 동무는 자기의 물질적 리해 관계를 돌보지 않고 뜨거운 사랑과 당원의 책임감으로 뒤떨어진 작업반에 내려 가 몹시 락후한 수십명의 동무들을 무한한 열성과 인내성으로써 교양 개조하여 1년도 못되는 동안에 이 작업반을 천리마 작업반으로 이끌어 올렸다.

이 고상한 헌신적 노력은 대중 속에서의 우리 당의 인민적 사업 방법과 작풍의 구현으로 되며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개화하는 새 형의 인간 관계의 전형으로 된다.

김 확실 동무의 경험을 비롯한 전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경험은 적대 분자를 제외하고는 열렬한 동지애와 꾸준한 설복, 교양으로써 개조하지 못할 그러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행정에서는 어떠한 락후한 사람과 집단도 선진 분자로, 선진적 집단으로 전변될 수 있다. 이처럼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위대한 학교로 되고 있다.

천리마 기수들은 락후한 동무들을 사업에서 방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인 생활까지도 돌보아 줌으로써 그들 자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교양하여 모두가 한 집안 식구같이 화목하고 단결되여 있다. 천리마 기수들은 로동 및 국가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까지 고상한 도덕적 품성의 소유자로 자체를 육성하고 있다.

천리마 기수들은 《한 사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영웅이 되여야 한다.… 오늘 조선 사람이 다 천리마를 타고 다 영웅이 된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와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의 원칙을 생활에서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가 강조한 바와 같이 천리마 기수들은 일신의 리해 관계를 돌보지 않고 당과 국가의 리익을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며 관료주의도 형식주의도 모르고 오직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개조하며 생산, 기술, 문화, 사상, 도덕의 모든 령역에서 동지적 우애와 공산주의적 호상 방조로써 모든 일을 훌륭히 처리하는 새 형의 인간들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이 집체적 노력으로써 생산과 기술 혁신에서 기적적 성과를 거두며 모두가 주인답게 관리 운영에 참가하여 검사원도 정량원도 없이 사업하는 대중적 경제 운영의 방법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그들의 높은 자각성과 집단주의 정신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다.

로동 생산 능률과 생산을 장성시키는데 있어서의 우리 근로자들의 높은 의식성의 특별한 역할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더욱 뚜렷이 실증되고 있다.

* *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발생 발전은 우리 당 정책을 근로자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정책으로 접수하며 그것의 관철을 위하여 그들이 어떠한 헌신성을 발휘하는가를 명백히 보여 주는 것이며 우리 당의 군중 로선과 인민적 사업 방법 및 작풍이 근로자들 속에 얼마나 깊이 침투되고 있는가를 웅변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발전은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증명하는 것이며 당과 인민의 확고 부

동한 통일을 시위하는 것이다.

이 운동은 대중을 믿으며 항상 그들에 의거하고 대중의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우리 당의 인민적 사업 방법과 군중 로선의 위대한 승리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위대한 공산주의의 학교이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높은 기술 기능을 배우며 일반 문화 수준을 높이며 경제 운영의 새로운 방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당적 사상 체계와 공산주의 의식으로, 당 정책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정신으로, 인민적 사업 방법과 작풍으로, 고상한 도덕적 품성으로 교양되며 공산주의적 새 형의 인간으로 육성된다.

이 운동이 이와 같이 공산주의의 위대한 학교로 되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에서 로동과 교양이 직접으로 결합되여 있기 때문이며 로동, 실천이야말로 인간의 품성과 자질을 형성시키는 기본 령역이기 때문이다. 이 운동 행정에서 사상 교양을 통하여 달성된 사람들의 높은 의식성과 의지의 통일은 직접으로 생산과 기술적 혁신에서 위대한 성과를 가져 오며 이 성과는 그들에게 영예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그들의 의식을 더욱 확고히 해 주며 사업에서의 새로운 성과를 준비해 준다. 실천과 교양과의 이와 같은 유기적 통일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하여금 새 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을 육성하는 가장 훌륭한 학교로 되게 하고 있다.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을 위한 투쟁과 기술 문화 수준 제고를 위한 학습과 공산주의 교양을 밀접히 결부시키고 있는 여기에 이 운동의 하나의 현저한 특성이 있다.

레닌은, 보통 로동자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하여 만난을 무릅쓰고 로동 생산 능률 제고를 위하여 투쟁하며 한 줌의 곡물, 석탄, 철 기타 생산물을 애호 절약하려는 정신이 나타나는 데서 공산주의는 시작된다고 가르쳤다(전집, 제 29권, 512~513페지 참조).

공산주의적으로 로동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적으로 생활할 것을 지향하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공산주의의 훌륭한 싹이다.

당과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경제, 문화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당이 제기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과업의 관철을 촉진시키며 공산주의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그 싹을 힘있게 자래워야 한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전체 근로자들의 가장 높은 영예이며 신성한 의무이다.

군 당 단체의 사업 체제와 방법을 개선하는 기본 고리

장 기 형

김 일성 동지의 강서군 당 단체에 대한 현지 지도가 있은지 반년이 지나 갔다. 이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 모든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염주군 내에서도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실로 거대한 변혁이 일어났다.

군내 농업 협동 조합들, 공장, 기업소들 할 것 없이 우리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는 노동 생산 능률을 수배로 높이기 위한 대중 운동이 힘차게 파도치고 있으며 문'자 그대로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이리하여 군내 농촌 경리 분야에서는 현재의 작황으로 보아 례년에 없는 풍작이 예견되고 있으며 지방 공업 공장들에서도 이미 상반년 계획을 초과 완수하고 년간 계획을 120% 이상으로 초과 완수할 전망이 바라보인다. 그리고 인민 경제 모든 분야에서는 바야흐로 기술 혁신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기간 군내 근로자들의 정신 생활과 생산력 발전에서 이룩된 이러한 빛나는 성과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김 일성 동지의 강서군 당 단체에 대한 현지 지도와 그와 관련된 일련의 교시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현 시기 군 당 단체가 견지하여야 할 사업 체제와 방법에 대하여 명백한 교시를 주시였다. 즉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농업 협동화가 완성되였으며 한 개 리가 하나의 조합으로 통합 확장된 결과 리는 한 개의 생산 단위로 되였으며 리 당 위원회는 생산 단위의 초급 당 단체의 성격을 띠게 되였다. 그리고 개인농 때와는 달리 모든 일은 집단적으로 하게 되였으며 특히는 수리화, 전기화가 실현되고 기계화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농민들의 생활과 의식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조합들의 사업 범위와 규모도 전에 없이 확대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사실상 우리 당의 말단 지도 기관으로 된 군 당 위원회는 사무실에 틀어나 차리고 앉아서 개인농 시기에 면 당 위원회를 지도하듯이 리 당 위원장들을 불러 올리거나 결정서나 지시문을 내려 보내고 독촉만 하는 식으로 사업할 것이 아니라 직접 리에 내려 가서 리 당 위원장과 같이 군중 속에 들어 가 사업을 료해하며 사업을 조직하며 군중을 교양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항상 당 조직을 튼튼히 틀어 쥐고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면서 사업에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철저히 근절하고 전체 당원들과 군중을 발동시켜야 한다.

염주군 당 위원회는 김 일성 동지의 이러한 교시 내용에 철저히 의거하고 당 중앙 위원회의 직접적 지도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군 당 단체의 사업 체제와 방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력량을 기울였다. 이에 있어서 군 당 위원회가 튼튼히 틀어 쥔 기본 고리는 **직접 리에 내려 가 사업하는 것**이였다.

일찌기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는 군 당의 모든 일'군들이 매달 15일 간을 하부에 내려 가 사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므로 염주군 당 위원회는 이 교시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간의 경험을 걸쳐 **7일 간은 리에 내려 가 사업하고 7일 간은 군에 올라 와 사업하는 것**이 현재 우리 일'군들의 준비 정도와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군내의 실정에 적합한 방법임을 확정하였다.

이리하여 현재 우리 군 당의 모든 일'군들은 7일 간은 리에 내려 가 리 당 단체의 사업을 지도하며 7일 간은 군에 올라 와 있으면서 지도 사업 정형을 총화하여 경험을 일반화하며 부장 회의와 부서 회의(매주 고정된 날)를 하며 학습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정한 지도 날'자는 결코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이 더 높아지고 회의와 문서 공작이 더 간소화된다면 리에 내려 가 사업하는 날'자가 더 많아지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강서군의 교훈에 기초하여 군 당의 모든 일'군들이 7일 간은 리에 내려 가 사업하고 7일 간은 군에 올라 와 사업하게 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 우선 7일 간 내려 가고 7일 간 올라 오도록 지도 날'자를 실정에 맞게 정하는 것도 중요하였지만 그것보다도 군 당의 종래의 사업상 낡은 틀을 대담하게 마스며 리에 내려 가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선차적으로 푸는 것이 더욱 중요하였다.

무엇보다도 회의를 간소화하고 문서 공작을 축소하면서 사업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선결 문제였다.

종전에 군 당 위원회는 매달 평균 3~4차에 걸쳐 13일 간씩 리 당 위원장들을 불러 올렸으며 수시로 잡다한 지시들을 내려 보내고 독촉하군 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는 군 당 일'군들이 리에 못 내려 감은 물론 리 당 위원장들도 사무실에서 떠날 수 없게 하였고 따라서 당 사업은 다수 경우에 회의와 문서로써 대치되였다.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는 바로 이러한 데서 나왔다.

그러므로 군 당 위원회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우선 군 당 집행 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 하기로 하고 월말에 하는 집행 위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그 달 사업을 총화하고 다음 달의 당, 정권 기관 및 근로 단체들의 사업 방향을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리 당 위원장들은 한 달에 한 번, 월말에 4~5일 간씩 부르는데 이 기간에 그들을 집행 위원회에 참가시켜 다음 달 사업 방향을 받게 하며 또 당 정책과 정치 실무 강습도 받아 가지고 돌아 가게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리 당 위원회들에서는 5일 간 사업 계획을 세워 조합 관리 위원회와 작업반들에서의 5일 간 작업 계획과 맞물고 돌아 가게 하였다.

한편 군 당 지도원들로는 두 사람을 한 조로 하여 담당하도록 하고 한 리에는 조직부 지도원, 다른 리에는 선전 선동부 지도원을 배치하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서로 엇바꾸어 지도하게 하였다. 그리고 공업과 농업에 대한 지도를 병진시키기 위하여 조직부 부부장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정권 기관과 근로 단체를 담당시켜 농촌 경리를 보게 하였으며 다른 한 사람에게는 공장, 기업소를 담당케 하였고 지도원들은 군에 올라 와 있는 기간에 각기 자기가 맡은 기관과 공장, 기업소 당 단체 사업을 계속 료해하게 하였다(지도 사업은 별도 계획에 의하여 진행한다). 이 밖에도 군 당 위원회는 집행 위원회와 전원 회의 준비에 책임 간부들이 지도원들과 함께 직접 참가하며 간부 료해 사업, 조직 문제 등을 현지에서 처리케 하는 등으로 사무를 적극 간소화하는 대책도 취하였다.

이러한 사업 체계의 확립은 틀림 없이 회의와 와 문서를 간소화하고 군 당의 지도 력량을 하부에 접근시키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군 당의 모든 일'군들이 매달 절반씩 리에 내려 가 사업하게 된 것만큼 당장 걸리는 문제는 지도원들의 정치 실무 수준과 군중 공작 방법이였다.

종전에 군 당 위원회는 당 정책 학습과 실무 학습을 다수 경우에 각자의 자각성에 방임하였으며 좋은 경우에라야 그 내용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쳤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적지 않은 지도원들은 당 정책의 본질을 정확하게 리해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독자적으로 리 당 단체를 지도할만큼 준비되여 있지 못하였다. 지난 기간 흔히 경우에 당 정책이 외곡 집행되거나 사업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가 나오게 된 것은 이러한 사정에도 적지 않게 기인되여 있었다.

그러므로 군 당 위원회는 사업 체계를 뜯어 고치는 사업과 함께 지도원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높이는 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당 정책 학습에 주력하였다. 즉 어떤 정책이 나오면 먼저 책임 간부들이 그것을 군내 실정과 결부시켜 연구해 가지고 발표하며 그 다음에는 각자에게 더 진지하게 연구시킨 후 그의 실행 대책을 토론하는 제도를 세웠다. 이러한 방법은 매개 지도원들로 하여금 군내 실정과 결부하여 당 정책을 연구하면서 그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케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였다.

군 당 위원회는 이러한 당 정책 학습과 함께 리론 학습, 경제 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 글 쓰는 사업 등도 전망 계획에 의하여 강력히 추진시키고 있으며 다른 한편 책임 간부들이 지도원들을 리에 데리고 내려 가 실지 사업 과정에서 배워 주는 사업을 병행시키고 있다.

초기에 군 당 위원회는 부부장 이상 간부의 책임하에 2~3명의 지도원들로써 10개의 지도 그루빠를 조직해 가지고 1개월 간에 걸쳐 군내 23개 리 당 단체를 전면적으로 지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도원들에게 당 정책의 본질을 더 잘 리해하게 하였으며 당 사업 방법, 군중 공작 방법 및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배우게 하였다. 그리하여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된, 지도원들에게는 리 당 단체에 대한 개별 지도를 위임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지도원들로써는 또다시 책임 간부들의 지도하에 2개의 지도 그루빠를 조직하여 가지고 남압리와 하석리 당 단체를 각각 1개월 반에 걸쳐 지도하면서 당 사업 체계와 방법을 더 잘 배우게 하였다. 이리하여 모든 지도원들이 짧은 기간에 초보적으로나마 능히 자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군 당 위원회는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비로소 군 당의 모든 일'군들이 7일 간 리에 내려 가 사업하고 7일 간 군에 올라와 사업하게 하였다. 당 사업 체계와 방법에서의 이러한 개선은 확실히 사업에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전체 당원들과 군중을 사회주의 건설에 발동시킬 수 있게 하였다.

즉 이 때를 계기로 하여 군 당 일'군들은 리에 내려 가 사업하는 기간에 리 당 위원회의 5일 간 사업 계획을 지도하면서 리 당 위원장과 함께 비교적 일이 잘 안 되는 당 단체에 내려 가 농민들과 같이 일하면서 그 당 단체의 사업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며 5일째 되는 날에는 리내 지도 일'군들과 함께 5일 간 사업을 총화하고 다음 5일 간 사업 방향을 제시해 주며 당 정책 강습도 진행하게 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당 단체와 당 분조를 통해 전체 당원들에게 분공을 주고 총화하면서 그들에게 군중 공작 방법을 배워 주어 비당원 대중을 적극 발동시키는 조직 사업도 진행하게 되였다.

한편 군 당 일'군들이 리에 내려 갔다 올라온 다음에는 리 당 단체에 대한 지도 정형을 집체적으로 청취하고 잘 한 것과 잘 못한 것을 갈라 알기 쉽게 가르쳐 주며 호상 경험을 교환케 하며 개별적 단위들에서 창조된 새로운 경험들을 일반화하는 대책도 세우고 있다. 이와 같이 군 당의 모든 일'군들이 리에 내려 가고 올라 오는 사업을 반복하는 행정에서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은 부단히 제고되여 갔으며 군 당 단체의 지도가 더욱더 대중 속에 심입되게 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찌기 찾아 볼 수 없었던 거대한 앙양을 불러 일으키게 되였다.

군 당 단체의 사업 체계와 방법을 개선하는 것(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지만)도 어려운 일이였지만 이러한 경험을 모든 기관, 기업소 당 단체들에 일반화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였다.

초기 일부 일'군들 속에서는 리에 내려 가 사업하라는 당과 수령의 교시를 다만 군 당 위원회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편향이 있었다. 이러한 일'군들은 군 당 일'군들이 7일 간 내려 가고 7일 간 올라 오는 것은 리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 피상적으로 리해하면서 자기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여전히 회의와 문서 공작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현장을 한 바퀴 돌아 오는 것으로 지도 사업을 대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편향은 특히 공장, 기업소 지도 일'군들에게서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었다.

또한 일부 지도 일'군들은 리에 내려 가 사업하라는 것을 무턱대고 내려 가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리해하고 많은 시간을 하부에 내려 가 종전과 다름 없이 형식적으로 돌아 다니기만 했으며 또 일부 지도 일'군들은 이것을 농민들과 같이 일하라는 것으로 일면적으로만 리해하고 자기의 본신 사업을 모두 집어 치우고 전야에 나가 그저 일만 하였다. 이러한 편향들은 일부 군급 기관 지도 일'군들과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들에게서 적지 않게 나타났었다.

리에 내려 가라는 것은 다만 농촌을 지도하는 일'군들에게만 해당되는 교시가 아니다. 이 교시의 본질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당 단체들에서 지도를 대중 속에 접근시키라는 맑스주의적 령도 방법의 기본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있다. 그런 것만큼 모든 당 단체들에서 지도 날'자의 배정에 구애됨이 없이 군 당의 경험(7일 간 내려 가고 7일 간 올라 오는 방법)을 자기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은 사업 체계와 방법을 개선하는 중요 관건으로 된다.

례를 들어 염주 농기계 작업소 초급 당 단체에서는 지도 력량이 초급 당 단체 위원장, 지배인, 책임 기사 등 비교적 준비된 일'군들이며 작업반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실정에서 7일 간은 작업반에 내려 가 사업하고 2일 간은 사무실에 들어 와 총화, 회의, 학습을 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이들은 정상적인 하부 지도 사업을 통하여 당 분조를 강화하고 운전수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제고함으로써 금년도에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87%(작년 하반년 실적 66.5%)로 높이였으며 총 연경 계획을 104%로 초과 완수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기보다 조건이 훨씬 좋은 남시 제염소 당 위원회에서는 《작업반들이 코 앞에 있는데 내려 가긴 어딜 내려 가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킬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결과 여전히 낡은 사업 방법을 답습하고 있으며 생산에서도 혁신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군 당 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대조적인 현상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으면서 우선 일'군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낡은 틀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과 사물을 피상적으로만 관찰하는 형이상학적인 사고 방법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면서 모든 기관, 기업소 당 단체들에서 7일 간 내려 가고 7일 간 올라 오는 군 당의 경험을 자기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지도를 더욱 대중 속에 심입시키도록 지도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의 강서군 당 단체에 대한 현지 지도와 그와 관련된 일련의 교시들에 철저히 의거하여 군 당의 모든 일'군들이 7일 간은 리에 내려 가 사업하고 7일 간은 군에 올라 와 사업하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집행한 것은 군 당 단체의 사업을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되였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군 당 위원회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가 일상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지도와 대중을 련결시키며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시키는 맑스주의적 령도 방법을 체득하게 되였으며 대중 속에서 나와서 다시 대중 속으로 들어 가는 우리 당 군중 로선을 관철할 수 있게 되였다.

첫째,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시키는 령도 방법을 비로소 실현할 수 있게 되였다.

종전에 군 당 위원회는 다수 경우에 리 당 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를 주고 독촉하는 데 그쳤으며 좋은 경우에 개별적 단위에 내려 가 경험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지도 사업이 뒤따르지 못하였던 관계로 결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군 당 일'군들이 정기적으로 리에 내려 가 사업하고 그 결과를 총화하게 되였으므로 능히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할 수 있게 되였다. 례컨대 다사리 당 단체를 지도하는 행정에서 우리는 이곳 관리 일'군들이 농사짓는 데 90%의 로력을 돌렸으나 그에 따르는 축력, 운반 도구, 소농기구 등은 소요량의 절반밖에 갖추지 못함으로써 1인당 작업 능률이 오히려 30%나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였다. 그러므로 군 당 위원회는 여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얻어 모든 리 당 단체들에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도록 지도를 강화한 결과 농사짓는 데 력량을 집중하라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원만히 관철할 수 있었다.

군 당 위원회는 리 당 단체에 대한 정상적인 지도를 통하여 당 정책 집행 행정에서 나타나는 이러저러한 편향들을 제때에 극복 시정할 수 있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단위들에서 계속 새 것을 조장 발전시키고 모범을 창조하여 부단히 일반화하는 사업도 성과있게 진행하게 되였다. 현재 군 당 위원회는 남압리와 하석리 당 단체에서 당 사업 체제와 방법의 개선, 룡산리 당 단체에서 위생 문화 사업의 모범을 각각 창조하고 그를 일반화하며 또 농민들 속에서 싹트고 있는 공산주의적 품성들을 제때에 포착해 가지고 농민 대중을 그러한 긍정적 모범으로 계속 부절히 교양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사실은 구경 군 당 일'군들이 대담하게 리에 내려 가 사업하게 된 결과이다.

둘째, 사업의 선후차를 가리고 중심 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는 령도 방법을 실현할 수 있게 되였다.

군 당 일'군들이 리에 내려 가 사업하게 된 결과 군 당 위원회는 하부 실정을 비교적 정확하게 료해할 수 있게 되였으며 어느 일을 먼저하고 어느 일을 후에 할 것인가도 똑똑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군 당 위원회는 집행 위원회를 통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정권 기관과 근로 단체들에게 사업의 선후차를 가려 정확한 사업 방향을 줄 수 있게 되였으며 중요한 사업이 제기될 때마다 력량을 집중할 중심 고리도 옳게 포착하여 제시해 줄 수 있게 되였다.

금년도의 모내기에 대한 지도가 바로 그러한 실례이다. 방금 모내기를 추진시켜야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지도 일'군들은 그때까지도 어느 고리를 추켜 들고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군 당 위원회는 내중리와 남압리에 지도 그루빠를 파견하여 모내기를 지도하면서 경험을 얻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축력이 적지 않게 부족되므로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훨씬 높이고 중 소 기계화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뉘우치게 되였다. 그리고 2계단 모(묶모와 절충모)의 성육이 늦었다는 것, 전반적으로 모가 모자란다는 것, 모'줄이 소요량에 비해 부족된다는 것 등도 료해하게 되였다. 그러므로 군 당 위원회는 군 인민 위원회에 기경 작업과 써레질을 적극 기계화하는 사업을 중심 고리로 포착하고 그에 력량을 집중하며 이여의 고리들도 동시에 해결할 것을 제시하는 한편 당 및 근로 단체의 지도 력량을 이 문제의 해결에 조직 동원하였다. 이리하여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작년보다 1

주일 간을 앞당겨 모내기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 당 위원회의 이러한 지도 방법은 정권 기관과 근로 단체 일'군들로 하여금 모든 사업 집행에서 항상 변화한 사업 방향과 중심 고리를 포착해 가지고 자신 있게 그에 력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것도 군 당 일'군들이 항상 리에 내려 가 사업하게 된 결과이다.

셋째, 지도와 대중이 결합된 결과 지도자와 피지도자 간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였으며 농민 대중의 열성이 비상히 제고되였다.

당 일'군들은 농촌에 내려 가 사업하는 기간에 종전처럼 양복을 입고 가방을 끼고 돌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농민들과 같이 일하며 침식을 같이 하며 마당도 쓸어 주고 집도 수리해 주면서 그들에게 당 정책을 알려 주고 긍정적 모범으로 그들을 인내성 있게 교양하고 있다. 그리고 농민들로부터 지방의 실정과 풍습도 배우며 농사짓는 방법도 배운다.

이리하여 오늘에 와서 당 일'군과 농민 대중은 단순히 지도하고 지도 받는 사이가 아니라 다 같은 혁명 동지로서 서로 배우고 배워 주면서 모든 문제를 허심하게 털어 놓고 상론하며 서로의 힘과 지혜를 모아 당 정책을 관철해 나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에서 농민 대중 속에서는 당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두터워지고 있으며 그들의 사상은 더한층 각성되여 청산리 사람들처럼 빨리 걸어도 부족하여 뛰여 다니는 새로운 기상이 도처에서 나타나게 되였다.

네째, 당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이 부단히 제고되여 가고 있다.

리에 내려 가 사업하고 군에 올라 와서 총화, 회의, 학습하는 행정에서 당 일'군들은 당 정책에 의거하여 부단히 객관 현실을 종합, 분석, 일반화하며 대중에게서 진지하게 배우면서 이미 책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보충하고 풍부화한다. 특히 군에 올라 와 지도 사업 정형을 정기적으로 총화하는 행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항상 대중 속에서 사업하는 것만큼 자기 지식의 부족점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으며 따라서 그를 보충하기 위한 학습이 실속 있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군 당 일'군들은 현실 자체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당 정책 학습과 혁명 전통 교양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뜨락또르 운전법, 농업 경제 등도 전망 계획에 의하여 진지하게 학습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 당 일'군들은 대중 속에서 부단히 자기의 군중 공작 방법을 완성해 나아가고 있으며 자기의 사업 경험을 총화하고 일반화하는 글들을 쓰면서 자기의 정치 실무 수준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 당 일'군들이 직접 리에 내려 가 사업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7일 간은 리에 내려 가 사업하고 7일 간은 군에 올라 와 사업하는 것은 김 일성 동지의 강서군 당 단체에 대한 현지 지도와 그와 관련된 일련의 교시들을 관철하는 기본 고리로 된다. 만일 군내의 모든 당 단체들에서 한결같이 이러한 경험을 도입하고 자기의 령도 방법을 꾸준히 완성한다면 사업에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전체 당원들과 군중을 사회주의 건설에 더 잘 발동시킴으로써 그의 천리마적 속도를 가일층 촉진시키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염주군 당 위원회는 이미 얻은 성과에 조금도 자만함이 없이 김 일성 동지의 교시들을 더욱더 심오하게 연구하면서 당 사업 체제와 방법을 가일층 개선 강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필자, 평북도 염주군 당 위원장)

장 면 《내각》은 리 승만 《정권》의 연장이다

김 상 원

남조선에서 리 승만 독재 정권이 전복된 후 지난 7월 29일 실시된 《선거》를 통하여 《새 국회》와 《새 내각》이 조작되였다.

미제와 《민주당》 상층부는 이 《정권》이 마치도 《민주 정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제도 복구하고 인민 생활도 안착시킬 수 있을 것처럼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민들에게 그 어떤 환상을 던져 줌으로써 밑뿌리 채 뒤흔들리는 저들의 반인민적 통치를 수습 유지해 보려는 어리석은 기만적 술책에 불과하다.

새 괴뢰 정권의 조작 과정, 그의 계급적 본질, 그가 표방하는 《정책》으로 보아 장 면 《내각》은 리 승만 괴뢰 정권의 상속자이며 연장이다. 그들에게서 나올 것이란 리 승만 도배에 못지 않은 매국 배족의 악정과 학정밖에 없으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장 면 《내각》이 내걸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심지어 그들 지배층 자신들까지도 《빛좋은 개살구》라고 야유하면서 《리 정권의 정책에서 일보의 전진도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새 괴뢰 정권이 어떻게 날조되였는가

4월 인민 봉기에서와 그 이후 남조선 인민들은 다만 리 승만 괴뢰 정부 타도만을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자유당 민주당 다 글렀다》고 웨치면서 미제를 물러 가게 하고 새 정치, 새 제도, 새 생활을 요구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하여 왔다.

그러나 남조선 괴뢰 국회의 《선거》의 진행 정과 결과는 《민주당》이 독판치기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인민들의 의사는 조금치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남조선 인민들의 영웅적 항쟁 앞에서 리 승만 《자유당》이 몰락한 후 실시된 금번 《선거》는 미제 침략자들이 식민지 통치를 위한 쌍두마차의 하나로 조종하여 온 관제 야당인 《민주당》의 반동적 상층부에게 괴뢰 정권을 계승시켜, 위기에 직면한 저들의 식민지 통치 기반을 재수습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한 개의 협잡이며 연극이였다.

미제의 강점이 계속되고 반동적인 선거 제도를 그냥 두고 또한 선거를 조직 집행하는 반동적인 괴뢰 통치 기구를 그냥 두고 있는 조건하에서 백 번 《선거》를 하여도 인민의 의사가 반영되기란 만무하다.

거기에서는 오직 관권과 금력을 휘둘러대며 온갖 사기와 협잡을 자행하는 매국 정상배들의 의사가 지배할 뿐이며 워싱톤 사환군들을 통하여 《선거》를 조종하는 미제의 간섭가 관통될 뿐이다.

그러면 애당초 금번 괴뢰 국회 《선거》 자체가 어떻게 날조되였는가?

4월 인민 봉기 후 미제와 그의 괴뢰들은 《내각 책임제》의 《개헌》을 하며 그에 근거하여 새 《국회》를 《선거》하고 새 《정부》를 조직하면 《인민의 요구가 관철된다》고 떠들어 왔다.

도대체 《대통령 책임제》를 《내각 책임제》로 《개정》한 《헌법》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종래의 리 승만 파쑈 《헌법》에다가 교활하게 몇 개의 조문과 문구를 바꾸어 놓은 것 뿐이다.

오늘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통령 책임제》니 《내각 책임제》니 등 형식은 각이하나 그의 본질은 다 똑같은 부르죠아 독재 기구이다. 제국주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란 그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괴뢰 도당들은 《대통령 책임제》를 《내각 책임제》로 바꾸어 《립법부》와 《행정부》가 호상 견제함으로써 마치 파쑈 독재, 1인 독재를 막는 것처럼 떠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음흉한 목적을 결코 은폐할 수 없다.

그들의 소위 《량원》 즉 《참의원》과 《민의원》이 반동적 매국 정상배들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만큼 거기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이나 《국무 총리》가 어떤 자들이겠는가 하는 것은 더 말할나위조차 없다.

더우기 괴뢰 국회 《선거》에서의 기탁금제, 거주, 년령 등에 의한 각종 제한과 파쑈적 탄압으로 말미암아 로동자, 근로 농민들이 괴뢰 《국회》에 자기의 대표를 보낼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대통령 책임제》를 《내각 책임제》로 바꾸었다 하여, 소위 《국회》가 《국무 위원》들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한다 하여 그의 매국 배족적 반동 통치의 본질은 조금도 달라질 수 없다.

남조선 괴뢰 도당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내각 책임제》니 《립법부》와 《행정부》의 호상 견제이니 하는 간판으로써 마치나 《민주 정치》가 실시되는듯이 인민을 기만하려는 데 있다.

보는 바와 같이 이른바 《개정 헌법》은 리승만 파쑈 《헌법》을 복사한 데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기만적 《개헌》에 근거하여 괴뢰 국회 《선거》가 진행되였으니 그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도 명백하다.

7. 29 괴뢰 국회 《선거》는 과거의 력대 《국회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의원》, 《참의원》할 것 없이 로동자 및 근로 농민의 대표는 한 명도 《선거》되지 않았고 예속 자본가, 지주 및 그들의 정치 사상적 대변인들이 《선거》되여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금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괴뢰 국회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였다.

악명 높은 리 승만식 폭압과 관권과 금력 및 사기 협잡에 의한 부정 《선거》의 수법이 되풀이되였다.

금번 괴뢰 국회 《선거》 진행 과정이 일반적으로 리 승만 통치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때에는 더 공공연히 더 조포하게 살인, 위협, 매수, 협잡이 자행된 데 반하여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상층부는 더 교활하게 숨어서, 남조선 통신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능범》의 수법으로 그런 죄행을 감행한 데 있을 뿐이다.

《선거》 운동이 개시되자 미국 상전의 고무 지지하에 집권당의 행세를 하기 시작한 《민주당》 지배층은 한편으로는 허 정 일당으로 하여금 인민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강화케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저들의 《선거》 승리를 날조하기 위한 매수와 협잡을 적극 추진시켜 왔다. 《선거》를 앞두고 아이젠하워의 남조선 방문을 비롯하여 미국 고위 관리, 장교들의 빈번한 남조선 방문, 미국 《대사》의 직접적인 《선거》 간섭, 《대사관 감시반》의 파견,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 《감시반》 성원의 증가, 일련의 군사 도발 소동, 매 《선거》구마다에 경찰 기동대의 포치 등으로 미제는 삽엄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선거보다도 또 어떤 난리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남조선 한 농민이 말한 바와 같이 《선거》 기간 인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허 정 파도 《정부》는 군용기와 관용차 등을 《민주당》 립후보자들에게 제공하였고 그들의 위법 행위를 묵인하며 부정 《선거》 활동을 로골적으로 비호 지원하는 한편 남조선 인민들의 일반적 지향을 반영하여 새로이 정치 무대에 출현한 《혁신》 정당 립후보자들에게 대해서는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립건 수사하였다.

괴뢰 도당들은 《선거》에 앞서 남북 간의 협

상을 주장한 《혁신 세력》에 대해서 《용공》이란 감투를 씌워 탄압과 위협, 공갈을 일삼음으로써 《혁신 정당》들의 《선거》 활동을 억제하였다.

《민주당》 상층부는 《개헌》 당시에 부정 축재자 처벌 조항을 삽입할 데 대한 요구 조건을 거부하고 수 많은 부정 축재자들로부터 장차 《민주당》 집권시에 그들의 리권과 지위를 보장해 줄 약속을 미끼로 하여 막대한 《선거》 자금을 조달하는 데 광분하였다.

이 《선거》 자금을 가지고 《민주당》 상층부는 《선거인》을 매수하는 협잡 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에 어느 《선거》 때보다도 금력에 의한 매수 매표 등 협잡 노름이 성행되였는바 남조선 통신들까지도 이번 《선거》를 묵싱 지으면서 《술과 돈이 판치는 선거전》, 《돈이 많아 운동전에서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선거》라고 론평하였다.

관권과 금력, 협잡, 테로로 독판을 친 《선거》 연극을 통하여 괴뢰 국회 의석의 다수를 점탈한 《민주당》 지배층은 소위 《개헌》의 결과 실권 없는 《대통령》 자리보다 실권 행사자인 《국무 총리》 자리의 쟁탈을 둘러싼 신구파 간의 정권 쟁탈전에서 신파가 승리하여 장 면을 두목으로 한 《내각》이 조작되였다.

장 면 《내각》은 리 승만 《정권》의 연장이다

7.29 《선거》노름을 통하여 남조선에 출현한 장 면 《내각》이 리 승만 괴뢰 정권의 재판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의 구성 자체만 보아도 충분하다.

장 면이 발표한 괴뢰 각료 명단을 보면 그의 성원 전부가 예속 자본가, 지주들을 계급적 토대로 하고 있는 친미, 친일파, 민족 반역자로 꾸려졌다. 그 중에는 리 승만 통치 때의 《자유당》 출신 괴뢰 국회 의원들도 《입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민주당》의 신파 내부에서까지도 장 면 《내각》을 가리켜 《일제 시대와 리 승만 정권하에서의 관료 출신이 태반》인 《친일 관료 내각》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이러한 괴뢰 내각이 실시할 《대내 대외 정책》이 어떠할 것인가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장 면이 발표한 8개 항목의 《시정 방침》의 내용만 보아도 그것은 리 승만 본때 그대로 철두철미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반역적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장 면은 그의 《시정 연설》의 첫 마디에서 이른바 《유엔 감시하의 남북 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구호로써 그는 마치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하여 그 어떠한 관심과 성의라도 가지고 있는듯이 사태를 묘사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에 있어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반대하며 미제의 침략 정책을 온레하려는 교활한 책동에 불과하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조선 인민의 내정 문제이다. 여기에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용허할 수 없다. 무엇 때문에 조선 문제를 조선 사람 자신이 독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거기에 반드시 외국 사람이 끼여 들 것을 요구하는가? 이러한 주장은 나라의 자주성을 말살하고 민족의 운명을 외래 제국주의의 예속하에 두자는 것이다.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지난 15년 동안에 남녘땅에서는 《유엔 감시하의 선거》가 여러 번 감행되였다. 그러나 그러한 《선거》가 류례 없는 사기, 협잡, 테로가 란무하는 부정 《선거》였다는 것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유엔 감시하의 모든 《선거》는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류혈적 탄압을 동반하였고 미제의 식민지 략탈과 민족 분렬을 더욱 강화하는 수단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면 도당의 《유엔 감시하의 선거》 운운은 종래의 《북진 통일》이란 전쟁의 방법으로써도 실현할 수 없었던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침략을 무력으로 뿐만 아니라 허울 좋은 《유엔 감시하의 선거》로 달성하여 미제의 식민지 통치 제도를 공화국 북반부에까지 확대하려는 음흉한 책동에 불과하다.

장 면 《내각》은 출현하자마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영원히 미제의 예속하에 두려는 매국 배족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멸공을 국시》로 하고 남북 간의 서신 거래까지도 《위험한 곡선이 내포될 념려》가 있다는 구실하에 이를 거절한 사실,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 기구인 미국, 일본, 남조선 등을 포함한 《동북 아세아 동맹》 조작을 로골적으로 표명한 사실은 바로 그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장 면 《내각》의 이른바 《외교 정책》에서도 미제의 손때 묻은 주구의 본색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미제와 남조선 지배층 간에 《현존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면의 뉴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참괴대와 같은 구호는 남조선을 미제에 의한 정치, 경제, 군사적 예속과 미국식 생활 양식의 침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민족적 자주권과 민족 문화를 말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전과 괴뢰와의 예속적인 주종(主從) 관계는 벌써 나타나고 있는바 장 면 《내각》은 상전에게 《원조》의 증액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에 《사절단》 파견까지 결정하였다.

미국 지배층도 새 괴뢰 정권에 대하여 《우리는 한국의 신 정권과 극히 좋은 관계에 있으며 신 정권은 구 정권보다 더 협조적이다》라고 떠벌리고 있다.

장 면 《내각》은 미국 《원조》 뿐만 아니라 파쑈적 서부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의 독점 자본까지 끌어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일본 독점 자본의 지배하에서 조선 인민이 식민지 노예의 쓰라린 생활을 겪어 온 사실을 생각할 때 그 일본 자본을 또다시 끌어 들이자는 것은 친일 주구들이 아니고서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장 면 《내각》의 이른바 《대외 정책》이 《반공 국시하의 외교》라는 구호하에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그대로 떠받들고 있는 철두철미 매국 배족적 정책인가 하면, 그의 《대내 정책》에 있어서도 역시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을 보강하며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기에 광분하여 온 리 승만의 반인민적 정책의 재연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장 면 도당이 벌써 《선거 전 공약》으로부터 시작하여 금번 《시정 방침》에서 표명한 《경제 시책》은 처음부터 공담으로 일관된 기만 정책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장 면 《내각》은 《시정 방침》에서 《경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 개발을 위한 투, 융자의 확대》, 《토지 수득세의 금납제》, 《전원(電源) 개발》, 《중 소 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조치》 등 허황한 문구들을 장황하게 라렬하고 있다.

이러한 표방은 리 승만 통치 시기에도 남조선 인민들이 귀가 아프도록 들어 온 바로 그 소리다. 그러나 남조선 인민들은 리 승만 통치 시기에 그 어느 것 하나 해결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과연 장 면 《내각》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무슨 밑천으로 이 《경제 시책》을 실현할 수 있단 말인가.

금고는 텅 비고 생산은 없고 괴뢰 정부는 인민들에게서 진 부채만 하여도 4천억 환에 달하는 한심한 처지에서 무엇으로 파산된 민족 경제를 복구하고 기아와 빈궁에서 허덕이는 수백만의 실업자들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장 면 《내각》의 이른바 《경제 시책》의 허황성은 그들이 8월 27일에 발표한 신년도 예산안 하나만 보아도 충분하다.

신년도 예산안은 재정 수요가 금년보다 23%나 증가된 근 5천 200억 환의 세출 규모를 가지고 있는바 그 자체가 방대한 적자 투성인 가공 예산이며 세입 원천이라는 것도 조세 수입이 아니면 국채 발행과 같은 채무 행위에 의존하고 있다.

조세 또는 국채 발행을 유일한 세입 원천으로 삼는 적자 가공 예산으로서는 팽창하는 군사, 경찰비와 행정 관리비조차 메우기도 부족한 형편에 있다.

장 면 《내각》은 미국 《원조》에 큰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원조》가 남조선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

장 면 《내각》은 결코 그의 《경제 시책》을 실현할 수 없다.

지어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지까지도 장 면 《내각》이 표방하는 《경제 시책》의 황당성에 언급하여 《불안정한 한국 경제와 뒤흔들리는 정부 재정은 돈이 많이 드는 이러한 계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장 면 《내각》의 그러한 《경제 시책》은 그들의 계급적 리해 관계로 보아서도 결코 실행할 수 없다.

그것은 《부정 축재자 처리》에 대한 태도만 보아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리 승만 《정부》를 타도한 이후에도 계속 《부정 축재자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실업자들과 절량 농민들을 구원하는 데로 돌리자》고 요구하여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부정 축재자들은 리 승만 괴뢰 정권하에서 갖은 협잡과 부정으로서 치부한 예속 자본가들이다. 이 자들은 바로 미제의 략탈적인 《원조》 정책을 실현하면서 남조선의 재부를 미제에게 송두리 채 넘겨 주며 민족 경제와 인민 생활을 파멸에로 이끌어 간 대'가로 부당하게 재부를 횡취하여 치부하였다.

따라서 남조선 인민들이 이 자들을 《엄단》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빈민 구제에 돌리라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그러나 장 면 《내각》은 《국민 경제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혹하지 않고 경제 파탄을 가져 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정 축재자들을 처리》하겠다고 떠들고 있다.

이것은 우연하지 않다.

워낙 장 면 《내각》 자체가 지주, 예속 자본가에 그 지반을 두고 있는 것만큼 예속 자본가 무리들인 《부정 축재자 처리》를 어물어물해 버릴 것만 사실이다.

한 가지를 미루어 백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이만해도 장 면 《내각》의 반인민적 본질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제반 사실은 장 면 《내각》이 그 날조 과정으로 보나 그 구성상으로 보나 그가 표방하는 《정책》상으로 보아서 철두철미 리 승만 괴뢰 정권의 재판이다.

이 《정권》은 인민들에게 정치적 무권리와 기아와 빈궁 외에는 아무 것도 줄 수 없다.

미국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인 친미, 친일가들과 지주, 예속 자본가들의 식민지 반동 통치가 실시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과연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는가.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 강점이 계속되고 우리 나라가 분렬되여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누구가 어떠한 방법으로 정권에 들어 앉는다 하더라도 파국에 처한 남조선 사태를 수습할 수 없으며 인민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달라진다고 하면 리 승만 정부가 장승만 정부로 개칭되는 것 뿐이고 그 처지와 말로는 한 가지일 것이며 인민들의 생활에도 하등의 개선이 없을 것이다》(《조선 인민의 민족적 명절 8.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

오늘 남조선에서 갈수록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과 정권 독점을 위한 지배층 내부의 갈등이 우심하여지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생존권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계속되는 치렬한 투쟁은 그의 정치 경제적 위기를 극도로 첨예화시키고 있다.

남조선에서 첨예화되여 가는 민족적 모순과 계급적 모순, 지배 계급 내부 간의 모순은 장 면 《내각》의 위기와 파멸을 기필코 촉진시킬 것이다.

장 면 《내각》이 날조된 후 3주일도 못 되여 벌써 《내각》 《개편》이 진행된 자체가 그의 정치적 위기의 뚜렷한 표현의 하나이다. 괴뢰 각료 자리에서 몇 명의 《신파》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구파》가 들어 앉았다고 해서 그것으로써 장 면 《내각》의 성격이 달라질 수 없으며 그의 정치적 위기를 완화시킬 수 없으며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하여 전개되고 있는 인민들의 투쟁을 결코 막아낼 수 없다.

남조선에서 파국에 처한 현 사태를 수습하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절박한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고 괴뢰 반동 통치 제도를 종식시키고 남북 협상과 나아가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데 있다.

쏘련의 위대한 조국 전쟁사*

I

쏘련 인민의 영웅적 투쟁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부분이였던 제 2차 세계 대전은 최근세사에서 완전한 한 시기를 이루었다. 력사적 과정의 발전을 일정한 단계들에 따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정확한 시기 구분은 제 2차 세계 대전을 과학적으로 구명함에 있어 큰 의의를 가진다. 전쟁의 시기들이란 군사-정치 정세에서 대변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기간을 말한다. 이러한 변동은 무력 투쟁 행정과 그 형태들, 군사 행동의 단계들, 교전국들의 전시 경제의 상태와 국제 정세를 규정하는 전반적인 경제적 및 정치적 요인들에 의하여 야기된다.

제 2차 세계 대전사에서 전쟁 제 1기는 전쟁 개시로부터 쏘련에 대한 독일의 침공까지의 시기를 포괄한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다. 제 2차 세계 대전의 그 이후의 시기 구분은 위대한 조국 전쟁 행정과 그의 주요 시기들에 의하여 규정된다.

위대한 조국 전쟁의 제 1기(제 2차 세계 대전의 제 2기에 해당된다)는 1941년 6월 22일부터 1942년 11월까지의 기간을 포괄한다. 이 시기는 쏘베트 국가에 있어서 전쟁의 가장 어려운 기간으로서, 치렬한 전투에서 파쑈 독일의 《전격전》 계획을 파탄시킨 붉은 군대가 부득이 후퇴한 것으로 특징 지어졌으며 후방과 전선에서 전쟁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조성한 것으로 특징 지어졌다. 이 시기에 파쑈 독일을 반대하는 쏘베트 국가의 무력 투쟁은 주로 방어적 성격을 띠였다. 즉 붉은 군대는 완강한 전투를 진행하여 적의 력량을 소모시키면서 국내 깊이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이 기간에 독일은 쏘련에 대하여 두 번이나 대공격을 감행하였으나 두 번 다 제지 당하였으며 히틀러의 전략이 내세운 종국적 목적들은 좌절되고 말았다. 전쟁 제 1기에 쏘련의 무력은 파쑈 침략을 제지하고 적들이 국내 깊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전쟁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조성하였다. 붉은 군대의 1941~1942년 동기 공세 및 모스크바 근방에서의 독일 파쑈 무리들의 격멸은 제 2차 세계 대전에서의 독일의 첫 대패배로서 모험적인 《전격 작전》의 완전한 파탄으로 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쏘련 무력은 아직 군사 행동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달성할 수 없었다.

이 시기에 공산당의 활동은, 최단 기간 내에 국내의 일체 생활을 전시 태세로 개편하며 나라를 하나의 통일된 전투 대렬로 전환시키며 히틀러의 《전격 작전》을 좌절시키며 조국 전쟁 행정에서 전환을 준비하는 데로 돌려졌다.

쏘련 공산당의 위대한 공훈은 그가 전쟁의 최초 수개월 간 가장 어려운 조건하에서 난관에 굴하지 않고, 잔인하며 교활한 원쑤의 공격에 당황하지 않고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 조국의 수호에로 궐기시킬 수 있었다는 거기에 있다. 전투 행동이 개시된 시초부터 당의 령도하에 적후에서는 전쟁 과정들에 거대한 역

* 전호에서 계속.

할을 한 전 인민적인 빨찌산 운동이 전개되였다.

이미 전쟁의 제 1기에 쏘련의 군수 경제는 붉은 군대에 주도권이 넘어 오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준비하였다.

이 시기에 반파쑈 련합도 형성되였다. 쏘련 무력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북아프리카, 대서양 및 태평양 교전 구역들에서 반파쑈 련합의 기타 성원국 무력이 성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위대한 조국 전쟁의 제 1기는 또한 쏘베트 군사 예술의 발전에서 중요한 단계로 되였으며 구체적인 전투 경험을 축적하고 연구한 시기였다. 쏘베트 군대는 전투에서 섭취한 경험을 고려하여 방어에서나 공격에서 작전 및 전술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옳은 방도를 찾아냈다.

결국 전쟁 초기에 독일 파쑈 군대의 동부에로의 전진이 저지되고 교전국 쌍방의 전략적 균형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 오며 주도권이 쏘련에 넘어 오는 데 필요한 전제들이 조성되였다. 이 시기의 전쟁 과정에서 정점으로 된 것은 히틀러의 진공 계획을 파탄시킨 모쓰크바 근방에서의 독일 파쑈 군대들의 괴멸과 영웅적인 쓰딸린그라드 방어 전투였다.

위대한 조국 전쟁의 제 2기(제 2차 세계 대전의 제 3기)는 1942년 11월 19일부터 1943년 말까지 계속되였다. 이 시기는 전쟁 행정에서의 근본적인 전환, 붉은 군대의 위대한 력사적 승리의 시기였으며 파쑈 독일 군대의 파멸적인 패배의 시기였다. 이 시기는 군수품 생산이 급격히 증대되고 쏘베트 병사들의 전투 기능이 제고되고 전략적 주도권이 붉은 군대에 넘어 온 시기이다. 이 시기에 공산당과 전체 인민의 노력은 나라의 인민 경제에서 생산 능력을 현저히 장성시키며 군수품 생산을 증대하여 쏘베트 군대의 승리적 진공과 전쟁에서의 급격한 전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선에 보장하는 데로 돌려졌다. 이 시기에 공산당이 취한 군사 건설 분야에서의 중요한 조치들은 쏘베트 군사 예술을 가일층 발전시켰으며 쏘련 무력의 전투 기능을 제고시켰다. 이 시기에 있은 사변들은 쏘련의 국제적 지위에서 새로운 큰 변화들이 일어났고 위력이 가일층 강화되였으며 전략적 주도권이 붉은 군대에 넘어 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쓰딸린그라드와 꾸르쓰크 근방에서의 붉은 군대의 승리는 전쟁 제 2기의 정점을 이루었다. 쓰딸린그라드 근방에서의 파쑈 독일 군대의 격멸은 히틀러 독일을 반대하는 투쟁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으며 위대한 조국 전쟁과 제 2차 세계 대전에서의 근본적인 전환의 시초를 열어 놓았다. 붉은 군대의 이러한 전 세계사적 승리에서 인류는 파씨즘에 대한 종국적이며 완전한 승리의 려명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

쓰딸린그라드 근방에서의 반공격으로부터 시작하여(1942년 11월 19일부터) 쏘베트 군대는 1942～1943년 겨울에 쏘-독 전선의 남익에서 계속 공세를 개시하였다. 동시에 쏘베트 군대는 레닌그라드의 봉쇄를 돌파하고 다른 전선 지역들에서 작전 및 전략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다. 쏘베트 땅에서 원쑤들을 대대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943년 2～3월에 독일 파쑈 지휘부는 붉은 군대의 공세를 저지시키고 상실한 주도권을 다시 쥐여 보려는 시도 밑에 하리꼬브 방면과 돈바쓰의 서부 지역에서 반공격을 개시하였다. 쏘베트 군대는 일시적 방어에로 넘어 가지 않으면 안 되였다. 적극적인 방어 전투들에서 쏘베트 군대는 적들에게 심대한 손실을 주었으며 3월 말에 가서는 적들의 반공격을 종국적으로 저지시켰다. 이 방면에서 전선은 안정되였다.

7월 초에 독일 지휘부는 패배를 만회할 목적으로 꾸르쓰크 지역에서 또 한 번 대공세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히틀러 도배들이 그처럼 기대를 건 이 마지막 전략적 공세도 파멸적인 실패로 끝났다. 꾸르쓰크 근방의 대전투에서 적이 격멸된 결과 쏘베트 군대는 쏘-독 전선의 남익과 중부에서 결정적인 공격에로 넘어 갔

오며 돈바쓰 좌안과 우크라이나 및 로련의 서부 주들의 지역을 해방하였으며 드네쁘르강을 도하하여 우안 우크라이나에서 전략적 기지들을 확보하였다.

붉은 군대의 승리는 파쑈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미국과 영국 무력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영 미 정부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완전히 리용하지 않았으며 1943년에 구라파에서 제 2 전선을 형성하지 않았다. 테헤란 회의(1943년 11월 28일~12월 1일)에서는 반파쑈 련합 렬강 수뇌자들 간에 1944년에 북부 불란서에서 실시하게 될 미 영 군대의 상륙의 규모와 기일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전쟁의 제 2기는 쏘련의 후방에서 질서 정연하고 효과적인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특징적인바 그것은 대공격 작전의 진행에 필요한 무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였다.

군사 예술 분야에서 붉은 군대는 이 시기에 전쟁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 전투 기재의 발전 및 그의 집중적인 적용에 기초하여 작전 방법과 전술 방법을 더욱 완성시켰다. 특히 쏘베트 군대는 방어에서 확고한 숙련을 쌓았으며 공격 작전에서 다방면적으로 큰 경험을 쌓았다.

위대한 조국 전쟁의 제 3기(제 2차 세계 대전의 제 4기)는 1943년 말부터 1945년 5월 9일까지 계속되였다. 이 시기의 특징은 붉은 군대가 파쑈 침략자들을 쏘련 땅에서 완전히 몰아냈고, 동구라파 및 동남구라파 인민들을 해방하였으며 히틀러 독일을 종국적으로 괴멸시킨 데 있다. 공산당은 전쟁을 최종적으로 승리하며 히틀러 침략자들로부터 쏘련 령토를 완전히 해방하며 적에게 강점되였던 지역들에서 인민 경제를 성과적으로 복구하며 파쑈 기반하에서 신음하던 구라파 인민들을 해방시킬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로 후방 근로자들과 붉은 육해군 병사들의' 활동을 향도하였다. 군사 정치 정세에서 쏘련에 유리하게 계속 변화가 일어났다. 쏘련 군대는 개별적 계선들에서의 공격으로부터, 전략적인 전 전선에서의 련속적이며 동시적인 대공격 작전 형태로 진행되는 총 공격에로 넘어 갔다. 붉은 군대의 현저한 량적 및 기술적 우세, 그의 완전한 전략상 주도권, 쏘베트 공군의 제공권은 독일 파쑈 군대에 더욱더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게 하였다.

1943년 12월 말에 쏘베트 군대는 우안 우크라이나에서 공격을 재개하였다. 1944년 1월에 공세는 쏘-독 전선의 북부 방면에로 확대되였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종국적 해방, 레닌그라드 봉쇄의 완전 제거, 레닌그라드주, 크림 및 쏘련의 기타 지역들로부터의 독일 강점자들의 구축을 가져 왔다. 1944년 여름에 쏘련 군대의 공격은 더욱 광범하게 전개되였다. 쏘련 무력은 히틀러 블럭 국가들의 국경을 넘어서 군사 행동을 그들의 령토에로 이동해 갔다. 마침내 1945년 동기 작전에서 전쟁 전 기간을 통하여 붉은 군대의 가장 큰 공격이 진행되였다.

반파쑈 련합에 망라된 쏘련의 동맹국들은 히틀러 독일에 대한 군사 행동 형태를 변경하였다. 1944년 6월에 미 영 군대가 북부 불란서에 상륙함으로써 비록 몹시 늦기는 하였지만 마침내 서구라파에서 제 2 전선이 형성되였다. 이때부터 쏘련 무력과 미 영 무력이 협동 작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였다.

파쑈 독일의 정세는 그가 강점하고 있던 벨기와 불란서의 령토를 상실함으로써 악화되여 갔다. 물론 전쟁이 종결될 때까지 독일을 격멸함에 있어서 주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한 것은 쏘련 무력이지만 제 2 전선도 독일의 패망을 촉진시켰다.

교전 쌍방의 군수 경제의 력량 대비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파쑈 독일의 경제는 1944년 7월부터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나 쏘련과 전체 반파쑈 련합의 경제력은 계속 장성하였다.

전쟁 제 3기에 쏘련 군대는 원쑤들을 쏘련 경외로 완전히 구축하였으며 ·또한 파쑈 기반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구라파 인민들의 투쟁에 방조를 주었다. 바로 이 시기에 히틀러

블럭의 종국적인 붕괴 과정이 일어났으며 파쑈 독일의 동맹자였던 일련의 나라들은 독일을 반대하여 총뿌리를 돌리였다. 이 모든 것은 국제 정세와 쏘련의 대외 정치 정세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 왔다. 파쑈 노예로부터 제 인민을 해방한 해방자로서의 쏘련의 위신이 더욱더 제고되였다.

구라파에서의 전쟁의 제 3기는 파쑈 독일에 대한 쏘련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이것은 제 2차 세계 대전 전반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았는바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무력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 2차 세계 대전의 전 기간에 걸쳐 일본은 파쑈 독일의 동맹자이며 공모자로서 파쑈 독일과 함께 대평양 지역과 동남 아세아에서 반파쑈 련합의 렬강을 반대하여 싸웠다. 비록 일련의 원인으로 하여 일본은 독일과 함께 쏘련을 반대하는 전쟁에 나서지는 못하였으나 그는 항상 독일 제국주의자들에게 온갖 지지를 주었다.

쏘련을 적대시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은 파쑈 독일에 대한 그의 현실적인 원조였는바 왜냐 하면 이는 쏘-독 전선에서 40개 사단을 빼여내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원수의 침략에 용감히 항거하여 나선 위대한 중국 인민을 반대하여 장기간의 두절적인 전쟁을 진행하였다. 제 2차 세계 대전 기간의 일본의 모든 정책은 히틀러 독일이 실시한 것과 한가지로 호전적 제국주의의 강도적 정책이였다. 히틀러 독일이 항복한 후에도 일본은 반파쑈 련합 국가들과 중국을 반대하여 전쟁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동맹국들에 대한 의무에 충실한 쏘련은 전체 쏘련 사람들과 아세아의 피압박 인민들의 근본적인 리해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1945년 8월 8일 제국주의 일본에 대하여 선전을 포고하였다. 쏘련 인민은 대일 전쟁에 들어 섬으로써 자기의 해방자적 사명을 계속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리익과 전체 진보적 인류의 리익을 위하여 정의의 전쟁을 계승하였다. 쏘련 인민은 중국 인민, 그의 인민 해방군 및 몽고 인민 혁명군과 함께 자기의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제국주의의 기반으로부터의 중국의 해방을 위하여, 제 2차 세계 대전의 조속한 종결을 위하여 무력 투쟁을 전개하였다.

쏘련의 대일 전쟁은 위대한 조국 전쟁의 직접적인 계속이였으며 그의 중요 구성 부분이였으며 그의 특별한 한 시기였다. 그와 동시에 이는 제 2차 세계 대전의 최종기인 제 5기(1945년 5월 9일~9월 2일)의 중요 사변이였다. 이 시기에 쏘련 무력의 행동은 3개월의 평화적 휴식 후 전혀 새로운 조건하에서, 급격히 변한 정치적 및 전략적 정세하에 새로운 지역에서 진행되였다. 쏘련 군대는 중국의 동북, 북조선, 남화태, 천도 렬도에서 일본 군대에 대한 공격으로 넘어 가 일본 관동군과 그 괴뢰군을 섬멸하였다.

원동에서의 쏘련군 부대들의 군사 행동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 영 군대의 행동과 함께 당시 동방에서의 주되는 침략자였던 제국주의 일본으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였다. 일본의 항복은 위대한 조국 전쟁과 제 2차 세계 대전의 종결을 의미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쏘련은 일본에 탈취 당하였던 령토를 도로 찾고 원동 국경을 강화할 수 있게 되였으며 또한 아세아의 식민지 인민들의 성과적인 민족 해방 운동을 위한, 위대한 중국 인민의 해방을 위한 유리한 전제 조건들이 조성되였다.

6권으로 된 《1941~1945년 쏘련의 위대한 조국 전쟁사》는 이상에 서술된 시기 구분에 따라 구성되여 있다.

제 1권에는 제 2차 세계 대전의 발생, 제국주의 렬강에 의한 쏘련 침공의 준비, 쏘베트 국가의 국방 강화를 위한 공산당과 쏘련 정부와 전체 쏘련 인민의 사업이 서술되여 있다. 년대적으로 보면 제 1권은 30년대 초 즉 세계 대전의 두 발원지가 형성되던 시기부터 1941년 6월 즉 독일이 쏘련을 침공하기까지의 시기들을 포괄하고 있다.

제 2권은 위대한 조국 전쟁의 제 1기(1941년 6월 22일~1942년 11월)의 사건들을 포괄하고 있다. 제 2권에는 쏘련에 대한 파쑈 독일의 배신적 침공, 침략에 대한 반격에로의 공산당에 의한 인민 력량의 동원, 붉은 군대의 불가피한 후퇴 및 그의 영웅적인 항전, 쏘련 무력의 첫 반공격, 쏘련을 반대하는 파쑈 독일의 《전격전》의 파탄 및 전쟁에서의 전환을 위한 조건의 조성이 반영되여 있다.

제 3권은 위대한 조국 전쟁의 제 2기(1942년 11월 19일~1943년 12월)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는 원쑤 격멸을 조직하기 위한 공산당과 쏘련 정부의 투쟁, 쓰딸린그라드 전투, 꾸르쓰크 전투 및 1943년에 진행된 기타의 많은 전투들에서 쏘련 무력이 달성한 승리에 의하여 전쟁 행정에서 초래된 근본적인 전환이 반영되여 있다.

제 4권은 1944년에 해당하는 전쟁 제 3기의 사건들과 또한 쏘련 강토로부터의 독일 침략자들의 완전 구축, 동구라파 및 동남 구라파 인민들의 해방과 관련된 사건들을 포괄하고 있다.

제 5권은 위대한 조국 전쟁 제 3기 말(1945년)에 쏘련 무력이 달성한 대승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 승리는 파씨즘으로부터의 구라파 인민들의 해방, 히틀러 독일의 종국적인 괴멸을 가져 왔다. 제 5권에는 또한 제국주의 일본의 패배와 관련된 사건들도 포함되여 있다.

제 6권은 쏘련의 위대한 조국 전쟁과 제 2차 세계 대전의 전 세계사적 총화 및 결과를 서술하고 쏘베트 국가의 승리의 원천을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전후 시기에 있어서의 쏘련의 평화 옹호 투쟁을 서술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전쟁의 중요 사건들과 그의 결과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주며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전쟁의 발생 원인, 전쟁 행정 및 그 결말을 분석하는 것이 《1941~1945년 쏘련의 위대한 조국 전쟁사》의 중요 과업이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발간되는 이 로작은 독자들에게 전쟁사의 중요 측면들을 보여 주며 1941~1945년 간의 주요 전투들과 쏘련의 경제적 및 사회 정치적 발전 과정을 밝혀 주며 또한 이 시기의 쏘련 대외 정책 문제들을 해명하고 있다. 이 저서는 파쑈 독일 및 기타 제국주의 렬강의 쏘련 침략 준비를 개괄 및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전선과 후방에서의 쏘련 인민의 열렬한 애국주의와 영웅적 투쟁, 붉은 군대와 붉은 해군의 중요 작전들, 전쟁 행정에서 장성된 쏘련 무력의 위력 및 쏘베트 군사 예술의 우월성을 보여 주고 있다.

《1941~1945년 쏘련의 위대한 조국 전쟁사》는 강대하고 잔인하고 음흉한 원쑤를 반대하여 전체 쏘련 인민이 전선과 후방에서 전개한 영웅적 투쟁의 무비의 화폭을 재현하고 있다. 6권으로 된 이 저서는 쏘련 인민의 거대한 위훈을 보여 줄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쏘련 무력 및 빨찌산의 군사 행동과 함께 후방의 활동에도 많은 자리가 돌려지고 있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파쑈 침략자들과 그의 동맹자들을 반대하는 전체 평화 애호 인민들의 위대한 결전으로 전화된 사실을 고려하여 저서에서는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 당하였던 구라파 및 아세아의 여러 나라 인민 대중이 파쑈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진행한 용감한 자기 희생적 투쟁에 대하여도 서술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반파쑈 운동이 전개되였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자국의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세계 문명과 문화를 옹호하였으며 파쑈 야만의 야수적 행위와 몽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으로 진출하였다. 이 당들의 자기 희생적 활동은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반파쑈 련합이 달성한 대승리의 중요 전제 조건의 하나였다.

많은 나라 인민들은 전쟁 시기에 자유와 민족적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보여 주었으며 승리를 쟁취하는 데 많은 희생을 냈다. 독일 파씨즘을 격멸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쏘련 인민이였다. 사회주의는

쏘련 사람들에게 강력한 힘을 주었는바 그것은 전쟁 행정에서 독일과 그의 동맹국들의 세력을 능가하였다. 사회주의 사회 제도와 국가 제도의 승리, 쏘련 무력의 승리는 완전히 합법칙적이였다. 이 승리는 파쑈 반동에 대한 사회적 진보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온갖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피를 흘렸고 자기의 생명을 바친 쏘련 인민의 수백만의 슬기로운 아들딸들을 가슴 깊이 다시 한 번 추억하게 된다. 사회주의 조국의 수호자들의 무비의 용감성과 자기 희생성, 공산당의 주위에 뭉친 단결력으로서 인류의 원쑤인 파씨스트들에 대한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였는바 이 승리는 항구한 평화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투쟁의 어려운 위업을 대단히 용이하게 하였다.

쏘련 인민과 그의 무력은 자기의 사회주의 조국을 고수하고 파쑈 무리들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달성한 것으로 뿐만 아니라 독일 인민도 포함한 구라파의 피정복 인민들에게 형제적인 원조의 손'길을 뻗친 것으로서도 위대한 공훈을 세웠다. 베를린 트레프토브 공원에 건립된 해방 전사 기념비는 쏘련 인민의 이 승리와 위훈의 장엄한 상징이다. 이 웅장하고 훌륭한 쏘베트 조각 작품(예. 부체찌츠작)에는 자기의 검으로 파씨즘의 표징인 갈구리 십자를 까버리고 인류의 미래를 구원한 새형의 군대인 붉은 군대의 영웅적 모습이 담겨져 있다.

이 기념비에 대한 한 쏘베트 시인의 다음과 같은 훌륭한 시가 있다.

이 경사스러운 날 베를린에는
길이길이 칭송 받을 쏘련 병사,
구원한 처녀애 품에 안은
기념비 섰네.

우리 영광의 상징인
위대한 내 조국의 이 병사,
어둠 속을 비쳐 주는 등대마냥
거연히 서서

온 세계의 평화 지키네

전 세계사에 찬연한 금자탑을 쌓아 올린 쏘련 인민의 승리는 영원히 빛날 것이다.

IV

위대한 조국 전쟁의 교훈들은 아주 중요한 전 세계사적 의의를 가진다. 이 교훈들은 사회주의와 진보적 력량의 불패성을 여실히 확증하였으며 세계 제패를 야망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계획이 황당무계한 망상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사회주의의 악독한 원쑤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제국주의 국제 반동은 두 차례에 걸쳐서 즉 무력 간섭 및 공민 전쟁 시기와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를 통하여 무력으로써 쏘베트 국가를 정복하려 하였으며 해방된 쏘련 인민에게 또다시 자본주의 노예의 멍에를 씌우려고 기도하였다. 그리하여 영웅적 쏘련 인민은 두 차례에 걸쳐 어려운 전쟁의 시련을 이겨내였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계승하였다.

반파쑈 련합국들의 공동 투쟁의 력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쏘련은 전쟁 시기에 벌써 전후 국제 발전의 주요한 과업으로서 반파쑈 련합국들의 협조를 계속하며 그를 일층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쏘련의 발기에 의하여 해당한 공동 결정들이 채택되였고 엄숙한 의무들이 지워졌다. 그러나 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숙한 협정들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바쁘게 이 결정들은 파탄되고 말았다.

국제적 협조를 파탄시킴에 있어서 주되는 역할을 논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팽창 정책이다. 이 팽창 정책에는 미국 독점체들의 본성인 세계 제패의 야망이 표현되고 있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종말된 직후 당시의 미국 대통령 트루맨은 국회에 제출한, 1945년 12월 19일부 교서 《무력의 재편성》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의 승리는 미국 인민들에게 세계를 지도할 항시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하여야 한다. 전 세계에 있어

서의 앞으로의 평화는 미국이 모든 민족의 지도자의 역할을 고수한 결심에 충만되여 있는가에 달려 있다》(《Congressional Record》, Vol. 91, Pt. 9, PP. 12398～12399).

1946년 3월 처칠은 미국 풀톤에서 대통령 트루맨의 참가하에 침략적인 연설을 하였다. 이 연설에서 그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십자군 원정에로 앵글로색쓴 인민들을 호소하면서 이른바 《랭전》의 시초를 열어 놓았다. 풀톤에서의 처칠의 연설에 대하여는 1950년 3월에 심지어 페이버당 우익 지도자이며 당시의 영국 외상이던 비벤과 같은 악랄한 반공산주의자도 그것을 쏘련에 대한 《예방전》의 표리라고 불렀던 것이다.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은 자기들이 한 선언을 저버리면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협조를 거절하였고 쏘련과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여 나토, 쎈토 및 기타 침략적 군사 쁠럭들을 조작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력사의 교훈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또 알 수도 없었다. 사회주의에 대한 계급적 증오로 하여 눈이 벌개진 이들은 비록 사회주의를 소멸하지는 못할망정 하다 못해 사회주의 국가 근로자들의 창조적 사업이라도 파탄시키려는 로선을 택하였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부르죠아지의 한 잡지는 워싱톤의 이 로선을 특징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제 2차 세계 대전 시기부터 미국대외 정책의 목적은 세계를 공산주의와 반공산주의로 엄격히 갈라 놓으며 반공산주의 진영을 무장에로 동원하며 중국에 가서는 공산주의자들을 소멸하거나 그들을 아무런 가망도 없는 제 2차적 지위에로 밀어내는 것이다》(《Monthly Review》, March 1956, P. 433). 미 제국주의자들은, 영웅적 투쟁으로 세계 문명을 녀인 파씨즘의 파괴에서 구원한 그리고 많은 나라에 자유를 안겨 준 쏘련을 반대하는 《랭전》의 선포가 인민들의 단호한 반항에 부닥치리라는 것을 짐작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가증스러운 중상을 일삼기 시작하였다. 제국주의 선전은 쏘련이 마치도 자본주의 국가들을 불의에 공격하려 한다는 듯이 떠벌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로씨야는 전쟁을 원하고 있다》는 이 추악하고 우둔한 중상은 쏘련 인민들이 히틀러 도배들에 의한 전쟁의 상처와 략탈 및 파괴의 막대한 후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긴장된 로력을 기울이고 있던 전후 시기에 나타났다.

그 후 제국주의 선전은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 계속 악랄한 중상을 일삼아 왔다. 미국의 정부 출판물들이 쏘련을 중상함에 얼마나 황당한 허위를 날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미국 참모부의 력사부가 발간한 제 2차 세계 대전사의 한 구절이 잘 보여 주고 있다. 제 2차 세계 대전 전파 이후의 쏘련의 정책을 특징 지으면서 역신전적 훼방문의 작성자들은 다음과 같이 썼다: 《자유 세계 정탐 기관들이 수집한 문헌상의 자료들은 쏘베트 로씨야가 세계 제패를 계획하였으며 지금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여지 없이 증명하여 주고 있다. 모쓰크바에서 작성되여 출판된 군사 지도와 략도들은 인류 력사에서 가장 큰 음모를 드러내놓고 있다. 공식적인 공산주의 선언들은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공산주의의 모든 지도서나 출판물들은 인민들을 민주주의 국가를 반대하는 전쟁에로 추동하기에 날뛰고 있다》 (War in Korea and the Complete History of World War Ⅱ. Ed. by Francis Trevelyan Miller, Armed Services Memorial Edition. 1955, PP. K-1～K-2).

《대사기'군》인 게펠스의 수법에 의하여 작성된 이러한 도발적인 허위 론거들은 세계 사회 여론을 기만하려는 것이였다. 펜타곤의 력사 위조자들은 그들이 마치도 《증거》를 가지고 있는듯이 떠들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근거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발표할 수는 없다고 하는 비방자들의 옛 수법을 답습하고 있다. 실제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산주의 지도서나 출판물》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어느 한 쏘련 사람도 결코 전쟁 선동자로 나서지 않았으며 나설 수도 없는 것이다! 쏘련을 방문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수만명 공민들—그 중에는

수천명의 미국인도 포함하여—이 인것을 똑똑히 인식할 수 있었다. 침략 지도나 략도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들은 바로 미국 군벌들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미국 출판물에 자주 발표되고 있다. 미국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잡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교만하고 파렴치하게도 쏘련의 령내에 깊이 들어 간 미국측으로부터의 있을 수 있는 침략의 화살은 한두 번만 묘사하지 않았다. 이 잡지와 그리고 잡지 《콜리에르스》 및 기타 이와 류사한 출판물들은 공연하게도 자기의 지상을 통하여 쏘련을 한두 번만 《소멸》하고 있지 않다. 례컨대 잡지 《콜리에르스》는 미국 비행기가 원자탄으로 모스크바를 폭격하는 환상 《오체르크》를 1951년에 자기의 지면에 실었던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과는 반대로 쏘련은 변함 없이 평화와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계속 투쟁하고 있다. 쏘련의 평화적 발기들은 국제 생활의 주요한 동인으로 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발기들은 엔. 에쓰. 흐루쑈브의 력사적인 외국 방문들에서 더욱 명백히 나타났다. 특히 1959년 가을 흐루쑈브가 평화와 친선의 사절로서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가장 뚜렷이 나타났다.

미국이 전혀 그릇된 추측과 타산에서 출발하여 세운 쏘련에 대한 정책, 덜레스의 《힘의 립장에서》 정책과 《전쟁 접경》 정책은 파탄되고 말았다. 이 정책의 작성자들은 쏘베트 사회주의 제도의 위력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랭전》을 선포함으로써 사회주의의 발전을 지지시켜 보려고 타산하였으나 결국은 완전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쏘련은 자기의 경제, 기술 및 과학 발전과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 향상에서 보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였는바 이 고지는 두 체계의 경쟁과 쏘련의 공산주의 건설에서의 실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된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불패의 통일을 파괴할 수도 없었으며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위력의 부단한 장성을 저지시킬 수도 없었다.

미국 력사학자 윌리암스는 워싱톤 정책의 패배를 확인하면서 자기의 저서 《미국 외교의 비극》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미래의 력사가들은 랭전의 <총 외교>가 부메랑(고대에 사용되였던; 던지는 무기의 일종으로서 던진 자에게 되돌아 간다)의 작용을 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왜냐 하면 미국은 그들의 정상과 정책의 종국적인 결과로써 나타나리라고 굳게 확신하였던 세계와는 전혀 반대되는 현실이 10년 남짓한 기간에 나타났음을 보게 되였기 때문이다》 (William A. Williams. The Tragedy of American Diplomacy. Cleveland and New YorK, 1959, P. 169).

쏘련과 전체 사회주의 국가들 및 기타 평화 애호 국가 인민들의 노력에 의하여 50년대 말에 이르러 대렬강들 간의 긴장성은 얼마간 완화되였으며 당면한 국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회담의 길이 열려졌다. 그러나 평화의 원쑤들은 정세가 완화됨에 따라 더욱더 미쳐 날뛰였다. 엔. 에쓰. 흐루쑈브는 미국에서 돌아 온 후 이런 자들의 음모에 대하여 여러 번 경고하였다.

군비 경쟁으로 치부하며 미국 인민도 포함한 모든 인민의 의사를 거역하여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와 국가들 간의 관계 개선을 방해하려고 날뛰는 바로 이런 침략적 제국주의 계층이 1960년 봄에 미국 정책에서 우세를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자들은 쏘련, 미국, 영국 및 불란서 정부 수뇌자들의 회의 파괴를 목적으로 내세웠다. 미국 정부는 이 회의에 제기할 아무런 평화 제안도 준비하지 않았으며 수뇌자 회의에 대해서 심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고위급 회의가 파탄된 직후 워싱톤의 련합 참모부 참모장인 뚜와이닝 장군은 뻔뻔스럽게도 다음과 같이 떠벌렸다: 《우리는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일은 전혀 없었다》(1960년 5월 20일부 《쁘라우다》 참조).

비록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군벌들은 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고위급 회의 전야인 1960년 5월 1일에 간첩 목적을 가진 군용 정찰기를 쏘련 령공에 침입시킴으로써 쏘련을 반대하는 직접적인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던 것이다. 이 도발 행위는 비단 고위급 회의를 파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조직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쏘련에 압력을 가하며 국제 정세를 흐리게 하고 세계를 《랭전》의 얼음으로 다시금 뒤덮으려는 목적도 추구했다.

이 사실은 대통령 아이젠하워와 국무장관 허터의 연설이 있은 후에 더욱더 명백하게 드러났다.

1960년 5월 5일 쏘련 최고 쏘베트 회의에서 한 엔. 에스. 흐루쑈브의 보고 및 쏘련 정부의 기타 조치들은 미국의 국가 지도자들에게 조성된 정세하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위신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던 것이다. 그들이 만일 4렬강 수뇌자 회의의 성과적 진행과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를 념원하였더라면 쏘련 경내로 정찰기를 침입시킨 도발 행위를 규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국제법의 기본적 원칙마저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군용기의 파견과 쏘련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는 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실시할 《국가 정책》이라고 성명하였다. 간첩 행위와 침략 행위 그리고 타국의 자주권에 대한 일찌기 류례 없는 침해는 미국 대외 정책의 로선으로 공인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고위급 회의는 평화 위업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없었다. 고위급 회의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 행동으로 인하여 파탄되고 말았다. 따라서 쏘련 정부는 인민들을 기만하는 공모자로 되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시기까지 고위급 회의를 연기할 필요성을 성명하였던 것이다. 쏘련 정부 수석 엔. 에스. 흐루쑈브가 파리에서 취한 단호하고 확고한 립장은 미국 통치 계층의 로골적인 침략적 대외 정책에 대한,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의 정당하고 마땅한 그리고 가장 실제적인 대답이였다.

미 군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국가적》인 것이라고 부름으로써 그것을 마치도 전 민족의 정책으로 내세우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면서도 미 군국주의자들은 미국 인민이 다른 나라 인민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인민들의 근본적 리해관계와는 하등의 인연도 없는 군수 산업 회사의 정책을 배척한다고 해서 나무라고 있다. 미국 자본가들 중에는 군수품 주문에서 어느 정도 치부하고 있으나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평화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매우 유력한 개별적 자본가들과 계층들도 있다. 이 계층들은 펜타곤의 행동을 로골적으로 규탄하여 나섰다.

전쟁 히스테리를 조장시키며 위싱톤의 독재에 무조건 복종할 것을 강요하는 미국의 침략 정책은 민족적 독립을 고수하려는 그리고 세계의 항구한 평화를 념원하는 자본주의 국가 인민들의 완강한 반항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계속 야기시키리라는 것을 념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의 국가 활동가들은 벌써 몇 년전에 미 제국주의 침략 계층이 지껄이던 쏘련에 대한 비방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그들이 쏘련 인민에게 준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자주권에 대한 위협은 더욱 엄중해졌다.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쏘련이 《대규모의 불의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건전한 사고력을 잃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쏘련이 불의 공격을 준비한다고 하는 이 미친 수작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미 제국주의자들은 히틀러 도배들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한때 히틀러 도배들은, 쏘련이 《침략을 선동하는 것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끼리 지껄이면서도 자기들의 강도적 침공을 《예방전》으로 묘사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자기의 교활한 기도를 은폐하며 쏘련을 중상하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쏘련의 평화 애호 정책을 말살할 수는 없다. 인민들과 근로 대중은 정부들의 정책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 행동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제반 사건들과 사실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을 적라라하게 폭로하고 있으며 쏘련의 숭고한 평화 애호적 역할이 가지는 권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쏘련의 수도에서는 공산주의 로동 브리가다와 공산주의 돌격대의 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경쟁 선구자들의 전 련맹 회의와, 창조적 활동 문제들을 토의하는 기타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의 수도들에서는 전쟁 계획을 토의하는 침략 블럭들의 회의가 련이어 진행되고 있다. 쏘련에서는 평화적 건설을 강화하며 기업소, 꼴호즈, 학교, 과학 기관들의 사업을 개선할 것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 나오고 있는데 서방에서는 군국주의자들과 복수주의자들이 웨치는 군비 경쟁에 대한 단말마적인 호소가 울려 나오고 있다.

로동자와 사무원들로부터 받는 세금의 폐지와 단축된 로동일에로의 이행을 1960년대에 완성할 데 관한 결정은 쏘베트 국가의 평화적 지향을 실증하여 준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미국 지배층들이 국제 정세를 격화시켜야 할 필요는 어디에 있는가?고. 그 원인은 이 계층들이 《평화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자들은 평화 력량이 승리하는 경우에 군비 경쟁에서 얻는 거액의 리윤을 상실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평화적 경쟁의 조건에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승리하게 될 것과 세계 사회주의 력량의 장성과 그의 성과가 드디어 세계 자본주의 체계를 파멸에로 이끌어 가게 되리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때문에 미 제국주의 반동 세력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1960년 5월 고위급 회의가 파탄되였을 때 평화의 원쑤들이 그처럼 기쁨을 감추지 못한 것은 우연하지 않다.

《더는 평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표제하에 1960년 5월 19일에 발표한 론설에서 미국 부르죠아 신문 《뉴욕 포스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전체 국민 경제의 견지에서 볼 때 파리 회의의 파탄은 공업…에 타격을 줄 군사비의 축소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위안>을 준다. 지금 시장의 견지에서 보면 <흡족한> 결과의 하나는 군수 산업과 밀접히 련결된 회사들이 그 어떤 시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아도 될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다는 데 있다》 (《쁘라우다》, 1960년 5월 21일부 참조).

례컨대 영국 국회 상원에서 한 단디 경의 연설은 평화의 원쑤들이 인류의 앞에서 어떠한 씻을 수 없는 엄중한 범죄 행위도 감행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 기념일인 1957년 11월 7일에 호전적인 단디 경은 반공산주의의 발작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폭언하였다. 즉 그 자신과 영국 및 미국에 있는 그의 동료들은 《핵 전쟁으로 인하여 반 남아 소각된 세계에서 살아 남은 자유로운 사람들의 일부가 어차피 모든 것을 새로이 건설하게 될 새 세계의 전망을, 우리들 모두가 공산주의의 압박하에서 노예처럼 살게 될 색다른 자유 세계보다 더 훌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The Parliamentary Debates, House of Lords, Fifth Series, vol. CCVI, London, 1958, PP. 172~173)는 것이다. 단디와 같은 자들이 공산주의의 면전에서 느끼고 있는 공포—이것은 사회의 전진적 발전에 대한 공포이며 력사의 론박할 수 없는 법칙 앞에서의 공포이다. 단디 경—이는 핵 전쟁에 대하여 그리고 자본주의의 영구화를 위하여 지구상 인구의 절반을 소멸할 것을 망상하는 미치광이다. 그는 한때 식인종의 노래를 자기의 사상적 무기로 삼았던 히틀러 도배들과 한 피'줄을 이은 자이다. 노래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 세계가 페허로 되겠으면 되라,
> 우리는 상관할 바 없네!

제 2차 대전 시기에 인민들은 파쑈의 야수성과 인간 증오 사상에 대한 인도주의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였었다. 제국주의의 침략 세력들은 또다시 인민들의 운명을 희롱하면서 뒤흔들리기 시작한 자기들의 처지를 만회해 보려고 타산하고 있다. 미국의 반동적인 지배 계급은 자기의 도발적인 침략 행위로 하여 인류를 반대하는 악독한 범죄를 감행하고 있는 평화의 원쑤로서 전 세계 사회 여론의 규탄을 받고 있다.

초보적인 인간적 량심마저 저버리고 있는 이 자들은 성실하고 공개적인 평화 애호 정책을 실시하는 쏘련을 비방하려 날뛰고 있다. 쏘베트 사회의 향도적 및 지도적 력량인 쏘련 공산당은 문'자 그대로 《우리 시대의 지혜, 영예, 량심》(웨. 이. 레닌)이다. 자기의 운명을 영원히 공산주의와 련결시키고 있는 수천만의 근로자들이 우리 시대의 이 영예와 량심과 당의 현명하고 정확한 정책을 고수하기 위하여 굳건히 서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의 령도하에서 공산주의의 휘황한 전물을 건설하고 있는 쏘련 사람들은 쏘련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모욕적인 행동을 용허할 수 없었던 것이다.

미국 정부는 쏘련에 압력을 가하며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려고 타산하면서 비밀리에 평화

를 반대하는 음모를 꾸며냈다. 미국 정부는 평화 력량을 약화시키며 국제 무대에서의 쏘련의 위신을 지락시키려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쏘련 정부와 그의 수석 엔. 에쓰. 흐루쑈브는 그들의 책동을 파탄시켰다. 엔. 에쓰. 흐루쑈브는 미국 정부의 제국주의적 정책을 폭로하였으며 이 정책의 완전한 파산상을 보여 주었다. 결과에 평화 력량은 강화되였으며 철저한 평화 투사인 쏘련의 위신은 전 세계 인민들의 면전에서 한층 더 높아졌다.

1960년 5월 파리에서 쏘련 정부 대표단이 취한 단호하고 견결한 립장은 전체 쏘련 인민의 지지를 받았다. 전국에서 진행된 수 많은 군중 집회들과 회의들에서 쏘련 사람들은 4렬강 수뇌자 회의를 파탄시킨 미제 침략 계층의 침략 행위를 저주로운 것이라고 락인하였으며 그리고 쏘련 정부 수석 엔. 에쓰. 흐루쑈브가 취한 립장을 열렬히 지지하였다. 고위급 회의를 파탄시킨 모든 책임과 온갖 저주로운 행위에 대한 책임은 바로 쏘련에 대한 배신적인 침략 정책을 선포한 자들에게 있다.

서부 독일 군국주의자 및 복수주의자들과 미국과의 동맹은 미국 대독점체들의 침략적 목적에 복무하고 있다. 서부 독일 군국주의자 및 복수주의자들의 정책은 과거에 두 번씩이나 독일을 민족적 파멸의 구렁텅이에 끌어 넣은, 독일 제국주의자들이 실시한 정책의 직접적인 연장이다.

두 세계 대전의 력사적 경험은, 군국주의 계층들이 독일을 또다시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명백히 말하여 준다.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것을 리해하고 있다. 유명한 미국 법률가인 티. 테일러 장군은 독일 군국주의자들의 범죄를 분석하면서 뉴른베르그 공판에서 한 자기의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만일 독일 군국주의가 다시 출현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나치즘의 비호하에 출현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독일 군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운명을 독일 군사력의 복구를 기대하는 그 어떤 인물이나 당의 운명과 련결시키게 될 것이다. 이들은 모든 것을 사전에 랭정하게 타산하고 있다. 그들은 어떠한 광신적인 사상이나 혐오한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 침략을 갈망하고 있는 이들은 독일의 력량과 그에 의한 테로를 보급하기 위하여 온갖 범죄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뉴른베르그 공판》, 자료집 제 2권, 모쓰크바, 국립 법률 출판사, 1955년, 885페지).

지난 년간의 행정은 이 경고가 아주 정확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경고는 전 독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동부 지역에서는 민주주의적이며 평화 애호적인 력량이 력사의 교훈들로부터 필요한 결론들을 내리였다. 여기에서는 인민들의 의사에 의하여 독일 력사에서 첫 로농 국가이며 평화 애호적인 사회주의적 국가이며 사회주의적 민족들의 위대한 대가정의 동등한 성원인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탄생하였다. 이 독일 국가는 복수주의 및 군국주의와 결정적으로 결렬하였으며 그와의 비타협적이며 원칙적인 공개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정책—이는 쏘련 및 기타 국가들과의 평화 및 친선의 정책이다.

구라파에서 미국의 주요 침략 기지로 전변된 서부 독일에서는 전혀 다른 정책, 랭정하게 복수주의 전쟁을 준비하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서부 독일에는 다시금 파씨즘의 추악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파쑈 국가의 후원과 그리고 구라파와 대양 건너편에 있는 그의 비호자들의 후원을 받아 1939～1945년 전쟁을 준비하고 도발한 바로 그 독점 계층들이 독일 련방 공화국에서 주권을 잡고 있으며, 독일 자본주의의 충직한 주구인 서부 독일 정부의 배후에 서 있다. 이 독점 계층들은 이전 파쑈 관리들과 장군들의 도움을 받아 자기의 군국주의 정책을 로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부 독일에서는 공산당이 금지 당하였으며, 민주 력량은 탄압을 받고 있으며, 평화의 지지자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다. 새로운 《동방 원정》,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침공, 독일 동부 국경의 재심의,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을 반대하는 전쟁을 호소하는 호전적인 연설들이 울려 나오고 있다. 서부 독일의 재군국화가 실시되였으며, 그의 군대는 원자 및 로케트 무기로 장비되고 있으며, 구라파의 다른 나라들에는 군사 기지가 설치되고 있는바 독일 군국주의자들은 제 2차 세계 대전의 경험에 기초하여 이 군사 기지들을 침략의 교두

보로 리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현 독일 제국주의는 제 2차 세계 대전을 야기시켰던 바와 같은 바로 그러한 길로 사태를 이끌어 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제 2차 세계 대전 발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영국, 불란서 및 미국의 자본주의 독점체들과 반동적 통치 계층이 파쑈 침략자들을 묵과해 주었고 자기 나라의 민족적 리익과 전반적 평화의 위업을 배반한 데 있었다. 현재 서부 독일의 침략 정책도 바로 그 제국주의 세력의 지지를 또다시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재생하는 독일 군국주의의 특별한 위험성은 바로 서부 독일 복수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발광적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새 세계 대전도 도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세계 인민들은 독일 파씨스트들이 파란을 무력 침공하기 위한 구실로 삼았던 히틀러 도당의 흉악한 날조 행위—독일 국경 도시에 대한 《파란 병사들》의 공격이 있었다고 하는 날조 행위—를 잊지 말아야 한다.

1940년 5월에 히틀러 도당은 화란과 벨기 항공대가 공격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으며 그리하여 이 중립국들에 대한 침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 자신이 독일 도시 후라이부르그에 대한 파렴치한 폭격을 감행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제 1권 220～221페지와 잡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1959년 제 9호를 참조할 것)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적다. 자기들의 평화적 동포들에게 파렴치하게 폭탄을 퍼부은 중폭격기 중대를 지휘한 것은 '요제프 캄무베르이다. 지금 이 전범자는 독일 련방 공화국에서 아주 중요한 직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독일 련방 공화국의 전체 공군을 지휘하고 있다. 독일 제국주의자들은 당시의 조건에서 자기들의 도시를 고의적으로 폭격하였던 것이니 지금 그들의 수중에 원자 무기가 쥐여진 조건하에서 독일 제국주의자들이 제 3차 세계 대전 도발을 기도하면서 그 어떤 보다더 교활한 도발 행위를 또다시 감행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누가 단보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자기들의 복수주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부 독일을 원자 전쟁 마당으로 전변시키며 수천만의 독일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위태롭게 하려 하고 있다.

제 2차 세계 대전 후의 년간에 평화 애호 인민들에게 유리하게끔 지구상에서는 거대한 력사적 전변들이 일어났다. 공산주의 건설과 국방력 강화에서의 쏘련의 거대한 성과,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형성과 강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로동 계급의 지반의 강화, 식민지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는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의 강력한 앙양—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더욱 격화시키였으며 국제 무대에서 력량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경시켰다. 오늘 평화 진영의 력량은 비할 바 없이 장성하였으며, 력량 대비에서의 우세가 평화 애호 국가들에로 더욱더 이행하고 있다.

국제 정세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들은 평화 옹호 투쟁에서 미증유의 전망을 열어 놓았다. 새로운 력사적 사실들을 심오히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일반화하며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쏘련 공산당 제 20차 대회는 현 시기 전쟁 방지의 가능성에 관한 중요한 리론적 명제를 제기하였으며 그 후 제 21차 대회는 지구상에서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기 전에도, 세계의 한 부분에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조건하에서도 세계 전쟁을 사회 생활에서 제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리론적 명제를 제기하였다.

쏘련은 이미 위대한 조국 전쟁 이전부터 레닌적인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제 2차 세계 대전 전야의 국제 관계들을 분석해 본다면 전쟁이 제국주의 침략 세력에 의해 준비되고 도발되였다는 것, 그런 조건하에서도 쏘련은 전쟁을 방지하며 침략자들을 집단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쏘련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준비한 전쟁의 위험을 반대하며 평화를 수호하는 투쟁에서 단독으로 싸웠다.

오늘에 와서는 거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강력한 쏘련, 10억 이상의 인구를 망라하고 있는 위대한 사회주의 진영,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 운동, 세계 각국에서의 광범하고 조직적인 평화 투사들의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평화 옹호 력량이 침략 세력 즉 군비 경쟁을 반대해 나서고 있는바 이 력량은 새 세계 전쟁 도발을 갈망하는 세력보다 훨씬 우세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평화, 군비 철페, 각이한 정치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의 정책이 오늘날 특히 확고하며 시종일관하다. 현 조건하에서 새 세계 전쟁을 방지할 가능성에 대한 쏘련 공산당 제 20차 및 제 21차 대회의 결정들은

유일하게 정당하며 확고하다. 쏘련 공산당 제 20차 및 제 21차 대회의 문헌들에 표시된 견해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공감을 받고 있으며 또한 1957년 11월에 모쓰크바에서 있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선언과 64개 당 대표들이 서명한 평화 선언과 같은 중요한 문헌들에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지지를 받았다. 모쓰크바 회의 선언은,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침략 전쟁의 지반은 계속 남아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현재 평화 력량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 가능성으로까지 장성하였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선언은 《현 시기의 조건하에서 쏘련 공산당 제 20차 대회의 결정들에 의하여 가일층 발전된 두 제도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레닌적 원칙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외 정책의 확고부동한 기초이며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의 믿음직한 기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평화적 공존의 방침이나 군비 철폐를 위한 투쟁을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에서 맑스-레닌주의적 립장으로부터 물러 서는 것으로 평가하는 일부 정치 활동가들의 경향과 그리고 현 조건하에서 새 세계 전쟁 방지의 가능성에 대한 쏘련 공산당 제 20차 및 제 21차 대회 결정들의 정당성에 불신임을 품게 하려는 지향은 잘못된 것이며 교조주의적이고 좌익-섹트주의적인 것으로밖에 평가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경향은 로동 계급의 창조적 가능성, 사회주의 진영의 력량과 위력에 대한 불신임 그리고 자본주의에 비한 거대한 우월성을 더욱더 확신성 있게 보여 주고 있는 사회주의의 위대한 견인력에 대한 과소 평가에 의해 산생된 것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은 청소하고 건전한 사회주의적 사회 제도가 자기 세대를 다 산, 쇠퇴하는 자본주의적 사회 제도와 평화적으로 경쟁하는 행정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당과 쏘련 정부는 새 세계 전쟁의 방지, 평화, 군비 철폐,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나라들 간의 공존을 위하여 앞으로도 시종일관 견결히 투쟁할 것이다.

쏘련은 평화적 공존에 대한 레닌적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평화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제국주의 반동의 도발적 음모를 경각성 있게 주시하고 있다. 쏘련 인민이 항상 견지하고 있는 고도의 혁명적 경각성의 의의는 현 조건하에서 특히 증대되였다. 엔. 에쓰. 흐루쑈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평화—이것은 사람들의 평온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평화가 실지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원쑤들이 만약 우리 나라나 혹은 사회주의 진영의 임의의 나라를 침공한다면 그 침략자에게 반격을 가하며 대응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평화의 전사들, 정당한 위업의 병사들이 항상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 (엔. 에쓰. 흐루쑈브, 로동자 사무원들의 세금 철폐와 쏘련 인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기타 조치들에 대하여. 모쓰크바, 정치 서적 출판사, 1960년, 87~88페지).

이것은 모든 력사적 경험이 가르치고 있으며 위대한 조국 전쟁의 경험과 파쑈즘에 대한 쏘련의 전 세계사적 승리의 경험이 가르치고 있다.

(쏘련 《꼼무니쓰트》 1960년 제 9호)

근 로 자 제 9호 (루계 178호)

편 집 위 원 회

발 행 소 • 근 로 자 사
발 행 • 1960년 9월 15일

인 쇄 소 •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인 쇄 • 1960년 9월 10일

ㄱ—31499

값 50전

조선 로동당의 혁명 전통

인민 무력의 조직과 강화 발전

4×6판, 예정 페지 50페지, 예정 값 10전,
발행 부수 100,000부, 발행 예정 9월

이 책은 영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확립된 인민 무력 건설에 관한 기본 원칙들 즉 인민 무력 조직에서의 계급적 원칙, 대원들에 대한 군사적 교육과 정치적 교양의 통일, 지휘관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 복종과 엄격한 군사 규률, 장비와 조직 형태 및 투쟁 방법의 부단한 개선과 발전, 군대의 건설과 활동에 있어서 공산당의 지도 원칙들이 서술되여 있다.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4×6판, 예정 페지 50페지, 예정 값 13전,
발행 부수 50,000부, 발행 예정 11월

이 책은 우리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배양하는 것이 자신을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기 위하여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흥미 있게 서술한 통속 서적이다.

책의 첫 부분에서는 우리 근로자들이 공산주의적으로 일하여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다음 부분에서는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생활에서의 많은 실례들을 들어 서술하였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근로자들이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살기 위하여서는 낡은 사상 잔재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 책은 김 일성 동지가 《공산주의 교양에 관하여》에서 중요하게 지적한 문제의 하나를 취급한 것인만큼 우리 근로자들은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할 것이다.

이상 서적들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

1960년 9월